

정책연구 2000-11

정책선거문화 조성을 위한 공약분석

- 제주지역 6.27·6.4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

2000. 12

제 주 발 전 연 구 원
Jeju Development Institute

정책연구 2000-11

정책선거문화 조성을 위한 공약분석

- 제주지역 6.27·6.4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

2000. 12.

연구책임 : 황 경 수 연구원(제주발전연구원)

제 주 발 전 연 구 원
Jeju Development Institute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모든 선거에서는 입후보자들이 공약사항을 제시하고 선거권자들로부터 지지를 얻으려고 한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입후보자들의 제시한 정책공약이 당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선거 입후보자들의 공약 중 어떠한 공약이 당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당선된 후보자들의 공약은 어떠했는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별로 혹은 선거종류별로, 시기별로 공약내용이 다른 경향성을 보이는지, 아니면 차이는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은 선거는 정책선거가 되어야 지방자치, 나아가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전제에서 설정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선거는 금권선거, 인물중심선거, 연고주의선거 등이란 비판을 받아 왔고, 최근에 이루어진 6.4지방선거도 그 행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진행될 선거가 정책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이상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 공약의 중요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과거 공약이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분석방법을 정교하게 설정하고 공약과 당선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그 내용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선거문화의 방향을 제시한다면 정책선거문화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므로써 이 연구에 따른 학술적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제주지역의 경우 선거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거공약이 크게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¹⁾ 그러나 이 조사에서 선거권자들이 후보자 선택에서 인물을 1순위, 선거공약을 2순위로 꼽고 있는 점은 희망적인 내용이다.

민주주의 정치과정의 핵심이 되고 있는 선거과정은 ① 유권자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정당과 후보자, ② 이들의 정책능력과 공약을 평가하여 공직자로 선출하는 유권자, 그리고 ③ 유권자의 표를 의석으로 전환시키는 선거제도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 이러한 틀로 보면 작

1)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도민 선거문화 의식조사연구,” 1997.12, p.73.

2) 이갑윤, 「한국의 선거와 지역주의」, 오름, 1998, p.20.

금의 선거과정과 행태는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유권자들이 정책능력과 공약위주로 후보자를 평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있다. 그리고 선거제도 또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도의원, 시·군의원,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별로 선거운동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도 많고, 또 동시 지방선거로 인해 기초의회의원과 같은 경우 공약사항이 쟁점화 되지 못하므로써 바람직한 정책선거에 나쁜 영향을 준다.

이러한 고민을 통해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공약을 당선과 관련하여 분석하고, 후보자들의 가지는 차별화된 변수들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를 분석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은 앞으로 선거권자나 후보자들을 정책중심의 선거로 유도하기 위한 단초로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실행되고 있다.

2. 연구 범위

연구의 범위는 6.27선거와 6.4선거로 한정했다.

○ 연설문 분석은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 가지 내용이나 후보자의 성향을 파악하기에 좋은 자료이다. 그러나 도지사의 경우 합동유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제도적으로 객관성을 담보받을 수 있는 자료인 공보물로 한정했다.

○ 공보물에는 4면과 8면 두 종류가 있다. 자치단체장의 경우 어느 공보물에 공약사항을 기재하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도지사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공보물의 경우 4면과 8면에 중복해서 발표한 경우가 있고, 하나의 공보물에서만 공약사항을 제시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두 개의 공보물 중 공약내용이 많이 들어 있는 어느 하나의 공보물 내용을 분석했다. 따라서 신문이나 기타 자료집에 제시되고 있는 정책들은 제외되었다.

○ 공보물에 제시하고 있는 공약내용과 관련없이 후보자가 주장하는 과거의 경험 등은 제외시켰다.

○ 공보물은 1995년 6.27 전국동시지방선거와 1998년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정했다.

3. 분석할 내용

본 연구에서 분석할 내용은 첫째, 당선자와 낙선자들의 학력, 나이, 정당, 정치·행정경력에 어떠한 경향성이 있는가를 찾는 것이다. 둘째, 선거별로 각 공약간의 분포가 어떠한가를 그림으로 경향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셋째, 학력, 나이, 정당, 정치·행정경력, 당선과 낙선에 따른 공약의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넷째, 득표율과 공약분야간의 상관관계는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다.

그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분석할 내용 >

- 당선자와 낙선자들의 학력 경향과 차이
- 당선자와 낙선자들의 나이 경향과 차이
- 당선자와 낙선자들의 정당 경향과 차이
- 당선자와 낙선자들의 정치·행정경력과 차이

- 각 공약의 분야별 분포

- 학력에 따른 공약의 분야별 분포와 차이
- 나이에 따른 공약의 분야별 분포와 차이
- 정당 경향에 따른 공약의 분야별 분포와 차이
- 정치·행정경력에 따른 공약의 분야별 분포와 차이
- 당선자와 낙선자의 공약의 분야별 차이

- 득표율과 공약 분야의 상관관계 분석

제2장 기존 연구

선거와 공약에 대한 분석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³⁾ 첫째는 공약분석을 유형별로 나누되 주관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비교분석이고, 둘째는 공약분석을 계량적이며, 객관적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계량분석이다.

우리 나라의 선거공약 분석의 경향은 주로 첫째 경향인 공약 내용들을 후보자와 분야별로 나누어서 그 내용의 차이를 주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면, 송근원의 제14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보건, 사회, 여성 분야의 공약을 비교 평가한 연구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⁴⁾ 그리고 이 장의 제14대 대통령선거시 정당간의 국방안보정책공약비교가 있다.⁵⁾ 이러한 연구는 계량적인 접근은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계량적인 분석은 송근원의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선거 아젠다⁶⁾의 크기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선거 아젠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각종 이슈의 종류, 이슈의 크기나 점유도, 이슈의 변화, 이슈의 주기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이슈에는 공약도 포함되지만 그외의 여러 가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 등을 포함하여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와 비교할 때 송근원의 여러 연구는⁷⁾ 공약의 수나 분야 등에 대해서 계량

3) 박승식은 덧붙여서 선거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정치학적 분석이론을 5가지로 제안하고 있다. 첫째, 敘述的 분석이다. 이 분석은 선거과정에 나타난 사실들을 발견하는데 크게 이용될 수 있다. 각 정당의 후보자 공천방법, 선거전략, 선거공약, 선거운동 등의 선거과정에 나타난 현상들을 서술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둘째, 說明的 분석이다. 서술적 분석을 설명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이다. 서술적 분석은 현상의 記述에 중점을 두는 반면, 설명적 분석은 현상의 因果關係를 밝히는데 주로 사용된다. 셋째, 豫測的 분석이다. 예측결과를 예측하는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넷째, 規範的 분석이다. 선거의 의의와 과정을 분석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규범적분석은 선거가 민주주의의 기본조건에 의해 실시되었는가를 분석하는데 도움을 준다. 다섯째, 處方的 분석이다. 선거제도나 선거과정에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분석방법이다.

박승식, 「선거분석의 이론과 실제」, 대영문화사, 1991, pp.20-24.

4) 송근원, “제14대 정책 공약의 비교평가 - 보건, 사회, 여성 분야,” 경성대학교 「논문집」 제15집 1권, 1994, pp.145-170.

5) 이 장, “14대 대통령선거 각 정당의 국방안보정책 공약에 대한 비교평가,”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5집, 1992, pp. 159-178.

6) 아젠다란 공공정책으로 전환되기 위하여 정책결정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논의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문제나 이슈 또는 그 해결대안들의 목록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공 아젠다(public agenda)란 일반 국민들에 의해 공공정책상의 문제로서 논의되는 의제(議題)들의 모음이다.

송근원, 「선거공약과 이슈전략」, 한울, 1992, p.13.

7) 송근원, “선거아젠다분석을 위한 기본틀,” 경성대학교, 「논문집」 제11집 3권, 1990, pp.333-350 ; 송근원, “대통령 선거아젠다 분석 - 제13대 대통령선거 이슈를

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선거를 분석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조문부·양영철·김성준은 “지방자치를 위한 선거행태에 관한 조사연구”를 통해서 지방의회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 오게 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 지방의회 의원의 바람직한 상(image)과 주민의 선거자세와 투표행태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⁸⁾ 선거 결과 중에는 과거의 선택에서는 관권선거, 폭력선거, 인연선거가 분명히 이루어졌음을 부인할 수가 없었다는 내용과 앞으로 실시할 지방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권력적, 금력적, 인연적 요소를 배제하고 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민주적이며 양심적이고 유능한 인재에 투표하겠다는 행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 지방선거와 TV토론”이라는 이문교의 연구는⁹⁾ TV토론이 선거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분석이다. 제주 KBS와 MBC방송국의 TV토론 횟수와 내용을 분석했고, 그에 따른 유권자들의 행태를 여론조사 결과와 언론의 자료들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는 여타 다른 요소 보다는 TV토론이 제주도지사 선거에서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도민의 선거행태에 대한 논문은 여러편이 있다.

“제주도민의 선거행태”라는 글에서¹⁰⁾ 정대연은 투표행위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1992년 제주시의 제14대 국회의원선거와 1995년 도지사선거를 중심으로 여론조사한 내용과 투표율을 가지고 분석하고 있다. 이 분석의 범주는 입후보자의 정당 배경, 정치에 대한 관심과 정치적 이데올로기, 인구통계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 입후보자와의 사회적 연결망, 입후보자의 정책, 경력 및 사람 됨됨이 등을 중심으로 당선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김석준은 “제주사회의 미래와 15대 총선”이라는 연구에서¹¹⁾ 제주도민의 무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제24집 제1호, 1990, pp.105-156 ; 송근원, “대통령 선거아젠다 분석 : 제14대 대통령선거 이슈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제28집 제1호, 1994, pp.205-236 ; 송근원, 「선거정치론」, 경성대학교 출판부, 1994.

8) 조문부·양영철·김성준, “지방자치를 위한 선거행태에 관한 조사연구-제주도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30집(인문·사회과학 편), 1990, pp.303-326.

9) 이문교, 「제주언론과 지방자치」, 제주문화, 1997, pp.31-57.

10) 정대연, “15대 총선과 제주 : 새로운 틀의 모색,” 제주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 「제주리뷰」 창간호, 1996, pp.12-20.

11) 김석준, “제주사회의 미래와 15대 총선,” 제주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 「제주리뷰」 창간호, 1996, pp.77-87.

소속 선호 경향과 친여적 투표행태 등을 사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갑윤의 「한국의 선거와 지역주의」라는 연구는 우리나라의 선거가 지역주의에 의해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지역주의가 어떻게 야기되었는지를 보다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분석 방법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일반적인 차이검정을 실시했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가 주로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정치적인 지역주의를 낳게 했다는 주장에서 벗어나, 지역민들의 투표행태, 정당과 정치인들의 권력경쟁, 국민의 지지를 의식으로 전환시키는 선거제도가 어떻게 상호작용함으로써 지역주의 선거연합¹²⁾이 형성·유지되며 변화하고 있는 가를 밝히고자 했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들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도의원, 시·군의원들의 공약을 계량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분석 자료에 대한 한계이다. 기존 연구들은 2차 자료인 신문 자료나 그외의 자료집을 이용해서 정책을 분석한 것이다. 반면 본 연구는 선거공보물에 나타난 공약을 가지고 분석을 했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 선거공보물에 나타난 공약을 중심으로 분석한 경우는 없다.

셋째, 기존 연구들은 선거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금권선거, 비방선거, 지역연고주의 선거 등의 문제에 주로 국한시키고 있다. 정책선거의 부재라고 하지만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단지 심정적인 주장에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마치 유권자가 정책에 관심이 없어서 정책선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논의하는가 하면 公約을 空約이라고 매도해버림으로써 정책선거를 오히려 부정적으로 유도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선거공보물이라는 구체적이며 1차적인 자료를 가지고 공약 내용을 과학적이고 계량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기존의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뚜렷이 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지역의 정책선거문화 유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12) 지역주의 선거연합이란 정당과 어느 특정지역민과의 연합이라 이해하면 될 것이다. 이갑윤, 「한국의 선거와 지역주의」, 오름, 1998, p.20.

제3장 6.27선거의 특징

1. 6.27선거 개요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된 1995년은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돌입하는 해라고 할 수 있다.¹³⁾

이미 1991년부터 지방의회가 구성됨으로써 지방자치시대는 막이 올랐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을 여전히 중앙정부가 임명함으로써 완전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가 없었다.

그러나 지방의회만을 직접선거로 구성하는 기형적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4년 만에 지방자치단체장도 직접선거로 선출하게 되자 도민들은 설레임과 기대속에 1995년을 맞았다.

당초 1992년에 예정되었던 광역·기초단체장 선거가 대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연기되는 등 진통을 겪은 끝에 맞는 선거였기 때문에 도민들의 기대는 더욱 컸다.

1995년 6월 27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도지사, 시장, 군수, 도의회의원, 시·군의회의원 등 지방자치 4대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데다 통합선거법에 따라 이미 1994년 12월 29일부터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가 금지됨으로써 선거는 사실상 시작된 상황이었다.

4대 지방선거 가운데 도민들의 관심사는 단연 도지사 선거에 집중됐으며 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집권여당인 민자당의 공천을 누가 받느냐는 것이 초반의 주요 이슈였다.

전·현직 지사와 전직 장관 등이 도민들의 입에 유력하게 거론됐고 특정인의 공천 약속 및 언질설이 제주사회에 나돌았다.

이 때문에 양정규 민자당 도지부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특정인 공천설을 부인해야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검찰은 3월 28일까지 민자당 공천 신청이 접수지던 친구 범지사를 이장단 여행비 지원·회수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신 지사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사직 사임을 공식 발표하고 탄압받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켜갔다.

13) 제주일보, 2000.1.29(6).

신 지사는 “어제(27일) 오후 중앙정부로부터 선거관리지사로 재직할 것을 제의받았으나 거절했다”며 “현 정부가 나를 사전 선거 운동 혐의로 입건한 상태에서 민자당 경선 참여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초 지방자치 경선 문제 등을 놓고 내분을 겪던 민자·민주양당은 지도체제의 내분을 마무리하고 후보 공천방식을 구체화하는 등 본격적으로 지방선거를 준비해 나갔다.

그 동안 정중동의 움직임이 보이던 출마 예상자들도 설 연휴를 이용해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으며 신정연휴 도민들이 모인 곳의 화제는 지방선거였다.

이처럼 선거전은 사실상 막이 올랐으나 여권은 행정구역 개편설을 터트리고 기초단체의 정당 공천 배제를 추진해 나간 반면 야당은 이에 강력히 반발, 대립하면서 정국은 혼미를 거듭했다.

중앙정치의 난맥상은 그대로 제주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더욱이 민자당이 시·도지사 선거를 하지 않고 시·도의회 의장이 시·도지사를 겸직하는 방안을 한 때 검토해 혼란을 초래했다.

기초자치단체 선거의 정당 공천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여야는 3월 14일 기초자치단체 의원은 정당 공천을 배제하되 단체장은 정당 공천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도 광역의회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제주지역은 3명의 비례대표 도의원을 확보하게 돼 도의원 정수는 17명에서 20명으로 늘었다.

여야가 통합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킴에 따라 각 후보 예정자 간에 공천을 둘러싼 1차 선거전이 본격화하면서 현직 군수 등 11명이 선거와 관련해 공직을 사퇴하는 등 제주지역은 선거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도지사 선거전에서는 민자당이 후보 경선을 실시하기로 한데 대해 강보성 전 의원이 자신에 대한 공천 내락을 뒤엎는 배신행위라고 반발하며 탈당함으로써 우근민 전 지사가 민자당 후보로 선출됐다.

또 민자당을 탈당한 강보성 전 의원이 민주당 공천 지사후보로 변신한 데다 4월 말 검찰에 의해 기소된 친구범 전 지사도 출마를 선언, 당초 민자당 공천 유력인사들간 치열한 2차 대결이 불가피했다.

4대 지방선거 입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제주지역에서는 모두 189명이 출사표를 던져 총평균 경쟁률은 2.6대1을 기록했다.

도의회 1개 선거구와 기초의회 7개 선거구에서는 경쟁자 없이 11명이 무투표 당선 되었다.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 후보들은 정당연설회, 개인연

설회, 합동연설회 등을 통해 소신을 피력하며, 15일간의 선거운동을 했다.

사상 최초로 치뤄지는 통합선거로 인해 도민들의 관심이 단체장 선거에 집중되면서 지방의회 의원 선거는 관심밖으로 밀려 후보들은 얼굴 알리기 조차 여의치 않아 고심해야 했다.

치열하게 전개된 선거전은 막판으로 갈수록 정책대결 보다 상대방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폭로전 양상으로 치달았다. 도지사후보 진영 대표자들이 흑색 선전 참가 등 맑고 밝은 선거문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으나 특정 후보의 여성 편력 문제, 재임시절 제주대 의대 반대 문제, 장관·국회의원 자리 제의를 통한 사퇴압력 여부 등 선거를 며칠 앞두고 폭로와 반박의 공방이 이어졌다.

더욱이 선거 과정에서 양측으로 나뉘어 평가르기식 보도, 공무원 출서기와 지역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제주사회는 모처럼 맞이하는 지방자치시대를 앞두고 분열의 양상을 띠었다.

2. 6.27선거 후보자 등록 상황

1) 6.27선거 정당별 후보자 등록 현황

6.27선거 후보자 등록 현황 중 정당별 후보자 등록에 대한 내용은 <표 3-2-1>에 제시하고 있다. 정당의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의원 및 자치단체장 정수는 25명인데 후보자 수는 70명이었다. 민주자유당의 공천은 20명이었던 반면 민주당의 공천은 9명이었고, 36명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표 3-2-1> 정당별 후보자 등록 현황

구분 선거명	의원 정수	후보 자수	민주자유당	민주당	무소속	비고
계	25	70	20	9	36	
도지사	1	4	1	1	2	
시장·군수	4	15	4	2	9	
지역구 도의원	17	46	15	6	25	
비례대표 도의원	3	5	3	2	-	

자료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1995.6.27)」, 1995, p.130.

도지사선거의 경우는 민주자유당과 민주당이 각각 후보를 내세웠으나 시장·군 후보에는 민주당은 2명의 후보만을 공천하였다. 지역구 도의원 후보자의 경우도 민주자유당은 15명을 출마시켰는데 민주당은 6명만을 공천했다. 반면 무소속은 25명 출마했다.

2) 6.27선거 직업별 후보자 등록 현황

직업별 후보자등록 상황은 <표 3-2-2>에 나타나고 있다. 시·군의원을 포함하여 후보자 수는 194명이었다. 직업별로 분류하면 농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후보자들이 가장 많았다. 무직도 20명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후보자가 많았다.

도지사 후보의 경우는 정당인이 2명이며 무직이 2명이었다. 시장·군수 후보는 농업인이 5명, 상업, 수산업이 각각 2명씩이다. 지역구 도의원 후보자들의 직업별 특성을 보면 농업이 10명, 상업 7명 순으로 많다. 비례대표 도의원의 경우는 상업 1인, 의사·약사가 2인이며, 기타가 1인이다. 시·군의원들의 직업은 농업이 가장 많아 44명이고, 그 다음으로 상업이 26명이다. 시·군의원 선거에 등록한 후보자들 중에는 주로 농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후보자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3-2-2> 직업별 후보자 등록 현황

선거명	구분 의원 정수	후보 자수	정치인		농 업	상 업	수 산 업	운 수 업	건 설 업	출 판 업	의사 · 약사	회 사 원	기 타	무 직	비 고
			정당	기타											
계	76	194	8		59	36	3	7	11	2	4	5	39	20	
도지사	1	4	2											2	
시장·군수	4	15	1		5	2	2						2	3	
지역구 도의원	17	46	3		10	7		2	3	2		1	13	5	
비례대표 도의원	3	5	1			1					2		1		
시·군의원	51	124	1		44	26	1	5	8	2	2	4	23	10	

자료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1995.6.27)」, 1995, p.126.

3) 6.27선거 학력별 후보자 등록 현황

6.27선거 후보자의 학력은 고졸이 81명으로 가장 많고, 고졸 이상이 94명이나 되었다. 도지사 후보의 경우는 대퇴가 1명, 대졸이 2명, 대학원 졸업도 1명으로 모두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시장·군수의 경우는 고졸과 대졸이 각각 5명이었으며, 대학원 졸업도 3명이다. 지역구 도의원 후보자 중에는 독학 1명, 중퇴 1명, 중졸 1명이 있다. 반면 비례대표 도의원의 경우는 후보자 5명 모두 대졸이다. 시·군의원 후보자의 경우 독학이 3명이며, 초등학교 졸업도 1명이 있다.

<표 3-2-3> 학력별 후보자 등록 현황

구분 선거명	의원 정수	후보 자수	독학	국졸	중퇴	중졸	고퇴	고졸	전문 대졸	대퇴	대졸	대학 원졸	비고
계	76	194	4	1	1	3	10	81	14	14	60	6	
도 지 사	1	4								1	2	1	
시 장 · 군 수	4	15						5		2	5	3	
지 역 구 도 의 원	17	46	1		1	1		18	2	3	19	1	
비례대표 도 의 원	3	5									5		
시 · 군 의 원	51	124	3	1		2	10	58	12	8	29	1	

자료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1995.6.27)」, 1995, p.126.

4) 6.27선거 연령별 후보자 등록 현황

연령별 등록 현황은 <표 3-2-4>에 나타나 있다.

연령별 후보자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도지사 후보자들은 모두 50세 이상이다. 시장·군수 후보의 경우 40세 미만이 1명이며, 45세에서 50세 사이의 연령도 1명이었다. 지역구 도의원의 경우 35세미만이 2명이며, 46명의 후보들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시·군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35세미만이 3명이고, 35세에서 40세에 해당하는 후보자들이 11명이며, 그 이외의 경우는 연령별로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표 3-2-4> 연령별·성별 후보자 등록 현황

구분 선거명	의원 정수	후보 자수	연령							성별		비고
			30~35 미만	35~40 미만	40~45 미만	45~50 미만	50~55 미만	55~60 미만	60이상	남	여	
계	76	194	5	15	33	34	34	47	26	192	2	
도지사	1	4					2		2	4		
시장·군수	4	15		1		1	2	5	6	15		
지역구 도의원	17	46	2	3	4	9	8	14	6	46	1	
비례대표 도의원	3	5			2				3	4	1	
시·군의원	51	124	3	11	27	24	22	28	9	123		

자료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1995.6.27)」, 1995, p.127.

3. 6.27선거 당선자 현황

6.27선거 결과 제주지역 투표율은 80.5%(전국 67.4%)로 전국 시도에서 가장 높았을 뿐만 아니라 1990년대 들어 도내에서 치러진 선거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해 4대 지방선거에 쏠린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반영했다.¹⁴⁾

가장 특징적인 것은 기초의회에 출마한 북제주군 의회 현역 의원들은 모두 재선의 영광을 누린 반면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으로 바뀌서 출마한 의원들은 낙선해 희비가 교차되기도 했다.

1) 6.27선거 정당별 당선자 현황

당선자들의 정당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3-3-1>과 같다.

도지사 선거에서는 무소속 신규범후보가 유효표의 39.7%인 11만 1천 205표를 획득해 민자당 우근민 후보(8만 9천표)보다 2만 2천여 표를 더 얻어 당선됐다.

제주시장 선거에서는 민자당 고민수 후보가 256표 차로 무소속 김창진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고 서귀포시장 선거에서는 무소속 오광협 후보가 당선됐다.

북제주군수 선거에서는 민자당 신철주 후보가, 남제주군수 선거에서는 민자당 강태훈 후보가 압승을 거두었다.

14) 제주일보, 2000.1.29(6).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군수 선거에서는 여당인 민주자유당 후보자 3명, 무소속 1명이 당선되었으며, 야당인 민주당은 당선자가 없었다. 이렇게 해서 제주도의 6.27선거에서는 야당인 민주당에서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한 명의 당선자도 배출하지 못했다.

17명을 뽑는 도의회 의원선거에서는 현역의원 5명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이 새 인물로 교체됐는데 민자당 7명, 민주당 2명, 무소속 8명이 선출됐다. 무소속이 8명으로 가장 많았다.

비례대표 도의원의 경우는 3명 중 민자당이 2명, 민주당이 1명 당선되었다.

<표 3-3-1> 정당별 당선자 현황

구 분 선거명	정 수	정 당 별			
		계	민주자유당	민주당	무 소 속
계	25	25	12	3	10
도 지 사	1	1			1
시장·군수	4	4	3		1
지 역 구 도 의 원	17	17	7	2	8
비례대표 도 의 원	3	3	2	1	

자료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1995.6.27)」, 1995, p.145
을 참고하여 수정.

2) 6.27선거 직업별 당선자 현황

<표 3-3-2>는 직업별로 당선자를 분석한 표이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는 부분적으로 오류가 있어 이 자료를 기초로 하여 확인 수정했다.

시장·군수 선거에서는 정당인 1명, 농업 1명, 기타 1명, 무직 1명이 당선되었다. 비례대표 도의원의 경우는 상업 1명과 의사·약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 2명이 당선되었다. 시·군의원의 경우 농업인이 22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상업 7명이다. 그 외의 직종은 골고루 있지만 수적인 측면에서는 작았다. 정치인 후보자는 시·군의원 후보자중에 1명 있었으나 당선자는 없다.

<표 3-3-2> 직업별 당선자 현황

선거명 \ 구분	계	정 치 인		농업	상업	수산업	운수업	건설업	출판업	의사·약사	회사원	기타	무직
		정당	기타										
계	76	2		26	11	1	2	4		3	1	18	2
도지사	1		1										1
시장·군수	4	1		1								1	1
지역구 도의원	17	1		3	3			1				5	
비례대표 도의원	3				1					2			
시·군의원	51			22	7	1	2	3		1	1	12	

자료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1995.6.27)」, 1995, p.139
을 자료로 수정함.

3) 6.27선거 학력별 당선자 현황

학력별 당선자 현황은 <표 3-3-3>에 나타나 있다. 시·군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후보자들이 당선되었다. 대학원을 졸업한 후보자는 시·군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도지사는 대퇴이상, 비례대표 도의원은 모두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표 3-3-3> 학력별 당선자 현황

선거명 \ 구분	계	독학	국졸	중퇴	중졸	고퇴	고졸	전문대졸	대퇴	대졸	대학원졸
도지사	1								1		
시장·군수	4						2		1	1	
지역구 도의원	17						7	1		9	
비례대표 도의원	3									3	
시·군의원	51	1	1			3	22	5	3	15	1

자료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1995.6.27)」, 1995, p.139.

4) 6.27선거 연령별·성별 당선자 현황

연령별·성별당선자 현황은 <표 3-3-4>에 나타나 있다. 지역구 도의원에 35세 이하의 후보자가 당선되었다. 이는 제주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박희수 후보로 두 번째 도전에서 최연소(33세)로 도의회에 입성했다. 시·군의원 당선자들은 연령별로 골고루 분포해 있다.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모두 51세이상 후보자들이 당선되었다.

성별로 보면 선출직은 100% 남성이다. 여성 1명은 비례대표 도의원으로 당선됐을 뿐이다.

<표 3-3-4> 연령별·성별 당선자 현황

구분 선거명	연령별								성별		
	계	35이하	36~40	41~45	46~50	51~55	56~60	61이상	계	남	여
계	76	1	5	14	15	18	14	9	76	75	1
도지사	1					1			1	1	
시장·군수	4					1	1	2	4	4	
지역구 도의원	17	1		2	4	2	6	2	17	17	
비례대표 도의원	3			1				2	3	2	1
시·군의원	51		5	11	11	14	7	3	1	51	

자료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1995.6.27)」, 1995, p.140.

제4장 6.4선거의 특징

1. 6.4선거 개요

1998년 6월 4일에 실시된 6.4선거의 의미는 1995년 이후 제1기 민선지방자치에 대한 평가적인 의미를 포함하여 시기적으로 대통령선거 이후 6개월 이내에 치러졌다는 점에서 현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적인 성격도 찾아볼 수 있다.¹⁵⁾

6.4지방선거는 전국적으로 매우 저조한 투표율을 나타냈다. 최종 투표율은 52.6%였고, 1995년 6.27 지방선거 투표율은 68.4%였으나, 1997년 대통령선거때의 투표율 80.7%에 비해 아주 낮은 편이다. 지역별로 볼 때 제주가 73.2%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이 43.2%로 가장 낮았다.

6.4선거시 제주도에에서의 쟁점은 민선 1기 자치단체의 공과(功過)로 모아졌다. 이 쟁점의 예는 국민회의 도지사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신구범지사가 경선에 불복하고, 출마하는 명분으로 국민회의 도지사 후보 경선과정에서 우근민후보가 신 지사의 실정(失政)을 비판하며 ‘경제청문회 실시를 주장하자’ 신 지사는 도민들로부터 3년간의 도정을 직접 심판 받겠다고 주장하며 출마를 선언한 것이 한 예이다.¹⁶⁾

5월 19일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도지사 후보 3명, 제주시장 후보 2명, 서귀포시장 후보 3명, 북제주군수 후보 2명, 남제주군수 후보 4명 등 모두 14명이 출마해 2.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6.4선거의 특징 중 하나는 1998년 4월 24일 타결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가 조정되었고, 그에 따라 선거구마다 의원 수가 줄어든 것이다. 제주도의 경우는 광역의회 의원인 경우 1995년 6.27지방선거에서 17명을 선출했으나 6.4지방선거에서는 14명으로 3명이 줄어들었고, 기초의원인 경우 51명에서 41명으로 10명이 줄어들었다.

14명을 뽑는 도의원선거에서는 38명이 입후보해 2.7대 1, 41명을 선출하는 기초의원 선거에는 87명이 등록해 2.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당별로 보면 정당공천이 가능한 자치단체장과 도의원 후보 52명 중 국민의회의 후보 17명, 한나라당 후보 11명, 자민련 2명, 국민신당 2명 등 당 공천자

15) 김남수, “6.4 제주지방선거의 특징 및 평가,” 「제주발전연구」 제2호, 1998, p. 123.

16) 제주일보, 2000.2.23(6).

가 32명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해 무소속의 퇴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도지사 선거전에서는 현 도정의 독선과 독단, 제주도 부채 증가, 도민주 방식의 컨벤션센터, 먹는 샘물의 적자, 감귤생산조정제 등 민선 1기 주요정책이 주요 이슈가 되었다.

또 21세기 제주 비전으로 신구범 후보는 자치권 확대와 국제자유도시를 골자로 하는 경제 특별자치구, 우근민 후보는 외국인 투자자유지역화를 통한 동북아 거점도시, 현임중 후보는 도민 통합을 토대로 한 창조적 제주공동체 건설을 내세웠다.

초기 선거전은 이처럼 정책대결이 중심을 이루었으나 중반전으로 갈수록 후보간 비방과 상대 후보의 약점을 공격하는 감정 대결로 치달아 사직당국에 맞고발하는 양상으로 변화해 갔다.

특히 경선 불복에 대한 도덕성 시비로부터 경주마 재산 증식, 아들 병역 시비, 특급호텔을 이용한 선거운동, 인격과 자질 공격 등 감정싸움 양상으로 치달아 선거 전에 약속했던 공명선거 다짐 서약을 무색케 했다.

또 도지사 선거전인 경우 합동연설회가 없음으로 해서 대규모 청중을 동원하는 식의 세 대결 양상으로 전개돼 선거문화를 거꾸로 돌려 놓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선거운동 결과 제주에서는 전국(평균 52.6%)에서 가장 높은 73.7%의 투표율을 나타낼 정도로 도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도지사 선거 결과 우 후보가 전체의 52.8%의 높은 지지를 얻어 30.8%에 그친 신 후보와 16.4%를 얻은 한나라당의 현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시장 선거에서는 제주시장과 행정부지사를 역임한 김태환 후보가 여당 공천으로 제주시장 선거에 나섰고, 도청 국장 재직시 좌천성 인사에 반발한 강상주가 무소속으로 서귀포시장 선거전에 뛰어들었으며 군의원과 도의원을 지낸 오승일이 한나라당 후보로 남제주군수 선거에 도전해 도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선거 결과 제주시장에는 국민의 김태환 후보가 60.7%를 얻어 39.3%에 머문 한나라당 고민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으며 서귀포시장에는 무소속 강상주 후보가 35.8%로 오광협 후보와 고시오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또 북제주군수에는 한나라당 신철주 후보가 62.8%로 여유있게 재선됐으며 남제주군수에도 국민의 강태훈 후보가 50%가까이 표를 얻어 재선됐다.

이와 함께 도의원 선거에서는 국민의가 선출직 14명중 8명을 당선시켜 한나라당 3명, 무소속 3명보다 많은 의원으로 도의회를 장악했다.

2. 6.4선거 후보자 등록 현황

6.4선거 후보자 및 당선자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1) 6.4선거 정당별 후보자 등록 현황

정당별 후보자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공천자가 22명이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14명이었으며, 국민신당은 2명, 무소속은 20명이다. 시·군의원을 포함할 경우 후보자는 모두 107명이다.

도지사후보는 한나라당 1명, 새정치국민회의 1명, 무소속 1명이 출마했다. 시장·군수 후보는 한나라당 3명, 새정치국민회의 4명, 국민신당 1명이며, 무소속이 3명이다. 지역구 도의원의 경우 한나라당 7명, 새정치국민회의 12명, 자민련 2명, 국민신당 1명, 무소속 16명이다. 비례대표 도의원은 한나라당에서 3명, 새정치국민회의에서 3명을 공천했다.

<표 4-2-1> 정당별 후보자 등록 현황

구분 선거명	의원 정수	후보 자수	한나라당	새정치 국민회의	자민련	국민신당	무소속	비고
계	63	145	14	20	2	2	107	
도지사	1	3	1	1			1	
시장·군수	4	11	3	4		1	3	
지역구 도의원	14	38	7	12	2	1	16	
비례대표 도의원	3	6	3	3				*
시·군의원	41	87					87	

주) * : 등록무효 새정치 국민회의1

자료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결과(1998.6.4)」, 1998, p.10.

2) 6.4선거 직업별 후보자 등록 현황

직업별 후보자 등록 현황은 <표 4-2-2>에 나타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에 종사하는 후보가 32명으로 가장 많고, 공무원이 그 다음으로 31명이다. 그 외 상업 19명, 정당인 13명으로 나타났다.

도지사 후보의 경우 정당인 2명, 공무원이 1명이고, 시장·군수 후보는 공무원 4명, 정당인 3명, 농업 1명, 기타 1명, 무직 2명이었다.

지역구 도의원 후보자들의 직업별 현황은 농업이 10명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이 공무원으로 9명이며, 상업 4명이다. 비례대표 도의원은 6명 모두 정당인이다.

시·군의원의 경우는 농업이 21명으로 가장 많고, 공무원이 17명이며 상업에 종사하는 후보자가 15명으로 나타났다.

<표 4-2-2> 직업별 후보자 등록 현황

선거명	구분	의원 정수	후보 자수	정치인		농 업	상 업	수 산 업	운 수 업	건 실 업	금 용 업	출 판 업	의사 · 약사	회 사 원	공 무 원	기 타	무 직	비고
				정당	기타													
계		63	145	13		32	19	2	2	6	1	5	2	2	31	28	2	
도지사		1	3	2											1			
시장·군수		4	11	3		1									4	1	2	
지역구 도의원		14	38	2		10	4		1	2		3	2		9	5		
비례대표 도의원		3	6	6														*
시·군의원		41	87			21	15	2	1	4	1	2		2	17	22		

주) * : 등록무효 새정치 국민회의 1명

자료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결과(1998.6.4)」, 1998, p.10.

3) 6.4선거 학력별 후보자 등록 현황

학력별 후보자 등록 현황은 <표 4-2-3>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고졸이 55명이고, 대학 중퇴를 포함 대학재학 이상이 75명이다. 전체 후보자 수 145명 중 절반 이상이 대학을 중퇴했거나 대학재학 이상이다.

도지사 후보의 경우 대학 중퇴가 1명, 대학원졸 1명, 대졸 1명이고, 시장·군수 후보자는 고졸이 5명이며, 대학중퇴 1명, 대학졸 4명, 대학원졸 1명이다.

지역구 도의원 후보의 경우는 대학졸이 17명으로 가장 많고, 중졸도 1명이다.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는 고졸이 3명이며, 그 이상 학력 소지자가 3명이다. 시·군의원 후보자는 고졸이 39명으로 가장 많다.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후보는 34명이다.

<표 4-2-3> 학력별 후보자 등록 현황

구분 선거명	의원 정수	후보 자수	독 학	국 졸	중 퇴	중 졸	고 퇴	고 졸	전문 대졸	대 퇴	대학 재학	대 졸	대학 원졸	대학원 수료	비고
계	63	145	3		2	4	6	55	13	10	1	40	10	1	
도지사	1	3								1		1	1		
시장·군수	4	11						5		1		4	1		
지역구 도의원	14	38				1		8	2	5		17	4	1	
비례대표 도의원	3	6						3		1	1		1		*
시·군의원	41	87	3		2	3	6	39	11	2		18	3		

주) * : 등록무효 새정치 국민회의 1명

자료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결과(1998.6.4)」, 1998, p.11.

4) 6.4선거 연령별·성별 후보자 등록 현황

연령별로 후보자 등록 현황을 정리한 내용은 <표 4-2-4>와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56-60세 그룹이 가장 많고, 31명의 후보가 56-60세 이다.

도지사 후보는 모두 51세 이상이며, 시장·군수 후보들은 40세 이상이다. 30세 이하의 후보자도 지역구 도의원으로 출마했다. 도의원 후보들의 연령별 분포는 30세 이하부터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시·군의원의 경우는 41-45세까지 그룹이 가장 많아 23명이다.

성별로 보면 선출직 후보 139명 중 138명이 남성이며, 여성은 1명의 후보자가 있을 뿐이다.

<표 4-2-4> 연령별·성별 후보자 등록 현황

구분 선거명	의원 정수	후보 자수	연령								성별		비고
			30이하	31~35	36~40	41~45	46~50	51~55	56~60	61이상	남	여	
계	63	145	1	3	13	28	30	26	31	13	142	3	
도지사	1	3						1	1	1	3		
시장·군수	4	11				2	1	1	4	3	11		
지역구 도의원	14	38	1	2	4	2	8	8	12	1	37	1	
비례대표 도의원	3	6				1	2		1	2	4	2	*
시·군의원	41	87		1	9	23	19	16	13	6	87		

주) * : 등록무효 새정치 국민회의 1명

자료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결과(1998.6.4)」, 1998, p.11.

3. 6.4선거 당선자 현황

1) 6.4선거 정당별 당선자 현황

당선자 현황을 정당별로 정리하면 <표 4-3-1>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당인 새정치 국민회의가 13명의 후보자를 당선시켰다. 국민회의 소속 당선자를 보면 도지사와 제주시장, 남제주군수가 당선되었다. 지역구 도의원의 경우는 14명 중 8명이 여당에서 당선됐고 비례대표 도의원에서는 2명이 당선되었다.

야당의 경우 자민련과 국민신당에서는 제주지역에서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반면, 야당인 한나라당에서는 북제주군수와 지역구 도의원 3명, 비례대표 도의원 1명이 당선되었다.

<표 4-3-1> 정당별 당선자 현황

구분 선거명	정수	정당별					
		계	한나라당	새정치 국민회의	자민련	국민신당	무소속
계	22	22	5	13			4
도지사	1	1		1			
시장·군수	4	4	1	2			1
지역구 도의원	14	14	3	8			3
비례대표 도의원	3	3	1	2			

자료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결과(1998.6.4)」, 1998, p.16.

2) 6.4선거 직업별 당선자 현황

<표 4-3-2>는 6.4선거시 직업별 당선자 현황을 정리한 표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인과 공무원 출신이 각각 18명씩 당선되었다. 그 다음이 상업 6명, 건설업 4명, 정당인과 운수업이 각각 2명순으로 당선되었다.

도지사 선거에서는 정당인이 당선되었으며, 시장·군수 선거에서는 공무원 출신 2명이 당선되었다. 그러나 경력상으로 보면 도지사와 시장·군수 모두 공무원 출신이 당선되었다. 또 공무원 출신은 시·군의원 후보자 가운데도 10명이나 당선되었다.

<표 4-3-2> 직업별 당선자 상황

선거명 \ 구분	계	정치인		농업	상업	수산업	운수업	건설업	출판업	의사·약사	회사원	공무원	기타	무직
		정당	기타											
계	63	2		13	6		2	4	1			18	16	1
도지사	1	1												
시장·군수	4											2	1	1
지역구 도의원	14	1		3			1	1	1			6	1	
비례대표 도의원	3			2									1	
시·군의원	41			8	6		1	3				10	13	

자료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결과(1998.6.4)」, 1998, p.16.

3) 6.4선거 학력별 당선자 현황

학력별 당선자 현황은 <표 4-3-3>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고졸이 24명으로 가장 많으며, 고졸 이하는 7명이다. 대학 중퇴이상의 학력자는 32명이다.

도지사의 경우는 대학원 졸업자이며, 시장·군수의 경우 고졸 2명, 대졸 1명, 대학원졸, 중졸이 각각 1명이다. 지역구 도의원 후보자 중 대졸 당선자가 가장 많아 6명이고, 고졸 3명, 중졸 1명이다.

반면, 시·군의원 당선자는 고졸이 가장 많은 18명이며, 대졸이 8명으로 그 다음 순이다.

<표 4-3-3> 학력별 당선자 현황

선거명 \ 구분	계	독학	국졸	중퇴	중졸	고퇴	고졸	전문대졸	대퇴	대졸	대학원졸
계	63	1			3	3	24	9	4	15	4
도지사	1										1
시장·군수	4						2			1	1
지역구 도의원	14				1		3	2	2	6	
비례대표 도의원	3						1		1		1
시·군의원	41	1			2	3	18	7	1	8	1

자료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결과(1998.6.4)」, 1998, p.17.

4) 6.4선거 연령별·성별 당선자 현황

연령별과 성별 당선자 현황은 <표 4-3-4>와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당선자의 연령층은 56-60세 그룹이 가장 많고, 시·군의원의 경우, 41-45세 그룹이 11명으로 가장 많다.

성별로 보면 비례대표 도의원 1명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남성이다.

<표 4-3-4> 연령별·성별 당선자 현황

구분 선거명	연령									성별		
	계	30이하	31~35	36~40	41~45	46~50	51~55	56~60	61이상	계	남	여
계	63		1	4	13	13	12	16	4	63	62	1
도지사	1						1			1	1	0
시장·군수	4				1			3		4	4	0
지역구 도의원	14			2	1	4	3	4		14	14	0
비례대표 도의원	3					1			2	3	2	1
시·군의원	41		1	2	11	8	8	9	2	41	41	0

자료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결과(1998.6.4)」, 1998, p.17.

제5장 6.27선거와 6.4선거의 선거제도 및 선거방법 비교

여기에서 선거제도 및 선거방법의 고찰은 6.27선거와 6.4선거시 적용되었던 선거제도와 방법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선거의 모범이 된 통합선거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¹⁷⁾

첫째, 선거운동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법에서 제한·금지하는 사항 이외에는 선거운동 방법에 제한이 없고, 법에서 제한·금지된 자 이외에는 모두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유권자와 후보자간의 접촉 기회가 확대되었다.

둘째, 적은 비용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선거공보·선전벽보·방송연설 비용 등을 국가나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선거운동기구와 유급선거사무관계자 수를 대폭 축소하였으며, 선거비용 제한액 축소·선거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 등과 같은 통제장치를 마련하였다.

셋째, 선거사범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벌칙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을 제한하는 한편,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연좌제를 확대하였고 후보자·정당의 중앙당에의 제정신청제를 도입하였다.

넷째, 선거관리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4종의 개별 선거법을 단일화하고 피선거권 및 선거 일정을 통일하고 선거 기간을 단축하였다.

다섯째, 기초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정당공천을 불허하는 이른바 정당공천분리제를 채택하였다.

여섯째, 광역자치단체의 의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다. 의원 정수의 10%를 정당 득표지율에 따라 배분하되 득표율에 관계없이 제 1당의 배분비율이 2/3를 넘지못하게 하였다.

일곱째, 이전까지는 선거일을 대통령이 공고하도록 하였던 것을 법으로 선거일을 정하여 별도의 공고절차 없이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 선거제도는 1998년에 실시된 6.4지방선거에서는 일부 변경되었다. 6.27선거와 6.4선거 제도를 선거관계법규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선거관련법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법’이라고 표기함), 공직선거관리규칙(‘규칙’이라고 표기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시행령(‘령’이라고 표기함)이다.

17) 이달곤, “과거 지방선거의 회고와 ‘98지방선거의 과제,”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주최, 제13차 지방자치 정책세미나 「건전한 지방선거문화의 정착방안」, 1998.3.5, p.96.

1. 지방의원의 정수 조정

광역의원의 선거구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자치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나누어진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구)마다 의원의 수를 3인에서 2인으로 축소하고, 지역구 광역의원의 정수 하한선은 14인(비례대표의원 포함 17인)으로 통일하였다.

□ 법 제22조(시·도의회 의원정수)

○ 6.4선거시 적용

- ①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는 그 관할구역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 의원지역선거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마다 2인으로 한다.(개정 1998. 4. 30)

○ 6.4선거 이전

- ①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는 그 관할구역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 의원지역선거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마다 3인으로 하되, 인구 30만을 넘는 자치구·시·군에 있어서는 30만을 넘는 때 20만까지 마다 1인을 더하고 인구가 7만미만이 되는 자치구·시·군은 2인으로 한다.

○ 6.4선거시 적용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와 군을 통합하여 농촌복합형태의 시로 한 경우에는 시·군 통합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 만료에 의한 시·도의회의원 선거에 한하여 당해 시의 도의회의원의 정수는 통합전의 시와 군마다 2인으로 한다.(개정 1998. 4. 30)

○ 6.4선거 이전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와 군을 통합하여 농촌복합형태의 시로 한 경우에는 시·군 통합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 만료에 의한 시·도의회의원 선거에 한하여 당해 시의 도의회의원의 정수 및 선거구는 통합전의 시와 군에 있어서의 도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에 의한다. 다만, 하나의 시·군이 분할하여 2이상의 시·군과 통합한 때에는 그 분할하여 통합되는 지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1인의 도의회의원을 선출한다.

○ 6.4선거시 적용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 정수가 14인미만이 되는 광역시 및 도는 그 정수를 14인으로 한다.(개정 1998. 4. 30)

○ 6.4선거 이전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 정수가 23인 미만이 되는 광역시는 그 정수를 23인으로 하고, 17인미만이 되는 도는 그 정수를 17인으로 한다.
-

기초의원 선거는 읍·면·동마다 1인을 선출하되 인구 5천명 미만의 동은 인접 읍·면·동과 선거구를 통합하여 선출하고 의원 정수 하한선을 7인으로 하였다.

□ 법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정수)

○ 6.4선거시 적용

- ① 자치구·시·군의 지방의회(이하 “자치구·시·군의회라 한다) 의원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읍·면·동[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제5항의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마다 1인으로 한다. 다만 인구 5천미만의 동(도서지역인 동을 제외한다)은 그 구역과 인접한 읍·면·동과 통합한다.(개정 1998. 4. 30)

○ 6.4선거 이전

- ① 자치구·시·군의 지방의회(이하 “자치구·시·군의회라 한다) 의원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읍·면·동[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제5항의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마다 1인으로 하되, 인구 2만을 넘는 읍·면·동에 있어서는 2만을 넘는 때 2만까지 마다 1인을 더한다.

○ 6.4선거시 적용

- ②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 정수가 7인 미만이 되는 때에는 그 정수를 7인으로 한다.(개정 1998. 4. 30)

○ 6.4선거 이전

- ②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 정수가 7인 미만이 되는 때에는 그 정수를 7인으로 하고, 45인을 넘는 때에는 그 정수를 45인으로 하되, 인구가 70만을 넘는 때에는 그 정수를 50인으로 한다. 다만, 자치구·시·군의 관할 구역안의 읍·면·동의 수가 45개(인구 70만 이하인 경우) 또는 50개(인구 70만을 넘는 경우)를 넘는 때에는 그 의원 정수는 인구수에 불구하고 읍·면·동마다 각 1인으로 한다.

□ 령 제2조(자치구·시·군의회위원의 선거구별 의원정수 산정방법)

○ 6.4선거시 적용

법 제23조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 정수가 7인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 선거구별 의원 정수는 7인에 미달되는 수에 자치구·시·군의 인구에 대한 각 선거구의 인구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수중 정수 부분이 있으면 그 정수 만큼 해당 선거구에 추가하고 소수점 이하 부분은 그 수가 큰 순으로 해당 자치구·시·군의회위원의 수가 7인에 달할 때까지 1인씩 그 선거구에 추가한다.(개정 1998. 4. 30)

○ 6.4선거 이전

- ① 법 제23조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정수가 7인 미만이 되는 경우 또는 인구 70만을 넘는 자치구·시·군의 의원 정수가 50인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 선거구별 의원 정수는 7인 또는 50인에 미달되는 수에 자치구·시·군의 인구에 대한 각 선거구의 인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수중 정수 부분이 있으면 그 정수 만큼 해당 선거구에 추가하고, 소수점 이하 부분은 그 수가 큰 순으로 1인씩 그 선거구에 각각 7인 또는 50인에 달할 때까지 추가한다.

- ② 법 제23조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 정수가 45인을 넘는 경우 또는 인구 70만을 넘는 자치구·시·군의 의원정수가 50인을 넘는 경우에는 그 선거구별 의원 정수는 의원 정수가 2인 이상인 선거구중에서 의원 정수 산정기준인 인구 매2만을 넘는 인구수가 적은 선거구순으로 각각 45인 또는 50인에 달할 때까지 1인씩 감한다.
-

2. 공무원의 입후보에 대한 규정

법률에 따르면 현직 단체장들은 1998년 6.4선거가 끝날 때까지 자신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즉, 시민위안잔치나 노인회관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 또는 모임 장소에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할 수 없으며, 어린이날, 입학, 졸업 축하 등의 명목으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학용품이나 선물을 주는 행위도 금지되었다.

이와 함께 교양강좌나 사업설명회, 체육대회, 민원상담 등 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개최해 온 각종 행사에 대해서도 엄격히 제한되었다.

교양강좌의 경우 1) 이용, 미용, 양재, 조리 등 가난한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직업교육, 2) 수영, 스케이트, 한문교실 등 통상적인 수강료를 받거나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취미 또는 교양강좌, 3) 서울시립대의 시민대학 등 교육법에 의해 지자체가 설립한 학교에서 개최하는 교양강좌, 4)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상적인 보건·미용체조 등을 지도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그러나 통상적인 수강료 보다 현저하게 싼 값 또는 무료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유적지 탐방 등 관광·선심성 강좌, 시민대학, 주부대학 등 행사성 교양강좌는 개최할 수 없다.

또 환경보호캠페인 등 긴급한 현안이 없는 홍보성·행사성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와 방송시설을 이용해 일반시책을 설명하거나 홍보영상물을 방영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체육대회도 정례적인 읍·면·동 단위 이상의 주민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배쟁탈 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사회단체 등이 개최하는 체육대회를 후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민원상담은 종합민원시 또는 사업단위부서에 민원담당관을 배치해 상담하는 행위는 허용되나 단체장의 순회 의료상담이나 진료 등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성·선심성 상담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청회도 시급한 현안과 관련,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만 개최할 수 있도록 제한

되며 지역개발 공청회나 지방자치제도 개선 공청회 등 긴급한 현안없이 공청회를 개최할 수 없다.

또 시민대토론회 등 직능·사회단체 등이 개최하는 학술·문화·예술 행사에 경비를 보조하는 행위나 시립교향악단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예술단이 특정 행사와 관계없이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공연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 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

○ 6.4선거시 적용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60일(전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1998.4.30>

○ 6.4선거 이전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전 90일(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일, 전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및 보궐 선거 등에 있어서는 후보자 등록신청전)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전 90일(전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및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후보자 등록 신청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4선거시 적용

- ①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개정 1995.12.30>

○ 6.4선거 이전

- ①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직원

○ 6.4선거시 적용

-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임기 중에 그 직을 사퇴하여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신설 1998.4.30>

3.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관계자 수

□ 법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임기)

- 6.4선거시 적용
 - ② 4.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선거사무소에 10인 이내<개정 1997.1.13, 1998.4.30>

 - 6.4선거 이전
 - ② 4.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선거사무소에 14인 이내<개정 1997.1.13>
 - ② 4.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선거사무소에 7인 이내

 - 6.4선거시 적용
 - ② 5.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선거사무소에 당해 시·도안의 구·시·군의 수(산정한 수가 20 미만인 때에는 20인) 이내<개정 1997.1.13>

 - 6.4선거 이전
 - ② 5.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선거사무소에 당해 시·도안의 구·시·군의 수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산정한 수가 10미만인 때에는 10인)이내

 - 6.4선거시 적용
 - ② 7.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
선거사무소에 5인 이내<개정 1997.1.13, 1998.4.30>

 - 6.4선거 이전
 - ② 7.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
선거사무소에 6인 이내<개정 1997.1.13>
 - ② 7.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
선거사무소에 3인 이내

 - 6.4선거시 적용
 - ⑥ 누구든지 인쇄물·시설물 기타 광고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를 모집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7.1.13>
-

4. 선전벽보

□ 법 제64조(선전벽보)

○ 6.4선거시 적용

- ①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전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제150조(투표용지의 후보자의 게재 순위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게재 순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경력(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다만,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에서 수학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 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전국구 국회의원 후보자 명단을, 지역구 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 시·도의원후보자명단을 포함한다)을 게재하여 등에 있어서는 인구 500인에 1매, 읍에 있어서는 인구 250인에 1매, 면에 있어서는 인구 100인에 1매의 비율을 한도로 작성·첨부한다. 다만, 등에 있어서는 인구 밀집 상태 및 첨부장소 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1천인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 6.4선거 이전

- ①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전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제150조(투표용지의 후보자의 게재 순위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게재 순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정당추천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경력(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다만,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에서 수학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전국구 국회의원 후보자 명단을,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시·도의원 후보자 명단을 포함한다)을 게재하여 등에 있어서는 인구 500인에 1매, 읍에 있어서는 인구 250인에 1매, 면에 있어서는 인구 100인에 1매의 비율을 한도로 작성·첨부한다. 다만, 등에 있어서는 인구 밀집 상태 및 첨부 장소 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1천인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1.14>

- ①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전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제150조(투표용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게재 순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정당추천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경력(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 학력 외의 공개강좌 기타 교육과정을 수학한 이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전국구 국회의원 후보자 명단을,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 시·도의원 후보자 명단을 포함한다)을 게재하여 읍과 등에 있어서는 인구 500인에 1매, 면에 있어서는 인구 200인에 1매(인구 100인이상 200인 미만의 자연부락이 있는 때에는 그 부락마다 1매로 한다)의 비율을 한도로 작성·첨부한다. 다만, 등에 있어서는 인구 밀집 상태 및 첨부 장소 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1천인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 ①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전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제150조(투표용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게재 순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정당추천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경력·정견 및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전국구 국회의원 후보자 명단을, 지역구 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 시·도의원 후보자 명단을 포함한다)을 게재하여 읍과 동에 있어서는 인구 500인에 1매, 면에 있어서는 인구 200인에 1매(인구 100인 이상 200인미만의 자연부락이 있는 때에는 그 부락마다 1매로 한다)의 비율을 한도로 작성·첨부한다. 다만, 동에 있어서는 인구 밀집 상태 및 첨부장소 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1천인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다.

5. 명함형 소형 인쇄물

명함형 소형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는 이를 배부할 때 사람을 동원하여 일당을 지급하는 등 탈법적 금전 제공의 요인이 되고 거리에 뿌려져 거리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개정하게 되었다. 또한 현수막 게시를 금지한 것은 교통신호를 가로막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홍보 효과에 비해 부작용이 많다는 이유와 4개 동시 지방선거에 따른 후보 홍보상의 혼란을 가져왔던 점을 개정 이유로 들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할 수 있는 인쇄홍보물 종류로는 선전벽보, 선거공보 및 책자형 소형인쇄물 1종만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는 선전벽보와 선거공보만이 가능하게 되었다.

□ 법 제66조(소형 인쇄물)

- 6.4선거시 적용
 - ① 3. 삭제<1998.4.30>
- 6.4선거 이전
 - ① 3.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
명함형 소형 인쇄물 1종<개정 1995.12.30>
 - ① 3.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
전단형 소형 인쇄물 및 명함형 소형 인쇄물 각 1종
- 6.4선거시 적용
 - ② 제1항의 “전단형 소형 인쇄물”이라 함은 길이 38센티미터 너비 27센티미터 이내 또는 길이 54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에서 1매(양면에 게재할 수 있다)로 작성하는 소형 인쇄물을, “책자형 소형 인쇄물”이라 함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에서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8면 이내로 작성하는 소형 인쇄물을 말한다. <개정 1998.4.30>
- 6.4선거 이전

- ② 제1항의 “전단형 소형 인쇄물”이라 함은 길이 38센티미터 너비 27센티미터 이내 또는 길이 54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에서 1매(양면에 게재할 수 있다)로 작성하는 소형 인쇄물을, “명함형 소형 인쇄물”이라 함은 길이 10센티미터 너비 6센티미터 이내에서 1매(양면에 게재할 수 있다)로 작성하는 소형 인쇄물을, “책자형 소형 인쇄물”이라 함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에서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8면 이내로 작성하는 소형 인쇄물을 말한다.

□ 규칙 제31조(소형인쇄물)

- 6.4선거시 적용
 - ② 삭 제<1998.4.30>
- 6.4선거 이전
 - ② 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작성·배부할 수 있는 명함형 소형인쇄물의 수량은 제2조(인구수 등의 통보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구의 기준을 현재의 20세 이상의 주민수의 2배수에 상당하는 매수 이내로 하되, 100미만의 단수는 100매(지역구 국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1천 미만의 단수는 1천매,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1미만의 단수는 1만매)로 한다. <개정 97.11.14>

6. TV매체 관련 내용

□ 법 제70조(방송광고)

- 6.4선거시 적용
 - ① 2. 삭 제<1998.4.30>
- 6.4선거 이전
 - ① 2. 시·도지사 선거
 - 제2항의 지역방송 시설 중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3회 이내. 다만, 방송광고를 시청할 수 없는 지역이 있어 다른 지역방송 시설을 이용하여 같은 내용을 동시에 광고하는 것은 이를 1회로 본다.

□ 법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 6.4선거시 적용
 - ① 3.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 후보자가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2회 이내<신설 1997.1.13, 개정 1998.4.30>
 - ① 5. 시·도지사선거
 - 후보자가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5회 이내<개정 1998.4.30>
 - ② 제70조(방송광고)제1항 후단 및 제8항의 규정은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4.30>

- 6.4선거 이전
 - ① 3.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지역방송시설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1회 10분 이내<신설 1997.1.13>
 - ① 5. 시·도지사선거
후보자가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1회
 - ② 제70조(방송광고)제1항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은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에 이를 준용한다.

□ 법 제73조(경력방송)

- 6.4선거시 적용
 - ① 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 선거·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 선거 운동기간 중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후보자마다 매회 2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연령·소속 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한다) 및 직업 기타 주요한 경력을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 선거가 아닌 선거에 있어서는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지역방송국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 ② 제1항의 경력방송 횟수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각 8회 이상으로, 국회의원 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각 2회 이상으로, 시·도지사 선거에 있어서는 각 3회 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7.11.14>
- 6.4선거 이전
 - ① 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 선거·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 선거 운동 기간 중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후보자마다 매회 1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연령·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한다) 및 직업 기타 주요한 경력을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 선거가 아닌 선거에 있어서는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지역방송국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력방송 횟수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각 6회 이상으로, 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각 2회 이상으로, 시·도지사 선거에 있어서는 각 3회 이상으로 한다.
- 6.4선거시 적용
 - ④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제12항의 규정은 경력방송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4.30>
- 6.4선거 이전
 - ④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11항의 규정은 경력방송에 이를 준용한다.

7. 연설회

도지사 후보의 연설회가 시군에서 3회까지 허용되던 것이 1회로 줄어들므로 썬 세몰이식의 옥외 집회는 줄어든 반면 거리유세는 무제한으로 허용됨에 따라 얼굴과 정견을 널리 알려 표심을 잡기위해 거리로 나섰다. 6.4선거에서는

거리유세 좋은 길목 잡기 경쟁이 치열했다.

□ 법 제77조(정당·후보자 등에 의한 연설회)

○ 6.4선거시 적용

① 4. 시·도지사 선거

1회 4시간 이내에서 당해 시·도안의 구·시·군 마다 1회
<개정 1998.4.30>

5.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1회 4시간이내에서 구·시·군 마다 2회 이내<개정 1998.4.30>

○ 6.4선거 이전

① 4. 시·도지사선거

1회 4시간 이내에서 당해 시·도안의 구·시·군 마다 3회 이내

5.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1회 4시간 이내에서 자치구·시·군마다 2회 이내

8. 컴퓨터 통신 선거운동

□ 법 제82조의3(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 6.4선거시 적용

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컴퓨터통신의 게시판·자료실 등 정보저장장치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여 선거구민이 열람하게 하거나, 대화방·토론실 등에 참여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누구든지 컴퓨터통신의 정보저장장치에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시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컴퓨터통신을 통한 해당 내용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전기통신사업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컴퓨터통신을 통한 해당 내용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와 해당 개인용 컴퓨터 이용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11.14]

□ 규칙 제45조의3(컴퓨터통신을 이용한 비방등의 신고등)

○ 6.4선거시 적용

- ① 법 제82조의3(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으로 하되 신고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와 컴퓨터 통신상의 게시장소 및 위반되는 내용과 그 위반내용을 게재한 자의 이용자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각급위원회는 그 신고된 내용이 법 제82조의 3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급위원회에 보고를 한 후 서면으로 그 위반내용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반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신고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는 각급위원회에 신고된 내용을 취합하여 일괄처리할 수 있다.
- ③ 법 제82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이의신청인의 성명·주소·직업·주민등록번호
 - 2. 이의신청내용
- ④ 중앙위원회는 제3항의 이의신청이 법 제82조의3제6항의 이의신청 기간을 지난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하고, 이의신청서에 제3항에 의한 기재사항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되었거나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이의신청인에게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법 같은 조 제4항의 요청을 철회하고 이의신청인 및 관계위원회에 그 처리결과를,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인 및 관계위원회에 그 뜻을 각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1.14]

9. 야간연설 제한

□ 법 제102조(야간연설 등의 제한)

○ 6.4선거시 적용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방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개최할 수 없으며,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장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1997.1.13>

○ 6.4선거 이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방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개최할 수 없으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1995.12.30>

○ 6.4선거 이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또는 대화·토론회(방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개최할 수 없다.

10. 축의·부의금품 상시 제한

□ 법 제117조의2(축의·부의금품 등의 상시 제한)

○ 6.4선거시 적용

① 2.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 외의 자의 관혼 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에서 경조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4.30>

3.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신설 1998.4.30>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및 제한기간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4.30>

[본조신설 1997.11.14]

○ 6.4선거 이전

① 2.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친족, 정당의 당직자 등 특정 대상과 금액 범위안에서의 행위와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및 제한기간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7.11.14]

11. 선거비용 제한액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1998년 5월 9일 6.4선거 후보자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발표했다.

도지사선거 비용 제한액은 2억 3천8 백만원으로 지난 '95년 6.27선거 당시의 제한액 2억 7천 4백만원 보다 3천 6백만원(13.1%) 감소했다.

시장·군수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6천 5백 50만원으로 지난 6.27선거 당시 4천 7백만원에 비해 1천 8백 50만원(39.4%)늘어났다.

시장·군수별로는 제주시장이 9천 8백만원, 서귀포시장 6천 6백만원, 북제주군수 5천 3백만원, 남제주군수 4천 5백만원 등이다.

비례대표 도의원의 제한액은 4천 1백 10만원으로 지난 6.27선거 2천 6백 15만원보다 1천 4백 95만원(57.2%) 증가했다.

도의원 선거의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2천 6백 65만원으로 제주시 제2선거구가 2천 7백 30만원으로 최고를 나타냈으며, 북제주군 제2선거구가 2천 6백 10만원으로 최저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의원 선거비용은 평균 1천 9백 43만원인 가운데 제주시 일도2동과 이도2동 선거구가 2천 4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추자면, 우도면, 천지동, 효돈동, 영천동 등 5개 선거구가 1천 9백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제6장 분석의 틀 및 코딩설계

1. 분석의 방법

본 연구의 주요 방법은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이다.

내용분석(content analysis)방법은 분석하려는 문헌, 서류, 연설문, 선전문 등을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내용을 이루고 있는 메시지들을 분류하거나 코딩하기 위한 일련의 범주(category)를 만들고, 그 메시지 안에 이 범주에 속하는 말이나 표현 등이 얼마나 자주 되풀이 되는가를 알아보는 방법이다.

이러한 내용분석은 연구 절차가 상호 주관적이고 명시적이어서 같은 연구 절차를 사용하면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계량화 과정을 거쳐서 분석하게 되므로써 사회과학연구방법론 중 상당히 ‘과학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설문지 조사와 같이 직접 대면하지 않는 비반응적(nonreactive) 자료수집 방법이므로 자료수집이나 조사 과정에서 응답자의 심리적인 편견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내용분석을 이용하는 분야는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분석자료의 특징들을 추리하는데 사용된다. 예를 들어 2개 이상의 정치단체들(예를 들면 새정치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이 발표한 메시지들이 서로 비교될 수 있다. 그리고, 선거운동 연설들이 전달하려는 대상지역에 따라 어떻게 달리 작성되었는가를 비교해 볼 수도 있다.¹⁸⁾ 둘째, 분석자료의 원인들을 추리하는 데 사용된다. 내용분석을 통해서 심리적 특징(개성, 태도, 동기 등)을 추리해 볼 수 있다. 셋째, 메시지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사용된다. 사회과학자들은 이 방법으로 선전, 선거운동 연설 및 매스미디어가 전하는 태도, 가치관, 행태 등에 대한 편향적인 보도의 효과를 연구하려고 한다. 정당별 분석은 물론 지역간 분석이 가능하고 공보물에 나타난 공약이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데 이 내용분석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 주 연구방법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내용분석의 방법상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3개의 중심과정으로 구성된다.¹⁹⁾

1) 분석의 카테고리를 정한다. 2) 분석의 단위를 결정한다. 3) 분석의 단위를 계량화한다.

18) 안영섭, 「사회과학방법론총설」, 법문사, 1996, p.393.

19) 정대연, 「사회과학방법론 사전」, 백의출판사, 1997, pp.128-130.

분석의 카테고리에는 두가지가 있다. 첫째, 내용의 실체에 관한 카테고리라, 둘째, 내용의 형식에 관한 카테고리이다. 본 연구에서는 내용의 실체에 관한 카테고리에 한정한다. 즉 내용의 주제를 분석하고 그 내용의 주제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에 주로 초점을 맞춘다.

분석의 단위는 단어(word)와 주제(theme)로 한다. 그 외에 인물, 단락, 항목 등이 사용되나 이러한 단위들은 방송의 프로그램이나 논문 등을 분석할 때 사용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제외시켰다. 단어는 내용분석에서 사용하는 가장 작은 단위이다. 단어를 분석 단위로 할 때는 분석하고자 하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가를 계산하여 각 단어의 상대적 빈도를 파악한다.

단어 다음의 큰 분석단위는 주제(theme)이다. 주제 중 가장 간단한 유형은 주어와 술어로만 되어 있는 단문이다. 즉 문단으로 된 경우는 문장별로 주제에 대해서 맥락을 고려해야 하나, 공약의 경우는 단문의 형태이면서 서로 독립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분석이 용이하다. 그리고, 하나의 공약에 대해서 문단으로 되어 있을 경우는 그 문단 자체를 하나의 주제로 파악하여 분석 단위로 선정했다.

분석 단위를 계량화하는 방법으로는 출현여부, 빈도체계, 시간-지면체계, 강도체계 등이 사용되나 여기서는 지면상에 나타나는 것이므로 시간이나 강도 체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출현여부와 빈도체계의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 출현여부와 빈도체계는 지면을 대상으로 할 경우 주로 나타난 빈도 수를 세고, 그 수를 가지고 분석하면 되는 것이다.

내용분석방법을 사용할 때 중요시해야 할 사항이 상호배타성(mutually exclusiveness)확보, 집합적 완전포괄성(collective exhaustiveness)확보, 타당성(validity)확보, 신뢰성(reliability) 확보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배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범주화 과정에서 분야별로 독립될 수 있도록 했으며, 중첩될 수 있는 범주는 합치는 방식을 택했다. 그리고 모든 내용은 모두 분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완전포괄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타 공약'이라는 내용을 넣으면 해결될 수 있다. 그렇지만 공약 분석에서 기타의 공약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간주되어 제외시켰다. 이 완전포괄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기타 공약'처럼 처리되지 않아 제시된 공약이 무용화되는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다.

타당성은 범주화된 내용과 그 의미가 같이 전달되면 그 범주화 작업은 타당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그 연구도 타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범주화된 단어와 그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 단어들을 <표 1>로 제시함으로써 타당성에 대한 논의를 해결하고자 한다.

내용분석에서의 신뢰도는 2명 이상이 코더(coder 또는 판정자)가 분석하여 그 의견이 일치하는 정도가 높으면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한다. 메리트 신뢰성 상관계수(CR : coefficient of reliability)라고 불리는 다음과 같은 단순 백분율합의지수(simple percentage agreement index)를 사용했다.²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검증을 하기 위하여 6.27선거에서는 178개의 공보물에 대해 분석한 결과 단어의 분석에서 91.9%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했다. 반면 6.4선거에서 128개의 공보물에 대해 분석한 결과 단어의 수 분석에서 95.4%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했다.

$$CR = \frac{2M}{M1 + M2}$$

여기에서

M : 2명의 코딩이 일치한 회수

M1 : 주 연구자의 코딩 수

M2 : 보조자의 코딩 수

이에 덧붙여, 본 연구에서는 모든 공보물을 관찰한 후 <표 1>를 작성하여 모든 범주들을 주의롭게 규정함²¹⁾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하려고 했다.

<표 6-1-1> 분석을 위한 단어의 범주화

<p><4.3문제></p> <p>4.3명예회복, 위령사업, 진상규명, 4.3위원회, 4.3학술문화사업, 4.3현장,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추모비 건립, 4.3특별법</p>

20) Richard Merrit, Symbols of American Community 1735-1775(New Haven, CT : Yale University Press, 1966) / 안영섭, 「사회과학방법론총설」, 법문사, 1996, p.402 / 이문교,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신문의 보도성향에 관한 연구-제주지방 일간지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9 참조.

21) 안영섭은 코딩을 1명이 수행할 경우에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모든 범주들을 주의롭게 규정하고 코딩담당자에게 기록장의 사용법을 잘 알려줌으로써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범주화 작업을 엄격히 하고 코딩작업을 직접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안영섭, 「사회과학방법론총설」, 법문사, 1996, p.405.

<정치·행정·재정>

선진형 지방경영(행정), 자치행정 구현, 작은 정부, 시정 연구, 자치단체, 야간의회, 공명선거, 경영수익사업, 봉사행정, 책임행정, 투명행정, 능력행정, 예방행정, 세무행정, 현장행정, 낭비행정, 줄속행정, 열린행정, 의료행정, 경영행정, 탁상행정, 행정참여, 권위주의 행정, 편파적 행정, 행정 편의주의, 행정감시, 의정 감시제도, 행정통제, 공직사회, 관공서, 공직자(공무원), 지방민주시대, 선거혁명, 줄속행정 풍토, 행정정보체제, 정보공개조례, 시정 개방, 의정보고회, 조례(정비), 재정자립도, 지방행정, 지방세, 과세표준, 재산보유과세, 행정서비스, 행정통제, 일반회계, 예산회계, 특별회계, 민원, 신문고 설치, 주민불편 신고센터, 참여자치, 정책개발, 도정, 도의원, 행정혁신, 보신주의, 자치마을, 정책·행정 실명제, 도민가사(평가)제 도입, 생활정부, 생활자치(연구소), 행정옴부즈맨, 인사위원회, 입도세, 제주테크노벨리

<1차 산업>

해외물산전, 농어촌지도사업, 농수축산, 환경농업, 유기농업, 해양수산물발전기금 조성, 어로작업, 어민, 농업, 농민, 농지, 영농보상제도, 농업용수, 원예단지조성, 채소단지, 영농자금 지원, 당근가공공장, 농업기술, 우수당근 종자 개발, 우량품종, 청정농산물생산단지, 개량목초 재배, 대체작물, 특작물, 종자 생산, 농경지, 일반작물, 근교농업, 수출농업, 농민후계자, 위탁농회사, 농업정보센터, 농산물 유통구조, 복지농촌, 농업용 지하수 개발, 농업 환경보호, 영농법인, 경지정리사업, 농기계수리센터, 농경생활, 품종개발, 양돈사업, 전업농, 농촌진흥원(지도소), 농공단지, 어촌종합개발, 농어촌발전계획, 축산농가, 축산진흥확대, 축산진흥책, 축산분뇨, 마을공동목장, 축산기술(시설), 축산시범단지, 농·축산물집산단지, 번식환경조장사업, 어항시설, 피해어선, 공동어장, 어업지도선, 어선, 바다목장화, 양식장, 해양자원, 노후·소형어선, 어민인력은행, 어선전용수리 조선서, 어류, 연안시장, 불법어로, 영농·영어유통조합법, 축산기반조성, 농번기, 농업기술개발, 농업기반시설, 선진농업기술, 과학영농지원

<감귤산업>

감귤복합가공산업, 적정생산화, 신기술·신품종, 최저가격보상제, 감귤과동, 감귤생산조정제, 감귤가공처리공장, 감귤진흥자금, 감귤차별화전략, 감귤농가, 파치감귤, 감귤보호육성, 감귤보호특별법, 감귤유통창구, 감귤복합공원, 감귤하품처리, 감귤연구사업, 감귤수출단지, 감귤생산유통사업, 감귤저온저장창고, 감귤수출단지, 감귤수입개방, 감귤축제, 감귤박물관, 감귤전문연구기관, 감귤산업보호

<지역(도시)경제·개발>

국제금융, 민영화, 개발사업, 세계자유무역지대, 금융자유지역화, 매설사업추진, 그린벨트문제, 실업기금, 도시계획, 취업기회 확충, 고용, 고용증대, 영세상공인, 상권, 중소기업, 지역경제 상담, 민자유치, 도시건설, 외자유치, 면세지역화, 중앙공원, 근린공원, 놀이터, 개발이익, 도시관리, 종합개발계획, 개발제한구역, 도민(주민)주체개발, 도시개발, 상여용도지구제도

<교육>

교육환경, 급식시설, 산학협동체계, 교육시설 및 기자재, 학교주변 환경정화, 유치원의 공교육화, 학교폭력, 학교 정화조 시설, 인재양성 기틀 마련, 육성, 인성교육, 장학금 지원(혜택), 교육재원(확보), 사회교육 프로그램, 교육개선특별위원회, 우수교원 확보, 어린이 지도 프로그램, 전문교육화, 전통교육, 교육여건, 교육도시화, 교육중심지역, 사회교육, 면학분위기, 교육예산, 교육문화센터, 교육문제, 청소년종합센터, 고등교육기관, 교육개혁(안). 산교육장, 권학장려

<사회·복지>

불우이웃돕기, 소년소녀가장, 청소년 선도, 선도위원회, 청소년 거리, 청소년 건전문화 활동 여건조성, 청소년 거리 조성,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위탁시설, 청소년 전용 놀이공간, 노인, 노인·저소득 취약계층, 노인 무료 급식, 노인 인력은행(실버은행), 실버타운, 노인 전문병원, 무료투약, 보건·의료 서비스, 건강관리수첩, 실버산업, 노후소득보장제도, 노후생활, 노인복지회관, 의료시설, 의료보험제도, 의료혜택, 노인학교, 노인정, 장애인복지, 재활치료기관, 주거환경, 근무환경, 야간 귀가길 가로등 시설(보안등), 방범활동, 방범대, 방범초소, 자율방범체계, 야간순찰, 치안문제, 다목적회관, 문화복지회관, 휴식공간, 취업정보센터, 주민편의, 생활보호제도, 보훈가족, 수돗물 불소화사업

<문화·예술·체육>

굿, 전통민족문화, 공동체문화(의식), 생활체육시설, 섬 올림픽, 꽃문화축제, 문예회관, 문화공간 확대, 문화프로그램, 향토문화센터, 문화예술동호회, 동·하계훈련장 건설, 여가선용의 장, 문화시설(공간), 놀이문화, 탐라문화권, 향토문화, 문화원, 종합체육관, 문화관광, 제주문화유적, 민족문화, 문화벨트, 여성문화공간, 스포츠 동호회, 축구대회, 경기장, 문화육구, 전통, 향토, 청소년 건전문화, 문화행사, 도시축제, 거리축제, 문화도시, 종합문화회관, 아시아 영화제

<여성>

맞벌이 부부, 시립탁아원, 보육시설,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 아동 양육, 자녀보육 사업자, 보육비 부담, 보육조례, 유아놀이기구, 여성위원회, 여성담당관제, 여성 권익신장, 여성발전기금, 퇴직여성, 여성취업정보센터, 여성발전계획, 여성문제, 여성상담소, 여성교양강좌, 여성지위, 여성 고용촉진, 여성인력은행, 여성교육센터,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여성직업훈련, 여성 문화교실

<관광>

체험·레저관광, 농·어촌복합휴양모델, 제주돌박물관, 관광수익, 낚시관광, 해상관광타운, 상업관광산업, 관광상품, 관광전략, 관광객, 노비자입국, 휴양시설, 관광진흥방안, 국제관광, 관광단지, 해양생태관광파크, 해양레저스포츠, 관광부조리, (국제)관광전원도시, 바다체험관광, 관광해양수족관, 관광개발, 관광농원, 관광목장, 천연관광자원, (체류형)관광, 숙박관광, 관광수입, 관광휴양도시, 관광휴양지구, 관광농업, 관광유람선, 동물원

<교통>

신공항, 국제항공노선, 대중교통, 자전거도로, 주차(건물)문제, 도로확장, 교통안전시설, 지하도 개설, 마을버스제, 순환버스, 버스노선, 시가지조성계획, 통행, 교통혼잡, 자전거, 터미널, 고속화도로망, 항구 확·포장, 보행자공간, 차량 증가, 안전대책, 소음대책, 승용차과속방지턱, 소방도로, 항공기 교통장애, 보도, 인도, 교통취약지역, 연장운행, 버스정류소, 주차전쟁, 교통 신호체계, 횡단보도, 신호등, 교통사고, 교통적체현상, 도시계획도로, 연안항만, 화물운송, 전원거리, 해안관광도로, 직선도로, 교통소통, 교통체증, 주차 전용빌딩, 차량 수, 교통환경, 도로 면적(폭), 폐차장, 교통순환도로, 건강도로, 기반도로, 교통문화, 관광도로, 교통편의, 교통불편, 통학버스운행, 통학 불편, 주차단속(방법),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지정

<정보>

상수도지리정보시스템(GIS), 텔리포트, 종합관광정보망, 첨단정보기술, P·C통신, 첨단정보기술센터, 행정정보시스템, 첨단교통체계(ITS), 초고속 행정정보망, 멀티미디어, 화상회의시스템, 지역정보문화센터, 농·어업정보화, 생활정보(데이터베이스), 정보기반시설, 종합행정정보, 정보, 정보망, 고급정보, 인간정보연구단

<환경>

광역하수종말처리장, 청정아일랜드, 청정에너지, 환경지표, 쓰레기분리수거(종량제), 쓰레기 소각기, 오름 관리, 지하수 보호, 지하수벨트, 상수원보호대책, 상수관 급·배수시설, 환경지향적 도시개발, 환경보전사업, 환경감시기능, 환경모범도시. 환경시설, 환경전문인력, 환경과괴시설, 환경기초시설, 환경관리공단, 환경보호, 환경영향평가제, 환경교육, 환경개선사업, 환경개선부담금, 환경연구소, 지역환경정보공개제도, 지역환경관리체계, 쓰레기매립장, 재활용 분리수거, 분뇨처리시설, 분뇨처리장, 오·폐수 처리대안(시설), 하수관망체계정비, 하수도, 식수원 보호, 수자원 정보관리 시스템, 정수시설, 수질검사, 환경영향평가제, 도시환경, 녹지공간, 생태섬, 자연환경, 해양문명, 그린제주, 해양(연안)오염, 오염경보체제, 개발 억제, 가로 환경, 위생환경(시설), 하천정비사업, 자연훼손 문제, 위생환경개선사업, 환경정비, 보존지역, 대기오염 조사, 농약 오염, 오염원 방지, 수질환경보전사업, 바다정화사업, 공해, 환경오염(관리), 오염물질, 수질환경사업소, 위생처리장, 지속가능한 개발, 지방의제 21

시간적 측면에서는 異時的(diachronic)인 분석을 했다. 이시적 분석은 시간의 변화에 따른 현상과 현상군들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발견하는 것으로 이러한 분석 작업을 통해 이해와 설명의 자료를 얻는 것이다.²²⁾ 이시적 분석은 과거의 선거와 분석대상으로 한 선거에 여러 변수를 설정하고 그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시적 분석을 함으로써 이미 시기적으로 다르게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5. 6.27선거)와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8. 6.4선거)간의 차이를 여러 가지 변수를 가지고 설명했다.

이슈별 분석을 위해서는 네가지의 항목을 설정했다.

첫째, 감귤정책에 대한 분석

둘째, 환경과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질적 분석

셋째, 교통정책에 대한 질적 분석

넷째, 구체적인 공약과 선언적 의미의 공약 분석

다음에 제시하는 각각의 표에 등간척도는 다음 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코딩 점수에 해당한다.

22) 박승식, 「선거분석의 이론과 실제」, 대영문화사, 1991, p.25.

<표 6-1-1> 감귤정책에 대한 이슈별 분석

분석목적	감귤정책에 대해 생산조정제와 같이 자치단체가 생산량을 강력히 통제하는 정책을 주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감귤농민들이 자율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하도록 하는 정책을 위주로 제시하고 있는지를 대비시키고자 하는 분석.				
대비항목	농민들의 자율에 맡기며, 자치단체는 재정 지원을 하는 정책	↔			생산조정제와 같이 관주도로 생산량을 통제하는 정책
등간척도	10	20	30	40	50
포함되는 요소	생산조정제 전면 폐지, 각 이별 선과시설 확충	생산조정제의 전면 재검토	내용 언급이 없거나 대립되지 않은 요소들	생산조정제 보완, 현지경매제 도입	합리적 생산조정제 추진, 비적정지 과수원 폐원 및 보상, 유통창구 단일화

주) 비교되는 내용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는 30점으로 처리

<표 6-1-2> 환경과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이슈별 분석

분석목적	환경보전위주의 정책을 제시했는지, 아니면 공유수면매립 등 경제성 위주 및 개발 위주의 정책에 대한 제시를 했는지 대비시키는 분석				
대비항목	환경보존위주의 정책	↔			개발위주의 정책
등간척도	10	20	30	40	50
포함되는 요소	하천복개반대, 생태하천을 위한 정책, 오름을 보전자원으로 지정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환경영향 재평가	내용 언급이 없거나 대립되지 않은 요소들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재조정, 자연보전형 해안도로 개설	공유수면매립 주장, 하천복개후 주차장 및 도로 사용,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주) 비교되는 내용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는 30점으로 처리

<표 6-1-3> 교통정책에 대한 이슈별 분석

분석목적	교통분야에서 교통시설공급위주의 정책을 펴면서 차량소통 위주의 정책을 폈는지에 대한 내용과 사고로부터의 안전이나 대중교통위주의 정책, 그리고 녹색교통위주의 정책을 폈는지에 대해 대비시키고자 하는 분석				
대비항목	교통시설공급위주 차량소통위주		↔	안전위주 대중교통수단위주 녹색교통위주	
등간척도	10	20	30	40	50
포함되는 요소	주요 간선 도로 4차선 확장, 순환도로 개설 해 안도로 개설	장기미집행 도로 중 소 방도로 3년 내 완료,	내용 언급 이 없거나 대립되지 않은 요소들	안전대책수 립, 자전거 전용도로개 설, 녹색교통	수요관리 우선정책으 로 전환, 대중교통 지원·육성, 학교 앞 안전 시설 확충

주) 비교되는 내용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는 30점으로 처리

<표 6-1-4> 구체적인 공약과 선언적 의미의 공약 분석

분석목적	공약 내용이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지적이며 예산수반이 가능하고, 단계적일지라도 단기적으로 가시화 할 수 있는 내용인가 아니면 단지 선언적 의미의 내용을 주장하는 내용인가를 대비시키는 분석				
대비항목	선언적 의미의 공약		↔	구체적이며, 예산이 수반 될 수 있거나 단기기간에 가시화할 수 있는 내용	
등간척도	10	20	30	40	50
구 분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이러한 사업이 되겠다 고 의지만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공약	분야에 대한 내용을 제시했지만 달성하기 어렵거나 일반 적 내용	분야는 구체적이고, 상대적인 정도 를 제시하여 달성하겠다고 한 공약	구체적이며 노력하면 단기적으로 가 시화할 수 있는 내용	구체적이며 예산이 수반 될 수 있는 공약

주) 비교되는 내용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는 30점으로 처리

2. 분석의 틀

이러한 과정을 참고하여 분석의 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분석의 틀

문제의 제기

- 정책선거가 되어야 한다.
- 공약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지금까지 선거에서 공약과 당선과의 관계가 있었는가?
- 당선된 사람들의 공약은 어떠한가?
- 지역별로 후보자들이 다른 공약을 제시했는가?
- 시기별로 공약내용은 어떠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을까?
- 선거별로 다른 공약이 나오는가?

모집단의 구성 대상

- 1995년 6.27지방선거
- 1998년 6.4 지방선거를 위해 배포된 선거공보물

범주화

- 공약분석을 위한 범주 : 4.3문제 관련 공약, 정치·행정·재정 관련 공약, 1차산업 관련 공약, 감귤 관련 공약,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공약, 교육 관련 공약, 사회·복지 관련 공약, 문화·예술·체육 관련 공약, 여성 관련 공약, 관광 관련 공약, 교통 관련 공약, 환경 관련 공약, 정보 관련 공약
- 단어분석을 위한 범주 : 공약분석을 위한 범주와 동일하나 그 내용은 별도로 제시.
- 이슈별 분석을 위한 범주 : 감귤정책, 환경과 지역개발 정책, 교통정책, 공약의 구체성

분석단위 확인과 결정

- 공약의 수와 단어를 단위로 분석함

표본설정

- 모집단 전부를 대상으로 함(단, 공보물을 제출하지 않은 후보에 대해서는 공약과 단어분석이 제외됨)

계량화 및 분석

- 개인별 코딩표를 만들어 작성한 후 코딩 처리
- 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차이검정, 상관관계분석 실시

3. 코딩설계 및 방법

코딩을 위해서 각 변수에 대해 점수화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코딩설계 시 추후에 있게 될 선거 공보물도 이 모형대로 코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형화하는데 관심을 가졌다.

학력과 나이별 분류는 선관위의 자료를 참고로 세분류된 항목을 모아서 중분류화 하였다.

무투표 당선된 후보자의 내용은 제외시켜서 Missing value처리했다. 무투표 당선자를 0으로 처리할 경우 양적 분석에서는 0점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 내용이 전체 평균과 통계량에 영향을 미치지 때문이다.

각 항목별로 계획한 코딩설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3-1. 후보자 이름

후보자 이름은 직접 기입한다. 그렇지만 통계처리에 적용하지는 않는다. 코딩의 편의를 위해서 적는 것이다.

3-2. 선거일과 내용별 :

1995년 6월 27일 실시한 선거와 1998년 6월 4일 실시한 선거 사이에 시간적 차이나 경향을 찾기 위해서 기록한다.

도의원과 시·군의원의 경우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후보자들은 동부지역과 서부지역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분리해서 코딩했다.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코딩은 다음과 같다.

<표 6-3-2-1>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선거일별과 선거 내용별 코드

코딩번호	선거일과 내용	코딩번호	선거일과 내용
111	도지사선거	120	남제주군 동부
112	제주시장	121	남제주군 서부
113	서귀포시장	122	시·군의원선거 제주시
114	북제주군수	123	서귀포시
115	남제주군수	124	북제주군 동부
116	도의원선거 제주시	125	북제주군 서부
117	서귀포시	126	남제주군 동부
118	북제주군 동부	127	남제주군 서부
119	북제주군 서부		

1998년 6월 4일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코딩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6-3-2-2>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선거일별과 선거내용별 코드

코딩번호	선거일과 내용	코딩번호	선거일과 내용
131	도지사선거	140	남제주군 동부
132	제주시장	141	남제주군 서부
133	서귀포시장	142	시·군의원선거 제주시
134	북제주군수	143	서귀포시
135	남제주군수	144	북제주군 동부
136	도의원선거 제주시	145	북제주군 서부
137	서귀포시	146	남제주군 동부
138	북제주군 동부	147	남제주군 서부
139	북제주군 서부		

3-3. 정당

여당과 야당, 무소속에 따른 차이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분류한 것이다. 여당과 야당, 무소속에 대한 코딩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6-3-3-1> 정당에 대한 코드

코딩번호	정당
1	여당
2	야당
3	무소속

3-4. 학력

6.27선거와 6.4선거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한 후보자 등록 상황과 당선자 상황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였다. 이것은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선관위에서는 항목별 내용을 세분화하여 발표했기 때문에 등록 상황이나 당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하나 공약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분류로는 적당하지 않아 새롭게 분류를 하였다. 따라서 학력별 분류와 나이별 분류의 기준은 다소 다를 수 있다.

학력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 새롭게 분류하였는데 정규과정 이외의 대학의 고급관리자과정 등은 최종학력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학력에 대한 코딩표는 다음과 같다.

<표 6-3-4-1> 학력에 대한 코드

코딩번호	학력
1	국졸, 국중퇴
2	중졸, 중중퇴
3	고졸, 고중퇴
4	대졸, 대중퇴
5	석(박)사재·졸

3-5. 나이

나이여부에 따른 공약내용의 차이나 경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분류하였다.

나이인 경우 6.27선거와 6.4선거의 경우 차이가 있어서 별도의 기준을 만들었다.

<표 6-3-5-1> 나이에 대한 코드

코딩번호	나이	6.27선거	6.4선거
1	40세이하	1956년이후	1959년 이후
2	41세부터 50세까지	1946년-1955년	1949년-1958년
3	51세부터 60세까지	1936년-1945년	1939년-1948년
4	61세 이상	1935년 이전	1938년 이전

3-6. 정치·행정경력

과거에 시·군의원, 시장·군수, 도지사, 국회의원 등 정치와 행정적인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그 중 최고경력을 중심으로 기재 코딩했다. 이들 정치·행정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간의 공약의 차이나 경향이 다른 내용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을 넣은 것은 앞으로 추가적인 분석이 있을 경우, 혹은 타지역과 비교분석을 할 경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변수에 포함시켰다.

<표 6-3-6-1> 정치·행정경력에 대한 코드

코딩번호	정치행정경력
1	시·군의원
2	도의원
3	시장·군수
4	도지사
5	국회의원
6	기타 공무원
7	정치행정경력 없음

3-7. 당선 여부

후보자가 당선되었는가, 낙선되었는가의 차이와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무투표 당선이 경우도 하나의 코드로 처리했다.

<표 6-3-7-1> 당선 여부에 대한 코드

코딩번호	정당
1	당선
2	낙선
3	무투표당선

3-8. 공약의 총수

공보물에 나타난 공약의 수 전체를 세어서 그 수를 코딩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공약의 수가 당선과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당선자와 낙선자의 집단과 공약의 수간의 관계를 크로스 체크하면 분석할 수 있다.

공약이 하나인 경우 01로 코딩하고, 공약이 23개인 경우는 23으로 적어 넣는 방법을 사용했다.

3-9. 공약의 수와 관련 단어의 수

공약의 수와 관련 단어의 수는 두자리 숫자로 코딩했다. 분야별 공약이 하나인 경우는 01로 코딩하고 분야별 공약이 23개인 경우는 23으로 코딩했다.

다음에 제시하는 항목들은 01……23과 같은 방법으로 코딩했다.

관련 단어의 수	공약의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3문제 관련 단어의 수 · 정치·행정·재정관련 단어의 수 · 1차산업 관련 단어의 수 · 감귤산업 관련 단어의 수 ·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단어의 수 · 교육 관련 단어의 수 · 사회·복지 관련 단어의 수 · 문화·예술·체육 관련 단어의 수 · 여성 관련 단어의 수 · 관광 관련 단어의 수 · 교통 관련 단어의 수 · 환경 관련 단어의 수 · 정보 관련 단어의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3문제 관련 공약의 수 · 정치·행정·재정관련 공약의 수 · 1차산업 관련 공약의 수 · 감귤산업 관련 공약의 수 ·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공약의 수 · 교육 관련 공약의 수 · 사회·복지 관련 공약의 수 · 문화·예술·체육관련 공약의 수 · 여성 관련 공약의 수 · 관광 관련 공약의 수 · 교통 관련 공약의 수 · 환경 관련 공약의 수 · 정보 관련 공약의 수

3-10. 공약 수와 단어 수의 비율

공약 수와 단어 수의 비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를 코딩했다. 분야별 공약 수나 분야별 단어 수가 전혀 없어서 해당 비율이 0인 경우 00.0으로 코딩하고 공약 수의 비율이 21.1%인 경우 21.1로 표시했다.

다음에 제시하는 항목들은 00.0과 같이 소숫점 이하 1자리까지의 비율을 적었다.

관련 단어 수 비율	공약 수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3문제 관련 단어 수 비율 · 정치·행정·재정 관련 단어 수 비율 · 1차산업 관련 단어 수 비율 · 감귤산업관련 단어 수 비율 ·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단어 수 비율 · 교육 관련 단어 수 비율 · 사회·복지 관련 단어 수 비율 · 문화·예술·체육 관련 단어 수 비율 · 여성 관련 단어 수 비율 · 관광 관련 단어 수 비율 · 교통 관련 단어 수 비율 · 환경 관련 단어 수 비율 · 정보 관련 단어 수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3문제 관련 공약 수 비율 · 정치·행정·재정 관련 공약 수 비율 · 1차산업 관련 공약 수 비율 · 감귤산업 관련 공약 수 비율 · 지역(도시)경제·개발관련 공약 수 비율 · 교육관련 공약 수 비율 · 사회·복지관련 공약 수 비율 · 문화·예술·체육 관련 공약 수 비율 · 여성관련 공약 수 비율 · 관광관련 공약 수 비율 · 교통관련 공약 수 비율 · 환경관련 공약 수 비율 · 정보관련 공약 수 비율

4. 코딩표

코딩 항목과 코딩 방법을 정한 후 코딩표(개인정보 및 data기록장)를 작성하였다.

신뢰도 분석을 위해 두 연구원간에 차이가 나는 단어 수를 매 코딩표 마다 작성하기 위하여 해당 란을 만들었다.

개인정보 및 data 기록장

후보자전체번호	이름	선거내용별
□□□□	□□□	□□□
정당	학력	나이
□	□	□
정치행정경력	당선여부	
□	□	

비율분석 분야	공약의 비율과 수	단어의 비율과 수
4.3문제	□□□□/□□	□□□□/□□
정치·행정·재정	□□□□/□□	□□□□/□□
1차산업	□□□□/□□	□□□□/□□
감골산업	□□□□/□□	□□□□/□□
지역(도시)경제·개발	□□□□/□□	□□□□/□□
교육	□□□□/□□	□□□□/□□
사회·복지	□□□□/□□	□□□□/□□
문화·예술·체육	□□□□/□□	□□□□/□□
여성	□□□□/□□	□□□□/□□
관광	□□□□/□□	□□□□/□□
교통	□□□□/□□	□□□□/□□
환경	□□□□/□□	□□□□/□□
정보	□□□□/□□	□□□□/□□
총계	□□	□□□
두 연구원간에 차이가 나는 단어수		□□
이슈별 분석	감골정책에 대한 분석 점수	□□□□
	환경과 지역개발에 대한 분석 점수	□□□□
	교통정책에 대한 분석 점수	□□□□
	공약의 구체성에 대한 분석 점수	□□□□

제7장 분석내용 정리 및 합의

1. 선거 실시 내용별 공약의 차이분석

1-1. 6.27선거 공약 분석

선거 실시 내용별 공약의 차이분석이란 1995년 6월 27일에 실시된 지방선거 내용 중 도지사 선거, 시·군자치단체장 선거, 도의원 선거, 시·군의원 선거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즉 도지사 선거 후보와 시·군자치단체장 선거 후보들간에 여러 분야에 대한 공약 내용이 다른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물론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다’ 혹은 ‘차이가 있다’라는 분석을 하고, 각 그룹별 평균 점수를 중심으로 차이를 살펴보게 된다.

선거 실시 내용별 분석을 위해 분류한 그룹은 17개의 집단이다. 도지사,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북제주군수, 남제주군수, 도의원 제주시, 서귀포시, 북군동부, 북군서부, 남군동부, 남군서부, 시·군의원 제주시, 서귀포시, 북군동부, 북군서부, 남군동부, 남군서부 등으로 나누었다.

□ 4·3문제 공약 분석

선거 실시 내용별 4.3문제와 관련하여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3) 4.3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공약 수’를 발표한 그룹은 북제주군수이며, 평균 0.60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도지사의 4.3문제 관련 ‘공약 수’는 평균 0.50개였으며,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남제주군수 후보자들은 ‘공약 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로는 4.3문제 관련 공약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원 후보들의 경우 남군서부에서 출마한 후보가 0.50개의 4.3문제 관련 공약을 발표해서 가장 많았고, 남군동부 후보가 0.20개, 북군서부가 0.14개의 4.3문제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시·군의원의 경우 4.3문제 관련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없다.

‘공약 수 비율’의 경우도 선거 실시 내용별 그룹간에 차이가 있다.(유의도 0.000) ‘공약 수 비율’에서는 남군서부 도의원 후보의 공약 비율이 가장 높아서 6.25%로 나타났으며, 북제주군수 후보의 경우 3.16%, 도의원 제주시 후보가 1.93%, 도지사 후보가 1.00%다.

<표 7-1-1-1> 4.3문제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분석

내용	빈도	공약수			공약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도지사	4	0.50	2.455	0.003	1.00	3.019	0.000
제주시장	3	0.00			0.00		
서귀시장	5	0.00			0.00		
북군수	5	0.60			3.16		
남군수	2	0.00			0.00		
도의원 제주시	18	0.33			1.93		
서귀	8	0.00			0.00		
북군동부	5	0.00			0.00		
북군서부	7	0.14			0.96		
남군동부	5	0.20			0.86		
남군서부	2	0.50			6.25		
시군의원 제주시	59	0.00			0.01		
서귀	35	0.00			0.00		
북군동부	7	0.00			0.00		
북군서부	8	0.00			0.00		
남군동부	5	0.00			0.00		
남군서부	-	-			-		
계	178	0.01			0.46		

선거 실시 내용별 4.3문제 관련하여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4) '단어수 비율'도 마찬가지로 선거 실시 내용별로 차이가 있다.(유의도 0.001)

4.3문제관련하여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단어 수'를 발표한 그룹은 남제주군 서부 도의원 후보들이다. 4.3문제 관련하여 평균 2.00개의 단어 수를 발표했다. 그 다음으로 북제주군수 후보가 평균 1개의 단어 수를 사용했으며, 제주시 도의원 후보들이 평균 1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도지사의 경우는 평균 0.50개의 단어 수를 사용했다.

4.3문제 관련한 내용의 비율 면에서는 남제주군서부 도의원 후보들이 가장

많아서 6.05%를 기록했다. 그 다음이 북제주군수 후보로 3.58%이고, 제주시
 도의원 후보들이 1.81%, 북제주군서부 도의원 후보들이 1.71%, 남군 동부 도
 의원 후보들이 1.62%로 나타났다.

<표 7-1-1-2> 4.3문제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분석

내용	빈도	단어수			단어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도지사	4	0.50	2.406	0.004	0.60	2.806	0.001
제주시장	3	0.00			0.00		
서귀시장	5	0.00			0.00		
북군수	5	1.00			3.58		
남군수	2	0.00			0.00		
도의원 제주시	18	1.00			1.81		
서귀	8	0.00			0.00		
북군동부	5	0.00			0.00		
북군서부	7	0.43			1.71		
남군동부	5	0.60			1.62		
남군서부	2	2.00			6.05		
시군의원 제주시	59	0.00			0.00		
서귀	35	0.00			0.00		
북군동부	7	0.00			0.00		
북군서부	8	0.00			0.00		
남군동부	5	0.00			0.00		
남군서부	-	-			-		
계	178	0.20			0.49		

□ 정치·행정·재정 관련 공약 분석

선거 실시 내용별 정치·행정·재정문제와 관련하여 ‘공약 수’를 비교한 결
 과 차이가 있었다.(유의도 0.000) 그러나 ‘공약 수 비율’에서는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683)

<표 7-1-1-3> 정치·행정·재정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분석

내용	빈도	공약수			공약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도지사	4	3.75	6.012	0.000	12.98	0.794	0.683
제주시장	3	2.33			8.70		
서귀시장	5	5.60			23.86		
북군수	5	5.60			14.28		
남군수	2	0.50			5.00		
도의원 제주시	18	1.06			9.08		
서귀	8	0.88			7.54		
북군동부	5	0.80			11.42		
북군서부	7	0.86			6.73		
남군동부	5	1.20			9.30		
남군서부	2	0.50			1.90		
시군의원 제주시	59	1.22			13.07		
서귀	35	0.71			8.04		
북군동부	7	1.71			14.41		
북군서부	8	1.00			12.53		
남군동부	5	0.40			5.84		
남군서부	-	-			-		
계	178	1.35			10.90		

정치·행정·재정문제와 관련하여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공약 수’를 발표한 그룹은 서귀포시장 후보들과 북군수 후보들이다. 공히 5.60개의 ‘공약 수’를 발표했다. 그 다음이 도지사 후보들로서 3.75개의 ‘공약 수’를 발표했고, 제주 시장 후보들은 평균 2.33개의 ‘공약수’를 발표했다. 대체로 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들의 경우 정치·행정·재정 관련 문제에 대한 ‘공약 수’를 발표한 반면, 광역의회의원이나 기초의회의원의 경우는 정치·행정·재정 관련 문제에 대한 공약을 적게 발표한 경향이 있다.

정치·행정·재정 관련 문제에 대한 ‘공약 수 비율’을 살펴보면 서귀포시장 후보들이 평균으로 점수가 높아 정치·행정·재정 관련 공약에 많은 비중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장 후보들의 정치·행정·재정 관련 평균 ‘공약

수 비율'은 23.86%이다. 이 연구에서는 공약을 13개의 분야로 나누어 연구했기 때문에 하나의 '공약 수의 비율'이 23.86%를 차지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크게 비중을 두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다음의 점수를 기록한 그룹은 북제주군동부 군의원 후보들이다. 정치·행정·재정 관련 공약을 14.41%정도 발표했다. 북제주군수 후보들이 '공약 수' 부분에서는 서귀포시장과 더불어 가장 많은 '공약 수'를 발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비율에서는 3위를 차지했다. 비율은 14.28%였다. 그 다음이 도지사 후보들로서 12.98%의 비율을 차지했으며, 북제주군서부 군의원 후보들의 경우 12.53%의 비율을 차지했다.

대체적으로 보았을 때 북제주군 지역의 후보들 즉, 북제주군수, 북제주군동서부 도의원 후보들, 북제주군동서부 군의원 후보들이 정치·행정·재정 관련한 공약에 비중을 많이 두었다. <표 7-1-1-3>에 나타나있지만 북제주군동부 도의원 후보들의 경우 여섯 번째로 높은 평균점수인 11.42%이다.

선거 실시 내용별 정치·행정·재정 문제와 관련하여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다.(유의도 0.000) 그러나 '단어 수 비율'에서는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다.(유의도 0.319)

정치·행정·재정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단어 수'를 발표한 그룹은 북제주군수 후보들이다. 평균 11.80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북제주군수 후보들은 두 번째 순위로 평균 10개의 단어를 사용했고, 제주시장 후보들은 8.67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많은 단어를 사용한 그룹은 도지사 후보들인데, 평균 6.75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따라서 정치·행정·재정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단어 수'를 발표한 그룹은 주로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임을 알 수 있다.

'단어 수 비율'면에서는 서귀포시장 후보들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서 24.28%를 보였다.

앞의 <표 7-1-1-3>에서 분석한 '공약 수 비율'에서 처럼 서귀포시장 후보의 경우 정치·행정·재정 관련 '단어 수 비율'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거의 공약의 1/4를 정치·행정·재정 관련 문제에 할애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면에서는 북제주군동부 도의원들이 16.28%의 단어를 정치·행정·재정에 관련된 문제에 배려했다. 그 다음 순위는 북제주군수 후보들로서 정치·행정·재정 관련 '단어 수 비율'이 15.72%로 나타났다. 도지사 후보들의 경우 '단어 수 비율'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7.08%를 차지했다.

<표 7-1-1-4> 정치·행정·재정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분석

내용	빈도	단어수			단어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도지사	4	6.75	5.563	0.000	7.08	1.147	0.319
제주시장	3	8.67			13.43		
서귀시장	5	10.00			24.28		
북군수	5	11.80			15.72		
남군수	2	1.50			12.50		
도의원 제주시	18	3.61			8.30		
서귀	8	1.50			4.70		
북군동부	5	1.20			16.28		
북군서부	7	1.14			4.20		
남군동부	5	3.00			8.76		
남군서부	2	1.00			2.60		
시군의원 제주시	59	2.51			12.92		
서귀	35	1.89			9.04		
북군동부	7	1.43			7.36		
북군서부	8	3.25			10.66		
남군동부	5	0.40			2.86		
남군서부	-	-			-		
계	178	2.95			10.51		

□ 1차산업 관련 공약 분석

선거 실시 내용별 1차산업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공약 수 비율’에서도 차이가 있다.(유의도 0.000)

1차산업 관련 ‘공약 수’를 평균으로 가장 많이 제시한 그룹은 북제주군수 후보들이다. 1차산업 관련 공약을 평균 8개씩 발표했다. 그 다음에는 남제주군서부 도의원 후보들이 평균 5.50개, 남제주군동부 도의원 후보들이 평균 3.40개의 1차산업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북제주군동부 도의원 후보들의 경우는 평균 3.40개, 서귀포시장 후보는 평균 3.00개의 공약을 발표하여 그 다음 순이 되었다.

<표 7-1-1-5> 1차산업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분석

내용	빈도	공약수			공약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도지사	4	2.00	5.828	0.000	4.33	4.927	0.000
제주시장	3	2.00			6.57		
서귀시장	5	3.00			8.50		
북군수	5	8.00			19.86		
남군수	2	2.00			14.40		
도의원 제주시	18	1.06			7.22		
서귀	8	1.75			9.45		
북군동부	5	3.40			31.44		
북군서부	7	1.57			12.26		
남군동부	5	3.60			15.68		
남군서부	2	5.50			38.50		
시군의원 제주시	59	0.64			5.35		
서귀	35	0.80			8.11		
북군동부	7	2.14			22.56		
북군서부	8	2.63			18.56		
남군동부	5	2.40			22.22		
남군서부	-	-			-		
계	178	1.56			10.27		

1차산업 ‘공약 수 비율’에서는 ‘공약 수’분석에서와는 다르게 남제주군서부 도의원 후보들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전체 공약수 중 1차산업 관련 ‘공약 수 비율’이 38.50%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공약 수’의 1/3이상이 되는 것으로 남제주군서부 도의원 후보들이 1차산업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제주군동부 도의원 후보들인 경우는 31.44%, 그 다음이 북제주군동부 군의원 후보 22.56%, 남제주군동부 군의원 후보 22.22%순으로 나타났다.

선거 실시 내용별 1차산업과 관련하여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나타났다.(유의도 0.000) ‘단어 수 비율’에서도 차이가 있다.(유의도 0.000)

1차산업과 관련한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그룹은 북제주군수 후보들이다. 평균 18.40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그 다음이 남제주군서부 도의원 후보가 평균

13.00개의 단어, 북제주군동부 군의원 후보 평균 8.71개의 단어를 사용했고, 남제주동부 도의원 후보들은 평균 7.60개의 단어를 사용하였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지역별로 보면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의 경우 1차산업 관련 단어 사용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경우보다 많은 점이다.

1차산업 관련 ‘단어 수 비율’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남제주군서부 도의원 후보들이 평균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 35.75%를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는 북제주군동부 군의원 후보들이 1차산업에 대한 단어에 비중을 많이 두었는데 35.33%이다. 이는 전체 공약 수에 사용된 단어 중 1/3이상을 1차산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다. 다음 순위는 북제주군동부 도의원 후보 26.48%이다. 북제주군서부 군의원의 경우 22.10%를 차지했다. ‘단어 수’분석에서와 비슷하게 주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지역 후보들이 1차산업과 관련하여 단어를 많이 사용하였다.

<표 7-1-1-6> 1차산업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분석

내용	빈도	단어수			단어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도지사	4	4.50	6.243	0.000	4.98	5.163	0.000
제주시장	3	4.00			6.03		
서귀시장	5	4.80			9.24		
북군수	5	18.40			17.82		
남군수	2	7.00			14.45		
도의원 제주시	18	3.44			8.26		
서귀	8	4.50			11.90		
북군동부	5	4.00			26.48		
북군서부	7	3.29			14.41		
남군동부	5	7.60			17.68		
남군서부	2	13.00			35.75		
시군의원 제주시	59	1.56			6.20		
서귀	35	2.00			9.99		
북군동부	7	8.71			35.33		
북군서부	8	6.88			22.10		
남군동부	5	4.60			19.38		
남군서부	-	-			-		
계	178	3.74			11.66		

□ 감귤 관련 공약 분석

선거 실시 내용별 감귤산업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나타났다.(유의도 0.000) ‘공약 수 비율’에서도 차이가 있다.(유의도 0.036)

선거 실시 내용별로 감귤산업 관련 ‘공약 수’를 분석한 결과 서귀포시장 후보가 평균 3개의 공약을 제시해서 감귤산업 관련 공약비율이 높고 그 다음이 도지사 후보들로서 평균 1.25개, 남제주군수 후보가 평균 1개의 감귤산업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 수 비율’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남제주군수 후보들의 공약 비율이 가장 높은 8.15%이고, 그 다음이 서귀포시장 후보 5.54%이다. 남제주군동부도의원 후보는 5.52%, 서귀포 도의원 후보들은 5.31%이다. 주로 서귀포지역 후보들이 감귤문제 관련 ‘공약 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7-1-1-7> 감귤산업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분석

내용	빈도	공약수			공약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도지사	4	1.25	4.943	0.000	2.80	1.818	0.036
제주시장	3	0.33			0.97		
서귀시장	5	3.00			5.54		
북군수	5	0.40			0.86		
남군수	2	1.00			8.15		
도의원 제주시	18	0.17			1.29		
서귀	8	0.63			5.31		
북군동부	5	0.20			1.66		
북군서부	7	0.14			0.71		
남군동부	5	0.60			5.52		
남군서부	2	0.50			1.90		
시군의원 제주시	59	0.01			0.52		
서귀	35	0.29			2.87		
북군동부	7	0.00			0.00		
북군서부	8	0.38			2.50		
남군동부	5	0.40			3.22		
남군서부	-	-			-		
계	178	0.32			1.91		

선거 실시 내용별 감귤산업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단어 수 비율’에서도 차이가 있다.(유의도 0.000)

선거 실시 내용별 감귤산업 관련 ‘단어 수’를 분석한 결과 남제주군수 후보들이 평균으로 3.5개의 단어를 사용하여 가장 많이 사용했다. 다음은 서귀포시장 후보가 평균 3.2개, 도지사 후보 2.25개, 남제주군동부 도의원 후보, 평균 2.2개의 순으로 사용했다.

<표 7-1-1-8> 감귤산업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분석

내용	빈도	단어수			단어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도지사	4	2.25	4.317	0.000	2.35	2.931	0.000
제주시장	3	1.33			2.10		
서귀시장	5	3.20			5.06		
북군수	5	1.00			1.10		
남군수	2	3.50			8.90		
도의원 제주시	18	0.56			1.71		
서귀	8	1.88			6.53		
북군동부	5	0.40			3.16		
북군서부	7	0.14			0.46		
남군동부	5	2.20			6.78		
남군서부	2	0.50			1.10		
시군의원 제주시	59	0.20			0.71		
서귀	35	0.66			2.87		
북군동부	7	0.00			0.00		
북군서부	8	0.88			2.85		
남군동부	5	0.60			2.82		
남군서부	-	-			-		
계	178	0.71			2.14		

감귤산업 관련 ‘단어 수 비율’은 ‘단어 수’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남제주군수 후보들이 8.9%를 차지해 가장 높다. 1/10정도는 감귤산업 관련 단어를 사용한 셈이다. 다음은 남제주군동부 도의원 후보가 평균 6.78%, 서귀포지역 도의원 후보 6.53%, 서귀포시장 후보 5.06%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남제주군지역과 서귀포지역 후보들이 감귤산업 관련 단어를 많이 사용했고, 비율면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지역경제·개발 관련 공약 분석

선거 실시 내용별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그러나 ‘공약 수 비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208)

선거 실시 내용별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공약 수’분석 결과 도지사 후보자들이 가장 많은 공약을 발표했다. 평균 9.50개이다. 제주시장 후보자들은 7.67개, 서귀포시장과 북제주군수, 남제주군수 후보자들은 비슷하게 평균 4개 정도의 지역(도시)경제·개발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이 광역의회의원 후보자들이나 기초의회의원 후보자들 보다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공약을 많이 발표했다.

‘공약 수 비율’에서는 남제주군수 후보자들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서 30.65%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제주시장 후보, 평균 27.87%, 서귀포시의회의원 후보자 27.65%, 도지사 후보자 27.60%순이다.

대부분 후보자들이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공약에 큰 비중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 수’의 전체 평균은 2.66개 였으며, ‘공약수 비율’은 22.29%로 전체 공약의 1/4정도를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공약에 할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1-1-9>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분석

내용	빈도	공약수			공약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도지사	4	9.50	4.534	0.000	27.60	1.300	0.208
제주시장	3	7.67			27.87		
서귀시장	5	4.00			10.60		
북군수	5	4.20			20.18		
남군수	2	4.00			30.65		
도의원 제주시	18	2.11			19.46		
서귀	8	2.63			19.83		
북군동부	5	1.20			15.52		
북군서부	7	1.29			13.49		
남군동부	5	2.20			10.56		
남군서부	2	1.50			10.10		
시군의원 제주시	59	2.56			24.86		
서귀	35	2.51			27.65		
북군동부	7	2.43			21.47		
북군서부	8	2.00			21.80		
남군동부	5	0.80			9.16		
남군서부	-	-			-		
계	178	2.66			22.29		

선거 실시 내용별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그러나 ‘단어 수 비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835)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해서는 도지사 후보들이 가장 많은 ‘단어 수’를 사용했는데 평균 14.75개이다. 다음으로 제주시장 후보자 평균 13.33개 서귀포시장 후보자 평균 8.20개, 북제주군수 후보자 평균 6.8개, 남제주군수 후보자 평균 6개의 순으로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단어를 사용했다.

<표 7-1-1-10>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분석

내용	빈도	단어수			단어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도지사	4	14.75	4.473	0.000	22.58	0.644	0.835
제주시장	3	13.33			19.47		
서귀시장	5	8.20			15.38		
북군수	5	6.80			11.80		
남군수	2	6.00			12.90		
도의원 제주시	18	4.89			14.48		
서귀	8	4.50			14.34		
북군동부	5	0.80			7.34		
북군서부	7	3.86			17.09		
남군동부	5	4.80			10.84		
남군서부	2	4.00			9.70		
시군의원 제주시	59	3.64			17.90		
서귀	35	3.09			16.30		
북군동부	7	3.14			13.17		
북군서부	8	2.50			11.56		
남군동부	5	1.80			8.18		
남군서부	-	-			-		
계	178	4.20			15.55		

주로 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이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단어 수’를 많이 사용했다.

‘단어 수 비율’에서는 도지사 후보자들이 22.58%로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내용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었고, 그 다음이 제주시장 후보자 19.47%, 제주시 의원 후보자 17.90%, 북제주군서부 도의원 후보자 17.09% 순으로 나타났다.

□ 교육 관련 공약 분석

선거 실시 내용별 교육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그러나 ‘공약 수 비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437)

<표 7-1-1-11> 교육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분석

내용	빈도	공약수			공약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도지사	4	3.50	3.754	0.000	7.28	1.020	0.437
제주시장	3	1.67			7.23		
서귀시장	5	1.80			6.18		
북군수	5	0.60			1.82		
남군수	2	0.00			0.00		
도의원 제주시	18	0.89			6.41		
서귀	8	1.63			8.43		
북군동부	5	0.20			3.34		
북군서부	7	0.57			5.24		
남군동부	5	1.00			7.68		
남군서부	2	0.00			0.00		
시군의원 제주시	59	0.46			4.04		
서귀	35	0.40			3.66		
북군동부	7	0.43			3.29		
북군서부	8	0.25			3.13		
남군동부	5	1.20			11.06		
남군서부	-	-			-		
계	178	0.69			4.69		

교육 관련 ‘공약 수’를 분석한 결과 도지사 후보자들이 평균 3.50개로 가장 많았고, 서귀포시장 후보자 평균 1.80개, 제주시장 후보자 1.67개, 서귀포 지역 도의원 후보자 1.63개, 남제주군동부 군의원 후보자 1.20개, 남제주군동부 도의원 후보자 평균 1개 순으로 교육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주로 서귀포 지역과 남제주군동부 지역 후보자들이 교육에 관심을 많이 둔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 수 비율’분석에서는 남군동부 군의원 후보자들이 교육 관련 공약에 많은 비중을 두었는데 평균 11.06%이다. 그 다음은 서귀포 지역 도의원 후보자 8.43%, 남제주군동부 도의원 후보자 7.68%, 도지사 후보자 7.23%순으로 교육 관련 문제에 비중을 두었다.

비율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로 남제주군동부 지역과 서귀포 지역 후보자들이 교육과 관련하여 비중을 크게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실시 내용별 교육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그러나 교육 관련 ‘단어 수 비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566)

교육 관련 ‘단어 수’를 가장 많이 사용한 그룹은 도지사 후보자들로 평균 3.75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그 다음은 제주시장 후보자들로 3.33개, 남제주군동부 도의원 후보 평균 3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비율면에서는 남제주군동부 도의원 후보자들이 평균 8%로 전체 평균 2.89%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 할 수 있다. ‘단어 수 비율’분석에서 두 번째로 높았던 그룹은 제주시장 후보자들로 5.17%이며, 그 다음은 남제주군동부 군의원 후보자들로 평균 4.62%의 비율을 나타냈다.

<표 7-1-1-12> 교육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분석

내용	빈도	단어수			단어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도지사	4	3.75	3.845	0.000	4.25	0.899	0.566
제주시장	3	3.33			5.17		
서귀시장	5	2.40			4.22		
북군수	5	2.00			1.50		
남군수	2	1.00			1.60		
도의원 제주시	18	1.61			3.94		
서귀	8	2.25			4.26		
북군동부	5	0.00			0.00		
북군서부	7	0.43			1.60		
남군동부	5	3.00			8.00		
남군서부	2	0.00			0.00		
시군의원 제주시	59	0.54			2.70		
서귀	35	0.46			2.17		
북군동부	7	0.43			1.16		
북군서부	8	0.38			3.50		
남군동부	5	1.20			4.62		
남군서부	-	-			-		
계	178	0.98			2.89		

□ 사회복지 관련 공약 분석

선거 실시 내용별 사회·복지 관련 ‘공약수’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273) ‘공약 수 비율’에서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472)

선거 실시 내용별 사회·복지 관련 ‘공약 수’분석에서 가장 많은 공약을 제시한 그룹은 평균 3.75개의 공약을 발표한 도지사 후보자 그룹이다. 그 다음이 북제주군수 후보자들로 평균 3.4개, 제주시장후보자 평균 3.33개의 사회·복지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주로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사회·복지 관련 공약을 많이 발표했다. 그외 후보자 그룹에 있어서는 남제주군서부 도의원 후보자들과 서귀포 도의원 후보자들이 사용한 공약 수가 많다.

<표 7-1-1-13> 사회·복지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수			공약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도지사	4	3.75	1.205	0.273	8.18	0.986	0.472
제주시장	3	3.33			12.80		
서귀시장	5	2.20			7.67		
북군수	5	3.40			13.76		
남군수	2	2.50			19.40		
도의원 제주시	18	1.89			14.86		
서귀	8	2.25			12.63		
북군동부	5	0.80			10.02		
북군서부	7	1.29			9.20		
남군동부	5	2.00			15.06		
남군서부	2	3.00			11.55		
시군의원 제주시	59	1.98			17.92		
서귀	35	1.34			12.12		
북군동부	7	0.71			4.79		
북군서부	8	1.88			16.30		
남군동부	5	2.00			17.38		
남군서부	-	-			-		
계	178	1.87			14.22		

사회·복지 관련 ‘공약 수 비율’인 경우는 ‘공약 수’분석에서의 경우와는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이 보다 많은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약 수 비율’에서는 남제주군수 후보자들이 19.40%로 높고, 그 다음은 제주시 시의원 후보자 17.92%, 남제주군동부 군의원 후보자 17.38%, 북제주군서부 후보자 16.30%로 나타났다.

선거 실시 내용별 사회·복지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8) 그러나 사회·복지 관련 ‘단어 수 비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288)

<표 7-1-1-14> 사회·복지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분석

내용	빈도 빈도	단어수			단어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도지사	4	8.75	2.199	0.008	12.23	1.185	0.288
제주시장	3	9.00			13.97		
서귀시장	5	5.60			10.64		
북군수	5	11.40			16.88		
남군수	2	5.00			21.40		
도의원 제주시	18	5.83			15.08		
서귀	8	5.75			13.56		
북군동부	5	1.60			10.60		
북군서부	7	2.00			7.49		
남군동부	5	4.60			12.28		
남군서부	2	4.50			10.40		
시군의원 제주시	59	4.08			20.40		
서귀	35	3.34			16.26		
북군동부	7	4.14			7.76		
북군서부	8	5.75			21.73		
남군동부	5	6.40			25.36		
남군서부	-	-			-		
계	178	4.65			16.66		

사회·복지 관련 공약에 사용된 단어를 분석한 결과 북제주군수 후보자들이 평균 11.4개로 가장 많은 단어를 사용했고, 그 다음으로 제주시장 후보자 평균 9개, 도지사 후보자 8.75개의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이 4.65개로 나타나서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 적지 않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평균 5개 이상 사회·복지 관련 분야 단어를 사용한 그룹은 도지사 후보, 제주시장 후보, 서귀포시장 후보, 북제주군수 후보, 남제주군수 후보, 제주시 지역 도의원 후보, 서귀포시 지역 도의원 후보, 북제주군서부 군의원 후보, 남제주군동부 군의원 후보자들이다.

사회·복지 관련 ‘단어 수 비율’에서는 자치단체장 후보자들 보다는 남제주군동부 군의원 후보자들과 북제주군서부 군의원 후보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제주군동부 군의원 후보자들인 경우는 25.36%로 전체 쓰인 단어의 1/4를 사회·복지관련 분야에 할애하였고, 북제주군서부 군의원 후보자들의 경우는 21.73%를 할애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순이 남제주군수 후보자들이었으며, 평균비율은 21.4%이다. 후보자들이 사회·복지 관련 분야의 단어를 사용한 비율은 16.66%이다.

□ 문화·예술·체육 관련 공약 분석

선거 실시 내용별 문화·예술·체육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그러나 ‘공약 수 비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853)

문화·예술·체육 관련 ‘공약 수’를 분석한 결과 서귀시장 후보자들이 평균 4개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서 문화·예술·체육 관련 분야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 다음은 도지사 후보로 평균 2.25개, 제주시장의 경우 평균 1.67개, 북제주군수 후보 평균 1.6개의 문화·예술·체육 관련 공약을 했다.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이 문화·예술·체육 관련 공약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약 수 비율’분석에서도 그 틀은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서귀시장 후보자들의 경우 문화·예술·체육 관련 공약 수 비율이 평균 11.02%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북제주군수 후보자가 9.12%를 나타내 ‘공약 수’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공약 수 비율’에서는 남제주군동부 군의원 후보자들이 평균 7.67%를 차지했고, 북제주군동부지역 도의원 후보자들도 5.16%를 차지하여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7-1-1-15> 문화·예술·체육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분석

내용	빈도	공약수			공약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도지사	4	2.25	4.961	0.000	5.00	0.623	0.853
제주시장	3	1.67			7.23		
서귀시장	5	4.00			11.02		
북군수	5	1.60			9.12		
남군수	2	0.50			3.15		
도의원 제주시	18	0.56			4.56		
서귀	8	0.50			3.53		
북군동부	5	0.40			5.16		
북군서부	7	0.29			3.10		
남군동부	5	0.40			2.90		
남군서부	2	0.00			0.00		
시군의원 제주시	59	0.66			5.98		
서귀	35	0.40			3.95		
북군동부	7	0.29			3.49		
북군서부	8	0.50			3.80		
남군동부	5	0.80			7.67		
남군서부	-	-			-		
계	178	0.71			5.09		

선거 실시 내용별 문화·예술·체육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그러나 문화·예술·체육 관련 ‘단어 수 비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777)

문화·예술·체육 관련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그룹은 서귀포시장 후보와 북제주군수 후보들이다. 평균 5.6개의 관련 단어를 사용했다. 도지사 후보들은 평균 5.25개, 제주시장 후보자들은 평균 4개의 문화·예술·체육 관련 단어를 사용하였다.

<표 7-1-1-16> 문화·예술·체육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분석

내용	빈도	단어수			단어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도지사	4	5.25	4.376	0.000	8.00	0.705	0.777
제주시장	3	4.00			6.23		
서귀시장	5	5.60			8.38		
북군수	5	5.60			7.58		
남군수	2	1.00			1.60		
도의원 제주시	18	1.94			5.02		
서귀	8	1.00			3.31		
북군동부	5	1.20			7.64		
북군서부	7	0.86			3.34		
남군동부	5	1.80			4.00		
남군서부	2	0.50			1.10		
시군의원 제주시	59	1.20			5.98		
서귀	35	1.00			3.80		
북군동부	7	0.86			2.13		
북군서부	8	1.00			4.10		
남군동부	5	1.80			6.98		
남군서부	-	-			-		
계	178	1.60			5.07		

전체적으로 볼 때 자치단체장들은 문화·예술·체육 관련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 남제주군수를 제외하고는 자치단체장 후보들의 경우 문화·예술·체육 관련 단어를 평균 4개이상 사용한 반면, 도의원 후보자들과 기초의원 후보자들은 평균 2개 미만의 단어를 사용하였다.

문화·예술·체육 관련 ‘단어 수의 비율’을 중심으로 분석해 본 결과 여전히 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의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북제주군동부 도의원 후보자들과 제주시 시의원 후보자들, 남제주군동부 군의원 후보자들은 ‘단어 수의 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나 각각 평균 7.64%, 5.98%, 6.98%로 분석되었다.

□ 여성 관련 공약 분석

선거 실시 내용별 여성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그러나 ‘공약 수 비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

다.(유의도 0.904)

여성 관련 ‘공약 수’를 가장 많이 발표한 그룹은 도지사 후보자들인데 평균 공약 수가 3개이다. 그 이외의 그룹들은 모두 평균 1개 미만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은 0.4개이고, 서귀포시장 후보의 경우가 0.80개, 제주시장 후보 평균 0.67개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반면, 남제주군수 후보자들과 남제주군서부 도의원 후보자들의 경우는 여성 관련 공약을 하지 않았다.

여성 관련 ‘공약 수의 비율’에서도 도지사 후보자들 그룹들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평균 6.65%를 나타냈다. 비율 분석에서는 앞의 ‘공약 수’분석과는 달리 제주시 도의원 후보자들의 경우 4.84%, 남제주군동부 군의원 후보자들이 4.44%, 제주시장 후보자와 서귀포시장 후보자는 조금 떨어지는 2.73%, 2.08%를 나타냈다.

전체평균 비율은 2.64%이며, 평균을 상회하는 그룹은 도지사 후보자 그룹, 제주시 도의원 후보, 남제주군동부 군의원 후보, 서귀포시의원 후보, 서귀포시장 후보, 제주시장 후보 순이다.

<표 7-1-1-17> 여성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분석

내용	빈도	공약수			공약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도지사	4	3.00	3.785	0.000	6.65	0.557	0.904
제주시장	3	0.67			2.73		
서귀시장	5	0.80			2.08		
북군수	5	0.60			1.68		
남군수	2	0.00			0.00		
도의원 제주시	18	0.50			4.84		
서귀	8	0.63			2.79		
북군동부	5	0.20			1.82		
북군서부	7	0.14			0.96		
남군동부	5	0.40			2.02		
남군서부	2	0.00			0.00		
시군의원 제주시	59	0.29			2.29		
서귀	35	0.29			2.88		
북군동부	7	0.29			0.87		
북군서부	8	0.38			2.16		
남군동부	5	0.40			4.44		
남군서부	-	-			-		
계	178	0.40			2.64		

선거 실시 내용별 여성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그러나 여성 관련 ‘단어 수 비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140)

여성 관련 ‘단어 수’를 가장 많이 사용한 후보자 그룹은 도지사 후보자들이다. 평균 6.75개의 단어를 사용하였다. 그 다음은 북제주군수 후보자들로 평균 2.80개의 단어를 사용했고, 세 번째로는 남제주군동부 군의원들로 평균 2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여성 관련 ‘단어 수의 비율’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지사 후보자 그룹이 가장 높았으며, 7.23%의 비율을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는 남제주군동부 군의원들로서 평균 6.08%이고, 그리고 제주시 도의원 후보자들의 경우는 평균 5.26%를 나타냈다. 전체 평균은 3.39%였으며, 평균을 상회하는 그룹으로는 도지사 후보자 그룹, 제주시 도의원 후보자 그룹, 남제주군동부 도의원 후보자그룹, 제주시 시의원 후보자 그룹, 서귀포시 시의원 후보자 그룹, 북제주군서부 군의원 후보자 그룹, 남제주군동부 후보자 그룹 등이다.

<표 7-1-1-18> 여성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분석

내용	빈도	단어수			단어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도지사	4	6.75	3.456	0.000	7.23	0.496	0.140
제주시장	3	1.00			1.60		
서귀시장	5	1.20			1.62		
북군수	5	2.80			3.00		
남군수	2	0.00			0.00		
도의원 제주시	18	1.89			5.26		
서귀	8	1.25			2.61		
북군동부	5	0.40			1.54		
북군서부	7	0.14			0.57		
남군동부	5	1.00			3.66		
남군서부	2	0.50			1.10		
시군의원 제주시	59	0.59			3.44		
서귀	35	0.66			3.74		
북군동부	7	0.29			0.41		
북군서부	8	1.25			3.86		
남군동부	5	2.00			6.08		
남군서부	-	-			-		
계	178	1.03			3.39		

□ 관광 관련 공약 분석

선거 실시 내용별 관광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그리고 ‘공약 수 비율’에서도 차이가 있다.(유의도 0.001)

관광 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서귀포시장 후보자 그룹이 가장 많이 발표했는데 평균 3.6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그 다음이 도지사 후보자 그룹으로 평균 2.75개의 공약을 발표했으며, 북제주군수 후보자 1.6개, 남제주군동부 도의원 후보자 1.6개, 남제주군서부 도의원 1.5개의 관광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표 7-1-1-19> 관광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분석

내용	빈도	공약수			공약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도지사	4	2.75	8.978	0.000	12.55	2.866	0.001
제주시장	3	1.33			5.40		
서귀시장	5	3.60			12.50		
북군수	5	1.60			4.10		
남군수	2	0.50			5.00		
도의원 제주시	18	0.50			4.81		
서귀	8	1.25			5.98		
북군동부	5	1.00			9.34		
북군서부	7	0.86			10.61		
남군동부	5	1.60			10.66		
남군서부	2	1.50			10.10		
시군의원 제주시	59	0.14			1.24		
서귀	35	0.37			3.83		
북군동부	7	0.29			3.28		
북군서부	8	0.25			4.59		
남군동부	5	0.80			10.28		
남군서부	-	-			-		
계	178	0.63			4.54		

주로 서귀포지역 후보자들이 관광 관련 공약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장 중에도 서귀포시장 후보자 그룹이 관광 관련 공약이 많았다. 도의원 후보자 중에는 남제주군 후보자, 시군의원 후보자 그룹에서는 남제주군 동부 군의원 후보자 그룹이 관광 관련 공약을 많이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 수의 비율에서는 다소 다르게 나타났지만 그래도 남제주군과 서귀포지역 후보자들이 관광 관련 공약의 비율이 높았다. 도지사 후보자그룹도 관광 관련공약 비율이 높았는데 평균 12.55%로 높게 나타났다. 서귀포시장 후보자 그룹은 12.5%였으며, 다음은 남군동부 도의원 후보자 그룹 10.66%, 북제주군 서부 도의원 후보자 그룹 10.61%, 남제주군서부 도의원 후보자 그룹 10.10%, 남제주군동부 군의원 후보자 그룹 10.28%순으로 나타났다.

선거 실시 내용별 관광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그리고 관광 관련 ‘단어 수 비율’에서도 차이가 있었다.(유의도 0.000)

관광 관련 ‘단어 수’를 가장 많이 사용한 그룹은 서귀포시장 후보자 그룹이다. 평균 6.6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그 다음 순위는 남제주군수 후보자 그룹과 남제주군서부 도의원 후보자 그룹이다. 공히 6.5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제주시장 후보자그룹은 평균 6.33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평균 6.25개 단어를 사용한 도지사 후보자 그룹 보다 많았다. 전체 평균은 2.13개의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의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로 서귀포 지역과 남제주군 지역 후보자들이 관광 관련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

‘단어 수 비율’분석에서는 남제주군서부 도의원 후보자 그룹이 16.5%로 관광 관련 분야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었다. 그 다음은 도지사 후보자 그룹으로 15.73%이다. 남제주군수 후보자 그룹은 13.65%, 서귀포지역 도의원 후보자들은 11.84%, 5위를 차지한 북제주군서부 후보자 그룹은 11.56%를 나타내었다. ‘단어 수’ 분석에서와는 달리 서귀포시장 후보자 그룹은 6위를 차지해 평균 10.88%를 관광 관련 분야에 할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서귀포와 남제주군지역 후보자들이 주로 관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1-1-20> 관광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분석

내용	빈도	단어수			단어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도지사	4	6.25	5.294	0.000	15.73	2.917	0.000
제주시장	3	6.33			9.73		
서귀시장	5	6.60			10.88		
북군수	5	3.80			2.78		
남군수	2	6.50			13.65		
도의원 제주시	18	3.56			7.80		
서귀	8	4.75			11.86		
북군동부	5	1.60			9.46		
북군서부	7	2.71			11.56		
남군동부	5	3.40			8.88		
남군서부	2	6.50			16.50		
시군의원 제주시	59	0.61			2.55		
서귀	35	1.37			6.34		
북군동부	7	1.57			5.26		
북군서부	8	0.88			4.20		
남군동부	5	2.00			10.42		
남군서부	-	-			-		
계	178	2.13			6.31		

□ 교통 관련 공약 분석

선거 실시 내용별 교통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47) 그리고 ‘공약 수 비율’에서도 차이가 있다.(유의도 0.000)

교통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공약을 발표한 그룹은 서귀포시 도의원 후보자 그룹으로 평균 2.25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그 다음은 제주시장 후보자 그룹, 남제주군동부 도의원 후보자 그룹, 남제주군서부 도의원 후보자 그룹이 평균 2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그 다음은 서귀포시장 후보자 그룹으로서 1.8개의 교통 관련 공약을 발표했고, 제주시 시의원 후보자그룹은 평균 1.76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 후보자들, 그리고 남제주군지역 후보자들이 교통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다. 북제주군지역 후보자들의 교통에 대한 관심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1-21> 교통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분석

내용	빈도	공약수			공약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도지사	4	1.25	1.748	0.047	3.08	3.640	0.000
제주시장	3	2.00			8.63		
서귀시장	5	1.80			6.66		
북군수	5	1.40			3.96		
남군수	2	0.00			0.00		
도의원 제주시	18	1.50			12.06		
서귀	8	2.25			13.75		
북군동부	5	0.40			3.82		
북군서부	7	0.14			1.10		
남군동부	5	2.00			10.14		
남군서부	2	2.00			7.70		
시군의원 제주시	59	1.76			16.35		
서귀	35	1.71			18.95		
북군동부	7	0.86			5.21		
북군서부	8	0.63			4.50		
남군동부	5	0.60			4.50		
남군서부	-	-			-		
계	178	1.50			12.55		

‘공약 수 비율’분석에서는 서귀포시 시의원 후보자 그룹이 가장 많은 비중을 교통 관련 공약에 할애했는데 18.95%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공약 5개 중의 하나가 교통 관련 공약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통에 대한 관심이 많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은 제주시 시의원 후보자 그룹으로 평균 16.35%, 서귀포시 도의원 후보자 13.75%, 제주시 도의원 후보자 12.06%순임을 나타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서귀포시 지역과 제주시 지역 즉 도시지역 후보자들이 교통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실시 내용별 교통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19) 그리고 교통관련 ‘단어 수 비율’에서도 차이가 있다.(유의도 0.000)

교통 관련 ‘단어 수’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단어를 사용한 후보자 그룹은 제주시장 후보자 그룹으로 평균 8.33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그 다음의 순은 제주시 도의원 후보자 그룹으로 평균 5.28개의 단어를 사용했고, 3순위는 북제주군수 후보자 그룹으로 평균 5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그 다음은 서귀포지역 도의원 후보자 평균 4.5개, 서귀포 시의원 후보와 제주시 시의원 후보자 그룹이 평균 4개와 3.86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단어 수 비율’분석에서는 도시지역 편향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가장 많은 비중을 교통 관련 분야에 둔 후보자 그룹은 서귀포시의원 후보자 그룹으로 평균 19.09%를 교통 관련 단어 수에 할애했다. 그 다음은 제주시 시의원 후보자 평균 19.00%, 제주시 도의원 후보자 그룹 13.32%, 서귀포시 도의원 후보자 그룹 12.93%, 제주시장 후보자 그룹 12.60%순으로 교통 관련 단어 수에 할애했다.

전체 평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단어 수’의 경우는 평균 3.66개였으며, 비율에서는 평균 13.76%를 나타내었다. 여러 분야 중 교통 관련 분야는 그래도 관심을 갖는 분야라 할 수 있다.

비율 분석에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도시지역일수록 교통 관련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며, 자치단체장 보다는 도의원 후보자 그룹이 교통 관련 분야에 비중을 많이 두었고, 도의원 후보자 그룹 보다 시의원 후보자 그룹이 더 많은 관심을 두었다. 교통문제는 생활환경과 바로 직결되는 것이어서 기초의회의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겠다.

<표 7-1-1-22> 교통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분석

내용	빈도	단어수			단어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도지사	4	3.50	1.986	0.019	3.53	3.652	0.000
제주시장	3	8.33			12.60		
서귀시장	5	3.80			6.40		
북군수	5	5.00			5.32		
남군수	2	0.50			0.80		
도의원 제주시	18	5.28			13.32		
서귀	8	4.50			12.93		
북군동부	5	1.00			6.58		
북군서부	7	0.43			2.04		
남군동부	5	5.00			11.38		
남군서부	2	2.50			5.55		
시군의원 제주시	59	3.86			19.00		
서귀	35	4.00			19.09		
북군동부	7	1.86			3.70		
북군서부	8	1.75			6.09		
남군동부	5	0.80			3.04		
남군서부	-	-			-		
계	178	3.66			13.76		

□ 환경 관련 공약 분석

선거 실시 내용별 환경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그러나 ‘공약 수 비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268)

환경 관련 공약을 가장 많이 제시한 그룹은 도지사 그룹으로 평균 3.75개이다. 그 다음은 제주시장으로서 3.67개의 공약을 환경 관련하여 발표했고, 북제주군수 후보자 그룹은 평균 2.2개, 남제주군수 후보자 그룹은 평균 2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남제주군서부 도의원 후보자 그룹도 평균 2개의 공약을 발표해 남제주군지역 후보자 그룹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

포시장 후보자 그룹은 평균 1.6개의 환경 관련 공약을 발표해 순위 6위이다.

전체적으로는 환경 관련 공약을 평균 1.23개씩 발표했는데 도지사, 제주시장, 북제주군수 등의 순위이다.

<표 7-1-1-23> 환경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분석

내용	빈도	공약수			공약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도지사	4	3.75	3.096	0.000	10.45	1.212	0.268
제주시장	3	3.67			14.20		
서귀시장	5	1.60			2.36		
북군수	5	2.20			7.20		
남군수	2	2.00			14.40		
도의원 제주시	18	1.72			13.71		
서귀	8	1.75			12.00		
북군동부	5	0.60			6.50		
북군서부	7	1.00			6.16		
남군동부	5	1.20			8.20		
남군서부	2	2.00			12.00		
시군의원 제주시	59	0.97			7.92		
서귀	35	0.89			8.53		
북군동부	7	0.43			6.81		
북군서부	8	1.38			10.16		
남군동부	5	0.60			4.22		
남군서부	-	-			-		
계	178	1.23			8.77		

‘공약 수 비율’분석의 경우는 다소 다른 점이 있다. 남제주군수 후보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14.4%이고, 그 다음이 제주시장 후보자 평균 14.2% 3위로는 제주시 도의원 후보자 13.71%, 4위로는 서귀포시 도의원 후보자 남제주군서부 도의원 후보자 그룹 12%를 나타냈다. 그러나 도지사 후보자 그룹은 평균 10.45%를 나타내어 5위에 위치했다.

선거 실시 내용별 환경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그러나 환경 관련 ‘단어 수 비율’에서는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다.(유의도 0.690)

환경 관련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그룹은 제주시장 후보자 그룹으로 평균 8.33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도지사 후보자 그룹은 두 번째 순위로 평균 7.25개를 사용했으며, 그 다음이 제주시 도의원 후보자 그룹으로 5.67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북제주군수 후보자 그룹은 평균 5.6개, 남제주군수 도의원 후보자 그룹은 평균 5.5개, 서귀포시 도의원 후보자 그룹 평균 4.88개, 서귀포시장 후보자 그룹은 평균 3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제주시장과 도지사, 제주시 도의원 그룹이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광역후보자 그룹과 도시지역 후보자 그룹이 환경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어 수 비율’분석에서는 제주시 도의원 후보자 그룹이 가장 많은 비율을 환경관련 단어에 할애했다. 평균 15.29%를 환경 관련 단어로 사용한 것이다. 그 다음은 서귀포시 도의원 후보자 그룹 14.04%, 3위로는 제주시장 후보자 그룹 13.10%, 4위는 남제주군수 후보자 그룹 평균 12.10%, 제주시 시의원 후보자 그룹은 평균 10.95%로 5위에 머물렀다.

환경 관련 ‘단어 수’분석과는 달리 차별화된 경향을 나타내지 않고 있으나 제주시 도의원 후보자 그룹이 1위, 제주시장 후보자 그룹이 3위, 제주시 시의원 후보자 그룹이 5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제주시 지역 후보자 그룹이 도시지역이라는 특성과 관련하여 환경 분야 단어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1-24> 환경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분석

내용	빈도	단어수			단어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도지사	4	7.25	3.639	0.000	10.18	0.787	0.690
제주시장	3	8.33			13.10		
서귀시장	5	3.00			3.88		
북군수	5	5.60			8.56		
남군수	2	5.50			12.10		
도의원 제주시	18	5.67			15.29		
서귀	8	4.88			14.04		
북군동부	5	1.60			10.92		
북군서부	7	1.57			6.47		
남군동부	5	2.60			6.10		
남군서부	2	4.00			10.10		
시군의원 제주시	59	2.27			10.95		
서귀	35	2.03			9.36		
북군동부	7	1.71			9.48		
북군서부	8	2.63			9.36		
남군동부	5	1.20			5.98		
남군서부	-	-			-		
계	178	2.99			10.39		

□ 정보화 관련 공약 분석

선거 실시 내용별 정보화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그러나 ‘공약 수 비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989)

이러한 분석은 정보화관련 분석에서는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도지사 후보자 그룹의 경우만 평균 1개의 공약을 발표했다를 뿐이기 때문이다.

‘공약 수 비율’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지사 그룹과 제주시 시의원 후보자

그룹이 있으나 큰 의미가 없으며, 차후 6.4선거와 그 이후에 치뤄질 선거의 정보화관련 공약과 비교할 때만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7-1-1-25> 정보화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분석

내용	빈도	공약수			공약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도지사	4	1.00	3.225	0.000	2.05	0.345	0.989
제주시장	3	0.00			0.00		
서귀시장	5	0.00			0.00		
북군수	5	0.00			0.00		
남군수	2	0.00			0.00		
도의원 제주시	18	0.00			0.00		
서귀	8	0.00			0.00		
북군동부	5	0.00			0.00		
북군서부	7	0.00			0.00		
남군동부	5	0.00			0.00		
남군서부	2	0.00			0.00		
시군의원 제주시	59	0.00			0.42		
서귀	35	0.00			0.00		
북군동부	7	0.00			0.00		
북군서부	8	0.00			0.00		
남군동부	5	0.00			0.00		
남군서부	-	-			-		
계	178	0.00			0.19		

선거 실시 내용별 정보화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51) 그리고 정보화 관련 ‘단어 수 비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999)

정보화 관련 단어를 사용한 그룹은 도지사 후보자 그룹과 제주시 시의원 후보자 그룹, 남제주군동부 후보자 그룹 정도이다. 도지사 후보자 그룹의 경우는 평균 1.25개의 단어를 사용했으며, 남제주군동부 군의원 후보자 그룹은 0.2개,

제주시 시의원 후보자 그룹은 0,14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단어 수 비율’분석에서는 ‘단어 수’ 분석에서처럼 도지사 후보자 그룹, 남제주군동부 군의원 후보자 그룹과 제주시 후보자 그룹 중심이었다.

전체적으로 6.27선거에서 정보화 관련 내용은 아주 극소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7-1-1-26> 정보화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분석

내용	빈도	단어수			단어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도지사	4	1.25	1.725	0.051	1.50	0.229	0.999
제주시장	3	0.00			0.00		
서귀시장	5	0.00			0.00		
북군수	5	0.00			0.00		
남군수	2	0.00			0.00		
도의원 제주시	18	0.00			0.00		
서귀	8	0.00			0.00		
북군동부	5	0.00			0.00		
북군서부	7	0.00			0.00		
남군동부	5	0.00			0.00		
남군서부	2	0.00			0.00		
시군의원 제주시	59	0.14			0.94		
서귀	35	0.00			0.24		
북군동부	7	0.00			0.00		
북군서부	8	0.00			0.00		
남군동부	5	0.20			1.42		
남군서부	-	-					
계	178	0.01			0.43		

<표 7-1-1-27> 단어분야와 공약분야 분석

내용	빈도	단어분야의 수			공약분야의 수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도지사	4	10.25	4.566	0.000	9.75	4.697	0.000
제주시장	3	10.00			9.33		
서귀시장	5	9.00			7.80		
북군수	5	9.00			7.80		
남군수	2	8.00			6.50		
도의원 제주시	18	7.50			6.33		
서귀	8	8.13			6.88		
북군동부	5	5.60			4.60		
북군서부	7	4.71			4.43		
남군동부	5	9.00			7.60		
남군서부	2	8.50			6.50		
시군의원 제주시	59	6.02			5.14		
서귀	35	6.26			5.17		
북군동부	7	5.00			4.29		
북군서부	8	6.88			6.00		
남군동부	5	7.60			6.60		
남군서부	-	-			-		
계	178	6.75			5.77		

□ 감귤 정책의 경향성 분석

선거 실시 내용별로 감귤 정책에 대한 이슈별 분석을 실시하여 후보자들이 감귤정책에 대한 경향성을 분석했다. 50점에 가까울수록 생산조정제와 같이 관주도의 통제위주 정책을 지향하는 것이고, 점수가 10점대로 가까울수록 농민들의 자율에 맡기는 정책을 원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그룹간에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평균 점수가 30.11로서 가운데 구간에 위치하는 점수를 나타내고 있어서 후보자 전체로 보면 어느 한 쪽으로 크게 치우치는 경향은 없다.

관의 역할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룹은 서귀포시장 후보자 그룹으로 평균 42점을 나타냈다. 순서별로 살펴보면, 제주시장 후보자 그룹 36.67점으로 2위, 남제주군동부 도의원 후보자 그룹 36점으로 3위, 북제주군수 후보자 그룹 34점으로 4위, 북제주군서부 군의원 후보자 그룹 32.5로 5위를 기록했다.

<표 7-1-1-28> 감귤 정책에 대한 분석 점수

항목	내용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통계량	유의도
감귤 정책에 대한 분석 점수	도지사	4	30.00	0.00	30.00	2.721	0.001
	제주시장	3	36.67	11.55	50.00		
	서귀시장	5	42.00	10.95	50.00		
	북군수	5	34.00	16.73	50.00		
	남군수	2	30.00	0.00	30.00		
	도의원 제주시	18	29.44	2.36	30.00		
	서귀	8	31.88	7.53	45.00		
	북군동부	5	30.00	0.00	30.00		
	북군서부	7	21.43	14.64	30.00		
	남군동부	5	36.00	13.42	50.00		
	남군서부	2	30.00	0.00	30.00		
	시군의원 제주시	59	29.41	4.92	40.00		
	서귀	35	29.71	3.82	40.00		
	북군동부	7	25.71	11.34	30.00		
	북군서부	8	32.50	7.07	50.00		
	남군동부	5	30.00	0.00	30.00		
	남군서부	-	-	-	-		
	계	178	30.11	7.23	50.00		

반면, 농민들의 자율에 맡기되 관은 지원하는 정책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 그룹의 우선 순위를 보면 1위가 북제주군동부 군의원 후보자 그룹이고, 2위는 제주시 시의원 후보자 그룹, 3위는 제주시 도의원 후보자 그룹, 4위는 북제주군동부 군의원 후보자 그룹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자치단체장 후보자 그룹들과 도의원 후보자 그룹들은 주로 관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경향이 있으며 기초의회의원 후보자 그룹들은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정도로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 환경·지역개발 정책 경향성 분석

선거 실시 내용별로 환경과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이슈별 분석을 통해 후보자들이 환경과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경향성을 분석했다. 50점에 가까울수록 개발위주의 정책을 펴자는 논리이고, 점수가 10점대로 갈수록 환경보존 위주로 정책을 추진하려는 경향성을 나타낸다.

개발위주의 정책을 지향하자는 그룹을 우선 순위로 정리하면 남제주군서부도의원 후보자 그룹이 가장 개발지향적인데 평균 42.5점을 나타냈다. 2위가 제주시장 후보자 그룹으로 평균은 33.33점, 3위가 서귀포시장 후보 32점, 4위 제주시 시의원 후보자 그룹 30.39를 나타냈다.

환경보존 위주의 정책을 주장하는 그룹은 1위가 북제주군서부 도의원 그룹으로 18.57점이다. 2위그룹은 제주시 도의원 후보자 23.52, 3위 북제주군동부 그룹 24.29점, 4위 남제주군수 후보자 그룹과 북제주군서부 군의원 그룹으로 각각 25점을 나타냈다. 5위그룹은 남제주군동부 도의원 그룹 평균 26.66점, 6위 북제주군수 후보자 평균 27.5점, 7위 북제주군동부 도의원 후보자, 서귀포시 시의원 후보자 그룹, 남군동부 군의원 후보자 그룹으로 28점이다.

전체적으로는 평점 28.5점으로 환경보존 위주의 정책을 지향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등은 보다 개발위주의 공약을 발표했다.

<표 7-1-1-29> 환경과 지역개발에 대한 분석 점수

항목	내용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통계량	유의도
환경과 지역 개발에 대한 분석 점수	도지사	4	30.00	8.17	40.00	2.222	0.008
	제주시장	3	33.33	5.77	40.00		
	서귀시장	5	32.00	4.47	40.00		
	북군수	5	27.50	10.61	42.50		
	남군수	2	25.00	7.07	30.00		
	도의원 제주시	18	23.52	7.18	43.30		
	서귀	8	28.75	10.94	45.00		
	북군동부	5	28.00	4.47	30.00		
	북군서부	7	18.57	13.76	30.00		
	남군동부	5	26.66	4.72	30.00		
	남군서부	2	42.50	3.54	45.00		
	시군의원 제주시	59	30.39	8.55	50.00		
	서귀	35	28.00	5.84	40.00		
	북군동부	7	24.29	11.34	30.00		
	북군서부	8	25.00	5.35	30.00		
	남군동부	5	28.00	4.47	30.00		
	남군서부	-	-	-	-		
계	178	28.05	8.39	50.00			

□ 교통정책 경향성 분석

선거 실시 내용별로 교통정책에 대한 이슈별 분석을 실시하여 후보자들이 교통정책의 경향성을 분석했다. 50점에 가까울수록 소통 보다는 안전 위주, 공급 위주의 정책 보다는 수요관리와 대중교통 위주의 정책을 지향하는 것이고 10점에 가까울수록 공급 위주이며 소통 위주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룹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42)

공급 위주의 정책을 지향하는 순으로 정리하면 북제주군서부 도의원 후보자 그룹이 1위로 평점 18.57점이다. 2위는 서귀시 시의원 후보자 그룹 평균 20.35, 3위는 서귀포시 도의원 후보자 21.88점, 4위는 북제주군동부 군의원 후보자 그룹, 평점 25.71점, 5위는 북제주군동부 도의원 후보자 그룹 26점, 그리고 7위는 남제주군동부 도의원 후보자로 평점 28점을 나타냈다.

안전 위주, 대중교통 위주, 수요관리 위주의 정책지향을 중심으로 순위를 분석한 결과 남제주군서부 도의원 후보자들이 37.5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제주시장 후보자 그룹 35점, 3위는 제주시 도의원 후보자 그룹 33.42점, 4위는 도지사 후보자 그룹, 남군수 후보자 그룹, 남군동부 군의원 후보자 그룹들로 평점 30점이다. 이 점수는 가운데 점수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표 7-1-1-30> 교통정책에 대한 분석 점수

항목	내용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통계량	유의도
교통 정책에 대한 분석 점수	도지사	4	30.00	0.00	30.00	1.779	0.042
	제주시장	3	35.00	8.66	45.00		
	서귀시장	5	26.00	8.94	30.00		
	북군수	5	29.00	2.24	30.00		
	남군수	2	30.00	0.00	30.00		
	도의원 제주시	18	33.42	10.74	50.00		
	서귀	8	21.88	10.67	35.00		
	북군동부	5	26.00	8.94	30.00		
	북군서부	7	18.57	14.64	30.00		
	남군동부	5	28.00	14.83	50.00		
	남군서부	2	37.50	10.61	45.00		
	시군의원 제주시	59	29.57	14.02	50.00		
	서귀	35	20.35	11.85	50.00		
	북군동부	7	25.71	16.18	50.00		
	북군서부	8	27.50	7.07	30.00		
	남군동부	5	30.00	0.00	30.00		
	남군서부	-	-	-	-		
	계	178	27.07	12.55	50.00		

이 분석 결과 제주시지역 후보자들이 보다 안전과 대중교통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은 도로 공급등 공급위주이며 소통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이거나 예산이 수반될 수 있으며, 단기간에 가시화할 수 있는 공약의 경우는 50점을, 그렇지 않고 선언적 의미로만 제시한 공약을 10점으로 하여 공약의 구체성에 대한 이슈별 분석을 실시했다.

<표 7-1-1-31> 공약의 구체성에 대한 분석 점수

항목	내용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통계량	유의도
공약의 구체성에 대한 분석 점수	도지사	4	36.30	6.15	42.20	1.853	0.032
	제주시장	3	36.40	2.98	39.10		
	서귀시장	5	32.04	8.07	40.80		
	북군수	5	32.60	9.14	40.60		
	남군수	2	35.75	2.47	37.50		
	도의원 제주시	18	33.87	7.39	48.20		
	서귀	8	33.80	6.03	42.50		
	북군동부	5	31.44	13.05	48.00		
	북군서부	7	26.21	19.51	48.30		
	남군동부	5	33.46	4.69	39.70		
	남군서부	2	36.15	3.32	38.50		
	시군의원 제주시	59	34.58	7.28	50.00		
	서귀	35	34.84	6.56	50.00		
	북군동부	7	22.40	12.04	33.30		
	북군서부	8	29.93	6.56	37.50		
	남군동부	5	26.00	4.18	30.00		
	남군서부	-	-	-	-		
계	178	33.30	8.78	50.00			

집단별 차이분석에서는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유의도 0.032)

가장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한 그룹은 제주시장 후보자 그룹으로 평균 36.4 점이고, 그 다음이 도지사 후보자 그룹으로 평균 점수 36.3점이다. 3위로는 남제주군서부 도의원 후보자들로 36.15점이고, 4위는 남제주군수 후보 35.75점이다.

제주시장과 도지사후보 그룹이 보다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점보다 적은 점수를 받고 있는 그룹은 기초의원 후보자 그룹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의원 후보자 그룹을 제외하고는 30점 보다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 공약의 총계 분석

공약에 사용한 단어 수 총계를 가지고 선거 실시 내용별로 분석했다. 그룹 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본 과업에서의 분석틀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단어를 사용한 그룹은 북제주군수 후보 그룹으로 평균 75.2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2위는 도지사 후보자 그룹 평균 71.25개, 3위는 제주시장 후보자 그룹 평균 65.57개, 4위는 서귀포시장 후보 54.4개, 5위는 제주시 도의원 후보자 그룹 평균 39.17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표 7-1-1-32> 단어 수 총계, 공약 수 총계 분석

내용	빈도	단어수 총계			공약수 총계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도지사	4	71.25	7.330	0.000	36.50	7.449	0.000
제주시장	3	65.67			26.00		
서귀시장	5	54.40			31.80		
북군수	5	75.20			30.20		
남군수	2	37.50			13.00		
도의원 제주시	18	39.17			12.22		
서귀	8	36.75			16.13		
북군동부	5	13.80			9.20		
북군서부	7	17.14			8.43		
남군동부	5	32.80			16.60		
남군서부	2	39.00			17.00		
시군의원 제주시	59	20.73			10.76		
서귀	35	20.77			9.66		
북군동부	7	24.14			9.57		
북군서부	8	27.13			11.25		
남군동부	5	23.00			10.40		
남군서부	-	-					
계	178	28.57			12.99		

이상의 분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자치단체장 후보자 그룹들이 공약과 관련하여 분야별 단어를 평균 28.57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 수 총계’분석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룹간에도 차이가 있다.(유의도 0.000) 1위를 나타낸 그룹은 도지사 후보자 그룹 평균 36.5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2위는 서귀포시장 후보자 그룹 평균 31.8개, 3위는 북제주군수 후보자 그룹 평균 30.2개, 4위는 제주시장 후보자 그룹 평균 26개 5위는 남제주군서부 도의원 후보자 그룹 평균 17개, 6위는 남제주군동부 도의원 후보자 그룹으로 평균 16.6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전체적으로 평균 12.99개의 공약을 발표한 셈이다.

1-2. 6.4선거 공약 분석

6.4선거의 공약에 대해서도 선거 실시 내용별로 분산분석을 했다.

□ 4·3문제 관련 공약 분석

4.3문제의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2) ‘공약 수 비율’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있다.(유의도 0.002)

<표 7-1-2-1> 4.3문제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수			공약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도지사	3	0.67	2.359	0.005	12.10	2.631	0.002
제주시장	2	0.00			0.00		
서귀시장	3	0.00			0.00		
북군수	2	0.00			0.00		
남군수	4	0.00			0.00		
도의원 제주시	18	0.56			6.39		
서귀	8	0.38			2.09		
북군동부	3	0.00			0.00		
북군서부	2	0.00			0.00		
남군동부	2	1.50			9.40		
남군서부	3	1.00			4.17		
시군의원 제주시	36	0.00			0.00		
서귀	16	0.00			0.00		
북군동부	5	0.00			0.00		
북군서부	11	0.00			0.00		
남군동부	5	0.00			0.00		
남군서부	5	0.00			0.00		
계	128	0.16			1.56		

4.3문제 관련하여 가장 많은 ‘공약 수’를 제시한 그룹은 남제주군 도의원 후보자들이다. 남제주군동부 도의원 후보자 그룹은 4.3문제와 관련하여 평균 1.5개의 공약을 발표했고 남제주군서부 도의원 후보자 그룹은 평균 1개, 도지사 후보 그룹은 0.67개의 4.3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네 번째는 제주시 도의원 후보자, 다섯 번째는 서귀포시지역 도의원 후보자 순이다.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원 후보자들은 4·3문제 관련 공약을 거의 발표하지 않았다. 이는 4.3문제가 시·군등 기초자치단체 지역범위 내의 문제라기 보다는 제주도 차원의 정책문제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주로 도의원 후보자들과 도지사 후보자 그룹이 4.3문제에 관련된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4.3문제 관련 ‘공약 수 비율’분석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3문제 관련 공약 수의 비율이 가장 많았던 그룹은 도지사 후보들로 공약의 평균 12.10%를 4.3문제와 관련한 공약에 비중을 두었다. 2위 그룹은 남제주군동부 도의원 후보, 3위와 4위 그룹은 제주시 도의원 후보와 남제주군서부 도의원 후보자들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약수 비율’에 있어서도 광역자치단체장인 도지사 후보자 그룹과 광역의회의원 후보자 그룹이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선거 실시 내용별 4.3문제 관련하여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2) ‘단어 수 비율’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있다.(유의도 0.002)

4.3문제 관련 단어 수를 보면 도지사 후보자 그룹, 제주시 도의원 후보자 그룹, 서귀포시 도의원 후보자 그룹, 남제주군동부 도의원 후보자 그룹, 남제주군서부 도의원 후보자 그룹이 언급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단어 수를 사용한 후보자 그룹은 남제주군동부 도의원 후보자 그룹 평균 2.5개를 사용했다. 2위는 남제주군서부 도의원 후보자 그룹으로서 평균 1.67개, 3위는 제주시 도의원 후보자 평균 1.28개, 4위와 5위 그룹은 도지사 후보자 그룹과 서귀포시 도의원 후보자 그룹으로서 평균 1개와 평균 0.63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표 7-1-2-2> 4.3문제 공약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수			단어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도지사	3	1.00	2.527	0.002	3.17	2.622	0.002
제주시장	2	0.00			0.00		
서귀시장	3	0.00			0.00		
북군수	2	0.00			0.00		
남군수	4	0.00			0.00		
도의원 제주시	18	1.28			6.21		
서귀	8	0.63			2.50		
북군동부	3	0.00			0.00		
북군서부	2	0.00			0.00		
남군동부	2	2.50			9.25		
남군서부	3	1.67			2.77		
시군의원 제주시	36	0.00			0.00		
서귀	16	0.00			0.00		
북군동부	5	0.00			0.00		
북군서부	11	0.00			0.00		
남군동부	5	0.00			0.00		
남군서부	5	0.00			0.00		
계	128	0.32			1.31		

‘단어 수 비율’분석에서는 1위 그룹이 ‘단어 수’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남제주군동부 도의원 후보자 그룹인데 전체 공약에서 4·3관련 단어 수가 평균 9.25%를 차지했다. 2위그룹은 제주시 도의원 후보자 평균 6.21%, 3위 그룹은 도지사 후보자 평균 3.17%, 4위와 5위 그룹은 각각 남제주군서부 도의원 후보자 그룹과 서귀포시 도의원 후보자 그룹으로서 각각 2.77%, 2.5%의 4.3문제 관련 단어를 사용했다.

□ 정치·행정·재정 관련 공약 분석

정치·행정·재정과 관련하여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32) ‘공약 수 비율’을 비교한 결과는 차이가 없다.(유의도 0.861)

<표 7-1-2-3> 정치·행정·재정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수			공약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도지사	3	3.67	1.856	0.032	24.23	0.621	0.861
제주시장	2	7.00			18.55		
서귀시장	3	4.00			16.50		
북군수	2	1.00			3.85		
남군수	4	2.00			8.28		
도의원 제주시	18	1.28			12.44		
서귀	8	0.75			7.04		
북군동부	3	1.00			10.00		
북군서부	2	0.50			10.00		
남군동부	2	0.50			3.15		
남군서부	3	0.33			1.40		
시군의원 제주시	36	1.75			17.17		
서귀	16	1.25			13.19		
북군동부	5	1.60			21.72		
북군서부	11	1.00			10.75		
남군동부	5	1.40			10.90		
남군서부	5	2.60			15.00		
계	128	1.59			13.49		

정치·행정·재정과 관련하여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공약 수’를 제시한 그룹은 제주시장 후보로, 평균 7.00개의 ‘공약 수’를 발표했다. 그 다음이 서귀포시 후보들로 평균 4.00개, 도지사 후보 평균 3.67개의 ‘공약 수’를 발표했다. 대체로 시·도 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들의 경우 정치·행정·재정 관련 문제에 대한 ‘공약 수’를 많이 발표한 반면, 군수 후보나 광역·기초의회의원 후보의 경우는 이와 관련한 공약을 적게 발표한 경향이 있다.

정치·행정·재정 관련 문제에 대한 ‘공약 수 비율’을 살펴보면 도지사 후보들이 평균적으로 가장 점수가 높아 정치·행정·재정 관련 공약에 많은 비중을 두었는데 비율’은 24.23%이다. 그 다음의 점수를 기록한 그룹은 북제주군 동부 군의원 후보들로 21.72%, 제주시장 후보의 경우 18.55%, 그 다음이 제주시의원 후보와 서귀포시장 후보, 각각 17.17%와 16.50%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보았을 때 도지사 후보들을 비롯해 시장 후보들과 기초자치단체의원 후보들은 정치·행정·재정 문제와 관련한 공약에 비중을 많이 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군수 후보들과 광역자치단체 의원 후보들은 낮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정치·행정·재정 문제와 관련하여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그러나 ‘단어수 비율’에서도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다.(유의도 0.264)

정치·행정·재정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단어 수’를 발표한 그룹은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후보로서 평균 12.00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남제주군수 후보들은 세 번째 순으로 평균 5.75개, 도지사 후보들은 4.33개, 그리고 다섯 번째로 북제주군서부 군의원 후보가 평균 3.80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따라서 정치·행정·재정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단어 수’를 발표한 그룹은 자치단체장 후보였음을 알 수 있다.

‘단어 수 비율’ 측면에서는 서귀포시장 후보들이 가장 높은 비율인 36.47%로 공약의 1/3이상을 정치·행정·재정 관련 문제에 할애했다. 비율면에서는 제주시의 후보도 높았는데 16.29%의 단어를 사용했고, 그 다음이 도의원 후보들로서 15.54%로 나타났다. 제주시장 후보들은 15.10%를 차지했다.

<표 7-1-2-4> 정치·행정·재정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수			단어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도지사	3	4.33	3.524	0.000	12.73	1.220	0.264
제주시장	2	12.00			15.10		
서귀시장	3	12.00			36.47		
북군수	2	2.00			4.00		
남군수	4	5.75			6.95		
도의원 제주시	18	3.44			15.54		
서귀	8	0.88			3.19		
북군동부	3	1.33			11.10		
북군서부	2	1.00			3.15		
남군동부	2	1.00			3.70		
남군서부	3	1.33			4.23		
시군의원 제주시	36	2.75			16.29		
서귀	16	1.38			9.81		
북군동부	5	1.00			12.06		
북군서부	11	1.45			6.34		
남군동부	5	3.80			12.76		
남군서부	5	2.80			11.78		
계	128	2.78			12.30		

□ 1차산업 관련 공약 분석

1차산업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공약 수 비율’에서도 차이가 있다.(유의도 0.000)

<표 7-1-2-5> 1차산업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수			공약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도지사	3	1.33	6.744	0.000	4.03	5.983	0.000
제주시장	2	0.00			0.00		
서귀시장	3	1.33			2.10		
북군수	2	16.00			51.75		
남군수	4	5.50			19.88		
도의원 제주시	18	0.89			5.61		
서귀	8	1.38			11.41		
북군동부	3	3.67			38.90		
북군서부	2	2.00			40.00		
남군동부	2	2.50			22.50		
남군서부	3	4.33			35.43		
시군의원 제주시	36	0.22			1.59		
서귀	16	0.94			6.12		
북군동부	5	1.60			26.26		
북군서부	11	3.18			24.55		
남군동부	5	1.80			17.92		
남군서부	5	3.00			24.38		
계	128	1.66			11.80		

1차산업 관련 ‘공약 수’를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제시한 그룹은 북제주군수 후보들로 평균 16.00개씩 발표했다. 그 다음에는 남제주군수 후보 평균 5.50개, 남제주군서부 도의원 후보 평균 4.33개, 북제주군동부 도의원 후보 평균 3.67개, 북제주군서부 군의원후보 평균 3.18개의 순으로 공약을 발표했다.

1차산업 ‘공약 수 비율’에서는 ‘공약 수’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북군수 후보들의 점수가 가장 높은 평균 51.75%인데 이는 ‘공약 수’의 1/2이상이 1차산업 분야를 공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제주군서부 도의원 후보들인 경우는

40.00%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이 북제주군동부 도의원 후보들로서 38.90%를 나타냈다.

대체로 북제주군의 자치단체장이나 기초·광역자치단체의원 후보들이 1차 산업과 관련한 ‘공약 수’에 많은 비중을 두고있다고 볼 수 있다.

1차산업과 관련하여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단어 수 비율’에서도 차이가 있다.(유의도 0.000)

<표 7-1-2-6> 1차산업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수			단어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도지사	3	1.67	4.071	0.000	3.47	7.056	0.000
제주시장	2	1.50			1.95		
서귀시장	3	6.33			6.17		
북군수	2	19.50			39.00		
남군수	4	13.75			16.53		
도의원 제주시	18	0.50			2.86		
서귀	8	2.38			9.38		
북군동부	3	8.33			34.63		
북군서부	2	10.00			49.00		
남군동부	2	4.00			23.60		
남군서부	3	7.33			34.13		
시군의원 제주시	36	1.37			2.05		
서귀	16	1.56			8.60		
북군동부	5	3.40			37.30		
북군서부	11	5.00			24.73		
남군동부	5	3.40			17.58		
남군서부	5	5.00			24.28		
계	128	3.22			11.99		

후보들이 공약에서 1차산업과 관련한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그룹은 북제주군 수 후보들로 평균 19.50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그 다음순위는 남제주군수 후보 평균 13.75개, 북제주군서부 군의원 후보 평균 10.00개, 북제주군동부 도의원 후보와 남제주군서부 도의원 후보 각각 평균 8.33개와 7.33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지역별로 보면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의 경우 1차산업 관련 단어 사용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경우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차산업 관련 ‘단어 수 비율’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북제주군서부 도의원 후보들이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 49.00%를 나타냈다. 그 다음에는 북제주군수 후보들이 39.00%를 차지했는데 이는 전체 공약 수에 사용된 단어 중 1/3이상을 1차산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북제주군동부 군의원 후보들은 37.30%, 북제주군동부 도의원의 경우는 34.63%를 차지해 ‘공약 수 비율’에서와 마찬가지로 북제주군의 자치단체장이나 기초·광역자치단체의원 후보들이 1차산업과 관련한 ‘단어 수’에도 많은 비중을 두고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감귤산업 관련 공약 분석

감귤산업 관련 ‘공약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공약 수 비율’에서도 차이가 있다.(유의도 0.031)

감귤산업 관련 ‘공약 수’를 분석한 결과 서귀포시장 후보들인 경우 평균 2.67개의 공약을 제시해서 감귤산업과 관련해 가장 많은 공약을 발표했다. 그 다음이 남제주군동부 군의원 후보 평균 1.80개, 서귀포시 도의원 후보 평균 1.75개의 순으로 감귤산업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 수 비율’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남제주군동부 군의원 후보들의 비율이 가장 높아서 13.60%를 차지했고, 그 다음이 남제주군동부 도의원 후보 13.15%, 서귀포시 도의원 후보 12.06%, 북제주군동부 도의원 후보 11.67%순이다. 주로 남제주군동부 의원 후보들이 감귤문제 관련 ‘공약 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2-7> 감귤산업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수			공약수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도지사	3	1.67	4.179	0.000	5.53	1.871	0.031
제주시장	2	0.00			0.00		
서귀시장	3	2.67			9.90		
북군수	2	0.50			1.90		
남군수	4	0.75			3.38		
도의원 제주시	18	0.67			6.23		
서귀	8	1.75			12.06		
북군동부	3	1.33			11.67		
북군서부	2	0.50			10.00		
남군동부	2	1.00			13.15		
남군서부	3	1.00			9.07		
시군의원 제주시	36	0.14			1.54		
서귀	16	0.56			4.65		
북군동부	5	0.00			0.00		
북군서부	11	0.18			3.56		
남군동부	5	1.80			13.60		
남군서부	5	0.40			3.18		
계	128	0.63			4.95		

감귤산업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단어수 비율’에서도 차이가 있다.(유의도 0.000)

감귤산업 관련 ‘단어 수’를 분석한 결과 서귀포시장 후보들이 평균 7.00개의 단어를 사용하여 가장 많이 사용한 그룹이 되었다. 그 다음에는 서귀포시 도의원 후보들이 평균 4.00개의 단어를 사용했고, 남제주군수 후보는 3.00개, 도지사 후보 평균 2.67개 순으로 감귤 관련 단어를 사용했다.

<표 7-1-2-8> 감귤산업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수			단어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도지사	3	2.67	10.692	0.000	8.63	3.596	0.000
제주시장	2	0.50			0.50		
서귀시장	3	7.00			16.77		
북군수	2	2.00			4.00		
남군수	4	3.00			4.60		
도의원 제주시	18	0.94			4.19		
서귀	8	4.00			14.90		
북군동부	3	2.33			9.03		
북군서부	2	1.50			10.00		
남군동부	2	1.50			9.95		
남군서부	3	1.67			8.20		
시군의원 제주시	36	0.14			1.01		
서귀	16	0.88			4.59		
북군동부	5	0.20			2.22		
북군서부	11	0.55			4.34		
남군동부	5	2.20			10.72		
남군서부	5	0.80			3.60		
계	128	1.20			4.92		

감귤산업 관련 ‘단어수 비율’을 살펴보면 ‘단어 수’에서와 마찬가지로 서귀포 시장 후보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 16.77%를 나타냈다. 서귀포시 도의원 후보들은 평균 14.90% 남제주군동부 군의원 후보 10.72%, 북제주군서부 도의원 후보 10.00%를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서귀포지역 후보들이 감귤산업 관련 단어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비율도 마찬가지로 서귀포지역 후보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지역경제·개발 관련 공약 분석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5) ‘공약수 비율’에서도 차이가 있다.(유의도 0.017)

<표 7-1-2-9>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수			공약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도지사	3	4.00	2.365	0.005	25.27	2.023	0.017
제주시장	2	4.50			20.45		
서귀시장	3	6.00			14.27		
북군수	2	2.50			8.80		
남군수	4	1.50			5.68		
도의원 제주시	18	1.72			15.29		
서귀	8	1.75			11.29		
북군동부	3	0.33			6.67		
북군서부	2	1.00			20.00		
남군동부	2	0.50			10.00		
남군서부	3	1.67			8.33		
시군의원 제주시	36	2.72			27.32		
서귀	16	2.69			28.33		
북군동부	5	2.80			33.58		
북군서부	11	1.46			17.89		
남군동부	5	0.20			3.34		
남군서부	5	1.20			6.90		
계	128	2.20			19.71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공약 수’분석 결과 서귀포시장 후보자가 이 분야 공약을 평균 6.00개로 가장 많이 발표했다. 제주시장후보자들은 4.50개의 공약을 발표했으며, 도지사 후보자 평균 4개, 북제주군동부 군의원과 제주시 시의원, 서귀포시 시의원 후보들이 각각 2.80개, 2.72개, 2.69개를 지역경제·개발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 수 비율’에서는 북제주군동부 군의원 후보자들이 가장 높은 비율인 33.58% 나타났다. 그 다음은 서귀포시 시의원 후보 평균 28.33%, 제주시 시의원 후보 27.32%, 도지사 후보 25.27%의 비율을 차지했다.

대체로 남제주군 지역 후보자들이 타지역에 비해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공약 수’나 ‘공약 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그러나 ‘단어 수 비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152)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해서는 도지사 후보들이 가장 많은 ‘단어 수’인 평균 28.33개의 ‘단어 수’를 사용했으며, 제주시장 후보가 그 다음인 평균 14.00개를 사용했다. 북제주군수 후보자들은 평균 7.00개, 서귀포시장 후보 평균 6.00개, 남제주군수 후보 평균 4.00개의 순으로 지역(도시)경제·개발관련 단어를 사용했다.

주로 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의 경우가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단어 수’를 많이 사용했다.

‘단어 수 비율’에서는 도지사 후보자들이 25.20%로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내용에 많은 비중을 두었으며 제주시장 후보자 21.10%, 북제주군동부 군의원 후보 18.24%, 제주시 시의원 후보 16.75%를 차지했다.

<표 7-1-2-10>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수			단어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도지사	3	28.33	4.736	0.000	25.20	1.406	0.152
제주시장	2	14.00			21.10		
서귀시장	3	6.00			10.27		
북군수	2	7.00			14.00		
남군수	4	4.00			6.68		
도의원 제주시	18	3.22			14.13		
서귀	8	3.63			11.80		
북군동부	3	1.00			10.00		
북군서부	2	3.00			11.15		
남군동부	2	1.00			8.10		
남군서부	3	1.67			2.77		
시군의원 제주시	36	3.17			16.75		
서귀	16	2.31			13.93		
북군동부	5	1.80			18.24		
북군서부	11	1.18			8.48		
남군동부	5	0.60			2.10		
남군서부	5	1.40			4.96		
계	128	3.49			13.08		

□ 교육 관련 공약 분석

교육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245) ‘공약 수 비율’에서도 차이가 없다.(유의도 0.857)

교육 관련 ‘공약 수’를 분석한 결과 제주시장 후보자들이 평균 2.50개로 가장 많았고, 도지사 후보 평균 2.10개, 서귀포시장 후보 2.00개, 남제주군서부군의원 후보 1.40개, 제주시 도의원 후보 1.17개 순으로 교육 관련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2-11> 교육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수			공약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도지사	3	2.10	1.247	0.245	1.00	0.626	0.857
제주시장	2	2.50			4.40		
서귀시장	3	2.00			6.27		
북군수	2	0.00			0.00		
남군수	4	0.50			2.55		
도의원 제주시	18	1.17			7.59		
서귀	8	0.50			2.71		
북군동부	3	0.67			10.00		
북군서부	2	0.00			0.00		
남군동부	2	0.50			3.15		
남군서부	3	0.67			2.77		
시군의원 제주시	36	0.56			3.98		
서귀	16	0.44			3.20		
북군동부	5	0.20			6.67		
북군서부	11	0.55			5.11		
남군동부	5	0.20			1.26		
남군서부	5	1.40			6.58		
계	128	0.71			4.43		

‘공약 수 비율’분석에서는 북제주군동부 도의원 후보자들이 교육 관련 공약에 평균 10.00%의 비중을 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다음은 제주시 도의원 후보 7.59%, 북제주군동부 군의원 후보 6.67%, 남제주군서부 군의원 후보 6.58% 정도 교육 관련 문제에 비중을 두었다.

교육 관련 ‘공약 수 비율’에 있어서는 대체로 서귀포지역이 타 지역 보다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교육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그러나 교육 관련 ‘단어 수 비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566)

<표 7-1-2-12> 교육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수			단어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도지사	3	0.33	1.418	0.146	1.03	1.069	0.393
제주시장	2	4.50			4.50		
서귀시장	3	4.00			12.47		
북군수	2	0.50			1.00		
남군수	4	1.50			3.45		
도의원 제주시	18	1.39			4.82		
서귀	8	0.75			2.13		
북군동부	3	0.00			0.00		
북군서부	2	0.50			1.55		
남군동부	2	1.00			3.70		
남군서부	3	1.33			2.23		
시군의원 제주시	36	0.72			3.35		
서귀	16	0.38			1.74		
북군동부	5	5.00			0.00		
북군서부	11	0.36			1.97		
남군동부	5	0.40			1.82		
남군서부	5	1.60			4.82		
계	128	1.08			3.05		

교육 관련 ‘단어 수’를 가장 많이 사용한 그룹은 북제주군동부 군의원 후보자들로 평균 5.00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그 다음은 제주시장 후보 4.50개, 서귀포시장 후보는 평균 4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단어 수 비율’ 측면에서는 서귀포시장 후보자들이 평균 12.47%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은 제주시 도의원 후보, 남제주군서부 군의원 후보가 각각 4.82%, 제주시장 후보는 4.50%를 차지했다.

□ 사회·복지 관련 공약 분석

사회·복지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212) ‘공약 수 비율’에서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099)

사회·복지 관련 ‘공약 수’분석에서 가장 많은 공약을 제시한 그룹은 평균 6.86개의 공약을 발표한 북제주군동부 후보자 그룹이었다. 그 다음은 서귀포시장 후보로 평균 5.67개, 북제주군수 후보는 평균 4.00개의 사회·복지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사회·복지 관련 ‘공약 수 비율’인 경우는 ‘공약 수’ 분석에서의 경우와는 다소 다르게 서귀포시 도의원 후보자들이 20.68%로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북제주군서부 도의원 후보 20.00%, 제주시 시의원 후보 16.71%, 남제주군동부와 서부 군의원 후보가 각각 16.32%, 14.58%로 나타났다.

<표 7-1-2-13> 사회·복지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수			공약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도지사	3	2.00	1.297	0.212	8.10	1.536	0.099
제주시장	2	3.00			11.55		
서귀시장	3	5.67			12.77		
북군수	2	4.00			13.35		
남군수	4	2.25			10.25		
도의원 제주시	18	1.56			12.96		
서귀	8	2.88			20.68		
북군동부	3	1.00			12.77		
북군서부	2	1.00			20.00		
남군동부	2	0.50			10.00		
남군서부	3	1.00			8.33		
시군의원 제주시	36	1.94			16.71		
서귀	16	0.88			6.09		
북군동부	5	6.86			2.20		
북군서부	11	0.82			6.36		
남군동부	5	2.00			16.32		
남군서부	5	3.20			14.58		
계	128	2.03			12.58		

사회·복지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46) 그러나 사회·복지 관련 ‘단어 수 비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099)

사회·복지 관련 공약에 사용된 단어를 분석한 결과 남제주군수 후보자들이 평균 9.75개로 가장 많은 단어를 사용했다. 그 다음으로 서귀포시장 후보 평균 8.33개, 북제주군수 후보 7.00개, 단어를 사용했다. 대체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하여 많은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2-14> 사회·복지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수			단어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도지사	3	3.00	1.758	0.046	8.47	1.537	0.099
제주시장	2	5.50			7.70		
서귀시장	3	8.33			12.17		
북군수	2	7.00			14.00		
남군수	4	9.75			11.28		
도의원 제주시	18	3.78			15.07		
서귀	8	5.38			19.65		
북군동부	3	3.33			21.30		
북군서부	2	2.00			6.25		
남군동부	2	1.50			18.75		
남군서부	3	3.33			9.57		
시군의원 제주시	36	3.67			20.65		
서귀	16	2.06			6.90		
북군동부	5	0.80			4.64		
북군서부	11	2.36			10.61		
남군동부	5	4.80			19.66		
남군서부	5	3.40			10.44		
계	128	3.69			14.58		

사회·복지 관련 ‘단어 수 비율’에서는 자치단체장 후보자들 보다는 북제주군동부 도의원 후보자들과 제주시 시의원 후보자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각각 21.30%와 20.65%이다. 다음으로는 남제주군동부 군의원 후보 19.66%, 서귀포시 도의원 후보 19.65%, 남제주군동부 도의원 후보 18.75%의 사회·복지 관련 ‘단어 수 비율’을 나타냈다. ‘단어 수’와는 달리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이 ‘단어 수 비율’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 문화·예술·체육 관련 공약 분석

문화·예술·체육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그러나 ‘공약수 비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492)

<표 7-1-2-15> 문화·예술·체육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수			공약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도지사	3	3.77	4.001	0.000	7.07	0.972	0.492
제주시장	2	3.00			11.55		
서귀시장	3	2.67			4.20		
북군수	2	1.00			3.85		
남군수	4	1.25			3.95		
도의원 제주시	18	0.33			3.59		
서귀	8	0.63			6.14		
북군동부	3	0.00			0.00		
북군서부	2	0.00			0.00		
남군동부	2	0.00			0.00		
남군서부	3	1.33			6.27		
시군의원 제주시	36	0.39			3.69		
서귀	16	1.25			9.11		
북군동부	5	0.20			2.00		
북군서부	11	0.36			3.29		
남군동부	5	0.80			6.50		
남군서부	5	0.00			0.00		
계	128	0.71			4.46		

문화·예술·체육관련 ‘공약 수’를 분석한 결과 도지사 후보자들이 평균적으로 3.77개의 공약을 하고 있어서 문화·예술·체육 관련 분야에 대해 많은 공약을 했다. 그 다음이 제주시장 후보 평균 3.00개, 서귀포시장의 경우 평균 2.67개, 남제주군서부 도의원 후보 평균 1.33개의 문화·예술·체육 관련 공약을 했다. 대체로 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이 문화·예술·체육 관련 공약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약 수 비율’분석에서는 제주시장 후보자들이 평균 11.55%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서귀포시 시의원 후보 9.11%, 도지사 후보 7.07%, 남제주군동부 군의원 후보와 남제주군서부 도의원 후보자들이 각각 6.50%, 6.27%로 비교적 높은 ‘공약 수’비율을 보였다.

문화·예술·체육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그러나 문화·예술·체육 관련 ‘단어 수 비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458)

문화·예술·체육 관련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그룹은 제주시장 후보들로 평균 7.50개, 그 다음이 서귀포시장 후보 평균 5.33개, 남제주군수 후보 평균 3.75개의 문화·예술·체육 관련 단어를 사용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자치단체장들이 문화·예술·체육 관련 단어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체육 관련 ‘단어 수의 비율’을 중심으로 분석해본 결과 ‘단어 수’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제주시장 후보자들이 10.6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서귀포시장 후보 9.47%, 서귀포시 시의원 후보 9.28%, 도지사 후보 7.13%, 서귀포시 도의원 후보 6.41% 순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서귀포지역에서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7-1-2-16> 문화·예술·체육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수			단어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도지사	3	2.67	3.341	0.000	7.13	1.004	0.458
제주시장	2	7.50			10.60		
서귀시장	3	5.33			9.47		
북군수	2	2.50			5.00		
남군수	4	3.75			3.33		
도의원 제주시	18	1.00			3.71		
서귀	8	1.63			6.41		
북군동부	3	0.00			0.00		
북군서부	2	1.00			3.15		
남군동부	2	0.50			1.85		
남군서부	3	3.00			6.40		
시군의원 제주시	36	0.94			5.19		
서귀	16	1.81			9.28		
북군동부	5	0.20			1.42		
북군서부	11	0.64			4.14		
남군동부	5	1.40			4.24		
남군서부	5	0.20			0.96		
계	128	1.41			5.12		

□ 여성 관련 공약 분석

여성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2) 그러나 ‘공약 수 비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964)

여성 관련 ‘공약 수’를 가장 많이 발표한 그룹은 도지사 후보 평균 3.83개이다. 그 다음순으로 제주시장 후보와 서귀포시장 후보자들이 각각 2.00개와 1.67개이다. 이외의 그룹들은 남제주군서부 도의원 후보자들을 제외하면 모두 평균 1개 미만으로 나타났는데 대체로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높은 공약 수를 보여주고 있고 기초·광역자치단체의원 후보자들은 아예 공약을 하지 않거나 공약 수가 매우 적은 편이다.

<표 7-1-2-17> 여성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수			공약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도지사	3	3.83	2.605	0.002	1.00	0.451	0.964
제주시장	2	2.00			3.50		
서귀시장	3	1.67			4.17		
북군수	2	0.50			1.90		
남군수	4	0.75			3.38		
도의원 제주시	18	0.56			2.74		
서귀	8	0.25			3.73		
북군동부	3	0.00			0.00		
북군서부	2	0.00			0.00		
남군동부	2	0.00			0.00		
남군서부	3	1.33			6.27		
시군의원 제주시	36	0.28			2.87		
서귀	16	0.44			2.53		
북군동부	5	0.00			0.00		
북군서부	11	0.18			1.14		
남군동부	5	0.40			5.00		
남군서부	5	0.20			2.86		
계	128	0.49			2.60		

여성 관련 ‘공약 수의 비율’에서는 ‘공약 수’분석과는 달리 남제주군서부 도의원 후보 6.2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남제주군동부 군의원 후보 5.00%, 서귀포시장 후보 4.17%, 서귀포시 도의원 후보 3.73%로, 남제주군과 서귀포시 지역에서 상위를 보였다.

여성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그러나 여성 관련 ‘단어 수 비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443)

<표 7-1-2-18> 여성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수			단어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도지사	3	0.33	3.041	0.000	1.37	1.018	0.443
제주시장	2	4.50			5.40		
서귀시장	3	5.00			10.57		
북군수	2	1.50			3.00		
남군수	4	1.50			1.88		
도의원 제주시	18	0.72			2.10		
서귀	8	0.38			2.49		
북군동부	3	0.00			0.00		
북군서부	2	0.00			0.00		
남군동부	2	0.00			0.00		
남군서부	3	2.33			8.10		
시군의원 제주시	36	0.72			3.58		
서귀	16	0.81			3.12		
북군동부	5	0.00			0.00		
북군서부	11	0.36			1.07		
남군동부	5	1.20			4.56		
남군서부	5	0.80			4.98		
계	128	0.86			2.97		

여성 관련 ‘단어 수’를 가장 많이 사용한 후보자 그룹은 서귀포시장 후보들로서 평균 5.00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그 다음은 제주시장 후보 평균 4.50개, 세 번째로는 남제주군서부 군의원 후보들로서, 평균 2.33개의 단어를 사용해 ‘공약 수’분석과 마찬가지로 의원 후보자들 중에서는 비교적 높은 단어 수를 사용하였다. 남제주군동부 군의원 후보를 제외하고 도지사 후보들을 비롯한 나머지 그룹들은 평균 이하의 단어 수를 사용했다.

여성 관련 ‘단어 수의 비율’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지사 후보자 그룹이 가장 높아 10.57%의 비율을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는 남제주군서부 도의원 후보

자 평균 8.10%, 제주시장 후보자 평균 5.40%, 남제주군서부와 남제주군동부의
 군의원 후보자가 각각 4.98%와 4.56%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 관광 관련 공약 분석

관광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그러나 ‘공약 수 비율’에서는 차이가 없다.(유의도 0.076)

<표 7-1-2-19> 관광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수			공약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도지사	3	3.10	3.074	0.000	4.03	1.615	0.076
제주시장	2	3.00			11.55		
서귀시장	3	3.00			7.43		
북군수	2	1.00			3.05		
남군수	4	2.25			10.25		
도의원 제주시	18	1.17			9.06		
서귀	8	2.13			12.50		
북군동부	3	0.67			6.67		
북군서부	2	0.00			0.00		
남군동부	2	2.00			9.60		
남군서부	3	1.33			11.13		
시군의원 제주시	36	0.36			3.77		
서귀	16	0.75			5.38		
북군동부	5	0.00			0.00		
북군서부	11	0.45			3.55		
남군동부	5	1.00			9.60		
남군서부	5	0.80			8.86		
계	128	0.96			6.35		

관광 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도지사 후보들이 3.10개로 가장 많이 발표했다.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후보들이 다음으로 3.00개를 발표했고 다음순위는 평균 2.25개를 발표한 남군수 후보자들과 평균 2.13개를 발표한 서귀포시 도의원 후보자들이다. 대체로 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이 관광 관련 공약을 많이 발표했다.

‘공약 수의 비율’에서는 ‘공약 수’분석과는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남제주군 동부 도의원 후보들이 19.4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서귀포시 도의원 후보자들이 12.50%, 제주시장 후보자들이 11.55%, 남제주군서부 도의원 후보자들이 11.13%, 남제주군수 후보자들이 10.25%, 남제주군동부 도의원 후보자들이 9.60%를 나타냈다. 관광 관련 공약은 대체로 남제주군지역에서 높게 나타났고 북제주군지역에서는 대부분 평균 6.35%미만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광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그러나 관광 관련 ‘단어 수 비율’에서는 차이가 없다.(유의도 0.216)

관광 관련 ‘단어 수’를 가장 많이 사용한 그룹은 서귀포시장 후보들로서 평균 12.33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그 다음 순위는 남제주군수와 제주시장 후보로서 각각 12.33개와 8.00개의 단어를 사용했고, 서귀포시 도의원 후보 4.25개, 남제주군동부 도의원 후보 3.00개로 나타나 대체로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단어 수 비율’분석에서는 ‘단어 수’분석과 마찬가지로 서귀포시장 후보들이 24.3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귀포시 도의원 후보 15.61%, 남제주군동부 도의원 후보 15.50%이다. 다음은 12.00%를 나타낸 제주시장 후보 11.88%를 나타낸 제주시 도의원 후보 순이다. 관광 관련 ‘공약 수’나 ‘공약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관광 관련 ‘단어 수’나 ‘단어 수 비율’에 있어서도 북제주군 지역은 아주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비교적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7-1-2-20> 관광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수			단어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도지사	3	2.00	6.180	0.000	5.23	1.290	0.216
제주시장	2	8.00			12.00		
서귀시장	3	12.33			24.30		
북군수	2	3.00			6.00		
남군수	4	8.25			11.68		
도의원 제주시	18	2.67			11.88		
서귀	8	4.25			15.61		
북군동부	3	0.67			5.57		
북군서부	2	2.00			6.25		
남군동부	2	3.00			15.50		
남군서부	3	2.67			9.27		
시군의원 제주시	36	0.92			4.78		
서귀	16	2.44			11.19		
북군동부	5	0.40			11.12		
북군서부	11	1.36			6.74		
남군동부	5	2.20			9.16		
남군서부	5	1.80			9.24		
계	128	2.41			9.15		

□ 교통 관련 공약 분석

교통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4) 그러나 ‘공약 수 비율’에서는 차이가 없다.(유의도 0.278)

교통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공약을 발표한 그룹은 서귀포시장 후보자로 평균 10.67개이다. 그 다음은 4.00개의 공약을 발표한 제주시장 후보, 북제주군수 후보와 서귀포시 시의원 후보들은 각각 1.50개를 발표했고, 나머지 그룹들은 평균과 비슷하거나 낮은 공약 수를 발표했다. 특히 도지사 후보들은 전혀 발표하지 않았고 북제주군지역 의원 후보자들도 교통 관련 공약이 없거나 낮게 발표하여 교통문제를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7-1-2-21> 교통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수			공약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도지사	3	0.00	2.374	0.004	0.00	1.202	0.278
제주시장	2	4.00			7.00		
서귀시장	3	10.67			12.83		
북군수	2	1.50			5.75		
남군수	4	0.50			1.58		
도의원 제주시	18	1.06			9.07		
서귀	8	0.75			3.36		
북군동부	3	0.00			0.00		
북군서부	2	0.00			0.00		
남군동부	2	1.00			6.25		
남군서부	3	1.33			6.93		
시군의원 제주시	36	1.47			11.36		
서귀	16	1.50			9.92		
북군동부	5	0.40			2.86		
북군서부	11	0.27			1.87		
남군동부	5	0.60			6.68		
남군서부	5	1.20			9.14		
계	128	1.30			7.62		

‘공약 수 비율’분석에서는 서귀포시 시의원 후보들이 ‘공약 수’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12.83%가 교통관련 공약이다. 그 다음은 제주시 시의원 후보 평균 11.36%, 서귀포시 도의원 후보 9.92%, 남제주군서부 군의원 후보 9.14%, 제주시 도의원 후보 9.07%, 서귀포시장 후보 7.00%로 남제주군서부를 제외하고 대체로 시지역 후보자들이 교통문제에 대한 ‘공약 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교통 관련 ‘단어 수 비율’에서도 차이가 있다.(유의도 0.039)

<표 7-1-2-22> 교통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수			단어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도지사	3	0.00	3.062	0.000	0.00	1.804	0.039
제주시장	2	7.00			7.45		
서귀시장	3	15.00			18.60		
북군수	2	2.00			4.00		
남군수	4	1.75			1.48		
도의원 제주시	18	2.39			11.35		
서귀	8	1.50			4.14		
북군동부	3	0.00			0.00		
북군서부	2	1.50			6.50		
남군동부	2	1.00			3.70		
남군서부	3	3.00			9.20		
시군의원 제주시	36	3.39			16.30		
서귀	16	2.69			13.22		
북군동부	5	0.80			5.08		
북군서부	11	1.00			7.19		
남군동부	5	1.40			10.22		
남군서부	5	2.80			15.90		
계	128	2.66			10.96		

교통 관련 ‘단어 수’를 분석한 결과는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과 마찬가지로 서귀포시장 후보들이 평균 7.00개를 사용하여 가장 많고, 제주시장 후보자 평균 7.00개, 제주시 시의원 후보 평균 3.39개, 남제주군서부 도의원 후보 평균 3.00개, 남제주군서부 군의원은 평균 2.80개, 서귀포시 시의원 후보 평균 2.69개이고, 나머지 그룹들은 평균 2.66개 보다 낮은 단어 수를 사용했다.

‘단어 수 비율’분석에서는 서귀포시장 후보들이 18.60%로 교통 관련 문제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었다. 다음은 제주시 시의원, 남제주군서부 군의원 후보가 각각 16.30%, 15.90%를 나타냈고, 서귀포시 시의원 후보들은 13.22%를 나타냈다. ‘단어 수’분석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제주군지역 후보자들은 교통 관련 ‘단어 수 비율’에서도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교통 관련 분야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 관련 공약 분석

환경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1) 그러나 ‘공약 수 비율’에서는 차이가 없다.(유의도 0.368)

환경 관련 공약을 가장 많이 제시한 그룹은 평균 6.33개의 공약을 발표한 서귀포시장 후보들이다. 그 다음은 제주시장 후보 평균 3.00개, 남제주군동부와 서부의 군의원 후보 1.60개, 서귀포시 시의원 후보 1.56개, 북제주군수 후보 1.50개, 도지사 후보 1.33개의 환경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이 외의 그룹들은 평균에 못 미쳤는데, 특히 북제주군지역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공약 수 비율’분석의 경우는 제주시장 후보들이 11.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서귀포시 시의원 후보 10.91%, 서귀포시장 후보자들이 9.53%, 남제주군동부와 서부 군의원 후보 각각 9.02%, 7.94%를 차지하였다. 여기서도 역시 북제주군지역은 아주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7-1-2-23> 환경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수			공약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도지사	3	1.33	2.879	0.001	5.07	1.096	0.368
제주시장	2	3.00			11.55		
서귀시장	3	6.33			9.53		
북군수	2	1.50			5.75		
남군수	4	1.00			3.33		
도의원 제주시	18	0.83			6.93		
서귀	8	0.63			7.01		
북군동부	3	0.33			3.33		
북군서부	2	0.00			0.00		
남군동부	2	0.50			3.15		
남군서부	3	0.00			0.00		
시군의원 제주시	36	0.92			7.20		
서귀	16	1.56			10.91		
북군동부	5	0.00			0.00		
북군서부	11	0.45			3.29		
남군동부	5	1.60			9.02		
남군서부	5	1.60			7.94		
계	128	1.07			6.59		

환경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그러나 환경 관련 '단어 수 비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131)

환경 관련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그룹은 평균 8.33개의 단어를 사용한 서귀포시장 후보 그룹이다. 제주시장 후보들은 평균 7.00개, 도지사 후보 평균 5.67개, 남제주군수 후보와 서귀포시 시의원 후보 평균 3.50개, 북제주군수 후보 평균 3.00개로 나타나 자치단체장들이 현저하게 많이 사용했다.

<표 7-1-2-24> 환경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수			단어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도지사	3	5.67	3.234	0.000	15.50	1.452	0.131
제주시장	2	7.00			9.20		
서귀시장	3	8.33			14.50		
북군수	2	3.00			6.00		
남군수	4	3.50			3.70		
도의원 제주시	18	2.00			8.14		
서귀	8	2.25			7.80		
북군동부	3	1.00			8.33		
북군서부	2	1.00			3.15		
남군동부	2	0.50			1.85		
남군서부	3	0.00			0.00		
시군의원 제주시	36	1.64			8.77		
서귀	16	3.50			17.08		
북군동부	5	0.20			1.42		
북군서부	11	0.91			6.23		
남군동부	5	2.00			7.16		
남군서부	5	2.20			8.62		
계	128	2.21			8.77		

‘단어 수 비율’분석에서는 평균 17.08%로 나타난 서귀포시 시의원 후보자 그룹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은 도지사 후보 평균 15.50%, 서귀포 시장 후보 14.50%, 제주시장 후보 9.20%, 제주시 시의원 후보 8.77%로 나타났다. 이 외의 지역은 평균 8.77%에 못 미치고 있다. 대체로 군 지역 보다는 시 지역의 후보자들의 환경 관련 ‘단어 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도 시 지역에서 환경 문제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 정보화 관련 공약 분석

정보화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공약 수 비율’에서도 차이가 있다.(유의도 0.012)

<표 7-1-2-25> 정보화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수			공약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도지사	3	0.67	4.661	0.000	2.50	2.129	0.012
제주시장	2	0.00			0.00		
서귀시장	3	0.00			0.00		
북군수	2	0.00			0.00		
남군수	4	0.75			2.45		
도의원 제주시	18	0.00			0.00		
서귀	8	0.00			0.00		
북군동부	3	0.00			0.00		
북군서부	2	0.00			0.00		
남군동부	2	0.00			0.00		
남군서부	3	0.00			0.00		
시군의원 제주시	36	0.00			0.00		
서귀	16	0.01			0.63		
북군동부	5	0.00			0.00		
북군서부	11	0.00			0.00		
남군동부	5	0.00			0.00		
남군서부	5	0.20			0.62		
계	128	0.01			0.24		

정보화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분석에서는 남제주군수 후보들이 0.75개의 ‘공약 수’와 2.45%의 ‘공약 수 비율’, 도지사 후보들이 0.67개의 ‘공약 수’와 2.50%의 ‘공약 수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외에는 대부분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정보화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분석은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보화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그리고 정보 관련 ‘단어 수 비율’에서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40)

<표 7-1-2-26> 정보화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수			단어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도지사	3	1.00	4.191	0.000	2.40	1.794	0.040
제주시장	2	4.50			4.50		
서귀시장	3	0.33			1.00		
북군수	2	0.00			0.00		
남군수	4	3.25			3.48		
도의원 제주시	18	0.00			0.00		
서귀	8	0.00			0.00		
북군동부	3	0.00			0.00		
북군서부	2	0.00			0.00		
남군동부	2	0.00			0.00		
남군서부	3	0.33			0.57		
시군의원 제주시	36	0.01			0.33		
서귀	16	0.25			0.57		
북군동부	5	0.00			0.00		
북군서부	11	0.00			0.00		
남군동부	5	0.00			0.00		
남군서부	5	0.20			0.46		
계	128	0.27			0.45		

정보화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분석에 있어서도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분석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보화 관련 ‘단어 수’에 있어서는 제주시장 후보자들이 평균 4.50개의 단어를 사용했고 남제주군수 후보자들은 평균 3.25개, 도지사 후보자들은 평균 1.00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다음으로 서귀포시장과 남제주군서부 후보자들이 3명 중 1명, 서귀포시 시의원 후

보자들이 16명 중 1명, 남제주군서부 군의원 후보자들이 5명 중 1명만이 정보화 관련 단어를 1개 사용하고 있어 이 분석 결과는 별 의미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

‘단어 수 비율’에 있어서도 제주시장 후보자들이 4.50%, 남제주군수 후보자들이 3.48%, 도지사 후보자들이 2.40%를 나타냈고 나머지는 ‘단어 수’ 분석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이 분석 결과도 별 의미를 갖고 있지 못하다.

□ 감귤정책에 대한 경향성 분석

감귤정책에 대한 이슈별 분석을 실시하여 후보자들이 감귤정책에 대한 경향성을 분석했다. 50점에 가까울수록 생산조정제와 같이 관주도 통제위주의 정책을 지향하는 것이고, 점수가 10점대로 가까울수록 농민들의 자율에 맡기는 정책을 원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그룹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18)

<표 7-1-2-27> 감귤정책에 대한 분석 점수

항목	내용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통계량	유의도
감귤 정책에 대한 분석 점수	도지사	3	26.67	15.28	40.00	2.009	0.018
	제주시장	2	20.00	14.14	30.00		
	서귀시장	3	23.33	11.55	30.00		
	북군수	2	40.00	0.00	40.00		
	남군수	4	32.50	22.17	50.00		
	도의원 제주시	18	28.89	7.58	40.00		
	서귀	8	25.00	12.47	43.30		
	북군동부	3	25.57	5.10	30.00		
	북군서부	2	20.00	14.14	30.00		
	남군동부	2	35.00	7.07	40.00		
	남군서부	3	26.67	5.77	30.00		
	시군의원 제주시	36	29.17	5.00	30.00		
	서귀	16	30.94	3.75	45.00		
	북군동부	5	30.00	0.00	30.00		
	북군서부	11	19.09	13.75	40.00		
	남군동부	5	35.34	5.06	40.00		
	남군서부	5	32.00	4.47	40.00		
	계	128	28.35	9.01	50.00		

분석 결과, 전체 평균 점수가 28.35로 가운데 구간에 위치하는 점수를 나타내고 있어서 후보자들이 어느 한 쪽으로 크게 치우치는 경향은 없음을 알 수 있다.

관의 역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룹은 1위가 북제주군수 후보자 그룹으로 평균 40.00점을 나타냈다. 순서별로 살펴보면, 2위는 남제주군동부 군의원 후보 35.34점, 3위는 남제주군동부 도의원 후보 32.50점, 4위는 남제주군수 후보 32.50점으로, 북제주군수 후보자들을 제외하고 남제주군지역의 후보자들이 비교적 관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민들의 자율에 맡기되 관은 지원하는 정책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 그룹의 우선 순위를 보면 1위가 북제주군서부 군의원 후보자 그룹으로 19.09점이었으며, 2위는 제주시장 후보와 북제주군서부 도의원 후보 20.00점이다. 4위는 서귀포시장 후보 23.33점, 5위는 서귀포시 도의원 후보 25.00점이다. 여기서 특이한 경향은 북제주군수 후보자들이 관의 역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반하여, 대부분 북제주군의회 의원 후보자들은 농민들의 자율에 맡기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 환경·지역개발 정책 경향성 분석

환경과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이슈별 분석을 실시하여 후보자들이 환경과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경향성을 분석했다. 50점에 가까울수록 개발위주의 정책을 펴자는 논리이고, 점수가 10점대로 가까울수록 환경보존위주로 계획을 하자고 하는 경향성을 나타낸다. 분석 결과 그룹간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607)

분석 결과, 전체 평균이 27.01점으로 비교적 환경보존 위주의 정책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점수가 30점인데, 이에 해당하는 그룹은 제주시, 북제주군서부, 남제주군동부, 남제주군서부 도의원 후보자들로서 전체적으로 어느 한 쪽으로 크게 치우치는 경향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는 환경보존 위주의 정책을 지향하고 있는 데 1위가 도지사 후보 18.33점이며, 2위가 남제주군수 후보자 그룹으로서 18.75점, 3위가 북제주군서부 군의원으로서 22.73점, 4위가 제주시장 후보 23.35점, 5위가 북제주군수 후보자 그룹으로서 23.75, 서귀포시장 후보자 그룹이 23.77점이다.

<표 7-1-2-28> 환경과 지역개발에 대한 분석 점수

항목	내용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통계량	유의도
환경과 지역 개발에 대한 분석 점수	도지사	3	18.33	2.89	20.00	0.867	0.607
	제주시장	2	23.35	9.40	30.00		
	서귀시장	3	23.77	5.44	30.00		
	북군수	2	23.75	5.30	27.50		
	남군수	4	18.75	14.36	30.00		
	도의원 제주시	18	30.00	11.38	50.00		
	서귀	8	25.63	7.29	30.00		
	북군동부	3	26.67	5.77	30.00		
	북군서부	2	30.00	0.00	30.00		
	남군동부	2	30.00	0.00	30.00		
	남군서부	3	30.00	0.00	30.00		
	시군의원 제주시	36	29.54	10.24	50.00		
	서귀	16	26.25	8.66	40.00		
	북군동부	5	28.00	4.47	30.00		
	북군서부	11	22.73	12.72	30.00		
	남군동부	5	26.00	5.48	30.00		
	남군서부	5	24.66	8.69	30.00		
	계	128	27.01	9.58	50.00		

□ 교통정책에 대한 경향성 분석

교통정책에 대한 이슈별 분석을 실시하여 후보자들이 교통정책과 철학이 경향성을 분석했다. 50점에 가까울수록 소통 보다는 안전위주, 공급위주의 정책 보다는 수요관리와 대중교통 위주의 정책을 지향하는 것이고, 10점에 가까울수록 공급위주이며 소통위주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룹별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741)

안전위주, 대중교통위주, 수요관리위주의 정책 지향을 중심으로 순위를 분석한 결과 서귀포시 도의원 후보자들이 평점 32.50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제주시 도의원 후보자 그룹이 평점 31.67점, 남제주군서부 군의원 그룹이 31점이었다. 도지사, 북제주군동부, 북군서부, 남제주군서부 도의원 후보자 그룹은 평점 30점으로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2-29> 교통정책에 대한 분석 점수

항목	내용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통계량	유의도
교통 정책에 대한 분석 점수	도지사	3	30.00	0.00	30.00	0.747	0.741
	제주시장	2	23.35	18.88	36.70		
	서귀시장	3	17.63	10.81	30.00		
	북군수	2	23.05	9.83	30.00		
	남군수	4	21.25	14.36	30.00		
	도의원 제주시	18	31.67	9.85	50.00		
	서귀	8	32.50	12.82	50.00		
	북군동부	3	30.00	0.00	30.00		
	북군서부	2	30.00	0.00	30.00		
	남군동부	2	25.00	7.07	30.00		
	남군서부	3	30.00	20.00	50.00		
	시군의원 제주시	36	29.16	14.48	50.00		
	서귀	16	23.50	9.97	40.00		
	북군동부	5	28.00	10.95	40.00		
	북군서부	11	22.73	15.55	50.00		
	남군동부	5	22.00	10.95	30.00		
	남군서부	5	31.00	14.32	50.00		
	계	128	27.51	12.52	50.00		

공급위주의 정책을 지향하는 순으로 정리하면 서귀포시장 후보자 그룹이 1위로 평점 17.63점이다. 2위는 남군수 후보자 그룹으로 평균 20.35점, 3위는 남제주군동부 군의원 그룹으로 평점 20.00점, 4위는 북제주군서부 군의원 후보자 그룹으로 평점 22.73점, 5위는 북제주군수 후보자 그룹 평점 23.05점을 기록했다. 그리고 7위는 제주시장 후보자 그룹으로서 평점 23.35점을 나타냈다.

특이한 것은 남제주군동부지역을 제외한 도의원 후보자 그룹과 남제주군서부 군의원 후보자 그룹을 제외하고는 모두 평점 27.51점 아래로 대체로 안전 위주, 대중교통위주, 수요관리위주의 정책을 지향한다고 보여진다.

□ 공약의 구체성 분석

구체적이거나 예산이 수반될 수 있으며, 단기간에 가시화할 수 있는 공약의 경우는 50점을, 그렇지 않고 선언적 의미로만 제시한 공약을 10점으로 하여 공약의 구체성에 대한 이슈별 분석을 실시한바 집단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유의도 0.498)

<표 7-1-2-30> 공약의 구체성에 대한 분석 점수

항목	내용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통계량	유의도
공약의 구체성 에 대한 분석 점수	도지사	3	18.70	9.48	28.80	0.966	0.498
	제주시장	2	32.45	2.05	33.90		
	서귀시장	3	34.70	4.60	39.20		
	북군수	2	24.80	4.24	27.80		
	남군수	4	27.80	18.58	38.60		
	도의원 제주시	18	35.18	8.48	47.50		
	서귀	8	35.50	6.76	41.00		
	북군동부	3	34.60	1.04	35.80		
	북군서부	2	34.00	0.00	34.00		
	남군동부	2	26.55	9.26	33.10		
	남군서부	3	36.17	4.05	40.80		
	시군의원 제주시	36	35.79	9.33	50.00		
	서귀	16	37.16	8.85	49.40		
	북군동부	5	33.64	8.12	41.00		
	북군서부	11	32.80	17.47	50.00		
	남군동부	5	33.38	4.34	38.10		
	남군서부	5	32.34	7.68	38.60		
	계	128	34.20	9.84	50.00		

분석 결과, 평점이 34.20점으로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한 그룹은 서귀포시 시의원 후보자 그룹으로 평점 37.16점이고, 그 다음이 남제주군서부 도의원 후보자 그룹으로 평점 36.17점, 3위 제주시 시의원 후보자 그룹 평점 35.79점, 4위 서귀포시 도의원 후보 평점 35.50점, 제주시 도의원 후보자 그룹 평점 35.18점, 서귀포시장 후보자 그룹 평점 34.70점이다.

공약의 구체성이 가장 결여된 것으로 나타난 그룹은 도지사 후보 그룹으로서 평점 18.70점이다. 그 다음은 북제주군수 후보자 그룹 평점 24.80점, 남제주군동부 도의원 후보자 그룹 평점은 26.55점, 4위는 남제주군수 후보자 그룹 평점은 27.80점 순이다. 이 외의 지역은 모두 평점 30점을 나타내고 있어 공약이 구체적이었다고 보여진다. 도지사 후보자 그룹이 제시한 공약의 구체성이 취약한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 공약의 총계 분석

공약에 사용한 단어 수 총계를 가지고 분석한 바 그룹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또한 ‘공약 수 총계’분석에서도 그룹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분석 결과, 가장 많은 단어를 사용한 그룹은 평균 90.00개의 단어를 사용한 서귀포시장 후보 그룹이다. 다음은 제주시장 후보 76.50개, 남제주군수 후보 59.75개, 북제주군수 후보 50.00개, 도지사 후보 33.33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이 의원 후보자들 보다는 공약과 관련하여 분야별 단어를 많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공약 수 총계’ 분석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서귀포시장 후보자들이 46.00개로 가장 많은 공약을 발표했고, 제주시장 후보 32.00개, 북제주군수 후보 29.50개, 도지사 후보 19.23개, 남제주군수 후보 19.00개로 ‘단어 수 총계’ 분석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이 의원 후보자들 보다 많은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2-31> 단어 수와 공약 수 총계

내용	빈도	단어수 총계			공약수 총계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도지사	3	33.33	6.936	0.000	19.33	4.011	0.000
제주시장	2	76.50			32.00		
서귀시장	3	90.00			46.00		
북군수	2	50.00			29.50		
남군수	4	59.75			19.00		
도의원 제주시	18	23.56			12.11		
서귀	8	27.63			13.88		
북군동부	3	18.00			9.00		
북군서부	2	23.50			5.00		
남군동부	2	17.50			10.50		
남군서부	3	30.00			15.33		
시군의원 제주시	36	18.44			10.78		
서귀	16	19.81			12.31		
북군동부	5	9.20			7.20		
북군서부	11	15.18			9.00		
남군동부	5	23.40			11.80		
남군서부	5	23.00			15.80		
계	128	24.68			13.17		

2. 후보자의 정당별 공약의 차이분석

2-1. 6.27선거 공약 분석

□ 정당별 4·3문제 공약 분석

정당별 4.3문제와 관련하여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69) ‘공약 수 비율’의 경우도 그룹간에 차이가 없다.(유의도 0.410)

<표 7-2-1-1> 정당별 4·3문제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여당	19	0.05	2.717	0.069	0.23	0.896	0.410
야당	8	0.38			1.39		
무소속	151	0.07			0.44		
계	178	0.01			0.46		

4·3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공약 수’를 발표한 그룹은 야당 후보자들로써 평균 0.38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무소속 후보자들은 평균 0.07개, 여당 후보자들은 평균 0.05개의 4.3문제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4.3문제와 관련한 ‘공약 수 비율’에서는 야당 후보자들이 평균 1.39%로 가장 높았고, 무소속 후보 평균 0.44%, 여당 후보 평균 0.23%를 차지했다.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야당 후보자들이 무소속이나 여당 보다는 4.3문제와 관련한 공약에 훨씬 많은 비중을 두었다.

정당별 4.3문제 관련하여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645) ‘단어 수 비율’도 마찬가지로 정당별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647)

<표 7-2-1-2> 정당별 4·3문제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여당	19	0.16	0.439	0.645	0.43	0.436	0.647
야당	8	0.50			1.23		
무소속	151	0.19			0.46		
계	178	0.20			0.49		

4.3문제 관련하여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단어 수’를 발표한 그룹은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야당 후보자들로서 평균 0.50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무소속과 여당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0.19, 0.16개로서 야당 후보자들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어 수 비율’ 분석에 있어서도 야당 후보자들이 평균 1.23%로서 0.46%와 0.43%를 기록한 무소속과 여당 후보자들 보다 2~3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정당별 정치·행정·재정 분야 공약 분석

정당별 정치·행정·재정문제와 관련하여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367) 그리고 ‘공약 수 비율’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다.(유의도 0.631)

<표 7-2-1-3> 정당별 정치·행정·재정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여당	19	1.95	1.007	0.367	9.25	0.462	0.631
야당	8	1.38			7.41		
무소속	151	1.28			11.29		
계	178	1.35			10.90		

정치·행정·재정문제와 관련하여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공약 수’를 발표한 그룹은 평균 1.95개의 공약을 발표한 여당 후보들이다. 야당과 무소속 후보는 각각 1.38, 1.28개의 정치·행정·재정문제와 관련한 공약을 발표했다.

정치·행정·재정관련 문제에 대한 ‘공약 수 비율’ 분석에서는 ‘공약 수’ 분석 결과와는 다르게 무소속 후보자들이 평균 11.2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 수’가 가장 많았던 여당 후보자들은 평균 9.25%였고, 야당 후보자들은 평균 7.41%의 비율을 차지했다.

정당별 정치·행정·재정문제와 관련하여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83) ‘단어 수 비율’에서도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다.(유의도 0.569)

<표 7-2-1-4> 정당별 정치·행정·재정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여당	19	3.79	2.519	0.083	7.57	0.566	0.569
야당	8	5.63			9.78		
무소속	151	2.70			10.91		
계	178	2.95			10.51		

정치·행정·재정문제와 관련한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분석 결과는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분석 결과와는 약간 상이하게 나타났다. 정치·행정·재정문제와 관련한 ‘단어 수’가 가장 많은 그룹은 평균 5.63개의 단어를 사용한 야당 후보들이다. 여당과 무소속 후보들은 각각 평균 3.79, 2.70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단어 수 비율’ 분석에서는 무소속 후보자들이 평균 10.9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야당, 여당 후보자 순으로 각각 평균 9.78%, 7.57%였다.

□ 정당별 1차산업 공약 분석

정당별 1차산업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32) 그러나 ‘공약 수 비율’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150)

<표 7-2-1-5> 정당별 1차산업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여당	19	2.95	3.526	0.032	14.98	1.916	0.150
야당	8	1.13			5.80		
무소속	151	1.40			9.92		
계	178	1.56			10.27		

1차산업 관련 ‘공약 수’를 가장 많이 제시한 그룹은 평균 2.95개를 발표한 여당 후보자들로서 1.40개를 발표한 무소속 후보자들이나 1.13개를 발표한 야당 후보자들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차산업 관련 ‘공약 수 비율’ 분석에 있어서도 여당 후보자들이 14.98%로 가장 높았다. 무소속과 야당 후보자들은 각각 9.92%, 5.80%로 여당 후보자들과는 차이를 보였다.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여당 후보자들이 1차산업과 관련한 공약에 큰 비중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당별 1차산업과 관련하여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335) ‘단어 수 비율’에서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375)

<표 7-2-1-6> 정당별 1차산업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여당	19	5.53	1.101	0.335	14.97	0.988	0.375
야당	8	3.63			7.54		
무소속	151	3.52			11.46		
계	178	3.74			11.66		

1차산업 관련 ‘단어 수’ 분석에서도 ‘공약 수’나 ‘공약 수 비율’ 분석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여당 후보자들이 평균 5.53개를 사용해 가장 많았고 야당과 무소속 후보자들은 각각 3.63, 3.52개를 사용했다.

1차산업 관련 ‘단어 수 비율’을 분석한 결과는 ‘단어 수’ 분석과 마찬가지로 여당 후보자들이 가장 높은 평균 14.97%이다. 무소속 후보자들도 11.4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야당 후보자들은 7.54%의 비율을 보였다.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기에서도 야당이 1차 산업과 관련한 ‘단어 수’나 ‘단어 수 비율’이 적은 것은 눈여겨 볼 만한 결과인 것 같다.

□ 정당별 감귤산업 공약 분석

정당별 감귤산업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8) 그러나 ‘공약 수 비율’에서는 차이가 없다.(유의도 0.145)

<표 7-2-1-7> 정당별 감귤산업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여당	19	0.89	5.030	0.008	3.43	1.950	0.145
야당	8	0.63			3.56		
무소속	151	0.23			1.63		
계	178	0.32			1.91		

정당별로 감귤산업 관련 ‘공약 수’를 분석한 결과 여당 후보자들이 평균 0.89개로 가장 많은 공약을 발표했다. 야당 후보자들은 평균 0.63개의 공약을 발표했고, 무소속 후보자들은 평균 0.23개를 발표해 가장 적었다.

‘공약 수 비율’ 분석에 있어서는 ‘공약 수’ 분석과는 다르게 야당 후보자들이 평균 3.56%로 가장 높았고, 여당과 무소속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3.43%, 1.63%였다.

분석 결과를 봤을 때, 무소속 후보자들이 감귤산업과 관련한 공약에 비교적 비중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정당별 감귤산업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유의도 0.010) 그러나 ‘단어수 비율’에서는 차이가 없다.(유의도 0.087)

<표 7-2-1-8> 정당별 감귤산업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수			단어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여당	19	1.58	4.765	0.010	3.14	2.477	0.087
야당	8	1.13			4.64		
무소속	151	0.58			1.89		
계	178	0.71			2.14		

정당별 감귤산업 관련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분석에 있어서도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분석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단어수’ 분석에서는 여당 후보자들이 평균 1.58로 가장 많았고, 야당과 무소속 후보자들이 각각 평균 1.13개와 0.58개로 나타났다.

‘단어 수 비율’ 분석에서는 야당 후보자들이 평균 4.64%로 가장 높았고, 여당 후보자들이 평균 3.14%, 무소속 후보자들이 평균 1.49%로 가장 낮았다.

□ 정당별 지역경제·개발 관련 공약 분석

정당별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119) ‘공약 수 비율’에서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378)

<표 7-2-1-9> 정당별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여당	19	3.53	2.152	0.119	17.47	0.978	0.378
야당	8	3.75			25.23		
무소속	151	2.50			22.75		
계	178	2.66			22.29		

정당별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공약 수’ 분석 결과 야당 후보자들이 평균 3.75개로 가장 많았고 여당 후보자들은 평균 3.53개, 무소속 후보자들은 평

균 2.50개로 나타났다.

‘공약 수 비율’에서도 야당 후보자들이 평균 25.23%로 가장 높았고 ‘공약 수’가 가장 낮았던 무소속 후보자들도 평균 22.75%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여당 후보자들은 평균 17.47%였다.

정당별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15) 그러나 ‘단어수 비율’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860)

<표 7-2-1-10> 정당별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여당	19	6.47	4.295	0.015	14.04	0.151	0.860
야당	8	6.38			15.18		
무소속	151	3.79			15.76		
계	178	4.20			15.55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해서는 여당 후보자들이 평균 6.47개로 가장 많은 ‘단어 수’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 후보자들은 평균 6.38개, 무소속 후보자들은 평균 3.79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단어 수 비율’ 분석에 있어서는 ‘단어 수’ 분석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는데 무소속 후보자들이 평균 15.76%로 가장 높았고, 야당 후보자들은 15.18%, 여당 후보자들은 14.04%의 비율을 보였다.

□ 정당별 교육 관련 공약 분석

정당별 교육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143) ‘공약 수 비율’에서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654)

<표 7-2-1-11> 정당별 교육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여당	19	0.89	1.964	0.143	6.04	0.425	0.654
야당	8	1.38			4.24		
무소속	151	0.62			4.55		
계	178	0.69			4.69		

교육 관련 ‘공약 수’를 분석한 결과 야당 후보자들이 평균 1.38개의 공약을 발표하여 가장 많았고, 여당 후보자들은 평균 0.89개, 무소속 후보자들이 평균 0.62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 수 비율’ 분석에 있어서는 ‘공약 수’ 분석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여당 후보자들이 평균 6.04%로 가장 높았고, 무소속 후보자들은 평균 4.55%의 비율을 보였다. ‘공약 수’가 가장 많았던 야당 후보자들은 평균 4.24%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정당별 교육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도 0.009) 그러나 교육 관련 ‘단어 수 비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588)

<표 7-2-1-12> 정당별 교육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수			단어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여당	19	1.63	4.817	0.009	3.52	0.533	0.588
야당	8	2.38			4.30		
무소속	151	0.82			2.74		
계	178	0.98			2.89		

교육 관련 ‘단어 수’를 가장 많이 사용한 그룹은 ‘공약 수’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평균 2.98개를 사용한 야당 후보자들이었으며, 여당과 무소속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1.63, 0.82개의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소속 후보자

들이 사용한 교육 관련 단어수가 현저히 적음을 알 수 있다.

‘단어 수 비율’ 분석에서는 여당 후보자들이 평균 6.04%로 가장 높았다. ‘단어 수’가 현저히 적었던 무소속 후보자들은 평균 4.56%, 야당 후보자들은 평균 4.24%의 비율을 보였다.

□ 정당별 사회·복지 공약 분석

정당별 사회·복지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509) ‘공약 수 비율’에서도 차이가 없다.(유의도 0.580)

<표 7-2-1-13> 정당별 사회·복지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여당	19	2.32	0.677	0.509	11.43	0.546	0.580
야당	8	2.13			13.35		
무소속	151	1.80			14.61		
계	178	1.87			14.22		

정당별 사회·복지 관련 ‘공약 수’분석에서 가장 많은 공약을 제시한 그룹은 평균 2.32개의 공약을 발표한 여당 후보들이다. 야당 후보들은 평균 2.13개, 무소속 후보들은 평균 1.80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사회·복지 관련 ‘공약 수 비율’인 경우는 ‘공약 수’분석에서의 경우와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무소속 후보자들이 평균 14.6%로 가장 높았고, 야당 후보자들은 평균 13.35%를 나타냈다. 가장 많은 ‘공약 수’를 발표했던 여당 후보자들은 평균 11.43%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정당별 사회·복지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121) 그러나 사회·복지 관련 ‘단어 수 비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259)

<표 7-2-1-14> 정당별 사회·복지 관련 단어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단어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여당	19	5.16	2.135	0.121	11.72	0.362	0.259
야당	8	7.63			16.78		
무소속	151	4.42			17.28		
계	178	4.65			16.66		

사회·복지 관련 공약에 사용된 ‘단어 수’를 분석한 결과, 야당 후보자들이 평균 7.63개의 ‘단어 수’를 사용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과 무소속 후보들은 각각 평균 5.16, 4.42개이다.

‘단어 수 비율’ 분석에서는 ‘단어 수’가 가장 적었던 무소속 후보들이 평균 17.28%로 가장 높았고, 야당 후보들은 평균 16.78%, 여당 후보들은 평균 11.72%로 나타났다.

□ 정당별 문화·예술·체육 관련 공약 분석

정당별 문화·예술·체육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그러나 ‘공약 수 비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853)

<표 7-2-1-15> 정당별 문화·예술·체육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여당	19	0.95	0.537	0.585	4.07	0.393	0.676
야당	8	0.88			6.90		
무소속	151	0.67			5.12		
계	178	0.71			5.08		

문화·예술·체육 관련 ‘공약 수’를 분석한 결과, 여당 후보자들이 평균 0.95개로 가장 많았고, 야당 후보자들은 평균 0.88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무소속

후보자들은 평균 0.67개로 비교적 적은 수의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 수 비율’분석에서는 야당 후보자들이 평균 6.9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무소속 후보자들은 평균 5.12%의 비율을 보인 반면, 가장 많은 공약을 발표했던 여당 후보자들은 평균 4.07%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정당별 문화·예술·체육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199) 문화·예술·체육 관련 ‘단어 수 비율’에서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502)

<표 7-2-1-16> 정당별 문화·예술·체육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여당	19	1.74	1.628	0.199	3.55	0.691	0.502
야당	8	3.00			6.30		
무소속	151	1.51			5.20		
계	178	1.60			5.07		

문화·예술·체육 관련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그룹은 평균 3.00개의 단어를 사용한 야당 후보자들이다. 여당 후보자들은 평균 1.74개, 무소속 후보자들은 평균 1.51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단어 수 비율’ 분석에 있어서도 야당 후보자들이 평균 6.30%의 비율로 가장 높았다. 무소속 후보자들은 평균 5.20%, 여당 후보자들은 평균 3.56%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 정당별 여성 관련 공약 분석

정당별 여성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그러나 ‘공약 수 비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904)

<표 7-2-1-17> 정당별 여성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여당	19	0.84	4.737	0.010	4.66	2.459	0.088
야당	8	0.88			5.04		
무소속	151	0.32			2.26		
계	178	0.41			2.64		

여성 관련 ‘공약 수’를 가장 많이 발표한 그룹은 평균 0.88개의 공약을 발표한 야당 후보자들과, 여당 후보자들도 평균 0.84개로 비교적 많은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소속 후보자들은 평균 0.32개로 적은 수의 여성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 수 비율’ 분석결과도 ‘공약 수’ 분석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야당 후보자들이 평균 5.04%로 가장 높았고, 여당과 무소속 후보자들은 각각 4.66%, 2.26%의 비율을 보였다.

정당별 여성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1) 그러나 여성 관련 ‘단어 수 비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470)

<표 7-2-1-18> 정당별 여성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여당	19	1.74	7.092	0.001	4.61	0.759	0.470
야당	8	3.38			5.40		
무소속	151	0.81			3.13		
계	178	1.03			3.39		

여성 관련 ‘단어 수’를 가장 많이 사용한 후보자 그룹은 평균 3.38개의 단어를 사용한 야당 후보자들이다. 여당과 무소속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1.74개, 0.81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야당 후보자들이 상당히 많은 여성 관련 ‘단어 수’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어 수 비율’ 분석에서도 야당 후보자들이 평균 5.40%로 가장 높았다. 여당 후보자들은 평균 4.61%, 무소속 후보자들은 평균 3.13%이다.

야당 후보자들이 타 후보자들 보다 여성 관련 정책에 보다 높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정당별 관광 관련 공약 분석

정당별 관광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43) 그러나 ‘공약 수 비율’에서는 차이가 없다.(유의도 0.484)

<표 7-2-1-19> 정당별 관광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여당	19	1.05	3.203	0.043	5.54	0.728	0.484
야당	8	1.25			7.08		
무소속	151	0.54			4.28		
계	178	0.63			4.54		

관광 관련 ‘공약 수’를 분석한 결과, 야당 후보자들이 평균 1.25개로 가장 많이 발표했고, 여당 후보자들은 평균 1.05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무소속 후보자들은 평균 0.54개로 타 후보자들에 비해 훨씬 적은 관광 관련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 수 비율’ 분석에서도 ‘공약 수’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야당 후보자들이 평균 7.08%의 비율로 가장 높고 여당 후보자들은 평균 5.54%, 무소속 후보자들은 평균 4.28%로 나타났다.

정당별 관광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그러나 관광 관련 ‘단어 수 비율’에서는 차이가 없다.(유의도 0.209)

<표 7-2-1-20> 정당별 관광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여당	19	4.05	10.270	0.000	8.72	1.582	0.209
야당	8	4.90			9.04		
무소속	151	1.72			5.86		
계	178	2.13			6.31		

관광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분석 결과도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분석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단어 수’에서는 야당 후보자들이 평균 4.90개로 가장 많았고, 여당과 무소속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4.05개, 1.72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단어 수 비율’ 분석에서도 야당 후보자들이 평균 9.04%로 가장 높았고 여당후보자들은 평균 8.72%, 무소속 후보자들은 평균 5.86%의 비율을 보였다.

□ 정당별 교통 관련 공약 분석

정당별 교통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253) ‘공약 수 비율’에서도 차이가 없다.(유의도 0.074)

<표 7-2-1-21> 정당별 교통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여당	19	1.74	1.384	0.253	9.65	0.648	0.074
야당	8	0.75			4.90		
무소속	151	1.51			13.32		
계	178	1.50			12.55		

교통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공약을 발표한 그룹은 평균 1.74개의 공약을 발표한 여당 후보자들이다. 무소속 후보자들은 평균 1.51개, 야당 후보자들은 평균 0.75개로 여당이나 무소속 후보자들에 비해 상당히 적은 교통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 수 비율’은 무소속 후보자들이 평균 13.32%로 가장 높았고, ‘공약 수’가 가장 많았던 여당 후보자들은 평균 9.65%로 나타났다. 무소속 후보자들은 평균 4.90%로 역시 타 후보자들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였다.

정당별 교통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852) 그리고 교통 관련 ‘단어 수 비율’에서도 차이가 없다.(유의도 0.075)

<표 7-2-1-22> 정당별 교통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여당	19	4.11	0.161	0.852	11.55	2.634	0.075
야당	8	3.75			4.76		
무소속	151	3.59			14.51		
계	178	3.65			13.76		

교통 관련 ‘단어 수’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단어를 사용한 후보자 그룹은 평균 4.11개의 단어를 사용한 여당 후보자들이다. ‘공약수’가 가장 적었던 야당은 평균 3.75개로 비교적 많게 나왔고, 무소속 후보자들은 평균 3.59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단어 수 비율’ 분석에서는 ‘공약 수 비율’ 분석과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무소속 후보자들이 평균 14.51%로 나타났고, 여당 후보자들은 평균 11.55%, 야당 후보자들은 평균 4.76%로 다른 정당 후보자들에 비해 적은 비율을 보였다.

□ 정당별 환경 관련 공약 분석

정당별 환경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17) 그러나 ‘공약수 비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150)

<표 7-2-1-23> 정당별 환경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여당	19	1.74	4.176	0.017	9.03	1.920	0.150
야당	8	2.25			14.20		
무소속	151	1.11			8.45		
계	178	1.23			8.77		

환경 관련 ‘공약 수’가 가장 많은 그룹은 평균 2.25개를 발표한 야당 후보자들이다. 여당 후보자들은 평균 1.74개, 무소속 후보자들은 평균 1.11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 수 비율’ 분석 결과도 이와 비슷하다. 야당 후보자들이 평균 14.20%로 가장 높고, 여당 후보자들은 평균 9.03%, 무소속 후보자들은 평균 8.45%의 비율을 보였다.

분석 결과 야당 후보자들이 환경 관련 공약에 큰 비중을 두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 환경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그러나 환경 관련 ‘단어 수 비율’에서는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다.(유의도 0.690)

<표 7-2-1-24> 정당별 환경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여당	19	4.68	8.102	0.000	11.10	0.620	0.539
야당	8	6.25			13.91		
무소속	151	2.61			10.11		
계	178	2.99			10.39		

환경 관련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그룹은 야당 후보자들로 평균 6.25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여당 후보자들은 평균 4.68개, 무소속 후보자들은 평균 2.61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단어 수 비율’에 있어서도 야당 후보자들이 평균 13.91%로 가장 높았고, 여당과 무소속 후보자들은 각각 11.10%, 10.11%의 비율을 보였다.

‘공약 수’나 ‘공약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분석 결과도 야당 후보자들이 타 후보자들에 비해 환경 관련 문제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정당별 정보화 관련 공약 분석

정당별 정보화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878) ‘공약 수 비율’에서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868)

<표 7-2-1-25> 정당별 정보화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여당	19	0.00	0.131	0.878	0.00	0.141	0.868
야당	8	0.00			0.00		
무소속	151	0.00			0.22		
계	178	0.00			0.19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분석 결과를 보면 무소속 후보자들의 ‘공약 수 비율’이 평균 0.22인 것을 제외하면 전 후보자들의 ‘공약 수’나 ‘공약 수 비율’은 ‘0’으로서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정당별 정보화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737) 그리고 정보관련 ‘단어수 비율’에서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800)

<표 7-2-1-26> 정당별 정보화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여당	19	0.00	0.305	0.737	0.00	0.224	0.800
야당	8	0.13			0.15		
무소속	151	0.01			0.50		
계	178	0.01			0.43		

정보화 관련 단어를 사용한 그룹은 야당과 무소속 후보자들로 각각 평균 0.13, 0.01이었다. ‘단어 수 비율’은 무소속 후보자들이 평균 0.50%, 야당 후보자들이 평균 0.15%이고 여당은 0%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6.27선거에서 정보화 관련 공약은 아주 극소수였음을 알 수 있다.

□ 정당별 감귤정책 경향성 분석

정당별로 감귤정책에 대한 이슈별 분석을 실시하여 후보자들이 감귤정책에 대한 경향성을 분석했다. 50점에 가까울수록 생산조정제와 같이 관주도의 통제위주 정책을 지향하는 것이고, 점수가 10점대로 가까울수록 농민들의 자율에 맡기는 정책을 원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636)

<표 7-2-1-27> 정당별 감귤정책에 대한 분석 점수

항목	내용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통계량	유의도
감귤 정책에 대한 분석점수	여당	19	30.00	12.02	50.00	0.454	0.636
	야당	8	32.50	7.07	50.00		
	무소속	151	30.00	6.46	50.00		
	계	178	30.11	7.23	50.00		

여당과 무소속 후보자들은 평균 점수가 30.00점으로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야당 후보자들만이 평균 32.50점으로 관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당별 환경·지역개발 정책 경향성 분석

정당별로 환경과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이슈별 분석을 실시하여 후보자들이 환경과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경향성을 분석했다. 50점에 가까울수록 개발위주의 정책을 펴자는 논리이고, 점수가 10점대로 가까울수록 환경보존위주의 정책을 펴자는 경향성을 나타낸다. 분석 결과 그룹간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도 0.711)

<표 7-2-1-28> 정당별 환경과 지역개발에 대한 분석 점수

항목	내용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통계량	유의도
환경과 지역 개발에 대한 분석점수	여당	19	26.71	9.65	45.00	0.342	0.711
	야당	8	27.09	7.00	40.00		
	무소속	151	28.27	8.32	50.00		
	계	178	28.05	8.39	50.00		

모든 후보자들의 평균 점수가 30점 이하로 개발위주의 정책 보다는 환경보존위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 후보자들이 평균 26.71점으로 가장 환경보존위주의 경향이 높았고, 야당 후보자들과 무소속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27.09, 28.27점으로 나타났다.

□ 정당별 교통정책의 경향성 분석

선거 실시 내용별로 교통정책에 대한 이슈별 분석을 실시하여 후보자들이 교통정책과 철학의 경향성을 분석했다. 50점에 가까울수록 소통 보다는 안전위주, 공급위주의 정책 보다는 수요관리와 대중교통위주의 정책을 지향하는 것이고 10점에 가까울수록 공급위주이며 소통위주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룹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47)

<표 7-2-1-29> 정당별 교통정책에 대한 분석 점수

항목	내용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통계량	유의도
교통 정책에 대한 분석 점수	여당	19	29.29	11.86	50.00	3.117	0.047
	야당	8	36.88	9.61	50.00		
	무소속	151	26.27	12.58	50.00		
	계	178	27.07	12.55	50.00		

야당 후보자들은 평균 36.88점으로 공급위주, 소통위주의 정책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소속과 여당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26.27, 29.29점으로 공급위주, 소통위주의 정책 보다는 안전위주, 대중교통위주, 수요관리위주의 정책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이거나 예산이 수반될 수 있으며, 단기간에 가시화할 수 있는 공약의 경우는 50점을 그렇지 않고 선언적 의미로만 제시한 공약을 10점으로 하여 공약의 구체성에 대한 이슈별 분석을 실시했다. 그룹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도 0.973)

<표 7-2-1-30> 정당별 공약의 구체성에 대한 분석 점수

항목	내용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통계량	유의도
공약의 구체성에 대한 분석 점수	여당	19	32.75	9.39	44.00	0.028	0.973
	야당	8	32.83	8.95	47.50		
	무소속	151	33.18	8.35	50.00		
	계	178	33.12	8.43	50.00		

가장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한 그룹은 평균 33.40점인 무소속 후보자들이 야당과 여당 후보자들은 각각 32.83, 32.75점으로 모든 후보자들이 평균 30점 이상으로 공약이 대체로 구체적이었음을 보여준다.

□ 정당별 공약의 총계 분석

공약에 사용한 단어 수 총계를 가지고 정당별로 분석했다. 그룹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3) ‘공약 수 총계’분석에서도 그룹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12)

<표 7-2-1-31> 정당별 단어 총수와 공약 총수

내용	빈도	단어 수 총계			공약 수 총계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여당	19	38.74	6.051	0.003	18.68	4.510	0.012
야당	8	48.25			16.88		
무소속	151	26.25			12.07		
계	178	28.57			12.99		

분석 결과 가장 많은 단어를 사용한 그룹은 평균 48.25개의 단어를 사용한 야당 후보자들이고 여당 후보자들은 평균 38.74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무소속 후보자들은 평균 26.25개의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 수 총계’ 분석 결과에서는 여당 후보자들이 평균 18.68개의 공약을 발표하여 가장 많다. ‘단어 수 총계’가 가장 많았던 야당 후보자들은 평균 16.88개의 공약을 발표했고, 무소속 후보자들은 평균 12.07개로 타 후보자들에 비해 적은 공약을 발표했다.

2-2. 6.4선거 공약 분석

□ 정당별 4·3문제 공약 분석

정당별 4.3문제와 관련하여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공약 수 비율’의 경우도 그룹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표 7-2-2-1> 정당별 4·3문제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여당	16	0.75	19.775	0.000	5.79	21.427	0.000
야당	14	0.64			7.62		
무소속	99	0.00			0.00		
계	129	0.16			1.55		

4.3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공약 수’를 발표한 그룹은 여당 후보자들로 평균 0.75개이고, 야당 후보자들은 평균 0.64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무소속 후보자들은 4.3문제 관련하여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4.3문제와 관련한 ‘공약 수 비율’에서는 야당 후보자들이 평균 7.62%로 가장 높았고, 여당 후보자들은 평균 5.79%의 비율을 보였다. 무소속 후보자들은 0.00%로 4.3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비중을 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 4·3문제관련한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단어 수 비율’도 정당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표 7-2-2-2> 정당별 4·3문제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여당	16	1.44	22.897	0.000	5.11	23.068	0.000
야당	14	1.29			6.16		
무소속	99	0.00			0.00		
계	129	0.32			1.30		

4·3문제와 관련하여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단어 수’를 발표한 그룹은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당 후보자들로서 평균 1.440개의 공약을 발표했고 야당 후보자들은 평균 0.64개로 나타났다. 무소속 후보자들은 4.3문제와 관련하여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어 수 비율’ 분석에 있어서는 야당 후보자들이 평균 6.16%로 높았고, 여당 후보자들은 5.11%의 비율을 보였다. 무소속 후보자들의 4·3문제 관련 ‘단어 수 비율’은 ‘0%’였다.

여당이나 야당 후보자들은 6.27선거와 비교해 봤을 때, 4.3문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고, 반면 무소속 후보자들은 이 분야 공약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 정당별 정치·행정·재정 관련 공약 분석

정당별 정치·행정·재정 문제와 관련하여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648) 그리고 ‘공약 수 비율’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379)

<표 7-2-2-3> 정당별 정치·행정·재정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여당	16	1.94	0.435	0.648	10.68	0.979	0.379
야당	14	1.21			8.89		
무소속	99	1.58			14.45		
계	129	1.58			13.38		

정치·행정·재정 문제와 관련하여 평균으로 가장 많은 ‘공약 수’를 발표한 그룹은 여당 후보자들로 평균 1.94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다음은 무소속과 야당 후보자 순으로 각각 1.58개, 1.21개의 정치·행정·재정 문제와 관련한 공약을 발표했다.

정치·행정·재정 관련 문제에 대한 ‘공약 수 비율’ 분석에서는 ‘공약 수’ 분석 결과와는 다르게 무소속 후보자들이 평균 14.4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공약 수’가 가장 많았던 여당 후보자들은 평균 10.68%였고, 야당 후보자들은 평균 8.89%의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 정치·행정·재정 문제와 관련하여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278) ‘단어수 비율’에서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272)

<표 7-2-2-4> 정당별 정치·행정·재정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여당	16	4.13	1.293	0.278	10.69	1.314	0.272
야당	14	2.93			6.45		
무소속	99	2.52			13.26		
계	129	2.76			12.20		

정치·행정·재정 문제와 관련한 ‘단어 수’가 가장 많은 그룹은 ‘공약 수’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평균 4.13개의 단어를 사용한 여당 후보자들이다. 여당과 무소속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2.93개, 2.52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6.27선거때 보다는 약간 줄어든 경향이다.

‘단어 수 비율’ 분석에서는 무소속 후보자들이 평균 13.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은 여당과 야당 후보자 순으로 각각 평균 10.69%, 6.45%였다.

□ 정당별 1차산업 공약 분석

정당별 1차산업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97) ‘공약 수 비율’에서도 차이가 없다.(유의도 0.804150)

<표 7-2-2-5> 정당별 1차산업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여당	16	3.25	2.374	0.097	14.47	0.218	0.804
야당	14	1.50			11.26		
무소속	99	1.40			11.32		
계	129	1.64			11.70		

1차산업 관련 ‘공약 수’를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제시한 그룹은 평균 3.25개를 발표한 여당 후보자들로서 평균 1.50개를 발표한 무소속 후보자들이나 1.40개를 발표한 야당 후보자들 보다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차산업 관련 ‘공약 수 비율’ 분석에 있어서도 여당 후보자들이 14.47%로 가장 높았다. 무소속과 야당 후보자들은 각각 11.32%, 11.26%로 여당 후보자들과는 차이를 보였다.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여당 후보자들이 1차산업과 관련한 공약에 큰 비중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6.27선거시에도 이러한 경향이 있었다.

정당별 1차산업과 관련하여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192) ‘단어 수 비율’에서도 차이가 없다.(유의도 0.991)

<표 7-2-2-6> 정당별 1차산업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여당	16	5.38	1.674	0.192	12.44	0.009	0.991
야당	14	4.14			11.74		
무소속	99	2.71			11.83		
계	129	3.20			11.89		

1차산업 관련 ‘단어 수’ 분석에서도 ‘공약 수’나 ‘공약 수 비율’ 분석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여당 후보자들이 평균 5.38개를 사용하여 가장 많았고, 야당과 무소속 후보자들은 각각 4.14개, 2.71개를 사용했다.

1차산업 관련 ‘단어 수 비율’을 분석한 결과는 ‘단어 수’ 분석과 마찬가지로 여당 후보자들이 가장 높았다. 평균 12.44%였다. 무소속 후보자들은 11.83%였고, 야당 후보자들은 11.74%의 비율을 보였다.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여당 후보자들이 1차 산업과 관련한 문제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당별 감귤산업 공약 분석

정당별 감귤산업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1) 그러나 ‘공약 수 비율’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76)

<표 7-2-2-7> 정당별 감귤산업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여당	16	1.50	7.663	0.001	9.26	2.629	0.076
야당	14	0.50			5.32		
무소속	99	0.49			4.15		
계	129	0.62			4.91		

정당별로 감귤산업 관련 ‘공약 수’를 분석한 결과 여당 후보자들이 평균 1.50개로, 평균 0.50개를 제시한 야당 후보자들이나, 평균 0.49개를 제시한 무소속 후보자들 보다도 많은 감귤산업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 수 비율’ 분석에 있어서도 여당 후보자들이 평균 9.26%로 가장 높았고, 야당과 무소속 후보자들은 각각 5.32%, 4.15%였다.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여당 후보자들이 1차산업 관련 문제와 마찬가지로 감귤산업 관련 문제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당별 감귤산업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10) 그러나 ‘단어 수 비율’에서는 차이가 없다.(유의도 0.087)

<표 7-2-2-8> 정당별 감귤산업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여당	16	2.63	6.358	0.002	7.55	1.137	0.272
야당	14	1.14			5.18		
무소속	99	0.97			4.41		
계	129	1.19			4.89		

정당별 감귤산업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분석에 있어서도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분석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단어 수’ 분석에서는 여당 후보자들이 평균 2.63개로 가장 많았고, 야당과 무소속 후보자들이 각각 평균 1.14개와 0.97개로 여당 후보자들에 비해 비교적 적은 수의 공약을 발표했다.

‘단어 수 비율’ 분석에서도 여당 후보자들이 평균 7.55%로 가장 높았고, 야당 후보자들이 평균 5.18%, 무소속 후보자들이 평균 4.41%로 낮았다.

□ 정당별 지역경제·개발 공약 분석

정당별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721) ‘공약수 비율’에서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114)

<표 7-2-2-9> 정당별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여당	16	2.06	0.128	0.721	10.85	2.206	0.114
야당	14	1.79			18.64		
무소속	99	2.26			21.09		
계	129	2.19			19.56		

정당별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공약 수’분석 결과 무소속 후보자들이 평균 2.26개로 가장 많았고, 여당 후보자들은 평균 2.06개, 야당 후보자들은 평균 1.79개로 나타났다.

‘공약 수 비율’에서도 무소속 후보자들이 평균 21.09%로 가장 높았고 ‘공약 수’가 가장 낮았던 야당 후보자들은 평균 18.64%를 나타냈다. 여당 후보자들은 평균 10.85%로 타 후보자들에 비해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6.27선거와 비교해 봤을 때,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문제에 대한 공약의 비중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정당별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1) 그러나 ‘단어수 비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379)

<표 7-2-2-10> 정당별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여당	16	3.75	6.868	0.001	10.58	0.977	0.379
야당	14	9.36			16.56		
무소속	99	2.59			12.86		
계	129	3.47			12.98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분석 결과는 ‘공약 수’와 ‘공약수’ 분석 결과와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 ‘공약 수’가 가장 적었던 야당 후보자들이 평균 9.36개로 가장 많은 단어를 사용했고, 여당 후보자들은 평균 3.75개를 사용했다. 가장 많은 공약을 발표한 무소속 후보자들은 평균 2.59개로 가장 적은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어 수 비율’ 분석에서는 ‘단어 수’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야당 후보자들이 평균 16.56%로 가장 높았고, 여당 후보자들은 평균 10.58%, 무소속 후보자들은 평균 12.86%로 나타났다.

□ 정당별 교육 관련 공약 분석

정당별 교육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327) ‘공약 수 비율’에서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600)

<표 7-2-2-11> 정당별 교육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여당	16	1.00	1.127	0.327	6.13	0.512	0.600
야당	14	1.02			3.82		
무소속	99	0.62			4.20		
계	129	0.71			4.40		

교육 관련 ‘공약 수’를 분석한 결과 야당 후보자들이 평균 1.02개의 공약을 발표하여 가장 많았고, 여당 후보자들은 평균 1.00개, 무소속 후보자들은 평균

0.62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수 비율’ 분석에 있어서는 ‘공약수’ 분석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여당 후보자들이 평균 6.13%로 가장 높았고, 무소속 후보자들은 평균 3.82%, ‘공약수’가 가장 많았던 야당 후보자들은 평균 3.82%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정당별 교육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446) 교육 관련 ‘단어 수 비율’에서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472)

<표 7-2-2-12> 정당별 교육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여당	16	1.88	0.813	0.446	4.59	0.756	0.472
야당	14	0.93			2.84		
무소속	99	0.96			2.79		
계	129	1.07			3.02		

교육 관련 ‘단어 수’를 가장 많이 사용한 그룹은 평균 1.88개의 단어를 사용한 여당 후보자들이다. 무소속 후보자들은 평균 0.96개의 단어를 사용했으며, ‘공약 수’가 가장 많았던 야당 후보자들은 평균 0.93개의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어 수 비율’ 분석에서도 여당 후보자들이 평균 4.59%로 가장 높았다. ‘단어 수’가 가장 적었던 무소속 후보자들은 평균 4.20%, 야당 후보자들은 평균 3.82%의 비율을 보였다.

□ 정당별 사회·복지 관련 공약 분석

정당별 사회·복지 관련 ‘공약수’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446) ‘공약 수 비율’에서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472)

<표 7-2-2-13> 정당별 사회·복지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여당	16	2.50	0.365	0.695	16.84	1.402	0.250
야당	14	1.43			10.46		
무소속	99	2.01			12.06		
계	129	2.01			12.48		

정당별 사회·복지 관련 ‘공약 수’분석에서 가장 많은 공약을 제시한 그룹은 평균 2.50개의 공약을 발표한 여당 후보자들이다. 무소속 후보자들은 평균 2.01개, 야당 후보자들은 평균 1.43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사회·복지 관련 ‘공약 수 비율’인 경우 ‘공약 수’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여당 후보자들이 평균 16.84%로 가장 높았고, 무소속 후보자들은 평균 12.06%를 나타냈다. 야당 후보자들은 평균 11.43%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정당별 사회·복지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40) 그러나 사회·복지 관련 ‘단어 수 비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362)

<표 7-2-2-14> 정당별 사회·복지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여당	16	5.88	3.291	0.040	17.98	1.025	0.362
야당	14	4.00			11.09		
무소속	99	3.25			14.37		
계	129	3.66			14.46		

사회·복지 관련 공약에 사용된 ‘단어 수’를 분석한 결과, 여당 후보자들이 평균 5.88개의 ‘단어 수’를 사용하여 가장 많았다. 여당과 무소속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4.00개, 3.25개로 6.27선거시 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어 수 비율’ 분석에서도 ‘단어 수’가 가장 많았던 여당 후보자들이 평균 17.98%로 가장 높았다. ‘단어 수’가 가장 적었던 무소속 후보자들은 평균 14.37%, 야당 후보자들은 평균 11.09%로 가장 적은 비율을 나타냈다.

□ 정당별 문화·예술·체육 분야 공약 분석

정당별 문화·예술·체육관련 ‘공약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299) ‘공약 수 비율’에서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유의도 0.687)

<표 7-2-2-15> 정당별 문화·예술·체육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여당	16	1.00	1.220	0.299	3.54	0.377	0.687
야당	14	1.02			3.26		
무소속	99	0.61			4.73		
계	129	0.70			4.42		

문화·예술·체육 관련 ‘공약 수’를 분석한 결과, 야당 후보자들이 평균 1.02개로 가장 많았고, 여당 후보자들은 평균 1.00개, 무소속 후보자들은 평균 0.61개로 비교적 적은 수의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 수 비율’분석에서는 ‘공약 수’가 가장 적었던 무소속 후보자들이 평균 4.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여당 후보자들은 평균 3.54%를 보인 반면, 가장 많은 공약을 발표한 야당 후보자들은 평균 4.73%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정당별 문화·예술·체육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35) 그러나 문화·예술·체육 관련 ‘단어 수 비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754)

<표 7-2-2-16> 정당별 문화·예술·체육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여당	16	2.19	3.432	0.035	4.65	0.283	0.754
야당	14	2.43			3.94		
무소속	99	1.13			5.31		
계	129	1.40			5.08		

문화·예술·체육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분석 결과는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단어 수’를 가장 많이 사용한 그룹은 평균 2.43개의 단어를 사용한 야당 후보자들이다. 여당 후보자들은 평균 2.19개, 무소속 후보자들은 평균 1.13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단어 수 비율’ 분석에 있어서는 무소속 후보자들이 평균 5.31%의 비율로 가장 높았다. 여당 후보자들은 평균 4.65%, 야당 후보자들은 평균 3.94%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 정당별 여성분야 공약 분석

정당별 여성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151) 그러나 ‘공약 수 비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412)

<표 7-2-2-17> 정당별 여성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여당	16	0.75	1.922	0.151	2.33	0.893	0.412
야당	14	0.96			0.91		
무소속	99	0.37			2.86		
계	129	0.48			2.58		

여성 관련 ‘공약 수’를 가장 많이 발표한 그룹은 평균 0.96개의 공약을 발표한 야당 후보자들이고, 여당후보자들은 평균 0.75개로 비교적 많은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소속 후보자들은 평균 0.37개로 적은 수의 여성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6.27선거 분석 결과도 이와 비슷했다.

‘공약 수 비율’ 분석결과는 ‘공약 수’ 분석 결과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공약

수'가 가장 적었던 무소속 후보자들이 평균 2.86%로 가장 높았고, 여당 후보자들은 평균 2.33%, '공약 수'가 가장 많았던 야당 후보자들은 평균 0.91%로 가장 적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6.27선거시 보다는 상당히 적은 비율이다.

정당별 여성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665) 여성 관련 '단어 수 비율'에서도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336)

<표 7-2-2-18> 정당별 여성 관련 단어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여당	16	1.19	0.409	0.665	1.93	1.099	0.336
야당	14	0.71			1.39		
무소속	99	0.82			3.33		
계	129	0.85			2.95		

여성 관련 '단어 수'를 가장 많이 사용한 후보자 그룹은 평균 1.19개의 단어를 사용한 여당 후보자들이다. 무소속과 야당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0.82개, 0.71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단어 수 비율' 분석에서는 무소속 후보자들이 평균 3.33%로 가장 높았다. 여당 후보자들은 평균 1.93%, 야당 후보자들은 평균 1.39%였다.

분석 결과, 6.27선거시 보다는 여성 관련 문제에 관한 비중이 줄어들었다.

□ 정당별 관광분야 공약 분석

정당별 관광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1) 그러나 '공약 수 비율'에서는 차이가 없다.(유의도 0.200)

<표 7-2-2-19> 정당별 관광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여당	16	2.06	7.765	0.001	9.20	1.630	0.200
야당	14	1.38			8.06		
무소속	99	0.71			5.58		
계	129	0.95			6.30		

관광 관련 ‘공약 수’를 분석한 결과, 여당 후보자들이 평균 2.06개로 가장 많이 발표했고, 야당 후보자들은 평균 1.38개, 무소속 후보자들은 평균 0.71개로 타 후보자들에 비해 적은 관광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 수 비율’ 분석에서도 ‘공약 수’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여당 후보자들이 평균 9.20%의 비율로 가장 높다. 야당 후보자들은 평균 8.06%, 무소속 후보자들은 평균 5.58%이다.

분석 결과를 봤을 때, 6.27선거시 보다 관광관련 공약의 비중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정당별 관광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3) 그러나 관광 관련 ‘단어 수 비율’에서는 차이가 없다.(유의도 0.390)

<표 7-2-2-20> 정당별 관광 관련 단어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여당	16	4.75	6.123	0.003	12.48	0.949	0.390
야당	14	3.21			8.94		
무소속	99	1.90			8.55		
계	129	2.40			9.08		

관광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분석 결과도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분석 결과와 비슷하다.

‘단어 수’에서는 여당 후보자들이 평균 4.75개로 가장 많았고, 야당 후보자들은 평균 3.21개, 무소속 후보자들은 평균 1.90개의 단어를 사용하여 무소속 후보자들이 관광 관련 공약에 대한 비중이 타 후보자들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어 수 비율’ 분석에서도 야당 후보자들이 평균 12.48%로 가장 높았다. 여당후보자들은 평균 8.94%, 무소속 후보자들은 평균 8.55%의 비율을 보였다.

□ 정당별 교통분야 공약 분석

정당별 교통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318) ‘공약 수 비율’에서는 차이가 있다.(유의도 0.074)

<표 7-2-2-21> 정당별 교통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여당	16	0.75	0.318	0.728	2.18	2.596	0.079
야당	14	1.14			8.32		
무소속	99	1.40			8.33		
계	129	1.29			7.56		

교통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공약을 발표한 그룹은 평균 1.40개의 공약을 발표한 무소속 후보자들이다. 야당 후보자들은 평균 1.14개였고, 여당 후보자들은 평균 0.75개로 나타났다. 이는 6.27선거때 공약에 비해서 반대의 결과로 6.27선거시의 무소속 후보자들의 교통 관련 ‘공약 수’는 가장 적은 평균 0.75개에 지나지 않았다.

‘공약 수 비율’분석 결과도 ‘공약 수’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무소속 후보자들이 평균 8.33%로 가장 높았고, 야당 후보자들은 평균 8.32%이다. 여당 후보자들은 평균 2.18%로 타 후보자들에 비해 훨씬 낮은 비율을 보였다.

정당별 교통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587) 그러나 교통 관련 ‘단어 수 비율’에서는 차이가 있다.(유의도 0.003)

<표 7-2-2-22> 정당별 교통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여당	16	1.69	0.536	0.587	3.06	9.343	0.003
야당	14	2.50			10.04		
무소속	99	2.81			12.26		
계	129	2.64			10.88		

교통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분석 결과도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분석 결과와 비슷하다. 무소속 후보자 그룹이 평균 2.81개로 가장 많은 단어를 사용했다. 야당과 여당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2.50개, 1.69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단어 수 비율’ 분석에서는 무소속 후보자들이 평균 12.26%로 가장 높았고, 야당 후보자들은 평균 10.04%로 나타났다. 여당 후보자들은 평균 3.06%로 타 후보자들에 비해 3~4배가 적은 비율을 보였다.

□ 정당별 환경분야 공약 분석

정당별 환경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957) ‘공약 수 비율’에서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883)

<표 7-2-2-23> 정당별 환경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여당	16	1.06	0.044	0.957	5.78	0.125	0.883
야당	14	0.93			6.08		
무소속	99	1.08			6.73		
계	129	1.06			6.54		

환경 관련 ‘공약 수’가 가장 많은 그룹은 평균 1.08개를 발표한 무소속 후보자들이다. 여당 후보자들은 평균 1.06개, 야당 후보자들은 평균 0.93개의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는 6.27선거시 보다는 훨씬 적은 것이다.

‘공약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는 ‘공약 수’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무소속 후보자들이 평균 6.73%로 가장 높고, 야당 후보자들은 평균 6.08%, 무소속 후보자들은 평균 5.78%의 비율을 보였다.

정당별 환경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336) 환경 관련 ‘단어 수 비율’에서도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다.(유의도 0.664)

<표 7-2-2-24> 정당별 환경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여당	16	3.06	1.101	0.336	7.33	0.411	0.664
야당	14	2.50			7.15		
무소속	99	2.01			9.15		
계	129	2.19			8.70		

환경 관련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그룹은 여당 후보자들로 평균 3.06개를 사용했다. 야당 후보자들은 평균 2.50개, 무소속 후보자들은 평균 2.01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이는 ‘공약 수’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6.27선거시 보다는 훨씬 적은 ‘공약 수’이다.

‘단어 수 비율’에 있어서는 무소속 후보자들이 평균 9.15%로 가장 높았고, 여당과 야당 후보자들은 각각 7.33%, 7.15%의 비율을 보였다.

□ 정당별 정보화분야 공약 분석

정당별 정보화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76) ‘공약 수 비율’에서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422)

<표 7-2-2-25> 정당별 정보화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여당	16	0.19	2.626	0.076	0.61	0.868	0.422
야당	14	0.01			0.22		
무소속	99	0.00			0.18		
계	129	0.01			0.24		

6.4선거 정당별 정보화 관련 ‘공약수’와 ‘공약수 비율’ 분석 결과를 봤을 때, 6.27선거시 보다는 정보화 분야공약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전체 비율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공약 수’에 있어서는 여당 후보자들이 평균 0.19개로 가장 많았고, 야당 후보자들은 평균 0.01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무소속 후보자들은 정보화 관련 공약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 수 비율’ 분석에 있어서는 여당이 평균 0.61%로 가장 높았고, 야당과 무소속 후보자들이 각각 평균 0.22%, 0.18%였다.

정당별 정보화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1) 그리고 정보화 관련 ‘단어 수 비율’에서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유의도 0.024)

<표 7-2-2-26> 정당별 정보화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여당	16	1.38	7.694	0.001	1.64	3.833	0.024
야당	14	0.21			0.18		
무소속	99	0.01			0.29		
계	129	0.26			0.45		

정보화 관련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그룹은 ‘공약 수’가 가장 많았던 여당 후보자들로 평균 1.38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야당과 무소속 후보자들은 각각 0.21개, 0.01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단어 수 비율’에 있어서는 역시 여당 후보자들이 평균 1.64%로 가장 높았고, 무소속과 야당 후보자들이 각각 0.29%, 0.18%였다.

□ 정당별 감귤정책의 경향성 분석

정당별로 감귤정책에 대한 이슈별 분석을 실시하여 후보자들이 감귤정책에 대한 경향성을 분석했다. 50점에 가까울수록 생산조정제와 같이 관 주도 통제 위주의 정책을 지향하는 것이고, 점수가 10점대로 가까울수록 농민들의 자율에 맡기는 정책을 원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689)

<표 7-2-2-27> 정당별 감귤정책에 대한 분석 점수

항목	내용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통계량	유의도
감귤 정책에 대한 분석 점수	여당	16	27.29	10.63	40.00	0.373	0.689
	야당	14	26.43	11.51	40.00		
	무소속	99	28.50	8.83	50.00		
	계	129	28.13	9.32	50.00		

6.27선거시에는 여당과 무소속 후보자들은 어느 한 쪽에 치우치는 경향이 없고 야당 후보자들만이 관의 역할을 중요시했다. 그러나 6.4선거에서는 평균 점수가 28.13%이고 모든 후보자들이 평균 점수 30점 미만으로 관 위주 보다

는 민간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정책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 후보자들이 평균 점수가 26.43점으로 가장 민간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당과 무소속 후보자들은 각각 27.29점, 28.50점이다.

□ 정당별 환경·지역개발정책 경향성 분석

정당별로 환경과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이슈별 분석을 실시하여 후보자들이 환경과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경향성을 분석했다. 50점에 가까울수록 개발위주의 정책을 펴자는 논리이고, 점수가 10점대로 가까울수록 환경보존위주로 계획을 추진하자는 경향성을 나타낸다. 분석 결과 그룹간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도 0.714)

<표 7-2-2-28> 정당별 환경과 지역개발에 대한 분석 점수

항목	내용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통계량	유의도
환경과 지역 개발에 대한 분석 점수	여당	16	25.42	9.97	50.00	0.338	0.714
	야당	14	28.39	12.31	50.00		
	무소속	99	26.80	9.51	50.00		
	계	129	26.80	9.84	50.00		

모든 후보자들의 평균 점수가 30점 이하로 개발위주의 정책 보다는 환경보존위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 후보자들이 평균 25.42점으로 가장 환경보존위주의 경향이 높았고, 무소속 후보자들과 야당 후보자들이 각각 평균 26.80점, 28.39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6.27선거 결과와도 비슷하다.

□ 정당별 교통정책 경향성 분석

교통정책에 대한 이슈별 분석을 실시하여 후보자들이 교통정책과 철학에 경향성을 분석했다. 50점에 가까울수록 소통 보다는 안전위주, 공급위주의 정책 보다는 수요관리와 대중교통위주의 정책을 지향하는 것이고 10점에 가까울수록 공급위주이며 소통위주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룹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192)

<표 7-2-2-29> 정당별 교통정책에 대한 분석 점수

항목	내용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통계량	유의도
교통 정책에 대한 분석 점수	여당	16	32.29	7.58	50.00	1.674	0.192
	야당	14	24.36	12.32	50.00		
	무소속	99	26.91	13.29	50.00		
	계	129	27.30	12.71	50.00		

여당 후보자들은 평균 32.29점으로 공급위주, 소통위주의 정책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야당과 무소속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24.36점, 26.91점으로 공급위주, 소통위주의 정책 보다는 안전위주, 대중교통위주, 수요관리위주의 정책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27선거시에 야당 후보자들이 공급위주, 소통위주의 정책을 지향하고 여당 후보자들이 안전위주, 대중교통위주, 수요관리위주의 정책을 지향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 정당별 공약의 구체성 분석

구체적이거나 예산이 수반될 수 있으며, 단기간에 가시화할 수 있는 공약의 경우는 50점을 그렇지 않고 선언적 의미로만 제시한 공약을 10점으로 하여 공약의 구체성에 대한 이슈별 분석을 실시했다. 그룹간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도 0.242)

<표 7-2-2-30> 정당별 공약의 구체성에 대한 분석 점수

항목	내용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통계량	유의도
공약의 구체성에 대한 분석 점수	여당	16	33.66	7.79	47.50	1.435	0.242
	야당	14	29.65	12.79	46.00		
	무소속	99	34.58	10.16	50.00		
	계	129	33.93	10.25	50.00		

가장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한 그룹은 평균 34.58점인 무소속 후보자들로 나타났다, 여당 후보자들도 평균 33.66점으로 공약이 비교적 구체적이다. 그러나 야당 후보자들은 평균 29.65점으로 타 후보자들에 비해 공약이 선언적이었다. 6.27선거시에는 모든 후보자들이 평균 30점 이상으로 공약이 구체적이었다.

□ 정당별 공약의 총계 분석

공약에 사용한 단어 수 총계를 가지고 정당별로 분석했다. 그룹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3) ‘공약 수 총계’분석에서도 그룹간에 차이가 있다.(유의도 0.045)

<표 7-2-2-31> 정당별 단어 수 총계와 공약 수 총계

내용	빈도	단어 수 총계			공약 수 총계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여당	16	39.31	6.182	0.003	19.44	3.188	0.045
야당	14	31.14			11.71		
무소속	99	21.15			12.23		
계	129	24.49			13.07		

분석 결과 가장 많은 단어를 사용한 그룹은 평균 39.31개의 단어를 사용한 여당 후보자들과 야당 후보자들은 평균 31.14개, 무소속 후보자들은 평균 21.15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이는 6.27선거시 보다 훨씬 줄어든 것이다.

‘공약 수 총계’ 분석 결과에서는 여당 후보자들이 평균 19.44개의 공약을 발표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소속 후보자들은 평균 12.23개, 야당 후보자들은 평균 11.71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3. 후보자의 학력별 공약의 차이분석

3-1. 6.27선거 공약 분석

□ 학력별 4·3문제 공약 분석

학력별 4.3문제와 관련하여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962) 그리고 ‘공약 수 비율’의 경우도 그룹간에 차이가 없다.(유의도 0.974)

<표 7-3-1-1> 학력별 4·3문제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국졸, 국중퇴	5	0.00	0.153	0.962	0.00	0.123	0.974
중졸, 중중퇴	3	0.00			0.00		
고졸, 고중퇴	85	0.01			0.52		
대졸, 대중퇴	78	0.01			0.46		
석(박)사재·졸	7	0.14			0.29		
계	178	0.01			0.46		

4.3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공약 수’를 발표한 그룹은 석(박)사 재학·졸업 학력의 후보자들로, 평균 0.14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그리고 고졸, 고중퇴 학력과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0.01개의 4.3문제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중졸, 중학교 중퇴와 초등학교 졸, 초등학교 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4·3문제와 관련한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4·3문제와 관련한 ‘공약 수 비율’에서는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0.52%로 가장 높았다.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46%였고 가장 많은 공약을 발표한 석(박)사 재학·졸업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29%의 비율을 보였다. 국졸, 국중퇴와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0.00%였다.

이 결과에서 보면 학력이 고교중퇴 이상인 후보자들만 4.3문제와 관련한 공약을 발표한 것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 4·3문제와 관련하여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118) ‘단어 수 비율’도 마찬가지로 정당별로 차이가 있다.(유의도 0.965)

<표 7-3-1-2> 학력별 4·3문제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국졸, 국중퇴	5	0.00	0.118	0.976	0.00	0.145	0.965
중졸, 중중퇴	3	0.00			0.00		
고졸, 고중퇴	85	0.20			0.50		
대졸, 대중퇴	78	0.23			0.56		
석(박)사재·졸	7	0.14			0.17		
계	178	0.-20			0.49		

4·3문제와 관련하여 평균으로 가장 많은 ‘단어 수’를 발표한 그룹은 0.23개의 단어를 사용한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다.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20개, 석(박)사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14개의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졸, 국중퇴와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4·3문제와 관련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단어 수 비율’ 분석에 있어서도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0.56%로 가장 높았다.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50%, 석(박)사재·졸 학력의 평균 0.49%로 나타났다. 역시 국졸, 국중퇴와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4.3문제와 관련한 ‘단어 수 비율’이 0.00%였다.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분석 결과에 있어서도 고졸, 고중퇴 학력 이상의 후보자들만이 4.3문제와 관련한 단어를 사용했다.

□ 학력별 정치·행정·재정 분야 공약 분석

학력별 정치·행정·재정문제와 관련하여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128) 그리고 ‘공약 수 비율’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다.(유의도 0.966)

<표 7-3-1-3> 학력별 정치·행정·재정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국졸, 국중퇴	5	0.60	1.817	0.128	10.86	0.142	0.966
중졸, 중중퇴	3	0.33			5.57		
고졸, 고중퇴	85	1.16			10.74		
대졸, 대중퇴	78	1.51			11.35		
석(박)사재·졸	7	2.86			10.14		
계	178	1.35			10.90		

정치·행정·재정문제와 관련하여 평균으로 가장 많은 ‘공약 수’를 발표한 그룹은 2.86개의 공약을 발표한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이다. 다음이 대졸, 대중퇴,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 각각 1.51개, 1.16개의 정치·행정·재정문제와 관련한 공약을 발표했다. 국졸, 국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60개,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33개의 공약을 발표해 대체로 고학력일수록 정치·행정·재정 관련 공약 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정치·행정·재정 관련 문제에 대한 ‘공약 수 비율’ 분석에서는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1.3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국졸, 국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0.86%,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0.74%,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0.14%의 ‘공약 수 비율’을 나타냈다.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5.57%로 타 후보자들에 비해 절반 정도의 적은 비율을 보였다.

학력별 정치·행정·재정 문제와 관련하여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93) ‘단어 수 비율’에서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630)

<표 7-3-1-4> 학력별 정치·행정·재정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국졸, 국중퇴	5	0.20	2.024	0.093	2.86	0.647	0.630
중졸, 중중퇴	3	0.33			5.57		
고졸, 고중퇴	85	2.72			10.97		
대졸, 대중퇴	78	3.22			10.91		
석(박)사재·졸	7	5.86			7.93		
계	178	2.95			10.51		

정치·행정·재정 문제와 관련한 ‘단어 수’가 가장 많은 그룹은 평균 5.86개의 단어를 사용한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이다. 다음은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3.22개,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2.72개이다.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과 국졸, 국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0.33개와 0.20개로 고졸, 고중퇴 학력 이상의 후보자들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단어 수 비율’ 분석에서는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0.97%로 가장 높았다. 대졸, 대중퇴와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10.91%와 7.93%로 나타났다. 중졸, 중중퇴와 국졸, 국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5.57%와 2.86%로 역시 고졸, 고중퇴 학력 이상의 후보자들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 학력별 1차산업 분야 공약 분석

학력별 1차산업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도 0.524) ‘공약 수 비율’에서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229)

<표 7-3-1-5> 학력별 1차산업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국졸, 국중퇴	5	1.40	0.804	0.524	13.22	1.421	0.229
중졸, 중중퇴	3	0.00			0.00		
고졸, 고중퇴	85	1.80			12.12		
대졸, 대중퇴	78	1.31			8.72		
석(박)사재·졸	7	2.14			7.47		
계	178	1.56			10.27		

1차산업 관련 ‘공약 수’를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제시한 그룹은 2.14개를 발표한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이다.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80개, 국졸, 국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40개,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31개를 발표했고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1차산업과 관련한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1차산업 관련 ‘공약 수 비율’ 분석에 있어서는 국졸, 국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3.22%로 가장 높았고,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2.12%,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8.72%의 비율을 보였다. 1차산업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공약을 발표했던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7.47%의 비율을 보였고, 공약이 없었던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역시 공약 수 비율도 0.00%였다.

국졸, 국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1차산업과 관련한 공약에 비교적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전혀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

학력별 1차산업과 관련하여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335) ‘단어 수 비율’에서도 차이가 없다.(유의도 0.375)

<표 7-3-1-6> 학력별 1차산업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국졸, 국중퇴	5	4.40	0.607	0.658	21.72	2.041	0.091
중졸, 중중퇴	3	0.00			0.00		
고졸, 고중퇴	85	4.14			13.23		
대졸, 대중퇴	78	3.33			10.10		
석(박)사재·졸	7	4.57			7.83		
계	178	3.74			11.66		

1차산업 관련 ‘단어 수’가 가장 많은 그룹은 평균 4.57개의 단어를 사용한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이고, 국졸, 국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4.40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4.14개,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3.33개의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

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1차산업과 관련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1차산업 관련 ‘단어 수 비율’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국졸, 국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21.72%로 가장 높았다.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3.23%,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0.10%를 나타냈다. ‘단어 수’가 가장 많았던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7.83%의 비율을 보였고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005였다.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국졸, 국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1차산업과 관련하여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학력별 감귤산업 공약 분석

학력별 감귤산업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2) 그러나 ‘공약 수 비율’에서는 차이가 없다.(유의도 0.647)

<표 7-3-1-7> 학력별 감귤산업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국졸, 국중퇴	5	0.20	4.574	0.002	1.06	0.623	0.647
중졸, 중중퇴	3	0.00			0.00		
고졸, 고중퇴	85	0.26			2.14		
대졸, 대중퇴	78	0.28			1.62		
석(박)사재·졸	7	1.71			3.80		
계	178	0.32			1.91		

학력별로 감귤산업 관련 ‘공약 수’를 분석한 결과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2.43개로 가장 많은 공약을 발표했다.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68개,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64개, 국졸, 국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20개의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감귤산업과 관련하여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공약 수 비율’ 분석에 있어서도 ‘공약 수’ 분석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3.80%로 가장 높았고,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14%,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62%, 국졸, 국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05%의 비율을 보였다.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역시 감귤산업 관련 ‘공약 수 비율’이 0.00%였다.

학력별 감귤산업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17) 그러나 ‘단어 수 비율’에서는 차이가 없다.(유의도 0.515)

<표 7-3-1-8> 학력별 감귤산업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국졸, 국중퇴	5	0.20	3.108	0.017	0.64	0.818	0.515
중졸, 중중퇴	3	0.00			0.00		
고졸, 고중퇴	85	0.68			2.21		
대졸, 대중퇴	78	0.64			2.08		
석(박)사재·졸	7	2.43			4.11		
계	178	0.71			2.14		

학력별 감귤산업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분석에 있어서도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분석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단어 수’ 분석에서는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2.43개로 가장 많은 단어를 사용했다. 고졸, 고중퇴와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0.68개, 0.64개의 단어를 사용했고,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20개로 비교적 적은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감귤산업과 관련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단어 수 비율’ 분석에서도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4.11%로 가장 높았다. 고졸, 고중퇴와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2.21%와 2.08%의 비율을 보였다. 국졸, 국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64%로 역시 적은 비율을 나타냈고,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0.00%였다.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1차산업과 마찬가지로 감귤산업과 관련한 공약에도 전혀 비중을 두지 않았다.

□ 학력별 지역경제·개발 분야 공약 분석

학력별 지역(도시)경제·개발관련 ‘공약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그러나 ‘공약수 비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103)

<표 7-3-1-9> 학력별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국졸, 국중퇴	5	3.40	7.457	0.000	31.00	1.960	0.103
중졸, 중중퇴	3	0.00			0.00		
고졸, 고중퇴	85	2.41			22.08		
대졸, 대중퇴	78	2.59			22.29		
석(박)사재·졸	7	7.14			28.29		
계	178	2.66			22.29		

학력별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공약 수’분석 결과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7.14개로 가장 많았고,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3.40개,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59개,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41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지역(도시)경제·개발과 관련하여 전혀 공약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 수 비율’에서는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31.00%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였고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8.29%,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2.29%,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2.08%의 비율을 보였다.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0.00%였다.

학력별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단어 수 비율’에서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40)

<표 7-3-1-10> 학력별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국졸, 국중퇴	5	6.20	10.510	0.000	25.06	2.572	0.040
중졸, 중중퇴	3	0.00			0.00		
고졸, 고중퇴	85	3.39			14.20		
대졸, 대중퇴	78	4.32			16.44		
석(박)사재·졸	7	13.00			21.86		
계	178	4.20			15.55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분석 결과는 ‘공약 수’, ‘공약수 비율’ 분석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단어 수’ 분석에 있어서 가장 많은 단어를 사용한 그룹은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로 평균 13.00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6.20개,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4.32개,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3.39개의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지역(도시)경제·개발과 관련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단어 수 비율’ 분석에 있어서는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25.06%로 가장 높았다.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1.86%,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6.44%,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4.20%의 비율을 보였고,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0.00%였다. 분석 결과,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과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타 후보자들에 비해 지역(도시)경제·개발과 관련한 공약에 큰 비중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 학력별 교육 분야 공약 분석

학력별 교육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11) 그러나 ‘공약 수 비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660)

<표 7-3-1-11> 학력별 교육 관련 공약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국졸, 국중퇴	5	0.60	3.367	0.011	6.78	0.605	0.660
중졸, 중중퇴	3	0.00			0.00		
고졸, 고중퇴	85	0.51			4.50		
대졸, 대중퇴	78	0.79			4.80		
석(박)사재·졸	7	2.00			6.41		
계	178	0.69			4.69		

교육 관련 ‘공약 수’를 분석한 결과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2.00개로 가장 많은 공약을 발표했다.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79개,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60개,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51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교육 관련 공약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 수 비율’ 분석 결과에 있어서는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6.78%로 가장 높았다.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6.41%,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4.80%,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4.50%의 비율을 보였고,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0.00%였다.

학력별 교육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도 0.049) 그러나 교육 관련 ‘단어 수 비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 (유의도 0.776)

<표 7-3-1-12> 학력별 교육 관련 단어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국졸, 국중퇴	5	1.00	2.435	0.049	4.80	0.445	0.776
중졸, 중중퇴	3	0.00			0.00		
고졸, 고중퇴	85	0.69			2.82		
대졸, 대중퇴	78	1.19			2.92		
석(박)사재·졸	7	2.43			3.33		
계	178	0.98			2.89		

교육 관련 ‘단어 수’를 가장 많이 사용한 그룹은 ‘공약 수’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평균 2.98개의 단어를 사용한 야당 후보자들과, 여당과 무소속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1.63개, 0.82개의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소속 후보자들이 사용한 교육 관련 단어 수는 현저히 적다.

‘단어 수 비율’ 분석에서는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4.80%로 가장 높았다. ‘단어 수’가 가장 많았던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3.33%,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92%,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82%의 비율을 보였다.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0.00%였다.

□ 학력별 사회복지 분야 공약 분석

학력별 사회·복지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975) 그러나 ‘공약수 비율’에서는 차이가 있다.(유의도 0.036)

<표 7-3-1-13> 학력별 사회·복지 관련 공약 비율

내용	빈도	공약 비율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국졸, 국중퇴	5	1.40	0.120	0.975	7.62	2.628	0.036
중졸, 중중퇴	3	1.67			27.77		
고졸, 고중퇴	85	1.89			16.08		
대졸, 대중퇴	78	1.86			12.78		
석(박)사재·졸	7	2.14			6.74		
계	178	1.87			14.22		

학력별 사회·복지 관련 ‘공약 수’분석에서 가장 많은 공약을 제시한 그룹은 평균 2.14개의 공약을 발표한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이다. 다음으로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로 평균 1.89개,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 평균 1.86개, 중졸, 중중퇴와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 각각 평균 1.67개, 1.40개 순으로 공약을 발표했다. 대체로 고학력일수록 사회·복지 관련 공약이 많았다.

사회·복지 관련 ‘공약 수 비율’인 경우는 ‘공약 수’분석에서의 경우와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공약 수’가 가장 적었던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27.77%로 가장 높았다.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6.08%,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12.78%, 초졸, 국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7.62%를 나타냈다. ‘공약 수’가 가장 많았던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6.74%로 가장 적었다.

학력별 사회·복지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527) 사회·복지 관련 ‘단어 수 비율’에서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유의도 0.052)

<표 7-3-1-14> 학력별 사회·복지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국졸, 국중퇴	5	2.40	0.800	0.527	8.98	2.405	0.052
중졸, 중중퇴	3	1.67			27.77		
고졸, 고중퇴	85	4.66			19.15		
대졸, 대중퇴	78	4.78			14.57		
석(박)사재·졸	7	5.86			10.59		
계	178	4.65			16.66		

사회·복지 관련 공약에 사용된 ‘단어 수’ 분석 결과도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5.86개의 ‘단어 수’를 사용하여 가장 많았다. 다음이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로 평균 4.78개,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4.66개,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 2.40개,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 평균 1.67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단어 수 비율’ 분석에서는 ‘단어 수’가 가장 적었던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27.77%로 가장 높았고,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9.15%,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 평균 14.57%, ‘단어 수’가 가장 많았던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0.59%로 비교적 적은 비율을 나타냈다. 국졸, 국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8.98%로 가장 적었다.

□ 학력별 문화·예술·체육 분야 공약 분석

학력별 문화·예술·체육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2) 그러나 ‘공약수 비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573)

<표 7-3-1-15> 학력별 문화·예술·체육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국졸, 국중퇴	5	0.40	4.430	0.002	2.36	0.729	0.573
중졸, 중중퇴	3	0.00			0.00		
고졸, 고중퇴	85	0.61			5.43		
대졸, 대중퇴	78	0.71			4.86		
석(박)사재·졸	7	2.43			7.56		
계	178	0.71			5.09		

문화·예술·체육 관련 ‘공약 수’를 분석한 결과,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2.43개로 타 후보자들 보다 훨씬 많은 공약을 발표했다.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71개,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61개, 국졸, 국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40개의 공약을 발표했고,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문화·예술·체육과 관련한 공약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 수 비율’ 분석도 ‘공약 수’ 분석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7.56%로 가장 높았고,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 평균 5.43%,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 4.86%,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2.36%를 보였다.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0.00%였다.

대체로 고졸, 고중퇴 학력 미만의 후보자들 보다 고졸, 고중퇴 학력이상의 후보자들이 문화·예술·체육과 관련한 정책에 훨씬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문화·예술·체육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48) 문화·예술·체육 관련 ‘단어 수 비율’에서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490)

<표 7-3-1-16> 학력별 문화·예술·체육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초졸, 초중퇴	5	0.80	2.450	0.048	3.04	0.858	0.490
중졸, 중중퇴	3	0.00			0.00		
고졸, 고중퇴	85	1.41			5.27		
대졸, 대중퇴	78	1.724			4.96		
석(박)사재·졸	7	3.86			7.54		
계	178	1.60			5.07		

문화·예술·체육 관련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그룹은 평균 3.86개의 단어를 사용한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다.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3.86개의 단어를 사용했고,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41개의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80개의 단어를 사용하였고,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문화·예술·체육과 관련된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어 수 비율’ 분석에 있어서는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7.54%로 가장 높았다.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5.27%였고, 대졸, 대중퇴,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4.96%와 3.04%였다.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0.00%였다.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분석에 있어서는 고졸, 고중퇴 학력 이상의 후보자들이 문화·예술·체육 관련 단어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학력별 여성 분야 공약 분석

학력별 여성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43) 그러나 ‘공약수 비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365)

<표 7-3-1-17> 학력별 여성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초졸, 초중퇴	5	0.00	2.517	0.043	0.00	1.086	0.365
중졸, 중중퇴	3	0.00			0.00		
고졸, 고중퇴	85	0.31			2.14		
대졸, 대중퇴	78	0.50			3.46		
석(박)사재·졸	7	1.14			2.66		
계	178	0.41			2.64		

여성 관련 ‘공약 수’를 가장 많이 발표한 그룹은 평균 1.14개의 공약을 발표한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이다. 대졸, 대중퇴와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0.50개, 0.31개이다. 초졸, 초중퇴와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여성 관련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공약 수 비율’에 있어서도 초졸, 초중퇴와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0.00%였다. 가장 높은 ‘공약 수 비율’을 차지한 그룹은 평균 3.46%를 기록한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다.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과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2.66%, 2.14%였다. 분석 결과 고졸, 고중퇴 학력 미만의 후보자들은 여성과 관련한 공약을 전혀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여성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123) 그리고 여성 관련 ‘단어 수 비율’에서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532)

<표 7-3-1-18> 학력별 여성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초졸, 초중퇴	5	0.20	1.840	0.123	8.00	0.792	0.532
중졸, 중중퇴	3	0.00			0.00		
고졸, 고중퇴	85	0.81			3.16		
대졸, 대중퇴	78	1.21			3.52		
석사졸, 박사졸	7	2.71			2.83		
계	178	1.03			3.39		

여성 관련 ‘단어 수’를 가장 많이 사용한 후보자 그룹은 평균 2.71개의 단어를 사용한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이다.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21개,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81개,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이 ‘0’이었던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20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여성관련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어 수 비율’ 분석에서는 의외로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8.0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3.52%,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3.16%의 비율을 보였다. 가장 많은 여성 관련 ‘단어 수’를 사용했던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83%의 비율을 보였고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0.00%였다.

□ 학력별 관광분야 공약 분석

학력별 관광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1) ‘공약 수 비율’에서도 차이가 있다.(유의도 0.484)

<표 7-3-1-19> 학력별 관광 관련 공약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초졸, 초중퇴	5	0.20	5.068	0.001	2.86	3.277	0.013
중졸, 중중퇴	3	0.00			0.00		
고졸, 고중퇴	85	0.44			3.63		
대졸, 대중퇴	78	0.76			4.95		
석(박)사재·졸	7	2.14			13.41		
계	178	0.63			4.54		

관광 관련 ‘공약 수’를 분석한 결과,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2.14개로 가장 많은 공약을 발표했다. 다음에는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0.76개,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 평균 0.44개,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 평균 0.20개의 순으로 관광 관련 공약을 했다.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관광 관련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공약 수 비율’ 분석에서도 ‘공약 수’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3.41%로 타 후보자들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대졸, 대졸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4.95%, 고졸, 고졸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3.63%, 초졸, 초졸퇴 학력의 후보자 평균 2.86%의 비율을 보였다. 중졸, 중졸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0.00%이다.

분석 결과, 고졸, 고졸퇴 학력이상의 후보자들이 고졸, 고졸퇴 학력 미만의 후보자들 보다 관광 관련 공약에 비중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학력별 관광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그리고 ‘단어 수 비율’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1)

<표 7-3-1-20> 학력별 관광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초졸, 초졸퇴	5	1.20	5.275	0.000	5.42	5.138	0.001
중졸, 중졸퇴	3	0.00			0.00		
고졸, 고졸퇴	85	1.41			4.71		
대졸, 대졸퇴	78	2.72			7.43		
석(박)사재·졸	7	6.00			16.70		
계	178	2.13			6.31		

관광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분석 결과도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분석 결과와 비슷했다.

‘단어수’에서는 역시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6.00개의 단어를 사용하여 가장 많았다. 대졸, 대졸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72개, 고졸, 고졸퇴 학력의 후보자 평균 1.41개, 초졸, 초졸퇴 학력의 후보자 평균 1.20개의 단어를 사용했고, 중졸, 중졸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관광 관련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단어 수 비율’ 분석에서도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6.70%로 가장 높았다. 대졸, 대졸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7.43%, 초졸, 초졸퇴 학력의 후보자 평균 5.42%, 고졸, 고졸퇴 학력의 후보자 평균 4.715%의 비율을 차지했다. 중졸, 중졸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0.00%이다.

□ 학력별 교통분야 공약 분석

학력별 교통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141) 그리고 ‘공약 수 비율’에서도 차이가 없다.(유의도 0.141)

<표 7-3-1-21> 학력별 교통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초졸, 초중퇴	5	1.80	1.749	0.141	11.90	1.749	0.141
중졸, 중중퇴	3	0.00			0.00		
고졸, 고중퇴	85	1.33			11.55		
대졸, 대중퇴	78	1.68			14.50		
석(박)사재·졸	7	2.00			8.89		
계	178	1.50			12.55		

교통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공약을 발표한 그룹은 평균 2.00개의 공약을 발표한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이다.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도 평균 1.80개로 비교적 높은 교통 관련 공약을 발표했고,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68개,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33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교통 관련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공약 수 비율’에서는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4.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1.90%,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1.55%를 차지했고, ‘공약 수’가 가장 많았던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8.89%의 비율을 보였다.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0.00%이다.

학력별 교통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31) 그러나 교통 관련 ‘단어 수 비율’에서는 차이가 있다.(유의도 0.097)

<표 7-3-1-22> 학력별 교통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초졸, 초중퇴	5	3.00	2.717	0.031	13.92	1.996	0.097
중졸, 중중퇴	3	0.00			0.00		
고졸, 고중퇴	85	3.06			12.30		
대졸, 대중퇴	78	4.31			16.13		
석(박)사재·졸	7	5.86			10.84		
계	178	3.66			13.76		

교통 관련 ‘단어 수’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단어를 사용한 후보자 그룹은 평균 5.86개의 단어를 사용한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이다. 대졸, 대 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4.31개,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3.06개,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3.00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교통 관련 ‘단어 수’를 사용하지 않았다.

‘단어수 비율’ 분석에서는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6.13%의 비율로 가장 높았다.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3.92%, 고졸, 고 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2.30%의 비율을 보였고, 가장 많은 ‘단어 수’를 사용한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0.84%이다. 중졸, 중중퇴 학 력의 후보자들은 0.00%이다.

□ 학력별 환경분야 공약 분석

학력별 환경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도 0.410) ‘공약 수 비율’에서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유의도 0.271)

<표 7-3-1-23> 학력별 환경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초졸, 초중퇴	5	1.20	0.997	0.410	12.42	1.303	0.271
중졸, 중중퇴	3	0.00			0.00		
고졸, 고중퇴	85	1.19			8.99		
대졸, 대중퇴	78	1.27			8.85		
석(박)사재·졸	7	1.86			6.30		
계	178	1.23			8.77		

환경 관련 ‘공약 수’가 가장 많은 그룹은 평균 1.86개를 발표한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이다.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1.27개,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20개,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19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환경 관련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공약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는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2.42%로 가장 높았다.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8.99%,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8.85%, ‘공약 수’가 가장 많았던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6.30%이다.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0.00%이다.

학력별 환경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446) ‘단어 수 비율’에서도 차이가 없다.(유의도 0.270)

<표 7-3-1-24> 학력별 환경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초졸, 초중퇴	5	2.60	0.934	0.446	12.78	1.305	0.270
중졸, 중중퇴	3	0.00			0.00		
고졸, 고중퇴	85	2.80			10.75		
대졸, 대중퇴	78	3.29			10.63		
석(박)사재·졸	7	3.57			6.01		
계	178	2.99			10.39		

환경 관련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그룹은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로 평균 3.57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3.29개,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 평균 2.80개,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 평균 2.60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환경관련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단어 수 비율’에 있어서는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2.78%의 비율로 가장 높았다. 고졸, 고중퇴와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10.75%, 10.63%의 비율을 보였다. ‘단어 수’가 가장 많았던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6.01%의 비율을 보였고,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0.00%이다.

□ 학력별 정보화분야 공약 분석

학력별 정보화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도 0.940) ‘공약 수 비율’에서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972)

<표 7-3-1-25> 학력별 정보화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초졸, 초중퇴	5	0.00	0.197	0.940	0.00	0.128	0.972
중졸, 중중퇴	3	0.00			0.00		
고졸, 고중퇴	85	0.00			0.29		
대졸, 대중퇴	78	0.01			0.11		
석(박)사재·졸	7	0.00			0.00		
계	178	0.00			0.19		

‘공약 수’ 분석 결과를 보면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만이 평균 0.01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나머지 그룹은 정보화 관련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공약 수 비율’에 있어서도 고졸, 고중퇴와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만이 각각 0.29%와 0.11%의 비율을 보이고 나머지 그룹은 0.00%이다.

학력별 정보화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965) 그리고 정보화 관련 ‘단어 수 비율’에서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782)

<표 7-3-1-26> 학력별 정보화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초졸, 초중퇴	5	0.00	0.144	0.965	0.00	0.437	0.782
중졸, 중중퇴	3	0.00			0.00		
고졸, 고중퇴	85	0.11			0.77		
대졸, 대중퇴	78	0.01			0.13		
석(박)사재·졸	7	0.14			0.17		
계	178	0.01			0.43		

정보화 관련 ‘단어 수’나 ‘단어 수 비율’에 있어서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단어 수’에 있어서는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0.14개로 가장 높았고, 고졸, 고중퇴와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0.11개, 0.01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나머지 초졸, 초중퇴와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정보화 관련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단어 수 비율’에 있어서는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0.77%로 가장 높았고,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17%,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13%의 비율을 보였다. 초졸, 초중퇴와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의 정보화 관련 ‘단어 수 비율’은 0.00%이다.

그나마 고졸, 고중퇴 학력 이상의 후보자들만이 정보화와 관련한 문제에 약간의 관심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 학력별 감귤정책 공약 경향성 분석

학력별로 감귤정책에 대한 이슈별분석을 실시하여 후보자들이 감귤정책에 대한 경향성을 분석했다. 50점에 가까울수록 생산조정제와 같이 통제위주의 정책을 지향하는 것이고, 점수가 10점대로 가까울수록 농민들의 자율에 맡기는 정책을 원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표 7-3-1-27> 학력별 감귤정책에 대한 분석 점수

항목	내용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통계량	유의도
감귤 정 책 에 대 한 분 석 점 수	초졸, 초중퇴	5	30.00	0.00	30.00	7.134	0.000
	중졸, 중중퇴	3	10.00	17.32	30.00		
	고졸, 고중퇴	85	29.94	5.70	50.00		
	대졸, 대중퇴	78	30.83	7.45	50.00		
	석(박)사재·졸	7	32.86	7.56	50.00		
	계	178	30.11	7.23	50.00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점수가 30.00점으로 어느 한 쪽에 치우치는 경향이 없다. 석(박)사 재·졸과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32.86점, 30.83점으로 관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졸, 중중퇴와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10.00점, 29.94점으로

관의 역할 보다는 농민의 자율에 맡기는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분석 결과를 봤을 때, 대체로 고학력일수록 관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저학력일수록 농민의 자율에 맡기는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 학력별 환경·지역개발정책 공약 경향성 분석

학력별로 환경과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이슈별 분석을 실시하여 후보자들이 환경과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경향성을 분석했다. 50점에 가까울수록 개발 위주의 정책을 펴자는 논리이고, 점수가 10점대로 가까울수록 환경보존 위주로 계획을 하자고 하는 경향성을 나타낸다. 분석 결과 그룹간에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도 0.001)

<표 7-3-1-28> 학력별 환경과 지역개발에 대한 분석 점수

항목	내용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통계량	유의도
환경과 지역개발에 대한 분석 점수	초졸, 초중퇴	5	32.34	5.21	40.00	4.981	0.001
	중졸, 중중퇴	3	10.00	17.32	30.00		
	고졸, 고중퇴	85	28.60	8.34	50.00		
	대졸, 대중퇴	78	27.43	7.62	45.00		
	석(박)사재·졸	7	32.86	4.88	40.00		
	계	178	28.05	8.39	50.00		

전체 평균 점수가 28.05점으로 전반적으로 개발위주의 정책 보다는 환경보존 위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 위주의 정책을 지향하는 그룹은 평균 32.86점을 기록한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과, 평균 32.34점을 기록한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다.

환경보존 위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그룹은 중졸, 중중퇴, 대졸, 대중퇴,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로 각각 평균 10.00점, 27.43점, 28.60점으로 나타났다.

□ 학력별 교통정책 공약 경향성 분석

학력별로 교통정책에 대한 이슈별 분석을 실시하여 후보자들이 교통정책과 철학의 경향성을 분석했다. 50점에 가까울수록 소통 보다는 안전 위주, 공급 위주의 정책 보다는 수요관리와 대중교통 위주의 정책을 지향하는 것이고 10

점에 가까울수록 공급 위주이며 소통 위주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룹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149)

<표 7-3-1-29> 학력별 교통정책에 대한 분석 점수

항목	내용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통계량	유의도
교통 정책에 대한 분석 점수	초졸, 초중퇴	5	23.10	8.83	30.00	1.713	0.149
	중졸, 중중퇴	3	10.00	17.32	30.00		
	고졸, 고중퇴	85	27.46	11.45	50.00		
	대졸, 대중퇴	78	27.81	13.64	50.00		
	석(박)사재·졸	7	24.29	9.76	30.00		
계	178	27.07	12.55	50.00			

모든 후보자들이 평균 30점 이하로 공급위주, 소통위주의 정책 보다는 안전 위주, 대중교통 위주, 수요관리 위주의 정책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0.00점으로 그러한 경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이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로 평균 23.10점,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24.29점,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27.46점,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27.81점을 나타냈다.

구체적이거나 예산이 수반될 수 있으며, 단기간에 가시화할 수 있는 공약의 경우는 50점을 그렇지 않고 선언적 의미로만 제시한 공약을 10점으로 하여 공약의 구체성에 대한 이슈별 분석을 실시했다. 그룹간에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도 0.000)

<표 7-3-1-30> 학력별 공약의 구체성에 대한 분석 점수

항목	내용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통계량	유의도
공약의 분석 점수에 대한 분석 점수	초졸, 초중퇴	5	33.30	12.96	47.50	9.822	0.000
	중졸, 중중퇴	3	6.67	11.55	20.00		
	고졸, 고중퇴	85	33.13	7.50	50.00		
	대졸, 대중퇴	78	33.63	7.53	48.00		
	석(박)사재·졸	7	38.62	6.24	50.00		
	계	178	33.12	8.44	50.00		

평균 6.67점의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후보자들이 평균 30점 이상으로 공약이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한 그룹은 평균 38.62점인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이다. 다음이 평균 33.63점의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 평균 33.30점의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 평균 33.13점의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 순이다.

□ 학력별 공약의 총계 분석

공약에 사용한 단어 수 총계를 가지고 학력별로 분석했다. 그룹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2) ‘공약 수 총계’분석에서도 그룹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1)

<표 7-3-1-31> 학력별 단어 수 총계와 공약 수 총계

내용	빈도	단어 수 총계			공약 수 총계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초졸, 초중퇴	5	22.20	4.461	0.002	11.20	5.162	0.001
중졸, 중중퇴	3	2.00			2.00		
고졸, 고중퇴	85	26.08			11.98		
대졸, 대중퇴	78	30.22			13.37		
석(박)사재·졸	7	56.43			27.14		
계	178	28.57			12.99		

분석 결과 가장 많은 단어를 사용한 그룹은 평균 56.43개의 단어를 사용한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이다.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30.22개,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6.08개,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2.20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타 후보자들에 비해 월등히 적은 2.00개의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 수 총계’ 분석 결과에서도 ‘단어 수 총계’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27.14%로 가장 높았다.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3.37%,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1.98%,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1.20%를 나타냈고,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00%로 역시 ‘단어 수 총계’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훨씬 낮은 비율을 보였다.

분석 결과를 봤을 때, 대체로 고학력일수록 많은 ‘단어 수’와 ‘공약 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을 비롯한 타 후보자들에 비해 훨씬 적은 ‘단어 수’와 ‘공약수’를 보이고 있다.

3-2. 6.4선거 공약 분석

□ 학력별 4·3문제 공약 분석

학력별 4·3문제와 관련하여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92) 그리고 ‘공약 수 비율’의 경우도 그룹간에 차이가 없다.(유의도 0.095)

<표 7-3-2-1> 학력별 4·3문제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초졸, 초중퇴	2	0.00	2.049	0.092	0.00	2.027	0.095
중졸, 중중퇴	5	0.60			3.76		
고졸, 고중퇴	47	0.00			0.00		
대졸, 대중퇴	64	0.27			2.70		
석(박)사재·졸	10	0.10			0.30		
계	128	0.16			1.56		

4·3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공약 수’를 발표한 그룹은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로 평균 0.60개이다. 이 그룹은 6.27선거때 4·3문제 공약이 없었다. 대졸, 대중퇴 후보자와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로 각각 평균 0.27개, 0.10개의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초졸, 초중퇴,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4.3관련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4.3문제와 관련한 ‘공약수 비율’에서도 역시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3.76%로 가장 높았고, 대졸, 대중퇴, 석(박)사 학력의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2.70%, 0.30%의 비율을 보였다.

학력별 4·3문제와 관련하여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85) ‘단어 수 비율’도 마찬가지로 정당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76)

<표 7-3-2-2> 학력별 4·3문제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초졸, 초중퇴	2	0.00	2.096	0.085	0.00	2.171	0.076
중졸, 중중퇴	5	1.00			3.70		
고졸, 고중퇴	47	0.00			0.00		
대졸, 대중퇴	64	0.53			2.27		
석(박)사재·졸	10	0.20			0.42		
계	128	0.32			1.31		

4·3문제와 관련하여 평균으로 가장 많은 ‘단어 수’를 발표한 그룹은 가장 많은 ‘공약 수’를 발표한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로 평균 1.00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대졸, 대중퇴,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0.53개, 0.20개의 단어를 발표했고, 초졸, 초중퇴와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4·3관련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단어 수 비율’ 분석에 있어서도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3.70%로 가장 높았다.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27%,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는 0.42%이다. 역시 초졸, 초중퇴와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4·3문제와 관련한 ‘단어 수 비율’이 0.00%이다.

6.27선거시와 비교해 봤을 때, 6.27선거시의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어느정도 4·3문제에 비중을 두었던 반면, 6.4선거시의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비중을 두지 않았다. 그리고 6.27선거시의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4·3문제에 전혀 비중을 두지 않았으나, 6.4선거시에는 가장 큰 비중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 학력별 정치·행정·재정분야 공약 분석

학력별 정치·행정·재정문제와 관련하여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173) 그리고 ‘공약수 비율’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202)

<표 7-3-2-3> 학력별 정치·행정·재정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초졸, 초중퇴	2	0.50	1.623	0.173	5.00	1.516	0.202
중졸, 중중퇴	5	1.60			14.72		
고졸, 고중퇴	47	1.81			17.54		
대졸, 대중퇴	64	1.27			10.40		
석(박)사재·졸	10	2.90			15.29		
계	128	1.59			13.49		

정치·행정·재정문제와 관련하여 평균으로 가장 많은 ‘공약 수’를 발표한 그룹은 2.90개의 공약을 발표한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이다. 다음은 고졸, 고중퇴 후보자와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로 각각 1.81개, 1.60개의 이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27개의 공약을 발표했고,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타 후보자들에 비해 상당히 적은 평균 0.50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정치·행정·재정관련 문제에 대한 ‘공약 수 비율’은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7.5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5.29%,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4.72%,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0.40%의 ‘공약 수 비율’을 나타냈다.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5.00%로 타 후보자들에 비해 2배정도 적은 비율을 보였다.

6.27선거시 고학력일수록 정치·행정·재정 관련 문제에 대한 비중이 높은 반면, 6.4선거시에는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학력별 정치·행정·재정문제와 관련하여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53) ‘단어 수 비율’에서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114)

<표 7-3-2-4> 학력별 정치·행정·재정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초졸, 초중퇴	2	1.00	2.404	0.053	4.35	1.902	0.114
중졸, 중중퇴	5	2.60			15.14		
고졸, 고중퇴	47	2.79			14.26		
대졸, 대중퇴	64	2.33			9.44		
석(박)사재·졸	10	6.10			21.59		
계	128	2.78			12.30		

정치·행정·재정문제와 관련한 ‘단어 수’ 분석 결과는 ‘공약 수’ 분석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단어 수’가 가장 많은 그룹은 평균 6.10개의 단어를 사용한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이다. 다음은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2.79개,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2.60개로 나타났다.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과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2.33개와 1.00개로 나타났다.

‘단어 수 비율’ 분석에서는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21.59%로 가장 높았다. 중졸, 중중퇴와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15.14%와 14.26%로 나타났다. 대졸, 대중퇴와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9.44%와 4.35%로 나타났다.

□ 학력별 1차산업 분야 공약 분석

학력별 1차산업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도 0.913) ‘공약 수 비율’에서도 차이가 없다.(유의도 0.234)

<표 7-3-2-5> 학력별 1차산업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초졸, 초중퇴	2	1.50	0.244	0.913	15.15	1.411	0.234
중졸, 중중퇴	5	1.80			25.00		
고졸, 고중퇴	47	2.00			14.39		
대졸, 대중퇴	64	1.39			9.48		
석(박)사재·졸	10	1.70			7.14		
계	128	1.66			11.80		

1차산업 관련 ‘공약 수’를 가장 많이 제시한 그룹은 평균 2.00개를 발표한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다.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80개,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70개,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50개를 발표했고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39개의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산업 관련 ‘공약 수 비율’ 분석에 있어서는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3.22%로 가장 높았고,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5.15%,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4.39%의 비율을 보였다.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7.14%의 비율을 보였고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9.48%이다.

학력별 1차산업과 관련하여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681) 그러나 ‘단어 수 비율’에서는 차이가 있다.(유의도 0.022)

<표 7-3-2-6> 학력별 1차산업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초졸, 초중퇴	2	4.00	0.576	0.681	19.80	2.984	0.022
중졸, 중중퇴	5	4.00			29.72		
고졸, 고중퇴	47	3.79			14.69		
대졸, 대중퇴	64	3.09			10.01		
석(박)사재·졸	10	0.80			1.53		
계	128	3.22			11.99		

1차산업 관련 ‘단어 수’가 가장 많은 그룹은 초졸, 초중퇴와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로 평균 4.57개의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고중퇴와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3.79개, 3.09개이고,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80개로 타 후보자들에 비해 상당히 적은 1차산업 관련 단어를 사용했다.

1차산업 관련 ‘단어 수 비율’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

보자들이 평균 19.80%로 가장 높았다. 국졸, 국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9.80%,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4.69%를 나타냈다.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0.01%를 나타냈고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53%로 가장 적은 비율을 보였다.

분석 결과 대체로 저학력의 후보자들이 고학력의 후보자들 보다 1차산업 관련 문제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학력별 감귤산업분야 공약 분석

학력별 감귤산업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726) ‘공약수 비율’에서도 차이가 없다.(유의도 0.223)

<표 7-3-2-7> 학력별 감귤산업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초졸, 초중퇴	2	0.00	0.514	0.726	0.00	1.466	0.223
중졸, 중중퇴	5	0.20			1.26		
고졸, 고중퇴	47	0.70			6.84		
대졸, 대중퇴	64	0.64			4.52		
석(박)사재·졸	10	0.50			1.69		
계	128	0.63			4.95		

학력별로 감귤산업 관련 ‘공약 수’를 분석한 결과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0.70개로 가장 많은 공약을 발표했다.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64개,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50개,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20개의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감귤산업과 관련하여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공약 수 비율’도 ‘공약 수’ 분석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6.84%로 가장 높았고,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4.52%,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69%,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26%의 비율을 보였다. 감귤산업 분야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공약 수 비율’에 있어서도 0.00%이다.

학력별 감귤산업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458) ‘단어 수 비율’에서도 차이가 없다.(유의도 0.311)

<표 7-3-2-8> 학력별 감귤산업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초졸, 초중퇴	2	0.00	0.914	0.458	0.00	1.208	0.311
중졸, 중중퇴	5	0.80			4.96		
고졸, 고중퇴	47	1.15			5.95		
대졸, 대중퇴	64	1.42			4.93		
석(박)사재·졸	10	0.50			1.02		
계	128	1.2			4.92		

학력별 감귤산업 관련 ‘단어 수’ 분석에서는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42개로 가장 많은 단어를 사용했다. 고졸, 고중퇴와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1.15개, 0.80개의 단어를 사용했고,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50개로 비교적 적은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감귤산업과 관련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단어 수 비율’ 분석에서도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5.95%로 가장 높았다. 중졸, 중중퇴와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4.96%와 4.93%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02%로 타 후보자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비율을 보였고,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0.00%이다.

□ 학력별 지역경제·개발 분야 공약 분석

학력별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354) ‘공약 수 비율’에서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468)

<표 7-3-2-9> 학력별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초졸, 초중퇴	2	4.00	1.113	0.354	42.20	0.897	0.468
중졸, 중중퇴	5	1.80			18.54		
고졸, 고중퇴	47	1.85			18.29		
대졸, 대중퇴	64	2.33			19.66		
석(박)사재· 졸	10	2.90			22.82		
계	128	2.20			19.71		

학력별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공약 수’ 분석 결과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4.00개로 가장 많았고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90개,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33개,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85개의 공약을 발표하였다.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80개로 지역(도시)경제·개발과 관련한 공약이 가장 적었다.

‘공약 수 비율’에서도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42.20%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였고,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2.82%,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9.66%,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8.54%,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8.29%이다.

6.27선거 때에는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도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공약 수’가 비교적 많았고, 특히 ‘공약 수 비율’은 가장 높았었다. 6.4선거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도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타 후보자들에 비해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특히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이 가장 적은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 보다는 2배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학력별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509) ‘단어 수 비율’에서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521)

<표 7-3-2-10> 학력별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초졸, 초중퇴	2	4.00	0.830	0.509	17.35	0.811	0.521
중졸, 중중퇴	5	2.00			11.34		
고졸, 고중퇴	47	2.21			11.36		
대졸, 대중퇴	64	4.33			13.56		
석(박)사재·졸	10	4.80			18.09		
계	128	3.49			13.08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단어 수’ 분석 결과에서는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4.80개로 가장 많은 단어를 사용했다.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4.33개, 가장 많은 공약수를 제시했던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4.00개,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21개,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00개의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어 수 비율’ 분석에 있어서도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8.09%로 가장 높았다.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7.35%,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3.56%,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1.36%의 비율을 보였고,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1.34%였다.

□ 학력별 교육분야 공약 분석

학력별 교육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15) 그러나 ‘공약 수 비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208)

<표 7-3-2-11> 학력별 교육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초졸, 초중퇴	2	0.50	3.197	0.015	5.50	1.496	0.208
중졸, 중중퇴	5	0.40			7.92		
고졸, 고중퇴	47	0.36			2.69		
대졸, 대중퇴	64	0.83			4.90		
석(박)사재·졸	10	1.80			7.67		
계	128	0.71			4.43		

6.4선거 교육 관련 ‘공약 수’를 분석한 결과는 6.27선거시의 결과와 비슷하게 나왔다.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80개로 가장 많은 공약을 발표했다.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83개,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50개,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40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교육 관련 공약이 평균 0.36개였다.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이 타 후보자들에 비해 평균 1.00개 이상의 교육 관련 공약을 발표한 것을 알 수 있다.

‘공약 수 비율’ 분석 결과에 있어서는 교육 관련 ‘공약 수’가 평균 0.40개에 불과했던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7.92%로 가장 높았다. ‘공약 수’가 가장 많았던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7.67%,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5.50%,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4.90%의 비율을 보였고,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69%였다.

학력별 교육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도 0.709) 교육 관련 ‘단어 수 비율’에서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553)

<표 7-3-2-12> 학력별 교육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초졸, 초중퇴	2	1.50	0.537	0.709	4.70	0.792	0.533
중졸, 중중퇴	5	0.40			1.48		
고졸, 고중퇴	47	0.98			2.13		
대졸, 대중퇴	64	1.02			3.58		
석(박)사재·졸	10	2.20			4.43		
계	128	1.08			3.05		

교육 관련 ‘단어 수’를 가장 많이 사용한 그룹은 ‘공약 수’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평균 2.20개의 단어를 사용한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이었으며,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50,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02개,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98개,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40개의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어 수 비율’ 분석에서는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4.70%로 가장 높았다. ‘단어 수’가 가장 많았던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

평균 4.43%,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3.58%,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13%,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48%의 비율을 보였다. 6.27선거 시에도 이와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었다.

□ 학력별 사회·복지분야 공약 분석

학력별 사회·복지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779) ‘공약 수 비율’에서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169)

<표 7-3-2-13> 학력별 사회·복지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초졸, 초중퇴	2	1.00	0.441	0.779	10.55	1.639	0.169
중졸, 중중퇴	5	0.20			2.86		
고졸, 고중퇴	47	2.24			10.87		
대졸, 대중퇴	64	2.05			14.19		
석(박)사재·졸	10	2.00			15.56		
계	128	2.03			12.58		

학력별 사회·복지 관련 ‘공약 수’분석에서 가장 많은 공약을 제시한 그룹은 평균 2.24개의 공약을 발표한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다. 다음으로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2.05개,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2.00개, 초졸, 초중퇴와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1.00, 0.20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사회·복지 관련 ‘공약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는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5.56%로 가장 높았다.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4.19%,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0.87%,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0.56%로 나타났다.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85%로 타 후보자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분석 결과, 대체로 고학력일수록 사회·복지 관련 공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

학력별 사회·복지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527) 사회·복지 관련 ‘단어 수 비율’에서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유의도 0.052)

<표 7-3-2-14> 학력별 사회·복지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초졸, 초중퇴	2	4.50	1.249	0.294	18.90	1.298	0.274
중졸, 중중퇴	5	0.60			2.40		
고졸, 고중퇴	47	3.30			13.96		
대졸, 대중퇴	64	4.02			15.53		
석(박)사재·졸	10	4.80			16.64		
계	128	3.69			14.58		

사회·복지 관련 공약에 사용된 ‘단어 수’ 분석 결과도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4.80개로 가장 많은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이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로 평균 4.50개의 단어를 사용했고,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4.02개,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3.30개의 단어를 사용했고,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평균 0.60개로 사회·복지 관련 단어를 가장 적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어 수 비율’ 분석에서는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8.90%로 가장 높았고,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6.64%,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5.53%,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3.96%를 나타냈다. 역시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2.40%로 상당히 적은 ‘단어 수 비율’을 보였다.

□ 학력별 문화·예술·체육 분야 공약 분석

학력별 문화·예술·체육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649) ‘공약 수 비율’에서도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466)

<표 7-3-2-15> 학력별 문화·예술·체육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초졸, 초중퇴	2	0.50	0.620	0.649	5.00	0.901	0.466
중졸, 중중퇴	5	0.60			4.62		
고졸, 고중퇴	47	0.66			5.72		
대졸, 대중퇴	64	0.66			3.25		
석(박)사재·졸	10	1.30			6.06		
계	128	0.71			4.46		

문화·예술·체육 관련 ‘공약 수’ 분석 결과는 6.27선거시의 분석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30개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대졸, 대중퇴와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0.66개,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0.60개,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50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고학력일수록 문화·예술·체육 관련 공약을 많이 발표했다.

‘공약 수 비율’ 분석 결과에 있어서도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6.06%로 가장 높았고,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5.72%, ‘공약 수’가 가장 적었던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5.00%,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4.62%를 보였다.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3.25%로 가장 적은 비율을 보였다.

학력별 문화·예술·체육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243) 문화·예술·체육 관련 ‘단어 수 비율’에서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520)

<표 7-3-2-16> 학력별 문화·예술·체육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초졸, 초중퇴	2	1.50	1.384	0.243	4.70	0.812	0.520
중졸, 중중퇴	5	0.60			3.36		
고졸, 고중퇴	47	1.32			6.11		
대졸, 대중퇴	64	1.31			4.23		
석(박)사재·졸	10	2.90			7.11		
계	128	1.41			5.12		

문화·예술·체육 관련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그룹은 평균 2.90개의 단어를 사용한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이다.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50개의 단어를 사용했고,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32개,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31개의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60개로 가장 적은 문화·예술·체육 관련 단어를 사용했다.

‘단어 수 비율’ 분석에 있어서는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7.11%로 가장 높았다.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6.11%이고, 초졸, 초중퇴와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4.70%, 4.23%였다.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3.36%이다.

□ 학력별 여성분야 공약 분석

학력별 여성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277) 그러나 ‘공약 수 비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555)

<표 7-3-2-17> 학력별 여성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초졸, 초중퇴	2	0.50	1.292	0.277	5.55	0.757	0.555
중졸, 중중퇴	5	0.00			0.00		
고졸, 고중퇴	47	0.23			2.09		
대졸, 대중퇴	64	0.65			2.92		
석(박)사재·졸	10	0.90			3.68		
계	128	0.49			2.60		

여성 관련 ‘공약 수’를 가장 많이 발표한 그룹은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로 평균 0.90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대졸, 대졸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65개, 초졸, 초졸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50개, 고졸, 고졸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23개의 여성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중졸, 중졸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여성 관련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대졸, 대졸퇴 학력이상의 후보자들이 비교적 여성 관련 공약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졸, 중졸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6.27선거시의 중졸, 중졸퇴 학력의 후보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성 관련 공약에 비중을 전혀 두지 않았다.

‘공약 수 비율’에 있어서는 초졸, 초졸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5.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장 많은 ‘공약 수’를 발표한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3.68%, 대졸, 대졸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92%, 고졸, 고졸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09%의 비율을 보였다. 중졸, 중졸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0.00%이다.

학력별 여성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는 차이가 없다.(유의도 0.332) 그리고 여성 관련 ‘단어 수 비율’에서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608)

<표 7-3-2-18> 학력별 여성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초졸, 초졸퇴	2	2.00	1.159	0.332	6.25	0.678	0.608
중졸, 중졸퇴	5	0.00			0.00		
고졸, 고졸퇴	47	0.62			2.66		
대졸, 대졸퇴	64	1.00			3.38		
석(박)사재·졸	10	1.30			2.66		
계	128	0.86			2.97		

여성 관련 ‘단어 수’를 가장 많이 사용한 후보자 그룹은 ‘공약 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초졸, 초졸퇴 학력의 후보자들로 평균 2.00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30개, 대졸, 대졸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00개, 고졸, 고졸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62개의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졸, 중졸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여성 관련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어 수 비율’ 분석에서도 초졸, 초졸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6.2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66%, 석(박)사 재·졸과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66%의 비율을 보였다.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00%이다.

□ 학력별 관광분야 공약 분석

학력별 관광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1) ‘공약 수 비율’에서도 차이가 있다.(유의도 0.484)

<표 7-3-2-19> 학력별 관광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초졸, 초중퇴	2	0.50	2.057	0.091	5.50	1.227	0.303
중졸, 중중퇴	5	1.20			9.70		
고졸, 고중퇴	47	0.51			4.55		
대졸, 대중퇴	64	1.21			7.68		
석(박)사재·졸	10	1.40			4.79		
계	128	0.96			6.35		

관광 관련 ‘공약 수’분석 결과는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40개로 가장 많은 공약을 발표했다.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21개,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20개,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51개,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50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공약 수 비율’ 분석에서는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9.7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7.68%, 국졸, 국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5.50%,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4.79%,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4.55%의 비율을 보였다.

6.27선거시의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관광 관련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던 반면, 6.4선거시의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비교적 관광 관련 공약에 비중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관광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103) 그리고 ‘단어 수 비율’에서도 차이가 없다.(유의도 0.070)

<표 7-3-2-20> 학력별 관광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초졸, 초중퇴	2	1.50	1.971	0.103	5.95	2.229	0.070
중졸, 중중퇴	5	2.80			15.44		
고졸, 고중퇴	47	1.47			7.12		
대졸, 대중퇴	64	3.17			11.11		
석(박)사재·졸	10	2.00			3.62		
계	128	2.41			9.15		

관광 관련 ‘단어 수’ 분석에서는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3.17개로 가장 많은 단어를 사용했다.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80개,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00개,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50개,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47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단어 수 비율’ 분석에서는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5.44%로 가장 높았다.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1.11%,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7.12%,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5.95%,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3.62%의 비율을 보였다.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이 다른 분야에서보다는 관광 관련 공약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학력별 교통분야 공약 분석

학력별 교통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841) 그리고 ‘공약 수 비율’에서도 차이가 없다.(유의도 0.787)

<표 7-3-2-21> 학력별 교통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초졸, 초중퇴	2	0.50	0.354	0.841	5.55	0.430	0.787
중졸, 중중퇴	5	1.00			10.44		
고졸, 고중퇴	47	0.94			6.28		
대졸, 대중퇴	64	1.61			8.18		
석(박)사재·졸	10	1.40			9.37		
계	128	1.30			7.62		

교통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공약을 발표한 그룹은 평균 1.61개의 공약을 발표한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다.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40개의 공약을 발표했고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00개,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943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50개로 가장 적은 교통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대졸, 대중퇴 학력 이상의 후보자들이 비교적 많은 교통 관련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 수 비율’에서는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0.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9.37%, ‘공약 수’가 가장 많았던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8.18%,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6.28%,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5.55%의 비율을 보였다.

학력별 교통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465) 교통 관련 ‘단어 수 비율’에서도 차이가 없다.(유의도 0.886)

<표 7-3-2-22> 학력별 교통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초졸, 초중퇴	2	4.50	0.903	0.465	16.50	0.286	0.886
중졸, 중중퇴	5	2.00			8.34		
고졸, 고중퇴	47	1.87			10.33		
대졸, 대중퇴	64	3.06			11.15		
석(박)사재·졸	10	3.70			12.92		
계	128	2.66			10.96		

교통 관련 ‘단어 수’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단어를 사용한 후보자 그룹은 ‘공약 수’가 가장 적었던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로 평균 4.50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3.70개,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3.06개,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00개,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87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단어 수 비율’ 분석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그룹은 ‘공약 수 비율’이 가장 적었던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로 평균 16.50%의 비율을 보였다.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2.92%,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1.15%,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0.33%로 나타났다. ‘공약 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8.34%로 가장 적은 비율을 보였다.

□ 학력별 환경분야 공약 분석

학력별 환경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도 0.719) ‘공약 수 비율’에서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264)

<표 7-3-2-23> 학력별 환경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초졸, 초중퇴	2	0.00	0.523	0.719	0.00	1.325	0.264
중졸, 중중퇴	5	0.20			1.26		
고졸, 고중퇴	47	1.13			7.93		
대졸, 대중퇴	64	1.09			6.42		
석(박)사재·졸	10	1.30			5.36		
계	128	1.07			6.59		

환경 관련 ‘공약 수’가 가장 많은 그룹은 평균 1.30개를 발표한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이다.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1.13개,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09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20개이고,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환경 관련 공약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고중퇴 학력 이상의 후보자들과 그 미만의 후보자들간의 차이가 뚜렷이 나타났다. 즉 고졸, 고중퇴 학력 이상의 후보자들이 환경 관련 공약을 많이 발표했다.

‘공약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는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7.93%로 가장 높았다.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6.42%,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5.36%의 비율을 보였다. 중졸, 중중퇴와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1.26%, 0.00%로 나타나 ‘공약 수’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고졸, 고중퇴 학력 이상의 후보자들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학력별 환경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196) ‘단어 수 비율’에서도 차이가 없다.(유의도 0.673)

<표 7-3-2-24> 학력별 환경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초졸, 초중퇴	2	0.50	1.536	0.196	1.55	0.586	0.673
중졸, 중중퇴	5	0.80			4.16		
고졸, 고중퇴	47	2.02			9.56		
대졸, 대중퇴	64	2.25			8.80		
석(박)사재·졸	10	3.90			8.64		
계	128	2.21			8.77		

환경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분석 결과는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분석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환경 관련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그룹은 ‘공약 수’를 가장 많이 발표한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로 평균 3.90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25개,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02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중졸, 중중퇴와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0.80개, 0.50개로 역시 고졸, 고중퇴 학력 이상의 후보자들과는 차이를 보였다.

‘단어 수 비율’에 있어서는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9.56%의 비율로 가장 높았다. 대졸, 대중퇴와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8.80%, 8.64%의 비율을 보였다. ‘단어 수 비율’에 있어서도 중졸, 중중퇴와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4.16%, 1.55%로 가장 적은 비율을 나타냈다.

□ 학력별 정보화분야 공약 분석

학력별 정보화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도 0.759) ‘공약수 비율’에서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986)

<표 7-3-2-25> 학력별 정보화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초졸, 초중퇴	2	0.00	0.468	0.759	0.00	0.089	0.986
중졸, 중중퇴	5	0.00			0.00		
고졸, 고중퇴	47	0.00			0.21		
대졸, 대중퇴	64	0.01			0.27		
석(박)사재·졸	10	0.10			0.30		
계	128	0.01			0.24		

‘공약 수’ 분석 결과를 보면 석(박)사 재·졸과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만이 각각 평균 0.10개와 0.01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나머지 그룹은 정보화 관련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공약 수 비율’에 있어서는 석(박)사 재·졸과 대졸, 대중퇴,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만이 각각 평균 0.30%, 0.27%, 0.21%의 비율을 보이고 나머지 그룹은 0.00%였다.

6.27선거와 마찬가지로 6.4선거에서도 대부분 정보화 관련 분야에 비중을 두고 있지 않았고, 다만 고졸, 고중퇴 학력 이상의 후보자들만이 낮은 비율로 정보 관련 공약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정보화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282) 그리고 정보화 관련 ‘단어 수 비율’에서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633)

<표 7-3-2-26> 학력별 정보화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초졸, 초중퇴	2	0.00	1.280	0.282	0.00	0.643	0.633
중졸, 중중퇴	5	0.00			0.00		
고졸, 고중퇴	47	0.13			0.44		
대졸, 대중퇴	64	0.27			0.37		
석(박)사재·졸	10	1.10			1.32		
계	128	0.27			0.45		

정보화 관련 ‘단어 수’나 ‘단어 수 비율’에 있어서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단어 수’에 있어서는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10개로 가장 높았고, 대졸, 대중퇴와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0.27, 0.13개의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초졸, 초중퇴와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정보화 관련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단어 수 비율’에 있어서는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32%로 가장 높았고, 고졸, 고중퇴,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0.44%, 0.37%의 비율을 보였다. 초졸, 초중퇴와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의 정보화 관련 ‘단어 수 비율’은 0.00%이다.

‘공약 수 비율’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그나마 고졸, 고중퇴 학력 이상의 후보자들만이 정보화 관련한 문제에 약간의 관심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 학력별 감귤정책 경향성 분석

학력별로 감귤정책에 대한 이슈별 분석을 실시하여 후보자들이 감귤정책에 대한 경향성을 분석했다. 50점에 가까울수록 생산조정제와 같이 관주도의 통제위주의 정책을 지향하는 것이고, 점수가 10점대로 가까울수록 농민들의 자율에 맡기는 정책을 원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도 0.799)

<표 7-3-2-27> 학력별 감귤정책에 대한 분석 점수

항목	내용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통계량	유의도
감귤 정책에 대한 분석 점수	초졸, 초중퇴	2	30.00	0.00	30.00	0.412	0.799
	중졸, 중중퇴	5	28.00	10.95	40.00		
	고졸, 고중퇴	47	28.97	8.06	45.00		
	대졸, 대중퇴	64	28.39	9.48	50.00		
	석(박)사재·졸	10	25.00	10.80	40.00		
	계	128	28.35	9.01	50.00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점수가 30.00점으로 어느 한 쪽에 치우치는 경향이 없다. 나머지 그룹은 평균이 30.00점 이하로 관의 역할 보다는 농민의 자율에 맡기는 정책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25.00점으로 농민의 자율성에 맡기는 경향이 가장 높다. 중졸, 중중퇴와 대졸, 대중퇴, 그리고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28.00점, 28.39점, 28.97점으로 나타났다.

6.27 선거시, 양쪽에 균형적인 경향을 보인 것에 반하여 6.4선거시에는 대체로 농민의 자율에 맡기는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이 타 후보자들에 비해 그러한 경향이 강한 바, 이는 6.27선거시와는 반대의 결과이다.

□ 학력별 환경·지역개발 정책 경향성 분석

학력별로 환경과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이슈별 분석을 실시하여 후보자들이 정책에 대한 경향성을 분석했다. 50점에 가까울수록 개발위주의 정책을 펴자는 논리이고, 점수가 10점대로 가까울수록 환경보존위주로 계획을 하자는 경향성을 나타낸다. 분석 결과 그룹간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도 0.453)

<표 7-3-2-28> 학력별 환경과 지역개발에 대한 분석 점수

항목	내용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통계량	유의도
환경과 지역개발에 대한 분석 점수	초졸, 초중퇴	2	30.00	0.00	30.00	0.923	0.453
	중졸, 중중퇴	5	34.66	6.49	43.30		
	고졸, 고중퇴	47	27.04	7.65	50.00		
	대졸, 대중퇴	64	26.35	10.84	50.00		
	석(박)사재·졸	10	26.67	10.88	50.00		
	계	128	27.01	9.58	50.00		

전체 평균 점수가 27.01점으로 전반적으로 개발위주의 정책 보다는 환경보존위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34.66점으로 환경보존 보다는 개발 위주의 정책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는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26.35점,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26.67점,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27.04점으로 환경보존 위주의 정책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력별 교통정책 경향성 분석

학력별 교통정책에 대한 이슈별 분석을 실시하여 후보자들이 교통정책과 철학에 경향성을 분석했다. 50점에 가까울수록 소통 보다는 안전 위주, 공급 위주의 정책 보다는 수요관리와 대중교통위주의 정책을 지향하는 것이고 10점에 가까울수록 공급 위주이며 소통 위주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룹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93)

<표 7-3-2-29> 학력별 교통정책에 대한 분석 점수

항목	내용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통계량	유의도
교통 정책에 대한 분석 점수	초졸, 초중퇴	2	45.00	7.07	50.00	2.040	0.093
	중졸, 중중퇴	5	32.00	10.95	50.00		
	고졸, 고중퇴	47	25.43	11.49	50.00		
	대졸, 대중퇴	64	27.26	12.98	50.00		
	석(박)사재·졸	10	33.17	12.78	50.00		
	계	128	27.51	12.52	50.00		

전체 평균이 27.51점으로 대체로 안전 위주, 대중교통 위주, 수요관리 위주의 정책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이나, 학력별로 구분하여 봤을 때는 공급 위주, 소통 위주의 정책을 지향하는 그룹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위주, 소통 위주의 정책을 지향하는 그룹은 평균 45.00점의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와 평균 33.17점의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 그리고 평균 32.00점의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다.

안전 위주, 대중교통 위주, 수요관리 위주의 정책을 지향하는 그룹은 고졸, 고중퇴와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로 각각 평균 25.43점, 27.26점으로 나타났다.

□ 학력별 공약의 구체성 분석

구체적이거나 예산이 수반될 수 있으며, 단기간에 가시화할 수 있는 공약의 경우는 50점을 그렇지 않고 선언적 의미로만 제시한 공약을 10점으로 하여 공약의 구체성에 대한 이슈별 분석을 실시했다. 그룹간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도 0.657)

<표 7-3-2-30> 학력별 공약의 구체성에 대한 분석 점수

항목	내용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통계량	유의도
공약의 구체성에 대한 분석점수	초졸, 초중퇴	2	42.15	1.63	43.30	0.608	0.657
	중졸, 중중퇴	5	33.04	2.68	35.60		
	고졸, 고중퇴	47	33.96	8.98	50.00		
	대졸, 대중퇴	64	33.74	11.13	50.00		
	석(박)사재·졸	10	37.19	7.57	48.60		
	계	128	34.20	9.84	50.00		

모든 후보자들이 평균 30점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공약이 구체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졸, 초중퇴 후보자들이 평균 42.15점으로 공약이 가장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이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로 평균 37.19점,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33.96점,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33.74점,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33.04점을 나타냈다.

□ 학력별 공약 총계 분석

공약에 사용한 단어 수 총계를 가지고 학력별로 분석했다. 그룹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234) ‘공약 수 총계’분석에서도 그룹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467)

<표 7-3-2-31> 학력별 단어 수 총계와 공약 수 총계

내용	빈도	단어수 총계			공약수 총계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초졸, 초중퇴	2	25.00	1.411	0.234	9.50	0.898	0.467
중졸, 중중퇴	5	17.60			9.60		
고졸, 고중퇴	47	20.17			11.79		
대졸, 대중퇴	64	26.97			13.84		
석(박)사재·졸	10	34.70			17.90		
계	128	24.68			13.17		

분석 결과 가장 많은 단어를 사용한 그룹은 평균 34.70개의 단어를 사용한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이다.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6.97개,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5.00개,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0.17개,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17.60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공약 수 총계’ 분석 결과에서도 석(박)사 재·졸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7.90%로 가장 높았다. 대졸, 대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3.84%, 고졸, 고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1.79%, 중졸, 중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9.60%를 나타냈고, 초졸, 초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9.50%의 비율을 보였다.

분석 결과를 봤을 때, 대체로 고학력일수록 많은 ‘단어 수’와 ‘공약 수’를 보이고 있다. 다만, ‘단어 수 총계’ 분석에 있어서는 국졸, 국중퇴 학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24.68개 이상의 단어를 사용했다.

4. 후보자의 나이별 공약의 차이분석

4-1. 6.27선거 공약 분석

□ 나이별 4·3문제 공약 분석

나이별 4·3문제와 관련하여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520) 그리고 ‘공약 수 비율’의 경우도 그룹간에 차이가 없다.(유의도 0.742)

<표 7-4-1-1> 나이별 4·3문제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40세 이하	15	0.13	0.757	0.520	0.61	0.415	0.742
41 - 50세	61	0.00			0.28		
51 - 60세	74	0.12			0.65		
61세 이상	28	0.01			0.31		
계	178	0.01			0.46		

4·3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공약 수’를 발표한 그룹은 평균 0.13개의 공약을 발표한 40세 이하 후보자들과고,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0.12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61세 이상 후보자들은 평균 0.01개의 공약을 발표한 반면 41-50세의 후보자들은 4.3관련 공약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는 51-60세의 후보자들이 평균 0.65%로 가장 높았고, 40세 이하 후보자들은 평균 0.61%의 비율을 보였다.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은 평균 0.31%, ‘공약 수’가 없었던 41-5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0.28%의 비율을 보였다.

나이별 4·3문제와 관련하여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702) ‘단어 수 비율’도 마찬가지로 정당별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911)

<표 7-4-1-2> 나이별 4·3문제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40세 이하	15	0.20	0.473	0.702	0.57	0.179	0.911
41 - 50세	61	0.11			0.33		
51 - 60세	74	0.30			0.61		
61세 이상	28	0.14			0.47		
계	178	0.20			0.49		

4·3문제와 관련하여 평균으로 가장 많은 ‘단어 수’를 발표한 그룹은 평균 0.30개의 단어를 사용한 41-50세의 후보자들이다.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평균 0.20개,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은 평균 0.14개, 41-5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0.11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단어 수 비율’ 분석 결과도 ‘단어 수’ 분석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51-60세의 후보자들이 평균 0.61%로 가장 높았고,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평균 0.57%,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은 평균 0.47%, 41-5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0.33%를 나타냈다.

□ 나이별 정치·행정·재정 분야 공약 분석

나이별 정치·행정·재정문제와 관련하여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15) 그러나 ‘공약 수 비율’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140)

<표 7-4-1-3> 나이별 정치·행정·재정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40세 이하	15	1.73	3.580	0.015	13.11	1.849	0.140
41 - 50세	61	0.77			7.81		
51 - 60세	74	1.49			11.76		
61세 이상	28	2.07			14.19		
계	178	1.36			10.90		

정치·행정·재정문제와 관련하여 평균으로 가장 많은 ‘공약 수’를 발표한 그룹은 평균 2.07개의 공약을 발표한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이다. 다음이 40세 이하와 51-60세의 후보자들로 각각 평균 1.73개, 1.49개의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41-5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0.77개로 가장 적은 정치·행정·재정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정치·행정·재정관련 문제에 대한 ‘공약수 비율’ 분석에서도 ‘공약 수’ 분석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이 평균 14.19%로 가장 높았고, 40세 이하와 51-60세의 후보자들은 각각 13.11%, 11.76%를 나타냈다. 41-5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7.81%이다.

분석결과, 41-50세의 후보자들이 타 후보자들에 비해 정치·행정·재정 관련 공약에 비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별 정치·행정·재정문제와 관련하여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29) 그러나 ‘단어수 비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380)

<표 7-4-1-4> 나이별 정치·행정·재정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40세 이하	15	3.47	3.088	0.029	13.69	1.031	0.380
41 - 50세	61	1.70			8.33		
51 - 60세	74	3.58			11.10		
61세 이상	28	3.71			11.96		
계	178	2.95			10.51		

정치·행정·재정문제와 관련한 ‘단어 수’가 가장 많은 그룹은 ‘공약 수’와 ‘공약수 비율’이 가장 많았던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이다.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3.58개,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평균 3.47개의 단어를 사용했고, 역시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이 가장 적었던 41-50세의 후보자들이 평균 1.70개로 가장 적은 수의 단어를 사용했다.

‘단어 수 비율’ 분석에서는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이 평균 13.69%로 가장 높

았다. 61세 이상과 51-60세의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11.96%, 11.10%이고, 41-5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8.33%로 나타났다.

□ 나이별 1차산업 분야 공약 분석

나이별 1차산업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453) ‘공약 수 비율’에서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721)

<표 7-4-1-5> 나이별 1차산업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빈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40세 이하	15	1.20	0.879	0.453	9.51	0.445	0.721
41 - 50세	61	1.21			8.98		
51 - 60세	74	1.78			11.45		
61세 이상	28	1.89			10.38		
계	178	1.56			10.27		

1차산업 관련 ‘공약 수’를 평균으로 가장 많이 제시한 그룹은 평균 1.89개를 발표한 61세이상의 후보자들과, 그 다음이 평균 1.78개의 공약을 발표한 51-60세의 후보자들이다. 41-50세, 40세이하의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1.21개, 1.20개로 나타났다.

‘공약 수 비율’ 분석에서는 51-60세의 후보자들이 평균 11.45%로 가장 높았고,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은 평균 10.38%로 나타났다. 40세 이하와 41-50세의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9.51%, 8.98%이다.

분석 결과, 51세 이상의 후보자들이 50세이하의 후보자들 보다 비교적 1차산업 관련 공약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별 1차산업과 관련하여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256) ‘단어 수 비율’에서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445)

<표 7-4-1-6> 나이별 1차산업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40세 이하	15	2.47	1.363	0.256	9.31	0.894	0.445
41 - 50세	61	2.85			9.94		
51 - 60세	74	4.46			12.76		
61세 이상	28	4.46			13.77		
계	178	3.74			11.66		

1차산업 관련 ‘단어 수’가 가장 많은 그룹은 61세 이상과 51-60세의 후보자들로 평균 4.46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41-50세 까지와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2.85개, 2.47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1차산업 관련 ‘단어 수 비율’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이 평균 13.77%로 가장 높았고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12.76%의 비율을 보였다. 41-5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9.94%,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평균 9.31%의 비율을 보였다.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도 51세 이상의 후보자들이 50세 미만의 후보자들 보다 1차산업에 대한 비중을 현저히 많이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나이별 감귤산업 공약 분석

나이별 감귤산업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632) 그리고 ‘공약 수 비율’에서도 차이가 없다.(유의도 0.771)

<표 7-4-1-7> 나이별 감귤산업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40세 이하	15	0.20	0.576	0.632	1.40	0.375	0.771
41 - 50세	61	0.25			2.36		
51 - 60세	74	0.34			1.81		
61세 이상	28	0.50			1.45		
계	178	0.32			1.91		

나이별로 감귤산업 관련 ‘공약 수’를 분석한 결과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이 평균 0.50개로 가장 많았고,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0.34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41-5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0.25개,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평균 0.20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1차산업과 마찬가지로 감귤산업 관련 공약에 있어서도 51세 이상, 특히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이 타 후보자들에 비해 많은 ‘공약 수’를 발표했다.

‘공약 수 비율’ 분석에 있어서는 ‘공약 수’ 분석 결과와는 다르게 41-50세 이상의 후보자들이 평균 2.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1.81%,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은 평균 1.45%,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평균 1.40%의 비율을 보였다.

나이별 감귤산업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451) ‘단어 수 비율’에서도 차이가 없다.(유의도 0.889)

<표 7-4-1-8> 나이별 감귤산업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비율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40세 이하	15	0.33	0.883	0.451	1.69	0.210	0.889
41 - 50세	61	0.57			2.13		
51 - 60세	74	0.81			2.37		
61세 이상	28	0.93			1.80		
계	178	0.71			2.14		

나이별 감귤산업 관련 ‘단어 수’ 분석에 있어서도 ‘공약 수’ 분석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가장 많은 단어 수를 사용한 그룹은 평균 0.93개의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이었다.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0.81개의 단어를 사용했고, 41-50세,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0.57개, 0.33개였다. ‘공약 수’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을수록 감귤산업 관련 단어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어 수 비율’ 분석에서는 51-60세의 후보자들이 평균 2.37%로 가장 높았고, 41-50세, 60세 이상,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2.13%, 1.80%, 1.69%의 비율을 보였다.

□ 나이별 지역경제·개발분야 공약 분석

나이별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그러나 ‘공약 수 비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103)

<표 7-4-1-9> 나이별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공약 수 및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40세 이하	15	2.00	7.363	0.000	17.65	2.345	0.075
41 - 50세	61	2.02			19.56		
51 - 60세	74	2.62			23.14		
61세 이상	28	4.54			28.48		
계	178	2.66			22.29		

나이별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공약 수’를 분석한 결과,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이 평균 4.54개로 가장 많은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2.62개, 41-5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2.02개,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평균 2.00개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을수록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공약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 수 비율’에서도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이 평균 28.48%로 가장 높고,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23.14%의 비율을 보였다. 41-50세,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19.56%, 17.65%이다. ‘공약 수’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은 후보자일수록 ‘공약 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별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그러나 ‘단어 수 비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075)

<표 7-4-1-10> 나이별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40세 이하	15	2.20	6.233	0.000	9.05	2.344	0.075
41 - 50세	61	2.97			14.77		
51 - 60세	74	4.70			15.95		
61세 이상	28	6.61			19.66		
계	178	4.20			15.55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분석 결과는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분석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즉, 나이가 많은 후보자들일수록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단어 수’가 많고, ‘단어 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어 수’ 분석에 있어서 가장 많은 단어를 사용한 그룹은 61세 이상의 후보자들로 평균 6.61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4.70개, 41-5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2.97개,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평균 2.20개의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어 수 비율’ 분석에 있어서도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이 평균 19.66%로 가장 높았고,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15.95%, 41-5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14.77%,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평균 9.05%의 비율을 보였다.

□ 나이별 교육 분야 공약 분석

나이별 교육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440) ‘공약 수 비율’에서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426)

<표 7-4-1-11> 나이별 교육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40세 이하	15	0.73	0.906	0.440	5.63	0.932	0.426
41 - 50세	61	0.66			5.67		
51 - 60세	74	0.58			3.85		
61세 이상	28	1.00			4.28		
계	178	0.69			4.69		

교육 관련 ‘공약 수’를 분석한 결과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이 평균 1.00개로 가장 많은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40세 이하의 후보자들로 평균 0.73개, 41-5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0.66개,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0.58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 수 비율’에 있어서는 41-50세의 후보자들이 평균 5.67%의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평균 5.63%,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은 평균 4.28%,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3.85%의 비율을 보였다.

‘공약 수 비율’ 분석에서는 50세 이하의 후보자들이 51세 이상의 후보자들보다는 높은 교육 관련 ‘공약 수 비율’을 보였다.

나이별 교육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987) 그러나 교육 관련 ‘단어 수 비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17)

<표 7-4-1-12> 나이별 교육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40세 이하	15	1.00	0.046	0.987	3.85	3.469	0.017
41 - 50세	61	1.03			4.35		
51 - 60세	74	0.96			1.97		
61세 이상	28	0.89			1.65		
계	178	0.98			2.89		

교육 관련 ‘단어 수’를 가장 많이 사용한 그룹은 41-50세의 후보자들로 평균 1.03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평균 1.00개,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0.96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공약 수’가 가장 많았던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은 평균 0.89개로 가장 적은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어 수 비율’ 분석에서도 ‘단어 수’ 분석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41-50세의 후보자들이 평균 4.35%로 가장 높았고,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평균 3.85%의 비율을 보였다.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1.97%,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은 평균 1.65%로 50세 이하의 후보자들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 나이별 사회·복지분야 공약 분석

나이별 사회·복지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473) 그러나 ‘공약 수 비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15)

<표 7-4-1-13> 나이별 사회·복지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40세 이하	15	2.20	0.841	0.473	13.37	3.607	0.015
41 - 50세	61	2.11			18.14		
51 - 60세	74	1.65			12.91		
61세 이상	28	1.75			9.58		
계	178	1.87			14.22		

나이별 사회·복지 관련 ‘공약 수’분석에서 가장 많은 공약을 제시한 그룹은 평균 2.20개의 공약을 발표한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이다. 41-5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2.11개,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은 평균 1.75개,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1.65개의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관련 ‘공약 수 비율’인 경우는 41-50세의 후보자들이 평균 18.14%로 타 후보자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공약 수’가 가장 많았던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평균 13.37%,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12.91%,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은 평균 9.58%의 비율을 보였다.

대체로 51세 이상의 후보자들 보다는 50세 이하의 후보자들이 교육과 관련한 공약에 비중을 더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별 사회·복지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991) 사회·복지 관련 ‘단어 수 비율’에서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074)

<표 7-4-1-14> 나이별 사회·복지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40세 이하	15	4.60	0.035	0.991	15.26	2.353	0.074
41 - 50세	61	4.57			20.41		
51 - 60세	74	4.62			15.00		
61세 이상	28	4.89			13.92		
계	178	4.65			16.66		

사회·복지 관련 공약에 사용된 ‘단어 수’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분석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이 평균 4.89개로 가장 많았고,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4.62개의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평균 4.60개, 41-5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4.57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교육 관련 ‘단어 수’ 분석 결과에서는 51세 이상의 후보자들이 50세 이하의 후보자들 보다 더 많은 사회·복지 관련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어 수 비율’ 분석에서는 ‘단어 수’가 가장 적었던 41-50세의 후보자들이 평균 20.41%로 가장 높았다.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평균 15.26%,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15.00%로 나타났고, ‘단어 수’가 가장 많았던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은 평균 13.92%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단어 수’ 분석 결과를 제외한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단어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는 50세 이하의 후보자들이 51세 이상의 후보자들 보다 사회·복지문제에 대한 비중이 높았다. 다만 ‘단어 수’ 분석 결과에서는 특이하게 이와 정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 나이별 문화·예술·체육 분야 공약 분석

나이별 문화·예술·체육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778) ‘공약수 비율’에서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373)

<표 7-4-1-15> 나이별 문화·예술·체육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40세 이하	15	0.60	0.366	0.778	3.96	1.048	0.373
41 - 50세	61	0.61			5.44		
51 - 60세	74	0.81			5.80		
61세 이상	28	0.71			3.03		
계	178	0.71			5.09		

문화·예술·체육 관련 ‘공약 수’를 분석한 결과, 51-60세의 후보자들이 평균 0.81개로 가장 많은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은 평균 0.71개, 41-5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0.61개,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평균 0.60개로 나타났다. 51세 이상의 후보자들이 50세 이하의 후보자들 보다는 문화·예술·체육 관련 공약이 많았다.

‘공약 수 비율’분석에서도 51-60세의 후보자들이 평균 5.8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41-5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5.44%,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평균 3.96%, 비교적 ‘공약 수’가 타 후보자들에 비해 많았던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은 평균 3.03%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나이별 문화·예술·체육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723) 문화·예술·체육관련 ‘단어 수 비율’에서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346)

<표 7-4-1-16> 나이별 문화·예술·체육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40세 이하	15	1.40	0.442	0.723	5.49	1.111	0.346
41 - 50세	61	1.43			5.76		
51 - 60세	74	1.84			5.16		
61세 이상	28	1.46			3.11		
계	178	1.60			5.07		

문화·예술·체육 관련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그룹은 평균 1.84개의 단어를 사용한 51-60세의 후보자들이다.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은 평균 1.46개, 41-5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1.43개,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이 평균 1.40개로 나타났다. ‘공약 수’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단어 수’ 분석에 있어서도 51세 이상의 후보자들이 문화·예술·체육과 관련한 단어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어 수 비율’ 분석 결과에 있어서는 ‘단어 수’ 분석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41-50세의 후보자들이 평균 5.76%로 가장 높았고,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평균 5.49%로 나타났다. 51-60세와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5.16%, 3.11%였다.

□ 나이별 여성분야 공약 분석

나이별 여성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388) 그러나 ‘공약 수 비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유의도 0.002)

<표 7-4-1-17> 나이별 여성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40세 이하	15	0.60	1.013	0.388	5.90	5.274	0.002
41 - 50세	61	0.51			3.99		
51 - 60세	74	0.30			1.46		
61세 이상	28	0.39			1.08		
계	178	0.41			2.64		

여성 관련 ‘공약 수’를 가장 많이 발표한 그룹은 평균 0.60개의 공약을 발표한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이었고, 41-5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0.51개의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61세 이상의 후보자들과 51-60세의 후보자들은 각각 0.39, 0.30개로 50세 이하의 후보자들 보다는 여성 관련 ‘공약 수’가 비교적 적었다.

‘공약 수 비율’에 있어서도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이 평균 5.9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41-5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3.99%였다. 51-60세와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1.46%, 1.08%로 역시 50세 이하의 후보자들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나이별 여성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743) 그러나 여성 관련 ‘단어 수 비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016)

<표 7-4-1-18> 나이별 여성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40세 이하	15	1.47	0.415	0.743	7.49	3.541	0.016
41 - 50세	61	1.07			4.30		
51 - 60세	74	1.03			2.61		
61세 이상	28	0.71			1.24		
계	178	1.03			3.39		

여성 관련 ‘단어 수’를 가장 많이 사용한 후보자 그룹은 평균 1.47개의 단어를 사용한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이다. 41-5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1.07개,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1.03개,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은 평균 0.71개의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분석 결과와 같이 대체로 나이가 적을수록 여성 관련 단어를 많이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단어 수 비율’ 분석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다.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이 평균 7.49%로 가장 높았고, 41-5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4.30%,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2.61%,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은 평균 1.24%의 비율을 보였다.

□ 나이별 관광분야 공약 분석

나이별 관광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68) ‘공약 수 비율’에서도 차이가 없다.(유의도 0.369)

<표 7-4-1-19> 나이별 관광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40세 이하	15	0.73	2.412	0.068	6.36	1.057	0.369
41 - 50세	61	0.46			3.96		
51 - 60세	74	0.57			3.99		
61세 이상	28	1.11			6.26		
계	178	0.63			4.54		

관광 관련 ‘공약 수’를 분석한 결과,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이 평균 1.11개로 가장 많은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이 40세 이하의 후보자들로 평균 0.73개의 공약을 발표했고, 51-60세와 41-50세의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0.57개, 0.46개이다.

‘공약 수 비율’ 분석에서는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이 평균 6.36%로 가장 높았다.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은 평균 6.26%,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3.99%, 41-5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3.96%로 나타났다.

나이별 관광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287) 그리고 ‘단어 수 비율’에서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608)

<표 7-4-1-20> 나이별 관광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40세 이하	15	2.00	1.268	0.287	7.29	0.612	0.608
41 - 50세	61	1.52			5.26		
51 - 60세	74	2.51			6.60		
61세 이상	28	2.54			7.33		
계	178	2.13			6.31		

관광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분석 결과도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분석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단어 수’에서는 ‘공약 수’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이 평균 2.54개로 가장 많은 ‘단어 수’를 사용했다.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2.51개,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평균 2.00개, 41-5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1.52개로 나타났다.

‘단어 수 비율’ 분석에서도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이 평균 7.33%로 가장 높았고,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평균 7.29%의 비율로 보였다. 51-60세와 41-50세의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6.60%, 5.26%로 나타났다.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이 대체로 타 후보자들에 비해 관광 관련 공약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나이별 교통분야 공약 분석

나이별 교통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654) 그리고 ‘공약 수 비율’에서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155)

<표 7-4-1-21> 나이별 교통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40세 이하	15	1.13	0.543	0.654	12.63	1.766	0.155
41 - 50세	61	1.64			14.76		
51 - 60세	74	1.46			12.17		
61세 이상	28	1.50			8.71		
계	178	1.50			12.55		

교통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공약을 발표한 그룹은 평균 1.64개의 공약을 발표한 41-50세의 후보자들이고,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은 평균 1.50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51-60세와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1.50개, 1.13개로 나타났다.

‘공약 수 비율’에서도 41-50세의 후보자들이 평균 14.76%로 가장 높았다.

‘공약 수’가 가장 적었던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평균 12.63%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12.17%,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은 평균 8.71%였다.

‘공약 수 비율’에 있어서는 50세 이하의 후보자들이 51세 이상의 후보자들보다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별 교통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752) 그러나 교통 관련 ‘단어 수 비율’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522)

<표 7-4-1-22> 나이별 교통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40세 이하	15	3.20	0.401	0.752	15.56	0.752	0.522
41 - 50세	61	3.34			15.18		
51 - 60세	74	3.92			13.13		
61세 이상	28	3.93			11.36		
계	178	3.67			13.76		

교통 관련 ‘단어 수’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단어를 사용한 후보자 그룹은 ‘공약수 비율’이 가장 적었던 61세 이상의 후보자들로 평균 3.93%였고,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3.92%였다. 41-50세와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3.34%, 3.20%였다. 50세 이하의 후보자들이 비교적 교통 관련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

‘단어 수 비율’ 분석 결과는 ‘단어 수’ 분석과는 반대의 결과를 나타냈다.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평균 15.56%, 41-5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15.18%를 나타냈다. 51-60세와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13.13%, 11.36%로 50세 이하의 후보자들 보다는 높은 ‘단어 수 비율’을 보였다.

□ 나이별 환경분야 공약 분석

나이별 환경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410) ‘공약 수 비율’에서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271)

<표 7-4-1-23> 나이별 환경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40세 이하	15	1.27	0.753	0.522	9.88	0.564	0.640
41 - 50세	61	1.07			7.90		
51 - 60세	74	1.24			9.49		
61세 이상	28	1.54			8.15		
계	178	1.23			8.77		

환경 관련 ‘공약 수’가 가장 많은 그룹은 평균 1.54개를 발표한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이다.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평균 1.27개,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1.24개, 41-5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1.07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는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이 평균 9.8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9.49%, 가장 많은 공약을 발표했던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은 평균 8.15%, 41-5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7.90%였다.

나이별 환경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446) ‘단어 수 비율’에서도 차이가 없다.(유의도 0.270)

<표 7-4-1-24> 나이별 환경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40세 이하	15	2.87	2.108	0.101	10.73	1.502	0.216
41 - 50세	61	2.18			8.38		
51 - 60세	74	3.51			11.96		
61세 이상	28	3.46			10.41		
계	178	2.99			10.39		

환경 관련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그룹은 평균 3.51개의 단어를 사용한 51-60세의 후보자들이다.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은 평균 3.46개,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평균 2.87개, 41-5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2.18개의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어 수 비율’에 있어서도 51-60세의 후보자들이 평균 11.96%로 가장 높았고, 40세이하의 후보자들은 평균 10.73%, 61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평균 10.41%, 41-5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8.38%의 비율을 보였다.

□ 나이별 정보화분야 공약 분석

나이별 정보화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561) ‘공약수 비율’에서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527)

<표 7-4-1-25> 나이별 정보화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40세 이하	15	0.00	0.687	0.561	0.00	0.745	0.527
41 - 50세	61	0.00			0.00		
51 - 60세	74	0.01			0.45		
61세 이상	28	0.00			0.00		
계	178	0.00			0.19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분석 결과를 보면 51-60세의 후보자들만이 평균 0.01개의 공약을 발표하고, 평균 0.45%의 비율을 나타냈을 뿐, 나머지 후보자들은 정보화 관련 공약을 발표하지 않아, 이 분석결과는 큰 의미가 없다.

나이별 정보화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965) 그리고 정보화 관련 ‘단어 수 비율’에서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782)

<표 7-4-1-26> 나이별 정보화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40세 이하	15	0.00	0.744	0.527	0.00	0.493	0.687
41 - 50세	61	0.00			0.20		
51 - 60세	74	0.15			0.78		
61세 이상	28	0.01			0.24		
계	178	0.01			0.43		

정보화 관련 ‘단어 수’를 사용한 그룹은 적게나마 공약을 제시했던 51-60세의 후보자들과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이 평균 0.01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각각 평균 0.15개, 0.01개이다.

‘단어 수 비율’에 있어서도 낮은 수치를 보인다. 51-60세의 후보자들이 평균 0.78%,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이 평균 0.24%, 41-50세의 후보자들이 평균 0.20%를 나타냈다. 나이가 많을수록 정보화와 관련한 문제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치가 너무 적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 나이별 감귤정책 경향성 분석

나이별로 감귤정책에 대한 이슈별 분석을 실시하여 후보자들이 감귤정책에 대한 경향성을 분석했다. 50점에 가까울수록 생산조정제와 같이 관주도의 통제위주의 정책을 지향하는 것이고, 점수가 10점대로 가까울수록 농민들의 자율에 맡기는 정책을 원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도 0.280)

<표 7-4-1-27> 나이별 감귤정책에 대한 분석 점수

항목	내용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통계량	유의도
감귤 정책에 대한 분석 점수	40세 이하	15	32.67	7.04	50.00	1.287	0.280
	41 - 50세	61	29.02	7.46	50.00		
	51 - 60세	74	30.68	6.32	50.00		
	61세 이상	28	29.64	8.81	50.00		
	계	178	30.11	7.23	50.00		

전체 평균 점수는 30.11점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한 쪽에 치우치는 경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0세 이하와 51-60세의 후보자들이 각각 평균 32.67점, 30.68점으로 비교적 농민의 자율보다는 관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1-50세와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29.02점, 29.64점으로 비교적 관의 역할보다는 농민의 자율에 맡기는 정책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나이별 환경·지역개발 정책 경향성 분석

나이별로 환경과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이슈별 분석을 실시하여 후보자들이 그에 대한 경향성을 분석했다. 50점에 가까울수록 개발위주의 정책을 펴자는 논리이고, 점수가 10점대로 갈수록 환경보존위주로 계획을 하자고 하는 경향성을 나타낸다. 분석 결과 그룹간에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도 0.001)

<표 7-4-1-28> 나이별 환경과 지역개발에 대한 분석 점수

항목	내용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통계량	유의도
환경과 지역 개발에 대한 분석 점수	40세 이하	15	23.89	5.41	30.00	2.922	0.035
	41 - 50세	61	28.88	8.39	50.00		
	51 - 60세	74	27.12	8.26	50.00		
	61세 이상	28	30.92	9.12	50.00		
	계	178	28.05	8.39	50.00		

61세 이상의 후보자들만이 평균 점수가 30.92점으로 비교적 개발위주의 정책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그룹들은 개발위주의 정책 보다는 환경보존 위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환경보존 위주의 정책을 지향하는 그룹은 평균 23.89점의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이다. 51-60세와 41-50세의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27.12점, 28.88점이다. 대체로 나이가 적을수록 개발위주 보다는 환경위주의 정책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나이별 교통정책 경향성 분석

나이별로 교통정책에 대한 이슈별 분석을 실시하여 후보자들이 교통정책과 철학에 경향성을 분석했다. 50점에 가까울수록 소통 보다는 안전위주, 공급위주의 정책 보다는 수요관리와 대중교통위주의 정책을 지향하는 것이고 10점에 가까울수록 공급위주이며 소통위주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룹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509)

<표 7-4-1-29> 나이별 교통정책에 대한 분석 점수

항목	내용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통계량	유의도
교통 정책에 대한 분석 점수	40세 이하	15	31.11	13.78	50.00	0.776	0.509
	41 - 50세	61	27.47	13.90	50.00		
	51 - 60세	74	26.64	11.52	50.00		
	61세 이상	28	25.19	11.51	50.00		
	계	178	27.07	12.55	50.00		

40세 이하의 후보자들만이 평균 31.11점으로 공급위주, 소통위주의 정책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후보자들은 평균 30점 이하로 공급위주, 소통위주의 정책 보다는 안전위주, 대중교통위주, 수요관리위주의 정책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1세 이상은 평균 25.19점,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26.64점, 41-5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27.47점이다. 나이가 많을수록 안전위주, 대중교통위주, 수요관리위주의 정책을 지향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나이별 공약이 구체성 분석

구체적이거나 예산이 수반될 수 있으며, 단기간에 가시화할 수 있는 공약의 경우는 50점을 그렇지 않고 선언적 의미로만 제시한 공약을 10점으로 하여 공약의 구체성에 대한 이슈별 분석을 실시했다. 그룹간에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도 0.000)

<표 7-4-1-30> 나이별 공약의 구체성에 대한 분석 점수

항목	내용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통계량	유의도
공약의 구체성 에 대한 분석 점수	40세 이하	15	32.43	6.76	50.00	0.417	0.741
	41 - 50세	61	32.97	7.72	50.00		
	51 - 60세	74	33.85	8.57	48.30		
	61세 이상	28	31.90	10.42	48.00		
	계	178	33.12	8.43	50.00		

모든 후보자들이 평균 30점 이상으로 공약이 비교적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한 그룹은 평균 33.85점인 51-60세의 후보자들이다. 다음이 41-50세의 후보자들로 평균 32.97점,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평균 32.43점,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이 평균 31.90점으로 나타났다.

□ 나이별 공약의 총계 분석

공약에 사용한 단어 수 총계를 가지고 나이별로 분석했다. 그룹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48) 그러나 ‘공약 수 총계’분석에서는 그룹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87)

<표 7-4-1-31> 나이별 단어 수와 공약 수 총계

내용	빈도	단어 수 총계			공약 수 총계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40세 이하	15	25.20	2.692	0.048	12.53	2.221	0.087
41 - 50세	61	22.64			11.31		
51 - 60세	74	32.23			12.92		
61세 이상	28	33.64			17.11		
계	178	28.57			12.99		

분석 결과 가장 많은 단어를 사용한 그룹은 평균 33.64개의 단어를 사용한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이고,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32.23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40세 이하와 41-50세의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25.20개, 22.64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대체로 51세 이상의 후보자들이 50세 이하의 후보자들 보다는 더 많은 단어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공약 수 총계’ 분석 결과에서도 ‘단어 수 총계’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이 평균 17.11%로 가장 높았고,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12.92%,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평균 12.53%, 41-5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11.31%를 나타냈다.

분석 결과, 나이가 많을수록 ‘단어 수 총계’나 ‘공약 수 총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2. 6.4선거 공약 분석

□ 나이별 4·3문제 공약 분석

나이별 4·3문제와 관련한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545) 그리고 ‘공약 수 비율’의 경우도 그룹간에 차이가 없다.(유의도 0.564)

<표 7-4-2-1> 나이별 4·3문제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40세 이하	12	0.25	0.716	0.545	3.62	0.683	0.564
41 - 50세	49	0.10			1.02		
51 - 60세	49	0.24			1.48		
61세 이상	18	0.01			1.85		
계	128	0.16			1.56		

4·3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공약 수’를 발표한 그룹은 평균 0.25개의 공약을 발표한 40세 이하 후보자들과고,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0.24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41-50세와 61세 이상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0.10개, 평균 0.01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6.27선거시 40세 이하의 후보자들도 ‘공약 수’가 가장 많았다.

‘공약 수 비율’ 분석결과에서는 40세의 후보자들이 평균 3.62%로 가장 높았고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은 평균 1.85%의 비율을 보였다.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1.48%였으며, 41-5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1.02%의 비율을 보였다.

나이별 4·3문제 공약의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702) ‘단어수 비율’도 마찬가지로 정당별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911)

<표 7-4-2-2> 나이별 4·3문제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40세 이하	12	0.83	1.566	0.201	4.94	3.016	0.033
41 - 50세	49	0.18			0.90		
51 - 60세	49	0.43			1.21		
61세 이상	18	0.01			0.29		
계	128	0.32			1.31		

4·3문제와 관련하여 평균으로 가장 많은 ‘단어 수’를 발표한 그룹은 0.83개의 단어를 사용한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이다.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0.43개, 41-5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0.18개,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은 평균 0.01개의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어 수 비율’에서도 ‘단어 수’ 분석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이 평균 4.94%로 가장 높았고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1.21%, 41-5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0.90%,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은 평균 0.29%를 나타냈다.

분석 결과를 봤을 때,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이 타 후보자들에 비해 4·3문제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나이별 정치·행정·재정분야 공약 분석

나이별 정치·행정·재정분야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881) 그리고 ‘공약수 비율’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553)

<표 7-4-2-3> 나이별 정치·행정·재정분야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40세 이하	12	1.67	0.222	0.881	15.87	0.701	0.553
41 - 50세	49	1.76			14.51		
51 - 60세	49	1.41			10.94		
61세 이상	18	1.61			16.04		
계	128	1.59			13.49		

정치·행정·재정문제와 관련하여 평균으로 가장 많은 ‘공약 수’를 발표한 그룹은 1.76개의 공약을 발표한 41-50세의 후보자들이다.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평균 1.67개,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은 평균 1.61개,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1.41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비교적 50세 이하의 후보자들이 51세 이상의 후보자들 보다 이 분야 공약을 많이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행정·재정관련 문제에 대한 ‘공약 수 비율’ 분석에서는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이 평균 16.04%로 가장 높았고,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평균 15.87%, 41-5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14.51%,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10.94%의 비율을 보였다.

나이별 정치·행정·재정문제와 관련하여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592) ‘단어수 비율’에서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633)

<표 7-4-2-4> 나이별 정치·행정·재정분야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40세 이하	12	3.42	0.637	0.592	16.36	0.575	0.633
41 - 50세	49	3.20			13.32		
51 - 60세	49	2.27			11.12		
61세 이상	18	2.61			10.04		
계	128	2.78			12.30		

정치·행정·재정문제와 관련한 ‘단어 수’가 가장 많은 그룹은 40세 이하의 후보들로 평균 3.42개의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41-5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3.20개,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은 평균 2.61개,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2.27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단어 수 비율’ 분석에서는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이 평균 16.36%로 가장 높았다. 41-50세의 후보자들이 평균 13.32%, 51-60세의 후보자들이 평균 11.12%,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이 평균 10.04%를 나타냈다.

대체로 50세 이하의 후보자들이 51세 이상의 후보자들 보다 정치·행정·재정 관련 문제에 좀 더 많이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나이별 1차산업 분야 공약 분석

나이별 1차산업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도 0.876) ‘공약 수 비율’에서도 차이가 없다.(유의도 0.889)

<표 7-4-2-5> 나이별 1차산업 분야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40세 이하	12	2.00	0.229	0.876	11.51	0.210	0.889
41 - 50세	49	1.43			11.34		
51 - 60세	49	1.88			13.18		
61세 이상	18	1.44			9.45		
계	128	1.66			11.80		

1차산업 관련 ‘공약 수’를 평균으로 가장 많이 제시한 그룹은 평균 2.00개를 발표한 40세 이하의 후보자들과, 그 다음이 평균 1.88개의 공약을 발표한 51-60세의 후보자들이다. 61세 이상과 41-50세의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1.44개, 1.43개로 나타났다.

‘공약 수 비율’ 분석에서는 51-60세의 후보자들이 평균 13.18%로 가장 높았고,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평균 11.51%로 나타났다. 41-5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11.34%,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은 평균 9.45%로 나타났다.

나이별 1차산업 공약과 관련하여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951) ‘단어 수 비율’에서도 차이가 없다.(유의도 0.694)

<표 7-4-2-6> 나이별 1차산업 분야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40세 이하	12	2.33	0.116	0.951	6.96	0.484	0.694
41 - 50세	49	3.37			12.16		
51 - 60세	49	3.18			13.49		
61세 이상	18	3.50			10.76		
계	128	3.22			11.99		

1차산업 관련 ‘단어 수’가 가장 많은 그룹은 61세 이상의 후보자들로 평균 3.50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41-50세, 51-60세의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3.37개, 3.18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공약 수’가 가장 많았던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평균 2.33개로 가장 적은 1차산업 관련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산업 관련 ‘단어 수 비율’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51-60세의 후보자들이 평균 13.49%로 가장 높았고 41-5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12.16%의 비율을 보였다.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은 평균 10.76%,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평균 6.96%의 비율을 보였다.

□ 나이별 감귤산업 공약 분석

나이별 감귤산업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614) 그리고 ‘공약 수 비율’에서도 차이가 없다.(유의도 0.786)

<표 7-4-2-7> 나이별 감귤산업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40세 이하	12	0.25	0.604	0.614	3.77	0.354	0.786
41 - 50세	49	0.67			5.41		
51 - 60세	49	0.65			5.34		
61세 이상	18	0.67			3.43		
계	128	0.63			4.95		

나이별로 감귤산업 관련 ‘공약 수’를 분석한 결과 61세와 41-50세의 후보자들이 평균 0.67개로 가장 많았다.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0.65개,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평균 0.25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6.27선거시의 감귤산업 관련 ‘공약 수’ 보다 평균 0.3개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 수 비율’ 분석에 있어서는 41-50세 이상의 후보자들이 평균 5.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5.34%,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평균 3.77%,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은 평균 3.43%의 비율을 보였다. 역시 6.27선거시 보다는 훨씬 증가된 ‘공약 수 비율’을 보였다.

나이별 감귤산업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299) ‘단어 수 비율’에서도 차이가 없다.(유의도 0.327)

<표 7-4-2-8> 나이별 감귤산업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40세 이하	12	0.42	1.237	0.299	1.95	1.163	0.327
41 - 50세	49	1.10			4.81		
51 - 60세	49	1.35			6.06		
61세 이상	18	1.61			4.12		
계	128	1.20			4.92		

나이별 감귤산업 관련 ‘단어 수’ 분석에 있어서는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이 평균 1.61개로 가장 많은 단어를 사용했다.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1.35개, 41-5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1.10개,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평균 0.42개이다. 나이가 많을수록 감귤산업 관련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

‘단어 수 비율’ 분석에서는 51-60세의 후보자들이 평균 6.06%로 가장 높았고, 41-50세, 60세 이상의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4.81%, 4.12%의 비율을 보였다.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평균 1.95%로 다른 계층 후보자들에 비해 상당히 적은 비율을 나타냈다.

□ 나이별 지역경제·개발 분야 공약 분석

나이별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549) ‘공약 수 비율’에서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671)

<표 7-4-2-9> 나이별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40세 이하	12	1.92	0.708	0.549	15.92	0.517	0.671
41 - 50세	49	2.06			18.19		
51 - 60세	49	2.18			21.12		
61세 이상	18	2.83			22.54		
계	128	2.20			19.71		

6.4선거시, 나이별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공약 수’를 분석한 결과, 6.27 선거시의 분석 결과와 비슷하다.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이 평균 2.83개로 가장 많은 공약을 발표했다.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2.18개, 41-5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2.06개,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평균 1.92개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을수록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공약 수’가 많았다.

‘공약 수 비율’에서도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이 평균 22.54%로 가장 높았고,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21.12%의 비율을 보였다. 41-50세,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18.19%, 15.92%였다. ‘공약 수’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은 후보자일수록 ‘공약 수 비율’이 높았다.

나이별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6) 그러나 ‘단어 수 비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422)

<표 7-4-2-10> 나이별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40세 이하	12	3.00	4.340	0.006	14.43	0.944	0.422
41 - 50세	49	2.39			10.93		
51 - 60세	49	2.86			14.01		
61세 이상	18	8.56			15.50		
계	128	3.49			13.08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단어 수’ 분석에 있어서 가장 많은 단어를 사용한 그룹은 ‘공약 수’가 가장 많았던 61세 이상의 후보자들로 평균 8.56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평균 3.00개,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2.86개, 41-5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2.39개의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어 수 비율’ 분석에 있어서도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이 평균 15.50%로 가장 높았고,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평균 14.43%,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14.01%, 41-5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10.93%의 비율을 보였다.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이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문제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6.27선거시에도 이러한 경향이였다.

□ 나이별 교육분야 공약 분석

나이별 교육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94) ‘공약 수 비율’에서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055)

<표 7-4-2-11> 나이별 교육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40세 이하	12	1.58	2.174	0.094	9.83	2.607	0.055
41 - 50세	49	0.63			3.83		
51 - 60세	49	0.59			4.31		
61세 이상	18	0.68			2.79		
계	128	0.71			4.43		

교육 관련 ‘공약 수’를 분석한 결과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이 평균 1.58개로 가장 많은 공약을 발표했다. 다음은 61세 이상의 후보자들로 평균 0.68개, 41-5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0.63개,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0.59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 수 비율’에 있어서는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이 평균 9.83%의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4.31%, 41-5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3.83%,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은 평균 2.79%의 비율을 보였다.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이 타 후보자들에 비해 교육 관련 공약에 상당히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나이별 교육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790) 교육관련 ‘단어 수 비율’에서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606)

<표 7-4-2-12> 나이별 교육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40세 이하	12	1.25	0.348	0.790	5.08	0.616	0.606
41 - 50세	49	1.35			2.76		
51 - 60세	49	0.90			2.85		
61세 이상	18	0.72			3.00		
계	128	1.08			3.05		

교육 관련 ‘단어 수’를 가장 많이 사용한 그룹은 41-50세의 후보자들로 평균 1.35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공약 수’가 가장 많았던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평균 1.25개,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0.90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은 평균 0.72개로 가장 적은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어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는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이 평균 5.08%로 가장 높았고, ‘단어 수’가 가장 적었던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은 평균 3.00%의 비율을 보였다.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2.85%를 나타냈고, ‘단어 수’가 가장 많았던 41-5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2.76%로 오히려 가장 적은 비율을 보였다.

□ 나이별 사회·복지분야 공약 분석

나이별 사회·복지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585) ‘공약 수 비율’에서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384)

<표 7-4-2-13> 나이별 사회·복지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40세 이하	12	1.75	0.649	0.585	11.12	1.024	0.384
41 - 50세	49	2.54			14.84		
51 - 60세	49	1.59			10.95		
61세 이상	18	2.00			11.83		
계	128	2.03			12.58		

나이별 사회·복지 관련 ‘공약 수’분석에서 가장 많은 공약을 제시한 그룹은 평균 2.54개의 공약을 발표한 41-50세의 후보자들이다.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은 평균 2.00개,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평균 1.75개,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1.50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사회·복지 관련 ‘공약 수 비율’ 분석 결과도 41-50세의 후보자들이 평균 14.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은 평균 11.83%,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평균 11.12%,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10.95%의 비율을 보였다.

나이별 사회·복지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660) 사회·복지 관련 ‘단어 수 비율’에서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570)

<표 7-4-2-14> 나이별 사회·복지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40세 이하	12	4.08	0.534	0.660	16.18	0.674	0.570
41 - 50세	49	3.88			16.23		
51 - 60세	49	3.16			12.61		
61세 이상	18	4.33			14.33		
계	128	3.69			14.58		

사회·복지 관련 공약에 사용된 ‘단어 수’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이 평균 4.33개로 가장 많았고,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평균 4.08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41-5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3.83개,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3.16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단어 수 비율’ 분석에서는 41-50세의 후보자들이 평균 16.23%로 가장 높았고,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평균 16.18%,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은 평균 14.33%,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12.61%의 비율을 보였다.

□ 나이별 문화·예술·체육분야 공약 분석

나이별 문화·예술·체육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171) ‘공약 수 비율’에서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629)

<표 7-4-2-15> 나이별 문화·예술·체육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40세 이하	12	0.25	1.700	0.171	2.25	0.580	0.629
41 - 50세	49	0.65			4.36		
51 - 60세	49	0.67			4.58		
61세 이상	18	1.24			5.85		
계	128	0.71			4.46		

문화·예술·체육 관련 ‘공약 수’를 분석한 결과,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이 평균 1.24개로 가장 많은 공약을 발표했다.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0.67개, 41-5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0.65개의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고,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평균 0.25개로 다른 계층 후보자들에 비해 상당히 적은 문화·예술·체육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 수 비율’분석에서도 ‘공약 수’ 분석 결과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이 평균 5.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4.58%, 41-5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4.36%를 나타냈다.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평균 2.25%로 가장 적은 비율을 보였다.

나이가 많을수록 문화·예술·체육 관련 공약에 비중을 많이 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별 문화·예술·체육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342) 문화·예술·체육 관련 ‘단어 수 비율’에서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492)

<표 7-4-2-16> 나이별 문화·예술·체육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40세 이하	12	0.50	1.125	0.342	2.20	0.808	0.492
41 - 50세	49	1.45			5.49		
51 - 60세	49	1.39			5.43		
61세 이상	18	2.00			5.23		
계	128	1.41			5.12		

문화·예술·체육 관련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그룹은 평균 2.00개의 단어를 사용한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이다. 41-5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1.45개,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1.39개,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평균 0.50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단어 수 비율’ 분석 결과에 있어서는 41-50세의 후보자들이 평균 5.49%로 가장 높았고,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5.43%,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은 평균 5.23%,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평균 2.20%의 비율을 나타냈다.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의 문화·예술·체육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다른 계층 후보자들에 비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나이별 여성분야 공약 분석

나이별 여성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98) 그러나 ‘공약 수 비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34)

<표 7-4-2-17> 나이별 여성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40세 이하	12	0.33	2.146	0.098	2.19	0.584	0.626
41 - 50세	49	0.45			3.15		
51 - 60세	49	0.33			1.92		
61세 이상	18	1.14			3.26		
계	128	0.49			2.60		

여성 관련 ‘공약 수’를 가장 많이 발표한 그룹은 평균 1.14개의 공약을 발표한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이다. 41-5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0.45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40세 이하와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0.33개의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 수 비율’에 있어서도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이 평균 3.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41-5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3.15%였다. 40세 이하와 51-60세의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2.19%, 1.92%의 비율을 보였다.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이 다른 계층 후보자들에 비해 여성 관련 공약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나이별 여성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59) 그러나 여성 관련 ‘단어 수 비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34)

<표 7-4-2-18> 나이별 여성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40세 이하	12	0.67	2.546	0.059	2.07	2.992	0.034
41 - 50세	49	0.98			3.88		
51 - 60세	49	0.49			1.45		
61세 이상	18	1.67			5.23		
계	128	0.86			2.97		

여성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에서도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분석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여성 관련 ‘단어 수’를 가장 많이 사용한 후보자 그룹은 평균 1.67개의 단어를 사용한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이다. 41-5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0.98개,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평균 0.67개,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0.49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단어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도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이 평균 5.23%로 가장 높았고, 41-5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3.88%,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평균 2.07%,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1.45%의 비율을 보였다.

역시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도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의 여성관련 비중이 가장 높았다.

□ 나이별 관광분야 공약 분석

나이별 관광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177) ‘공약 수 비율’에서도 차이가 없다.(유의도 0.314)

<표 7-4-2-19> 나이별 관광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40세 이하	12	0.50	1.672	0.177	3.52	1.196	0.314
41 - 50세	49	0.71			5.53		
51 - 60세	49	1.18			7.94		
61세 이상	18	1.29			6.12		
계	128	0.96			6.35		

관광 관련 ‘공약 수’를 분석한 결과,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이 평균 1.29개로 가장 많은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이 51-60세의 후보자들로 평균 1.18개의 공약을 발표했고, 41-50세와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0.71개, 0.50개이다.

‘공약 수 비율’ 분석에서는 51-60세의 후보자들이 평균 7.94%로 가장 높았다.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은 평균 6.12%, 41-5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5.53%,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평균 3.52%로 나타났다.

대체로 나이가 많을수록 관광 관련 공약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1세 이상의 후보자들이 50세 이하의 후보자들 보다 비교적 많은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별 관광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737) 그리고 ‘단어 수 비율’에서도 차이가 없다.(유의도 0.737)

<표 7-4-2-20> 나이별 관광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40세 이하	12	1.83	0.423	0.737	6.41	0.422	0.737
41 - 50세	49	2.27			9.55		
51 - 60세	49	2.45			9.83		
61세 이상	18	3.11			8.01		
계	128	2.41			9.15		

관광 관련 ‘단어 수’에서도 ‘공약 수’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이 평균 3.11개로 가장 많은 ‘단어 수’를 사용했다.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2.45개, 41-5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2.27개,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평균 1.83개를 사용했다.

‘단어 수 비율’ 분석에서는 51-60세의 후보자들이 평균 9.83%로 가장 높았고, 41-5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9.55%,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은 평균 8.01%를 나타냈다.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평균 6.41%로 가장 낮은 ‘단어 수 비율’을 보였다.

대체로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을수록 관광 관련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 특히,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타 후보자들에 비해 현저히 적은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나이별 교통분야 공약 분석

나이별 교통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368) ‘공약 수 비율’에서도 차이가 없다.(유의도 0.883)

<표 7-4-2-21> 나이별 교통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40세 이하	12	1.08	1.061	0.368	8.02	0.219	0.883
41 - 50세	49	1.00			6.76		
51 - 60세	49	1.22			8.43		
61세 이상	18	2.50			7.51		
계	128	1.30			7.62		

교통분야에서 가장 많은 공약을 발표한 그룹은 평균 2.50개의 공약을 발표한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이다.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1.22개,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평균 1.08개, 41-5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1.00개의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을수록 교통 관련 ‘공약 수’가 많게 나타났는데, 특히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은 다른 계층 후보자들에 비해 평균 1개 이상 많은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 수 비율’에서는 51-60세의 후보자들이 평균 8.43%로 가장 높았다.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평균 8.02%,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은 평균 7.51%, 41-5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6.76%의 비율을 보였다.

나이별 교통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491) 그러나 교통관련 ‘단어 수 비율’에서는 차이가 있다.(유의도 0.966)

<표 7-4-2-22> 나이별 교통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40세 이하	12	2.33	0.810	0.491	10.44	0.888	0.966
41 - 50세	49	2.31			10.40		
51 - 60세	49	2.59			11.44		
61세 이상	18	4.00			11.53		
계	128	2.66			10.96		

교통 관련 ‘단어 수’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단어를 사용한 후보자 그룹은 ‘공약수’가 가장 많았던 61세 이상의 후보자들로 평균 4.00%였다.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2.59%이고,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평균 2.33%, 41-5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2.31%이다.

‘단어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도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이 평균 11.5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11.44%이다.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평균 10.44%, 41-5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10.40%를 나타냈다.

대체로 나이가 많을수록 교통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특히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은 타 후보자들에 비해 평균 1.5개 이상 더 많은 교통 관련 단어를 사용했다.

□ 나이별 환경분야 공약 분석

나이별 환경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484) ‘공약 수 비율’에서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064)

<표 7-4-2-23> 나이별 환경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40세 이하	12	1.25	0.822	0.484	12.18	2.477	0.064
41 - 50세	49	1.04			6.15		
51 - 60세	49	0.86			5.46		
61세 이상	18	1.61			7.14		
계	128	1.07			6.59		

환경 관련 ‘공약 수’가 가장 많은 그룹은 평균 1.61개를 발표한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이다.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평균 1.25개, 41-5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1.04개,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0.86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는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이 평균 12.1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는 바, 특히 타 후보자들에 비해서는 평균 4~5%이상 차이가 났다.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은 평균 7.14%, 가장 많은 공약을 발표한 41-5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6.15%,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5.46%이다.

나이별 환경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406) ‘단어 수 비율’에서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223)

<표 7-4-2-24> 나이별 환경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40세 이하	12	2.83	0.977	0.406	12.80	1.479	0.223
41 - 50세	49	2.12			8.78		
51 - 60세	49	1.86			6.97		
61세 이상	18	3.00			10.99		
계	128	2.21			8.77		

환경 관련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그룹은 평균 3.00개의 단어를 사용한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이다.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평균 2.83개, 41-5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2.12개,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1.86개의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어 수 비율’에서도 51-60세의 후보자들이 평균 12.80%로 가장 높았고,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은 평균 10.99%, 41-5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8.78%,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6.97%의 비율을 보였다.

□ 나이별 정보화분야 공약 분석

나이별 정보화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664) ‘공약수 비율’에서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849)

<표 7-4-2-25> 나이별 정보화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40세 이하	12	0.01	0.528	0.664	0.26	0.268	0.849
41 - 50세	49	0.00			0.27		
51 - 60세	49	0.01			0.29		
61세 이상	18	0.00			0.00		
계	128	0.01			0.24		

‘공약 수’ 분석 결과를 보면 40세 이하와 51-60세의 후보자들만이 평균 0.01개의 공약을 발표하고, 나머지 후보자들은 정보화 관련 공약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 수 비율’ 분석에 있어서도 51-60세의 후보자들이 평균 0.29%, 41-50세의 후보자들이 평균 0.27%,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이 평균 0.26%에 불과했다.

나이별 정보화 관련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505) 정보화 관련 ‘단어 수 비율’에서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655)

<표 7-4-2-26> 나이별 정보화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40세 이하	12	0.01	0.784	0.505	0.19	0.541	0.655
41세 - 50세	49	0.20			0.54		
51세 - 60세	49	0.47			0.60		
61세 이상	18	0.00			0.00		
계	128	0.27			0.45		

정보화 관련 ‘단어 수’를 사용한 그룹은 ‘공약 수 비율’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51-60세의 후보자들이 평균 0.47개, 41-50세의 후보자들이 평균 0.20개,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이 평균 0.01개로 아주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은 정보화 관련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어 수 비율’에 있어서도 51-60세의 후보자들이 0.60%, 41-50세의 후보자들이 평균 0.54%,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이 평균 0.19%에 불과하였다.

□ 나이별 감귤정책의 경향성 분석

나이별로 감귤정책에 대한 이슈별분석을 실시하여 후보자들이 감귤정책에 대한 경향성을 파악했다. 50점에 가까울수록 생산조정제와 같이 관주도의 통제위주 정책을 지향하는 것이고, 점수가 10점대로 가까울수록 농민들의 자율에 맡기는 정책을 원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803)

<표 7-4-2-27> 나이별 감귤정책에 대한 분석 점수

항목	내용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통계량	유의도
감귤 정책에 대한 분석 점수	40세 이하	12	29.17	6.69	40.00	0.330	0.803
	41 - 50세	49	28.71	8.33	40.00		
	51 - 60세	49	27.38	10.33	45.00		
	61세 이상	18	29.44	8.73	50.00		
	계	128	28.35	9.01	50.00		

모든 후보자들이 평균 30점 이하로 관의 역할 보다는 농민의 자율에 맡기는 정책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어 수 총계’나 ‘공약 수 총계’, ‘단어분야 수’나 ‘공약분야 수’가 적은 그룹들이 대체로 농민의 자율에 맡기는 정책을 더욱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1-60세의 후보자들이 평균 27.38점으로 그러한 경향이 가장 높았고, 41-5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28.71점,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은 평균 29.17점,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은 평균 29.44점으로 나타났다.

□ 나이별 환경·지역개발의 경향성 분석

나이별로 환경과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이슈별 분석을 실시하여 후보자들이 환경과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경향성을 파악했다. 50점에 가까울수록 개발위주의 정책을 펴자는 논리이고, 점수가 10점대로 갈수록 환경보존위주의 계획을 하자는 경향성을 나타낸다. 분석 결과 그룹간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도 0.196)

<표 7-4-2-28> 나이별 환경과 지역개발에 대한 분석 점수

항목	내용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통계량	유의도
환경과 지역 개발에 대한 분석	40세 이하	12	21.67	10.30	30.00	1.587	0.196
	41 - 50세	49	27.11	9.64	50.00		
	51 - 60세	49	27.45	9.69	50.00		
	61세 이상	18	29.10	8.02	50.00		
	계	128	27.01	9.58	50.00		

모든 후보자들이 평균 30점 이하로 개발위주의 정책 보다는 환경보존위주의 정책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환경보존위주의 정책을 지향하는 그

률은 평균 21.67점의 40세 이하의 후보자들이다. 41-50세와 51-60세의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27.11점, 27.45점이다.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은 평균 29.10점으로 다른 계층 후보자들에 비해 환경보존위주의 정책 지향 정도가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나이가 적을수록 환경보존위주의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나이별 교통정책의 경향성 분석

나이별로 교통정책에 대한 이슈별 분석을 실시하여 후보자들이 교통정책과 철학의 경향성을 파악했다. 50점에 가까울수록 소통 보다는 안전위주, 공급위주의 정책 보다는 수요관리와 대중교통위주의 정책을 지향하는 것이고 10점에 가까울수록 공급위주이며 소통위주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룹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580)

<표 7-4-2-29> 나이별 교통정책에 대한 분석 점수

항목	내용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통계량	유의도
교통 정책에 대한 분석 점수	40세 이하	12	30.42	12.15	50.00	0.657	0.580
	41 - 50세	49	28.69	12.62	50.00		
	51 - 60세	49	25.85	12.50	50.00		
	61세 이상	18	26.89	12.92	50.00		
	계	128	27.51	12.52	50.00		

40세 이하의 후보자들만이 평균 30.42점으로 공급위주, 소통위주의 정책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후보자들은 평균 30점 이하로 공급위주, 소통위주의 정책 보다는 안전위주, 대중교통위주, 수요관리위주의 정책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1-5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28.69점,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은 평균 26.89점, 51-60세의 후보자들은 평균 25.85점이다.

□ 나이별 공약의 구체성 분석

구체적이거나 예산이 수반될 수 있으며, 단기간에 가시화할 수 있는 공약의 경우는 50점을 그렇지 않고 선언적 의미로만 제시한 공약을 10점으로 하여 공약의 구체성에 대한 이슈별 분석을 실시했다. 그룹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도 0.899)

<표 7-4-2-30> 나이별 공약의 구체성에 대한 분석 점수

항목	내용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통계량	유의도
공약의 구체성에 대한 분석 점수	40세 이하	12	32.69	8.33	47.50	0.196	0.899
	41 - 50세	49	33.78	10.29	50.00		
	51 - 60세	49	34.78	10.07	50.00		
	61세 이상	18	34.76	9.46	50.00		
	계	128	34.20	9.84	50.00		

모든 후보자들이 평균 30점 이상으로 공약이 비교적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51-60세의 후보자들이 평균 34.78점,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이 평균 34.76점으로 평균 33.78점, 32.69점을 기록한 41-50세와 40세 이하의 후보자들 보다는 공약이 좀 더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51세 이상의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이 50세 이하의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 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었다.

□ 나이별 공약의 총계 분석

공약에 사용한 단어 수 총계를 가지고 나이별로 분석했다. 그룹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498) ‘공약 수 총계’분석에서도 그룹간에 차이가 없다.(유의도 0.651)

<표 7-4-2-31> 나이별 단어 수와 공약 수 총계

내용	빈도	단어 수 총계			공약 수 총계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40세 이하	12	23.92	0.796	0.498	12.58	0.5477	0.651
41 - 50세	49	23.69			12.47		
51 - 60세	49	23.20			12.90		
61세 이상	18	31.89			16.22		
계	128	24.68			13.17		

분석 결과 가장 많은 단어를 사용한 그룹은 평균 31.89개의 단어를 사용한 61세 이상의 후보자들로 타 후보자들에 비해 평균 8개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0세 이하, 41-50세, 51-60세의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23.92개, 23.69개, 23.20개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공약 수 총계’ 분석 결과에서도 61세 이상의 후보자들이 평균 16.22개로 가장 높았고, 타 후보자들, 즉 51-60세, 40세 이하, 41-50세의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12.90개, 12.58개, 12.47개로 비슷했다.

5. 정치·행정경력별 공약의 차이분석

5-1. 6.27선거 공약 분석

□ 경력별 4·3문제 공약 분석

정치·행정경력별 4·3문제와 관련하여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28) 그러나 ‘공약 수 비율’의 경우는 그룹간에 차이가 없다.(유의도 0.906)

<표 7-5-1-1> 정치·행정경력별 4·3문제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시·군의원	29	0.14	2.432	0.028	0.69	0.356	0.906
도의원	11	0.01			0.83		
시장·군수	4	0.00			0.00		
도지사	1	1.00			2.00		
국회의원	1	1.00			2.00		
기타 공무원	20	0.01			0.34		
정치행정경력없음	112	0.01			0.38		
계	178	0.01			0.46		

4·3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공약 수’를 발표한 그룹은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와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로 평균 1.00개의 공약을 발표했고,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14개의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4.3문제와 관련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들은 평균 0.01개의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는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와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가 각각 평균 2.00%의 비율을 보였고,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83%,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69%,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0.38%,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34%의 비율을 나타냈다.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은 0.00%였다.

정치·행정경력별 4.3문제공약의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유의도 0.718) ‘단어수 비율’도 마찬가지로 정당별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934)

<표 7-5-1-2> 정치·행정경력별 4·3문제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시·군의원	29	0.28	0.616	0.718	0.90	0.292	0.934
도의원	11	0.55			0.65		
시장·군수	4	0.00			0.00		
도지사	1	1.00			1.20		
국회의원	1	1.00			1.20		
기타 공무원	20	0.15			0.60		
정치행정경력없음	112	0.15			0.36		
계	178	0.20			0.49		

4·3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단어 수’를 발표한 그룹은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와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로 각각 평균 1.00개의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55개의 단어를 사용했으며,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28개,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과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이 각각 평균 0.15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은 4.3문제 관련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어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는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와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가 각각 평균 1.20%의 비율을 보였고,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90%,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65%,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60%,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0.38%의 비율을 나타냈다.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은 0.00%이다.

□ 경력별 정치·행정·재정분야 공약 분석

정치·행정경력별 정치·행정·재정분야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18) 그러나 ‘공약 수 비율’의 경우는 그룹간에 차이가 없다.(유의도 0.217)

<표 7-5-1-3> 정치·행정경력별 정치·행정·재정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시·군의원	29	0.97	2.630	0.018	6.46	1.402	0.217
도의원	11	1.82			7.83		
시장·군수	4	2.00			5.05		
도지사	1	5.00			10.20		
국회의원	1	2.00			4.10		
기타 공무원	20	2.55			16.45		
정치행정경력없음	112	1.13			11.63		
계	178	1.35			10.90		

정치·행정·재정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공약 수’를 발표한 그룹은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로 평균 5.00개의 공약을 발표했고,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55개의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과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는 각각 평균 2.00개,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82개,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이 평균 1.13개,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0.97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정치·행정·재정관련 문제에 대한 공약을 타 후보자들에 비해 많이 제시한 것을 알 수 있다.

‘공약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는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6.45%로 가장 높았고,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이 평균 11.63%,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가 평균 10.20%로 나타났다.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는 평균 7.83%,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가 평균 4.10%의 비율을 보였다.

정치·행정경력별 정치·행정·재정문제와 관련하여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10) 그러나 ‘단어수 비율’의 경우는 그룹간에 차이가 없다.(유의도 0.303)

<표 7-5-1-4> 정치·행정경력별 정치·행정·재정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시·군의원	29	1.83	2.932	0.010	6.69	1.211	0.303
도의원	11	4.00			5.76		
시장·군수	4	4.75			6.98		
도지사	1	7.00			8.30		
국회의원	1	5.00			5.90		
기타 공무원	20	5.80			14.98		
정치행정경력없음	112	2.51			11.35		
계	178	2.95			10.51		

정치·행정·재정문제와 관련한 ‘단어 수’ 분석 결과는 ‘공약 수’ 분석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가장 많은 ‘단어 수’를 발표한 그룹은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로 평균 7.00개의 단어를 사용했고,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5.80개,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가 평균 5.00개,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4.75개,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4.00개,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이 평균 2.51개,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83개로 나타났다. ‘공약 수’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치·행정·재정문제와 관련한 ‘단어 수’ 분석 결과에서도 대체로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정치·행정·재정 관련 단어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어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는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4.9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11.35%,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는 평균 8.30%,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6.98%,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6.69% 비율을 나타냈다.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는 평균 5.90%,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5.76%의 비율을 보였다. 여기서도 대체로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 경력별 1차산업 공약 분석

정치·행정경력별 1차산업 문제와 관련하여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그러나 ‘공약수 비율’의 경우는 그룹간에 차이가 없다.(유의도 0.126)

<표 7-5-1-5> 정치·행정경력별 1차산업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시·군의원	29	1.45	5.134	0.000	10.91	1.689	0.126
도의원	11	4.73			20.37		
시장·군수	4	4.00			16.80		
도지사	1	1.00			2.00		
국회의원	1	5.00			10.20		
기타 공무원	20	1.55			10.33		
정치행정경력없음	112	1.16			8.95		
계	178	1.56			10.27		

1차산업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공약 수’를 발표한 그룹은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로 평균 5.00개의 공약을 발표했고, 다음으로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4.73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그리고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4.00개,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55개,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45개,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1.16개, 도지사 후보자는 평균 1.00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는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20.37%로 가장 높게 나왔다.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6.80%의 비율을 보였고,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0.91%,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0.33%, ‘공약 수’가 가장 많았던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는 평균 10.20%,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8.95%,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는 평균 2.00%의 비율을 보였다.

정치·행정경력별 1차산업 문제와 관련하여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95) ‘단어 수 비율’의 경우도 그룹간에 차이가 없다.(유의도 0.851)

<표 7-5-1-6> 정치·행정경력별 1차산업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시·군의원	29	3.41	1.835	0.095	12.16	0.440	0.851
도의원	11	8.09			17.13		
시장·군수	4	7.25			13.63		
도지사	1	2.00			2.40		
국회의원	1	10.00			11.80		
기타 공무원	20	2.95			11.15		
정치행정경력없음	112	3.38			11.10		
계	178	3.74			11.66		

1차산업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단어 수’를 발표한 그룹은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로 평균 10.00개의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원 후보자들이 평균 8.09개,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7.25개,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3.41개,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이 평균 3.38개,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2.95개,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가 평균 2.00개의 1차산업 관련 단어를 사용했다.

‘단어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는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7.1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3.63%,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2.16%,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가 평균 11.80%,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1.15%,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이 평균 11.10%의 비율을 나타냈다.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는 평균 2.40%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 경력별 감귤산업 공약 분석

정치·행정경력별 감귤산업 문제와 관련하여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7) 그러나 ‘공약수 비율’의 경우는 그룹 간에 차이가 없다.(유의도 0.238)

<표 7-5-1-7> 정치·행정경력별 감귤산업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시·군의원	29	0.01	3.100	0.007	0.41	1.348	0.238
도의원	11	0.55			4.67		
시장·군수	4	0.50			2.15		
도지사	1	1.00			2.00		
국회의원	1	2.00			4.10		
기타 공무원	20	0.95			2.50		
정치행정경력없음	112	0.22			1.89		
계	178	0.32			1.91		

감귤산업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공약 수’를 발표한 그룹은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로 평균 2.00개의 공약을 발표했고,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는 평균 1.00개의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95개,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55개,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50개,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0.22개,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는 평균 0.01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는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가 평균 4.10%의 비율을 보였고,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4.67%,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50%,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15%,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는 평균 2.00%,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1.89%,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41%의 비율을 보였다.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이나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감귤산업과 관련한 공약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은 0.00%였다.

정치·행정경력별 감귤산업 문제와 관련하여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11) 그러나 ‘단어 수 비율’의 경우는 차이가 없다.(유의도 0.345)

<표 7-5-1-8> 정치·행정경력별 감귤산업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시·군의원	29	0.31	2.877	0.011	1.18	1.134	0.345
도의원	11	1.09			4.22		
시장·군수	4	2.25			4.80		
도지사	1	1.00			1.20		
국회의원	1	3.00			3.50		
기타 공무원	20	1.40			2.50		
정치행정경력없음	112	0.57			2.03		
계	178	0.71			2.14		

감귤산업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단어 수’를 발표한 그룹은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로 평균 3.00개의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25개의 단어를 사용했으며,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40개,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09개,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는 평균 1.00개,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0.57개,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31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단어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는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4.8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다음이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로 평균 4.22%,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는 평균 3.50%,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는 평균 2.50%,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는 평균 2.03%,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는 평균 1.20%,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는 평균 1.18%의 비율을 보였다.

‘공약 수’와 ‘공약수 비율’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과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감귤산업 문제와 관련한 단어 비중이 적게 나타났고,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과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대체로 감귤산업 관련 단어에 비중을 많이 둔 것으로 나타났다.

□ 경력별 지역경제·개발 분야 공약 분석

정치·행정경력별 지역(도시)경제·개발분야의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그러나 ‘공약 수 비율’의 경우는 그룹간에 차이가 없다.(유의도 0.597)

<표 7-5-1-9 > 정치·행정경력별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시·군의원	29	2.41	11.743	0.000	24.24	0.767	0.597
도의원	11	2.73			18.59		
시장·군수	4	7.50			32.58		
도지사	1	11.00			22.40		
국회의원	1	13.00			26.50		
기타 공무원	20	4.00			26.68		
정치행정경력없음	112	2.14			20.96		
계	178	2.66			22.29		

지역(도시)경제·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공약 수’를 발표한 그룹은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로 평균 13.00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도 평균 11.00개로 지역(도시)경제·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상당히 많은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7.50개,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4.00개,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73개,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41개,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2.14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와 지방자치단체장 경력의 후보자들이 지역(도시)경제·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는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32.5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26.68%,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가 평균 26.50%,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24.24%,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가 평균 22.40%,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이 평균 20.96%,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8.59%의 비율을 보였다.

정치·행정경력별 지역(도시)경제·개발분야 공약의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그러나 ‘단어 수 비율’의 경우에는 차이가 없다.(유의도 0.226)

<표 7-5-1-10> 정치·행정경력별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시·군의원	29	3.52	9.098	0.000	18.73	1.378	0.226
도의원	11	4.82			13.25		
시장·군수	4	13.00			20.40		
도지사	1	15.00			17.90		
국회의원	1	16.00			18.80		
기타 공무원	20	7.00			20.85		
정치행정경력없음	112	3.29			13.78		
계	178	4.20			15.55		

지역(도시)경제·개발 문제와 관련한 ‘단어 수’ 분석 결과는 ‘공약 수’ 분석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역시 가장 많은 ‘단어 수’를 발표한 그룹은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로 평균 16.00개의 단어를 사용했고,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와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도 각각 평균 16.00개와 15.00개로 상당히 많은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단어를 사용했다.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7.00개,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4.82개,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3.52개,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이 평균 3.29개의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와 지방자치단체장 경력의 후보자들이 타 후보자들에 비해 지역(도시)경제·개발문제와 관련한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

‘단어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는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20.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0.40%,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는 평균 18.80%,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8.73%,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는 평균 17.90%,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13.78%,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와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들은 평균 13.25%의 비율을 나타냈다.

□ 경력별 교육분야 공약 분석

정치·행정경력별 교육분야의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그러나 ‘공약 수 비율’의 경우는 그룹간에 차이가 있다.(유의도 0.614)

<표 7-5-1-11> 정치·행정경력별 교육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시·군의원	29	0.45	11.985	0.000	4.56	0.745	0.614
도의원	11	0.55			5.69		
시장·군수	4	0.50			2.08		
도지사	1	6.00			12.20		
국회의원	1	7.00			14.30		
기타 공무원	20	0.80			3.69		
정치행정경력없음	112	0.64			4.75		
계	178	0.69			4.69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공약 수’를 발표한 그룹은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로 평균 7.00개의 공약을 발표했고,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는 평균 6.00개의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의 다른 후보자들은 교육관련 ‘공약 수’가 1개에 못미친다.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0.80개,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이 평균 0.64개,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0.56개,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0.50개,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0.45개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와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가 타 후보자들에 비해 교육분야 공약을 많이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도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가 평균 14.30%,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는 평균 12.20%로 타 후보자들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다.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5.69%,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이 평균 4.75%,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4.56%,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3.69%,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2.08%의 비율을 나타냈다.

정치·행정경력별 교육분야 공약의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5) 그러나 ‘단어수 비율’에서는 차이가 없다.(유의도 0.928)

<표 7-5-1-12> 정치·행정경력별 교육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시·군의원	29	0.83	3.271	0.005	3.00	0.316	0.928
도의원	11	0.82			2.03		
시장·군수	4	1.25			1.85		
도지사	1	6.00			7.10		
국회의원	1	6.00			7.10		
기타 공무원	20	1.25			3.00		
정치행정경력없음	112	0.88			2.89		
계	178	0.98			2.89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단어 수’를 발표한 그룹은 ‘공약 수’가 가장 많고 ‘공약 수 비율’이 가장 높았던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와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로 각각 평균 6.00개의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과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25개,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0.88개,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83개,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82개의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어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도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와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가 각각 평균 7.10%의 비율을 보였고,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과,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3.00%,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2.89%,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03%,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85%의 비율을 나타냈다.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와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가 교육문제와 관련한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에서 뿐만 아니라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에서도 타 후보자들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 경력별 사회·복지분야 공약 분석

정치·행정경력별 사회·복지문제와 관련하여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142) ‘공약 수 비율’의 경우도 그룹간에 차이가 없다.(유의도 0.755)

<표 7-5-1-13> 정치·행정경력별 사회·복지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시·군의원	29	1.52	1.627	0.142	14.13	0.569	0.755
도의원	11	2.18			12.65		
시장·군수	4	2.75			12.13		
도지사	1	6.00			12.20		
국회의원	1	5.00			10.20		
기타 공무원	20	1.70			9.93		
정치행정경력없음	112	1.87			15.29		
계	178	1.87			14.22		

사회·복지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공약 수’를 발표한 그룹은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로 평균 6.00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도 평균 5.00개의 공약으로 비교적 많은 공약을 발표했다.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75개,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18개,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1.87개,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70개,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52개를 나타냈다.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와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가 타 후보자들에 비해 현저히 많은 사회·복지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는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이 평균 15.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4.13%,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2.65%,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는 평균 12.20%,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2.13%,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는 평균 10.20%,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는 평균 9.9%의 비율을 나타냈다.

정치·행정경력별 사회·복지문제와 관련하여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20) 그러나 ‘단어 수 비율’의 경우는 차이가 없다.(유의도 0.845)

<표 7-5-1-14> 정치·행정경력별 사회·복지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시·군의원	29	3.62	2.581	0.020	15.67	0.449	0.845
도의원	11	7.27			15.36		
시장·군수	4	5.50			10.78		
도지사	1	14.00			16.70		
국회의원	1	14.00			16.50		
기타 공무원	20	4.85			13.55		
정치행정경력없음	112	4.42			17.81		
계	178	4.65			16.66		

사회·복지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단어 수’를 발표한 그룹은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와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로 각각 평균 14.00개의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7.27개의 단어를 사용했으며,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5.50개,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4.86개,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4.42개,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3.62개로 나타났다.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와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가 타 후보자들에 비해 사회·복지문제와 관련한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

‘단어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는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이 평균 17.8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단어 수’가 가장 많았던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와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는 각각 평균 16.70%, 16.50%를 나타냈다.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5.67%,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5.36%,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3.55%,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0.78%의 비율을 나타냈다.

‘공약 수’나 ‘단어 수’ 분석 결과에서는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와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가 상당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공약 수 비율’이나 ‘단어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는 정치·행정 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이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 경력별 문화·예술·체육분야 공약 분석

정치·행정경력별 문화·예술·체육문제와 관련하여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그러나 ‘단어 수 비율’의 경우는 그룹간에 차이가 없다.(유의도 0.883)

<표 7-5-1-15> 정치·행정경력별 문화·예술·체육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시·군의원	29	0.55	4.532	0.000	6.07	0.393	0.883
도의원	11	0.64			4.56		
시장·군수	4	1.00			4.23		
도지사	1	4.00			8.20		
국회의원	1	2.00			4.10		
기타 공무원	20	1.65			6.91		
정치행정경력없음	112	0.54			4.57		
계	178	0.71			5.09		

문화·예술·체육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공약 수’를 발표한 그룹은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로 평균 4.00개의 공약을 발표했고,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는 평균 2.00개,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65개,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00개로 나타났다.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과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 그리고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0.64개, 0.55개, 0.54개의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는 ‘공약 수’가 가장 많았던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가 평균 8.2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6.91%,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6.07%,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4.57%,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4.56%,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4.23%로 나타났고, ‘공약 수’가 평균 2.00개로 비교적 많았던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는 평균 4.10%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정치·행정경력별 문화·예술·체육문제와 관련하여 ‘단어 수’를 비교한 결

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3) 그러나 ‘단어수 비율’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977)

<표 7-5-1-16> 정치·행정경력별 문화·예술·체육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시·군의원	29	1.34	3.490	0.003	5.55	0.196	0.977
도의원	11	2.18			4.55		
시장·군수	4	2.00			4.28		
도지사	1	9.00			10.70		
국회의원	1	4.00			4.70		
기타 공무원	20	2.75			5.50		
정치행정경력없음	112	1.30			4.90		
계	178	1.60			5.07		

문화·예술·체육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단어 수’를 발표한 그룹은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로 평균 9.00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는 평균 4.00개,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75개,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18개,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00개,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34개,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1.30개의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어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도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가 평균 10.70%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냈다.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5.55%,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5.50%,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4.90%,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는 평균 4.70%,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4.55%,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4.28%의 비율을 나타냈다.

□ 경력별 여성분야 공약 분석

정치·행정경력별 여성문제와 관련하여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그러나 ‘공약 수 비율’의 경우는 그룹간에 차이가 없다.(유의도 0.526)

<표 7-5-1-17> 정치·행정경력별 여성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수			공약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시·군의원	29	0.28	9.796	0.000	1.59	0.859	0.526
도의원	11	0.18			1.22		
시장·군수	4	0.25			0.58		
도지사	1	5.00			10.20		
국회의원	1	3.00			6.10		
기타 공무원	20	0.70			3.12		
정치행정경력없음	112	0.36			2.94		
계	178	0.41			2.64		

여성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공약 수’를 발표한 그룹은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로 평균 5.00개의 공약을 발표했고,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도 평균 3.00개로 비교적 많은 여성 관련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55개,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00개,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0.97개,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55개,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50개의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도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가 평균 10.7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는 평균 5.90%로 나타났다.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3.89%,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3.41%,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00%,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93%,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75%로 나타났다.

정치·행정경력별 여성문제와 관련하여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2) 그러나 ‘단어수 비율’의 경우는 차이가 없다.(유의도 0.658)

<표 7-5-1-18> 정치·행정경력별 여성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시·군의원	29	0.55	3.705	0.002	2.00	0.690	0.658
도의원	11	1.00			1.93		
시장·군수	4	0.50			0.75		
도지사	1	9.00			10.70		
국회의원	1	5.00			5.90		
기타 공무원	20	1.55			3.41		
정치행정경력없음	112	0.97			3.89		
계	178	1.03			3.39		

여성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단어 수’를 발표한 그룹은 역시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로 평균 9.00개의 단어를 사용했고,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도 평균 5.00개로 타 후보자들에 비해 상당히 많은 여성관련 단어를 사용했다.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55개,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00개,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이 평균 0.97개,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0.55개,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00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단어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도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가 평균 10.7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는 평균 5.90%,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3.89%,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3.41%,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00%,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93%,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75%를 나타냈다.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나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가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이 타 후보자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반면,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경력별 관광분야 공약 분석

정치·행정경력별 관광문제와 관련하여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그러나 ‘단어 수 비율’의 경우는 그룹간에 차이가 없다.(유의도 0.582)

<표 7-5-1-19> 정치·행정경력별 관광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시·군의원	29	0.21	5.515	0.000	2.40	0.785	0.582
도의원	11	0.91			4.15		
시장·군수	4	1.25			8.63		
도지사	1	4.00			8.20		
국회의원	1	3.00			6.10		
기타 공무원	20	1.30			6.01		
정치행정경력없음	112	0.52			4.67		
계	178	0.63			4.54		

관광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공약 수’를 발표한 그룹은 평균 4.00개의 공약을 발표한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이다.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는 평균 3.00개,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30개,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25개,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91개,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0.52개,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21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타 후보자들에 비해 관광 관련 공약을 많이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는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가 평균 8.63%로 가장 높았고, 가장 많은 ‘공약 수’를 발표했던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는 평균 8.20%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는 평균 6.10%,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6.01%,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4.67%,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4.15%,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40%로 나타났다. 여기서도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를 비롯한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 특히 자치단체장 경력의 후보자들이 높은 관광 관련 ‘공약 수 비율’을 보였다.

정치·행정경력별 관광 문제와 관련하여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3) ‘단어 수 비율’의 경우는 차이가 없다.(유의도 0.261)

<표 7-5-1-20> 정치·행정경력별 관광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시·군의원	29	0.90	3.523	0.003	3.99	1.298	0.261
도의원	11	2.91			7.05		
시장·군수	4	6.00			14.30		
도지사	1	8.00			9.50		
국회의원	1	5.00			5.90		
기타 공무원	20	3.50			8.06		
정치행정경력없음	112	1.92			6.22		
계	178	2.13			6.31		

관광분야 공약의 가장 많은 ‘단어 수’를 발표한 그룹은 평균 8.00개의 단어를 사용한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이다.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과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도 각각 평균 6.00개, 평균 5.00개로 비교적 많은 관광문제 관련 단어를 사용했다.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3.50개,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91개,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1.92개,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90개의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단어 수’ 분석 결과에서도 자치단체장 경력의 후보자들이 관광관련 단어를 사용했다.

‘단어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는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4.3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는 평균 9.50%,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8.06%로 자치단체장 경력의 후보자들을 비롯한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타 후보자들에 비해 매우 높은 ‘단어 수 비율’을 나타냈다. 이 외의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7.05%,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이 6.22%,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는 평균 5.90%,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3.99%의 비율을 나타냈다.

□ 경력별 교통분야 공약 분석

정치·행정경력별 교통문제와 관련하여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127) 그러나 ‘공약 수 비율’의 경우는 그룹간에 차이가 있다.(유의도 0.003)

<표 7-5-1-21> 정치·행정경력별 교통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시·군의원	29	2.21	1.685	0.127	20.03	3.427	0.003
도의원	11	1.55			9.63		
시장·군수	4	1.50			6.75		
도지사	1	0.00			0.00		
국회의원	1	1.00			2.00		
기타 공무원	20	1.25			7.62		
정치행정경력없음	112	1.38			12.20		
계	178	1.50			12.55		

교통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공약 수’를 발표한 그룹은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로 평균 2.21개의 공약을 발표했고,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55개,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50개,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1.38개,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25개,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는 평균 1.00개의 공약을 발표했고,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는 교통관련 공약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 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타 후보자들에 비해 교통 관련 공약을 비교적 많이 발표했다.

‘공약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도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20.0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12.20%,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9.63%,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7.62%,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6.75%,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는 평균 2.00%,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는 0.00%로 나타났다.

정치·행정경력별 교통 문제와 관련하여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173) 그러나 ‘단어수 비율’의 경우는 차이가 있다.(유의도 0.021)

<표 7-5-1-22> 정치·행정경력별 교통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시·군의원	29	4.31	1.524	0.173	20.43	2.558	0.021
도의원	11	6.09			13.86		
시장·군수	4	5.25			11.53		
도지사	1	0.00			0.00		
국회의원	1	4.00			4.70		
기타 공무원	20	3.05			7.72		
정치행정경력없음	112	3.34			13.39		
계	178	3.66			13.76		

교통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단어 수’를 발표한 그룹은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로 평균 6.09개의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5.25개,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4.31개,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4.00개,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3.34개,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3.05개를 나타냈고,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는 교통 관련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와 시·군 자치단체장과 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교통 관련 단어를 타 후보자들에 비해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어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는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20.43%로 가장 높았고,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는 평균 13.86%,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13.39%,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1.53%,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7.72%,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는 평균 4.70%,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는 평균 0.00%의 비율을 나타냈다.

□ 경력별 환경분야 공약 분석

정치·행정경력별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2) 그러나 ‘공약수 비율’의 경우는 그룹간에 차이가 없다.(유의도 0.941)

<표 7-5-1-23> 정치·행정경력별 환경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시·군의원	29	1.03	3.546	0.002	8.53	0.290	0.941
도의원	11	1.36			9.82		
시장·군수	4	2.50			10.10		
도지사	1	5.00			10.20		
국회의원	1	5.00			10.20		
기타 공무원	20	1.30			6.69		
정치행정경력없음	112	1.14			9.02		
계	178	1.23			8.77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공약 수’를 발표한 그룹은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와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로 평균 5.00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50개,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36개,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30개,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1.14개,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03개의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장 경력의 후보자들과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가 상당히 많은 환경 관련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약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도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와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가 각각 평균 10.2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도 평균 10.10%로 비교적 ‘공약 수 비율’이 높았다.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9.82%,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9.02%,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8.53%의 비율을 나타냈다.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6.69%였다.

정치·행정경력별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14) ‘단어수 비율’에서는 정당별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751)

<표 7-5-1-24> 정치·행정경력별 환경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시·군의원	29	2.72	2.767	0.014	12.30	0.574	0.751
도의원	11	4.64			14.15		
시장·군수	4	6.00			10.45		
도지사	1	8.00			9.50		
국회의원	1	10.00			11.80		
기타 공무원	20	3.60			9.39		
정치행정경력없음	112	2.58			9.69		
계	178	2.99			10.39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단어 수’를 사용한 그룹은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로 평균 10.00개의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는 평균 8.00개,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6.00개,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3.60개,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72개,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2.58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공약 수’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를 비롯한 자치단체장들이 환경과 관련하여 많은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어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는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4.15%로 가장 높았고,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2.30%,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가 평균 11.80%,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0.45%,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이 평균 9.69%,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가 평균 9.50%,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9.39%로 나타났다. 자치단체 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비교적 높은 ‘단어 수 비율’을 보였다.

□ 경력별 정보화 분야 공약 분석

정치·행정경력별 정보화 분야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단어수 비율’의 경우도 그룹간에 차이가 있다.(유의도 0.007)

<표 7-5-1-25> 정치·행정경력별 정보화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시·군의원	29	0.00	456.326	0.000	0.00	3.066	0.007
도의원	11	0.00			0.00		
시장·군수	4	0.00			0.00		
도지사	1	4.00			8.20		
국회의원	1	0.00			0.00		
기타 공무원	20	0.00			0.00		
정치행정경력없음	112	0.01			0.22		
계	178	0.00			0.19		

정보화문제와 관련하여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와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이 각각 평균 4.00개와 0.01개의 공약을 발표했을 뿐, 타 후보자들은 정보화 관련 공약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 수 비율’은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가 평균 8.20%,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 평균 0.22%이다.

정치·행정경력별 정보화문제와 관련하여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그러나 ‘단어수 비율’의 경우는 차이가 없다.(유의도 0.812)

<표 7-5-1-26> 정치·행정경력별 정보화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시·군의원	29	0.00	16.075	0.000	0.10	0.495	0.812
도의원	11	0.00			0.00		
시장·군수	4	0.00			0.00		
도지사	1	4.00			4.80		
국회의원	1	1.00			1.20		
기타 공무원	20	0.00			0.00		
정치행정경력없음	112	0.01			0.60		
계	178	0.01			0.43		

정보화문제와 관련한 단어를 사용한 그룹은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와 국회의
원 경력의 후보자, 그리고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로 각각 평균 4.00
개, 1.00개, 0.01개로 나타났고, 이들의 ‘단어 수 비율’은 각각 평균 4.80%,
1.20%, 0.60%였다.

□ 경력별 감귤정책 경향성 분석

정치·행정경력별로 감귤정책에 대한 이슈별 분석을 실시하여 후보자들이
감귤정책에 대한 경향성을 분석했다. 50점에 가까울수록 생산조정제와 같이
관주도의 통제위주 정책을 지향하는 것이고, 점수가 10점대로 가까울수록 농
민들의 자율에 맡기는 정책을 원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133)

<표 7-5-1-27> 정치·행정경력별 감귤정책에 대한 분석 점수

항목	내용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통계량	유의도
감귤 정책에 대한 분석 점수	시·군의원	29	31.55	5.19	50.00	1.663	0.133
	도의원	11	32.73	6.47	50.00		
	시장·군수	4	25.00	10.00	30.00		
	도지사	1	30.00	.	30.00		
	국회의원	1	30.00	.	30.00		
	기타 공무원	20	33.00	9.79	50.00		
	정치행정경력없음	112	29.15	7.00	50.00		
	계	178	30.11	7.23	50.00		

전체 평균 점수는 30.11점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한 쪽에 치우치는
경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와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의 평균점수는 30.00점이다.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과 도의원 경
력의 후보자들, 그리고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33.00점,
32.73점, 31.55점으로 비교적 농민의 자율 보다는 관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과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25.00점, 29.15점으로 관의 역할 보다는 농민의 자율에
맡기는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 경력별 환경·지역개발 정책의 경향성 분석

정치·행정경력별로 환경과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이슈별 분석을 실시하여 후보자들이 환경과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경향성을 분석했다. 50점에 가까울수록 개발 위주의 정책을 펴자는 논리이고, 점수가 10점대로 갈수록 환경보존 위주로 계획을 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나타낸다. 분석 결과 그룹간에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도 0.003)

<표 7-5-1-28> 정치·행정경력별 환경과 지역개발에 대한 분석 점수

항목	내용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통계량	유의도
환경과 지역 개발에 대한 분석 점수	시·군의원	29	28.33	7.99	50.00	3.399	0.003
	도의원	11	24.85	9.50	45.00		
	시장·군수	4	33.13	10.28	42.50		
	도지사	1	20.00	.	20.00		
	국회의원	1	40.00	.	40.00		
	기타 공무원	20	34.25	7.48	50.00		
	정치행정경력없음	112	26.96	7.97	45.00		
	계	178	28.05	8.39	50.00		

전체 평균 점수가 28.05점으로 전체적으로 환경보존 위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존 위주 보다는 개발 위주의 정책을 지향하는 그룹은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와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 그리고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로 각각 평균 40.00점, 34.25점, 33.13점으로 나타났다.

환경보존 위주의 정책을 지향하는 그룹 중, 가장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 그룹은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로 평균 20.00점이다.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과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 그리고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24.85점, 26.96점, 28.33점으로 나타났다.

□ 경력별 교통정책 경향성 분석

정치·행정경력별로 교통정책에 대한 이슈별 분석을 실시하여 후보자들이 교통정책과 철학의 경향성을 분석했다. 50점에 가까울수록 소통 보다는 안전

위주, 공급 위주의 정책 보다는 수요관리와 대중교통 위주의 정책을 지향하는 것이고 10점에 가까울수록 공급 위주이며 소통 위주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룹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261)

<표 7-5-1-29> 정치·행정경력별 교통정책에 대한 분석 점수

항목	내용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통계량	유의도
교통 정책에 대한 분석 점수	시·군의원	29	21.92	12.13	50.00	1.298	0.261
	도의원	11	32.57	12.30	50.00		
	시장·군수	4	25.00	10.00	30.00		
	도지사	1	30.00	.	30.00		
	국회의원	1	30.00	.	30.00		
	기타 공무원	20	27.00	10.93	50.00		
	정치행정경력없음	112	27.90	12.90	50.00		
	계	178	27.07	12.55	50.00		

전체 평균점수가 27.07점으로 대체로 공급 위주, 소통 위주의 정책 보다는 안전 위주, 대중교통 위주, 수요관리 위주의 정책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와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는 각각 평균 30.00점으로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의원 후보자들만이 평균 32.57점으로 공급 위주, 소통 위주의 정책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후보자들은 평균 30점 이하로 공급 위주, 소통 위주의 정책 보다는 안전 위주, 대중교통 위주, 수요관리 위주의 정책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의 의원들과 장이 그러한 경향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21.92점,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5.00점,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7.00점,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27.90점으로 나타났다.

□ 경력별 공약의 구체성 분석

구체적이거나 예산이 수반될 수 있으며, 단기간에 가시화할 수 있는 공약의

경우는 50점을 그렇지 않고 선언적 의미로만 제시한 공약을 10점으로 하여 공약의 구체성에 대한 이슈별 분석을 실시했다. 그룹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도 0.008)

<표 7-5-1-30> 정치·행정경력별 공약의 구체성에 대한 분석 점수

항목	내용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통계량	유의도
공약의 구체성에 대한 분석 점수	시·군의원	29	37.59	7.24	50.00	3.013	0.008
	도의원	11	35.41	5.84	42.50		
	시장·군수	4	40.70	4.91	48.00		
	도지사	1	38.80	.	38.80		
	국회의원	1	27.80	.	27.80		
	기타 공무원	20	32.54	8.14	48.30		
	정치행정경력없음	112	31.57	8.62	50.00		
	계	178	33.12	8.43	50.00		

평균 27.80점의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후보자들이 평균 30점 이상으로 공약이 비교적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한 그룹은 평균 40.70점인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이다.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38.80점,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37.59점,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35.41점,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32.54점,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31.57점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장 경력의 후보자들의 공약이 타 후보자들에 비해 매우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경력별 공약의 총계 분석

공약에 사용한 단어 수 총계를 가지고 정치·행정경력별로 분석했다. 그룹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공약 수 총계’분석에서도 그룹간에 차이가 있다.(유의도 0.000)

<표 7-5-1-31> 정치·행정경력별 단어 수 총계와 공약 수 총계

내용	빈도	단어 수 총계			공약 수 총계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시·군의원	29	22.07	5.754	0.000	11.28	8.717	0.000
도의원	11	43.45			17.27		
시장·군수	4	54.00			23.50		
도지사	1	84.00			49.00		
국회의원	1	85.00			49.00		
기타 공무원	20	37.40			17.65		
정치행정경력없음	112	25.31			11.17		
계	178	28.57			12.99		

분석 결과 가장 많은 단어를 사용한 그룹은 평균 85.00개의 단어를 사용한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이고,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도 평균 84.00개로 많은 단어를 사용했다.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54.00개,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43.45개,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37.40개,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25.31개,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2.07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와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가 타 후보자들에 비해 훨씬 많은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 수 총계’ 분석 결과에서는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와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가 각각 평균 49.00개로 가장 많은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3.50개,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7.65개,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7.27개,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1.28개,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11.17개로 나타났다. ‘단어 수 총계’ 분석 결과와 같이 국회의원 경력의 후보자와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가 타 후보자들에 비해 현저히 많은 공약을 발표했다.

5-2. 6.4선거 공약 분석

□ 경력별 4·3문제 공약 분석

정치·행정경력별 4·3문제의 ‘공약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873) 공약수 비율’의 경우도 그룹간에 차이가 없다.(유의도 0.859)

<표 7-5-2-1> 정치·행정경력별 4·3문제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시·군의원	24	0.13	0.363	0.873	0.78	0.384	0.859
도의원	11	0.27			1.13		
시장·군수	6	0.00			0.00		
도지사	2	0.50			1.50		
국회의원	-	-			-		
기타 공무원	5	0.00			0.00		
정치행정경력없음	80	0.18			2.06		
계	128	0.16			1.56		

4·3문제와 관련하여 ‘공약 수’를 발표한 그룹은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 뿐이고 나머지 후보자들은 4.3문제와 관련하여 공약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약을 발표한 후보자들도 그 수치가 아주 작다.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0.50개,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0.27개,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이 평균 0.18개,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0.13개로 나타났다. 그나마 광역자치단체장과 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공약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는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이 평균 2.06%,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50%,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13%,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0.78%로 나타났다.

정치·행정경력별 4·3문제와 관련하여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839) ‘단어 수 비율’도 마찬가지로 정당별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851)

<표 7-5-2-2> 정치·행정경력별 4·3문제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시·군의원	24	0.21	0.413	0.839	0.77	0.396	0.851
도의원	11	0.45			0.75		
시장·군수	6	0.00			0.00		
도지사	2	1.00			2.10		
국회의원	-	-			-		
기타 공무원	5	0.00			0.00		
정치행정경력없음	80	0.36			1.71		
계	128	0.32			1.31		

‘단어 수’ 분석 결과는 ‘공약 수’ 분석 결과와 비슷하다. 43문제와 관련한 단어를 사용한 그룹은 평균 1.00개의 단어를 사용한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 평균 0.45개의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 평균 0.36개의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 평균 0.21개의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이다.

‘단어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는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가 평균 2.10%,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이 평균 1.71%,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0.77%,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0.75%로 나타났다.

□ 경력별 정치·행정·재정분야 공약 분석

정치·행정경력별 정치·행정·재정분야 공약의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48) 그리고 ‘단어 수 비율’의 경우는 그룹간에 차이가 없다.(유의도 0.832)

<표 7-5-2-3> 정치·행정경력별 정치·행정·재정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시·군의원	24	1.63	2.316	0.048	16.11	0.423	0.832
도의원	11	1.09			9.50		
시장·군수	6	3.17			10.03		
도지사	2	5.00			19.70		
국회의원	-	-			-		
기타 공무원	5	2.60			9.52		
정치행정경력없음	80	1.39			13.60		
계	128	1.59			13.49		

정치·행정·재정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공약 수’를 발표한 그룹은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들로 평균 5.00개의 공약을 발표했고,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3.17개의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39개,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1.63개,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이 평균 1.39개,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63개의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장 경력의 후보자들이 4.3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공약을 발표했고, 또한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도 비교적 많은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는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9.70%로 가장 높았고,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6.11%,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이 평균 13.60%,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0.03%,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9.52%,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9.50%를 나타냈다.

정치·행정경력별 정치·행정·재정분야 공약의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14) 그러나 ‘단어수 비율’의 경우는 그룹간에 차이가 없다.(유의도 0.844)

<표 7-5-2-4> 정치·행정경력별 정치·행정·재정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시·군의원	24	2.75	2.978	0.014	12.92	0.405	0.844
도의원	11	2.18			9.94		
시장·군수	6	6.33			8.93		
도지사	2	5.50			13.85		
국회의원	-	-			-		
기타 공무원	5	6.80			20.56		
정치행정경력없음	80	2.29			12.14		
계	128	2.78			12.30		

정치·행정·재정문제와 관련한 ‘단어 수’ 분석 결과에서는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6.80개로 가장 많은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6.33개, ‘공약 수’가 가장 많았던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5.50개,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2.75개,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이 평균 2.29개,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2.18개로 나타났다. ‘공약 수’ 분석 결과와 같이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정치·행정·재정 관련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

‘단어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는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20.5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3.85%,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2.92%,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12.14%,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9.94%,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8.93%를 나타내고 있다.

□ 경력별 1차산업 공약 분석

정치·행정경력별 1차산업 문제와 관련하여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94) ‘공약 수 비율’의 경우도 그룹간에 차이가 없다.(유의도 0.754)

<표 7-5-2-5> 정치·행정경력별 1차산업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시·군의원	24	2.79	1.930	0.094	16.05	0.529	0.754
도의원	11	1.18			9.48		
시장·군수	6	4.33			15.30		
도지사	2	2.00			6.05		
국회의원	-	-			-		
기타 공무원	5	1.60			15.84		
정치행정경력없음	80	1.18			10.47		
계	128	1.66			11.80		

1차산업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공약 수’를 발표한 그룹은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로 평균 4.33개의 공약을 발표했고, 다음으로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로서 평균 2.79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그리고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00개,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과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1.18개,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60개의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들이 타 후보자들에 비해 비교적 많은 1차산업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는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6.05%로 가장 높게 나왔다.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5.84%의 비율을 보였고,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5.30%,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10.47%,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9.48%,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6.05%로 나타났다.

정치·행정경력별 1차산업 분야 공약의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27) 그러나 ‘단어 수 비율’의 경우는 그룹간에 차이가 없다.(유의도 0.627)

<표 7-5-2-6> 정치·행정경력별 1차산업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시·군의원	24	4.79	2.635	0.027	16.26	0.697	0.627
도의원	11	2.36			7.59		
시장·군수	6	10.17			14.25		
도지사	2	2.50			5.20		
국회의원	-	-			-		
기타 공무원	5	3.60			18.26		
정치행정경력없음	80	2.34			10.92		
계	128	3.22			11.99		

1차산업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단어 수’를 발표한 그룹은 ‘공약 수’가 가장 많았던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로 평균 10.17개의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의원 후보자들이 평균 4.79개,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3.60개,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2.50개,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2.36개,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이 평균 2.34개이다. ‘공약 수’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들이 1차산업 관련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

‘단어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는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8.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6.26%,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4.25%,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이 평균 10.92%,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7.59%,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5.20%로 나타났다

□ 경력별 감귤산업 분야 공약 분석

정치·행정경력별 감귤산업 문제와 관련하여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2) 그러나 ‘공약 수 비율’의 경우는 그룹 간에 차이가 없다.(유의도 0.135)

<표 7-5-2-7> 정치·행정경력별 감귤산업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시·군의원	24	0.29	4.026	0.002	1.84	1.719	0.135
도의원	11	1.36			9.95		
시장·군수	6	0.83			2.75		
도지사	2	2.50			8.30		
국회의원	-	-			-		
기타 공무원	5	1.20			7.44		
정치행정경력없음	80	0.53			5.13		
계	128	0.63			4.95		

감귤산업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공약 수’를 발표한 그룹은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들로 평균 2.50개의 공약을 발표했고,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36개의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20개,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83개,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0.53개,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는 평균 0.29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1차산업과 달리 감귤산업과 관련하여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들 보다는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의원들이 더 많은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는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9.9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8.30%,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7.44%,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5.13%,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75%,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84%의 비율을 보였다. 여기서도 광역자치단체의 장과 의원들의 ‘공약 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행정경력별 감귤산업분야 공약의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그러나 ‘단어수 비율’의 경우는 차이가 없다.(유의도 0.084)

<표 7-5-2-8> 정치·행정경력별 감귤산업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시·군의원	24	0.63	5.678	0.000	2.08	1.994	0.084
도의원	11	2.55			8.29		
시장·군수	6	3.17			4.33		
도지사	2	3.00			7.70		
국회의원	-	-			-		
기타 공무원	5	2.80			10.66		
정치행정경력없음	80	0.90			4.93		
계	128	1.20			4.92		

감귤산업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단어 수’를 제시한 그룹은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로 평균 3.17개의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3.00개의 단어를 사용했으며,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80개,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55개,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0.90개,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63개의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장들이 감귤산업 관련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

‘단어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는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0.6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다음이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로 평균 8.29%,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7.70%,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4.93%,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4.33%,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는 평균 2.08%의 비율을 보였다.

□ 경력별 지역경제·개발분야 공약 분석

정치·행정경력별 지역(도시)경제·개발과 관련하여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43) 그러나 ‘공약 수 비율’의 경우는 그룹간에 차이가 없다.(유의도 0.761)

<표 7-5-2-9> 정치·행정경력별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시·군의원	24	2.13	2.374	0.043	21.01	0.520	0.761
도의원	11	1.55			14.58		
시장·군수	6	4.00			12.02		
도지사	2	5.50			21.25		
국회의원	-	-			-		
기타 공무원	5	2.60			15.26		
정치행정경력없음	80	2.08			20.84		
계	128	2.20			19.71		

지역(도시)경제·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공약 수’를 발표한 그룹은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들로 평균 5.50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도 평균 4.00개로 지역(도시)경제·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비교적 많은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60개,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13개,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2.08개,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55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자치단체장들이 타 후보자들에 비해 지역(도시)경제·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는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21.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21.01%,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이 평균 20.84%,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5.26%,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4.58%,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2.02%의 비율을 나타냈다.

정치·행정경력별 지역(도시)경제·개발문제와 관련하여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369) ‘단어 수 비율’의 경우에도 차이가 없다.(유의도 0.942)

<표 7-5-2-10> 정치·행정경력별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시·군의원	24	3.33	1.091	0.369	14.47	0.244	0.942
도의원	11	3.64			12.76		
시장·군수	6	9.17			14.73		
도지사	2	7.50			19.40		
국회의원	-	-			-		
기타 공무원	5	3.20			12.30		
정치행정경력없음	80	3.01			12.48		
계	128	3.49			13.08		

지역(도시)경제·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단어 수’를 사용한 그룹은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로 평균 9.17개의 단어를 사용했고,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7.50개의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3.64개,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3.33개,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3.20개,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3.01개의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어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는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9.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4.73%,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4.47%,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2.76%,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12.48%,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2.30%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자치단체장들이 지역(도시)경제·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비중을 많이 둔 것으로 나타났다.

□ 경력별 교육분야 공약 분석

정치·행정경력별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578) ‘공약 수 비율’의 경우도 그룹간에 차이가 없다.(유의도 0.582)

<표 7-5-2-11> 정치·행정경력별 교육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시·군의원	24	0.38	0.764	0.578	2.90	0.757	0.582
도의원	11	1.00			7.72		
시장·군수	6	1.17			2.83		
도지사	2	0.50			1.50		
국회의원	-	-			-		
기타 공무원	5	1.20			4.18		
정치행정경력없음	80	0.72			4.64		
계	128	0.71			4.43		

교육분야에서 가장 많은 ‘공약 수’를 발표한 그룹은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로 평균 1.20개의 공약을 발표했고,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17개의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00개,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0.72개,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 평균 0.50개,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 평균 0.38개로 나타났다.

‘공약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도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가 평균 7.72%,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4.64%,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4.18%,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90%,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83%,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50%로 나타났다.

정치·행정경력별 교육분야 공약의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407) 그러나 ‘단어 수 비율’에서는 차이가 없다.(유의도 0.098)

<표 7-5-2-12> 정치·행정경력별 교육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시·군의원	24	0.63	1.023	0.407	2.43	1.905	0.098
도의원	11	1.73			5.35		
시장·군수	6	2.17			3.52		
도지사	2	0.50			1.05		
국회의원	-	-			-		
기타 공무원	5	3.00			9.00		
정치행정경력없음	80	0.94			2.56		
계	128	1.08			3.05		

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단어 수’를 발표한 그룹은 ‘공약 수’가 가장 많았던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로 평균 3.00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17개,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73개,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0.94개,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63개,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50개의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어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도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9.00%로 가장 높았고,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5.35%,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3.52%,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2.56%,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43%,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05%의 비율을 나타냈다.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들이 교육분야 공약에서는 타 후보자들에 비해 비중을 적게 두고 있다.

□ 경력별 사회·복지분야 공약 분석

정치·행정경력별 사회·복지분야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511) ‘공약 수 비율’의 경우도 그룹간에 차이가 없다.(유의도 0.962)

<표 7-5-2-13> 정치·행정경력별 사회·복지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시·군의원	24	1.67	0.859	0.511	14.37	0.201	0.962
도의원	11	1.73			12.03		
시장·군수	6	4.67			13.85		
도지사	2	3.00			12.15		
국회의원	-	-			-		
기타 공무원	5	2.60			14.36		
정치행정경력없음	80	1.92			11.92		
계	128	2.03			12.58		

사회·복지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공약 수’를 발표한 그룹은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로 평균 4.07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3.00개의 공약을 발표했고,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60개의 공약을 했다.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1.92개,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73개,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67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자치단체장 경력의 후보자들과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비교적 많은 사회·복지관련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는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4.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4.36%,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3.85%,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2.15%,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2.03%,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11.92%의 비율을 나타냈다.

정치·행정경력별 사회·복지문제와 관련하여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1) ‘단어 수 비율’에서는 차이가 없다.(유의도 0.822)

<표 7-5-2-14> 정치·행정경력별 사회·복지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시·군의원	24	4.29	4.482	0.001	17.62	0.437	0.822
도의원	11	5.00			16.75		
시장·군수	6	9.67			12.20		
도지사	2	4.50			12.70		
국회의원	-	-			-		
기타 공무원	5	3.80			14.10		
정치행정경력없음	80	2.85			13.62		
계	128	3.69			14.58		

사회·복지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단어 수’를 발표한 그룹은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로 평균 9.67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5.00개,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4.50개,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4.29개의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3.80개,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2.85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이 타 후보자들 보다는 사회·복지 관련 공약을 더 많이 발표했다.

‘단어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는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7.6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6.75%,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14.10%,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13.62%,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2.70%,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은 12.20%로 나타났다.

□ 경력별 문화·예술·체육분야 공약 분석

정치·행정경력별 문화·예술·체육 문제와 관련하여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그러나 ‘단어 수 비율’의 경우는 그룹간에 차이가 없다.(유의도 0.289)

<표 7-5-2-15> 정치·행정경력별 문화·예술·체육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시·군의원	24	0.71	5.294	0.000	6.18	1.252	0.289
도의원	11	0.73			6.60		
시장·군수	6	2.50			6.83		
도지사	2	3.00			10.60		
국회의원	-	-			-		
기타 공무원	5	1.20			4.22		
정치행정경력없음	80	0.48			3.33		
계	128	0.71			4.46		

문화·예술·체육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공약 수’를 발표한 그룹은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들로 평균 3.00개의 공약을 발표했고,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50개,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20개,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73개로 나타났다.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과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0.71개, 0.48개이다.

‘공약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는 ‘공약 수’가 가장 많았던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0.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6.83%,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6.60%,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6.18%,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4.22%,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3.33%로 나타났다.

자치단체장들이 비교적 타 후보자들에 비해 문화·예술·체육과 관련된 공약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행정경력별 문화·예술·체육 문제와 관련하여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그러나 ‘단어 수 비율’에서는 차이가 없다.(유의도 0.421)

<표 7-5-2-16> 정치·행정경력별 문화·예술·체육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시·군의원	24	1.46	5.790	0.000	5.80	1.000	0.421
도의원	11	1.64			5.43		
시장·군수	6	5.00			6.35		
도지사	2	4.00			10.20		
국회의원	-	-			-		
기타 공무원	5	2.80			9.90		
정치행정경력없음	80	0.95			4.36		
계	128	1.41			5.12		

‘단어수’ 분석 결과는 ‘공약 수’ 분석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문화·예술·체육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단어 수’를 발표한 그룹은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로 평균 5.00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4.00개,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80개,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64개,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46개,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0.95개의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어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도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0.2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9.90%,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6.35%,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5.80%,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5.43%,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4.36%의 비율을 나타냈다.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타 후보자들에 비해 문화·예술·체육 관련 문제에 비중을 많이 둔 것으로 나타났다.

□ 경력별 여성분야 공약 분석

정치·행정경력별 여성분야의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31) 그러나 ‘공약 수 비율’의 경우는 그룹간에 차이가 없다.(유의도 0.418)

<표 7-5-2-17> 정치·행정경력별 여성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시·군의원	24	0.25	2.560	0.031	2.44	1.004	0.418
도의원	11	0.55			2.18		
시장·군수	6	1.33			3.72		
도지사	2	0.50			1.50		
국회의원	-	-			-		
기타 공무원	5	2.00			7.44		
정치행정경력없음	80	0.39			2.35		
계	128	0.49			2.60		

여성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공약 수’를 발표한 그룹은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로 평균 2.00개의 공약을 발표했고,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도 평균 1.33개로 비교적 많은 여성 관련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55개,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50개,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0.39개,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25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도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7.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3.72%로 나타났다.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44%,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2.35%,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18%,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50%의 비율을 나타냈다.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과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이 비교적 타 후보자들에 비해 여성분야 공약에 비중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행정경력별 여성 문제와 관련하여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단어 수 비율’의 경우도 차이가 있다.(유의도 0.029)

<표 7-5-2-18> 정치·행정경력별 여성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시·군의원	24	0.67	7.896	0.000	2.90	2.584	0.029
도의원	11	0.91			1.88		
시장·군수	6	3.33			4.22		
도지사	2	0.50			1.05		
국회의원	-	-			-		
기타 공무원	5	3.60			10.98		
정치행정경력없음	80	0.56			2.60		
계	128	0.86			2.97		

여성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단어 수’를 발표한 그룹은 역시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로 평균 3.60개의 단어를 사용했고,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도 평균 3.33개로 타 후보자들에 비해 여성관련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0.91개,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0.67개,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이 평균 0.56개,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0.50개로 나타났다.

‘단어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도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0.9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역시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4.22%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2.90%,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이 평균 2.60%,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88%,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05%로 나타났다. ‘단어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도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과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이 타 후보자들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 경력별 관공분야 공약 분석

정치·행정경력별 관공분야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2) 그러나 ‘단어수 비율’의 경우는 그룹간에 차이가 없다.(유의도 0.217)

<표 7-5-2-19> 정치·행정경력별 관광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시·군의원	24	0.58	3.990	0.002	4.73	1.435	0.217
도의원	11	1.73			11.70		
시장·군수	6	2.83			10.40		
도지사	2	2.00			6.05		
국회의원	-	-			-		
기타 공무원	5	1.20			5.06		
정치행정경력없음	80	0.78			5.89		
계	128	0.96			6.35		

관광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공약 수’를 발표한 그룹은 평균 2.83개의 공약을 발표한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이다.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00개,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73개,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20개,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0.78개,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58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자치단체장 경력의 후보자들이 타 후보자들에 비해 관광 관련 공약을 많이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는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1.70%로 가장 높았고,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0.40%로 나타났다.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6.05%,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5.89%,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5.06%,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4.73%로 나타났다.

정치·행정경력별 관광분야 공약의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단어 수 비율’의 경우는 차이가 없다.(유의도 0.323)

<표 7-5-2-20> 정치·행정경력별 관광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시·군의원	24	2.00	8.228	0.000	6.89	1.180	0.323
도의원	11	4.09			14.86		
시장·군수	6	9.00			12.32		
도지사	2	2.50			5.20		
국회의원	-	-			-		
기타 공무원	5	4.00			12.80		
정치행정경력없음	80	1.71			8.67		
계	128	2.41			9.15		

관광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단어 수’를 발표한 그룹은 평균 9.00개의 단어를 사용한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이다.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4.09개,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4.00개,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50개,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00개,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1.71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이 관광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단어를 사용했다.

‘단어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는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4.8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2.80%,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도 평균 12.32%로 타 후보자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이 8.67%,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6.89%,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5.20%의 비율을 나타냈다.

□ 경력별 교통분야 공약 분석

정치·행정경력별 교통문제와 관련하여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그러나 ‘공약 수 비율’의 경우는 그룹간에 차이가 없다.(유의도 0.694)

<표 7-5-2-21> 정치·행정경력별 교통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시·군의원	24	0.71	4.978	0.000	5.60	0.608	0.694
도의원	11	0.82			7.11		
시장·군수	6	7.00			10.18		
도지사	2	0.00			0.00		
국회의원	-	-			-		
기타 공무원	5	1.00			5.76		
정치행정경력없음	80	1.18			8.41		
계	128	1.30			7.62		

교통 문제와 관련하여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7.00개로 타 후보자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공약을 발표했고,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1.18개,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00개,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82개,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71개로 나타났다.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들은 교통 관련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공약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도 ‘공약 수’가 가장 많았던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0.1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8.41%,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7.11%,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5.76%,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5.60%,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들은 0.00%이다.

정치·행정경력별 교통 문제와 관련하여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9) 그러나 ‘단어 수 비율’의 경우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659)

<표 7-5-2-22> 정치·행정경력별 교통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시·군의원	24	2.42	3.230	0.009	10.28	0.654	0.659
도의원	11	2.09			8.90		
시장·군수	6	8.67			7.73		
도지사	2	0.00			0.00		
국회의원	-	-			-		
기타 공무원	5	3.20			12.42		
정치행정경력없음	80	2.39			11.88		
계	128	2.66			10.96		

교통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단어 수’를 발표한 그룹은 역시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로 평균 8.67개의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3.20개,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42개,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39개,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09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들은 교통 관련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단어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는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2.42%로 가장 높았고,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11.88%,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0.28%,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8.90%,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7.73%,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00%를 나타냈다.

□ 경력별 환경분야 공약 분석

정치·행정경력별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그러나 ‘단어 수 비율’의 경우는 그룹간에 차이가 없다.(유의도 0.190)

<표 7-5-2-23> 정치·행정경력별 환경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시·군의원	24	0.58	7.935	0.000	3.74	1.516	0.190
도의원	11	0.45			4.53		
시장·군수	6	4.67			10.85		
도지사	2	2.00			7.60		
국회의원	-	-			-		
기타 공무원	5	2.40			10.90		
정치행정경력없음	80	0.93			7.12		
계	128	1.07			6.59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공약 수’를 발표한 그룹은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로 평균 4.67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40개,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00개로 나타났고, 나머지 그룹들은 평균 1개 이하의 환경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이 평균 0.93개,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0.58개,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0.45개로 나타났다.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타 후보자들에 비해 환경 관련 공약을 많이 발표했다.

‘공약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는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과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0.9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도 평균 10.85%로 비교적 ‘공약 수 비율’이 높았다.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7.60%,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7.12%,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4.53%,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3.74%의 비율을 나타냈다.

대체로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환경 관련 공약에 높은 비중을 둔 반면, 자치단체 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비교적 낮은 비중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행정경력별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단어 수 비율’에서는 정당별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269)

<표 7-5-2-24> 정치·행정경력별 환경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시·군의원	24	1.54	8.323	0.000	6.02	1.298	0.269
도의원	11	1.91			7.31		
시장·군수	6	7.00			8.00		
도지사	2	7.50			18.00		
국회의원	-	-			-		
기타 공무원	5	4.60			15.90		
정치행정경력없음	80	1.81			9.18		
계	128	2.21			8.77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단어 수’를 사용한 그룹은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로 평균 7.50개의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7.00개로 비교적 많은 단어를 사용했다.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4.60개,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91개,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1.81개,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54개의 환경 관련 단어를 사용했다.

‘단어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도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8.00%로 가장 높았고,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5.90%,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9.18%,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8.00%,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7.31%,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6.02%로 나타났다.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환경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분석 결과에서도 대체로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높은 수치를 나타낸 반면, 지방의회 의원 경력 후보자들은 비교적 적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 경력별 정보화분야 공약 분석

정치·행정경력별 정보화 분야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공약 수 비율’의 경우도 그룹간에 차이가 있다.(유의도 0.000)

<표 7-5-2-25> 정치·행정경력별 정보화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내용	빈도	공약 수			공약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시·군의원	24	0.00	9.286	0.000	0.13	4.863	0.000
도의원	11	0.00			0.00		
시장·군수	6	0.33			1.12		
도지사	2	1.00			3.75		
국회의원	-	-			-		
기타 공무원	5	0.00			0.00		
정치행정경력없음	80	0.00			0.16		
계	128	0.01			0.24		

정보화 분야는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들과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이 각각 평균 1.00개와 0.33개의 공약을 발표했을 뿐, 타 후보자들은 정보화 관련 공약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 수 비율’은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가 평균 3.75%,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12%,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이 평균 0.16%,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0.13%를 나타냈다.

정치·행정경력별 정보화 분야 공약의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단어수 비율’의 경우도 차이가 있다.(유의도 0.000)

<표 7-5-2-26>정치·행정경력별 정보화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내용	빈도	단어 수			단어 수 비율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시·군의원	24	0.13	9.133	0.000	0.10	5.028	0.000
도의원	11	0.01			0.15		
시장·군수	6	3.17			3.40		
도지사	2	1.50			3.60		
국회의원	-	-			-		
기타 공무원	5	0.20			0.60		
정치행정경력없음	80	0.01			0.29		
계	128	0.27			0.45		

정보화 문제와 관련한 ‘단어 수’가 가장 많은 그룹은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로 평균 3.17개로 나타났고,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50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나머지 그룹들은 아주 적은 수치를 나타냈는데,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0.20개,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0.13개,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과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이 각각 평균 0.01개로 나타났다.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그나마 정보화 관련 단어를 비교적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어 수 비율’ 분석에서는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3.60%로 가장 높았고,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3.40%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타 후보자들, 즉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각각 평균 0.60%, 0.29%, 0.15%, 0.10%로 작은 수치를 보였다.

□ 경력별 감귤정책 경향성 분석

정치·행정경력별로 감귤정책에 대한 이슈별 분석을 실시하여 후보자들이 감귤정책에 대한 경향성을 분석했다. 50점에 가까울수록 생산조정제와 같이 관주도의 통제위주 정책을 지향하는 것이고, 점수가 10점대로 가까울수록 농민들의 자율에 맡기는 정책을 원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303)

<표 7-5-2-27> 정치·행정경력별 감귤정책에 대한 분석 점수

항목	내용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통계량	유의도
감귤 정책에 대한 분석 점수	시·군의원	24	30.28	8.95	40.00	1.221	0.303
	도의원	11	24.85	9.92	43.30		
	시장·군수	6	33.33	13.66	50.00		
	도지사	2	25.00	21.21	40.00		
	국회의원	-	-	-	-		
	기타 공무원	5	24.00	13.42	40.00		
	정치행정경력없음	80	28.23	7.87	45.00		
	계	128	28.35	9.01	50.00		

전체 평균 점수는 28.35점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의 역할 보다는 농민의 자율을 더욱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과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만이 각각 평균 33.33점, 30.28점으로 관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그룹들은 평균 30점 이하로 농민의 자율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24.00점으로 농민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가장 높았고,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4.85점,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5.00점,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28.23점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기초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들만이 농민의 역할 보다는 관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력별 환경·지역개발정책 경향성 분석

정치·행정경력별로 환경과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이슈별 분석을 실시하여 후보자들이 환경과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경향성을 분석했다. 50점에 가까울수록 개발 위주의 정책을 펴자는 논리이고, 점수가 10점대로 갈수록 환경보존 위주로 계획을 하려는 경향성을 나타낸다. 분석 결과 그룹간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도 0.703)

<표 7-5-2-28> 정치·행정경력별 환경과 지역개발에 대한 분석 점수

항목	내용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통계량	유의도
환경과 지역 개발에 대한 분석 점수	시·군의원	24	27.50	10.32	50.00	0.595	0.703
	도의원	11	27.73	13.30	50.00		
	시장·군수	6	23.42	6.69	30.00		
	도지사	2	17.50	3.54	20.00		
	국회의원	-	-	-	-		
	기타 공무원	5	28.00	4.47	30.00		
	정치행정경력없음	80	27.21	9.31	50.00		
	계	128	27.01	9.58	50.00		

모든 후보자들의 평균 점수가 30점 이하로 개발 위주의 정책 보다는 환경보존 위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17.50점으로 그러한 경향이 가장 강했고,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3.42점,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27.21점,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7.50점,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7.73점, 기타 공무원

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8.00점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장들이 환경·보존 위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타 후보자들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경력별 교통정책 경향성 분석

정치·행정경력별로 교통정책에 대한 이슈별 분석을 실시하여 후보자들이 교통정책과 철학의 경향성을 분석했다. 50점에 가까울수록 소통 보다는 안전 위주, 공급 위주의 정책 보다는 수요관리와 대중교통 위주의 정책을 지향하는 것이고 10점에 가까울수록 공급 위주이며 소통 위주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룹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750)

<표 7-5-2-29> 정치·행정경력별 교통정책에 대한 분석 점수

항목	내용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통계량	유의도
교통 정책에 대한 분석 점수	시·군의원	24	24.93	10.43	45.00	0.534	0.750
	도의원	11	28.18	10.79	50.00		
	시장·군수	6	22.62	10.99	36.70		
	도지사	2	30.00	0.00	30.00		
	국회의원	-	-	-	-		
	기타 공무원	5	26.00	11.40	40.00		
	정치행정경력없음	80	28.60	13.64	50.00		
	계	128	27.51	12.52	50.00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들만이 평균 30.00점으로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후보자들은 평균 30점 이하로 공급위주, 소통 위주의 정책 보다는 안전 위주, 대중교통 위주, 수요관리 위주의 정책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의 의원들과 장이 그러한 경향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22.62점,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4.93점,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6.00점,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8.18점,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28.60점으로 나타났다.

□ 경력별 공약의 구체성 분석

구체적이거나 예산이 수반될 수 있으며, 단기간에 가시화할 수 있는 공약의 경우는 50점을 그렇지 않고 선언적 의미로만 제시한 공약을 10점으로 하여 공약의 구체성에 대한 이슈별 분석을 실시했다. 그룹간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도 0.716)

<표 7-5-2-30> 정치·행정경력별 공약의 구체성에 대한 분석 점수

항목	내용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통계량	유의도
공약의 구체성에 대한 분석 점수	시·군의원	24	34.90	11.06	48.60	0.578	0.716
	도의원	11	35.58	7.64	46.00		
	시장·군수	6	34.63	4.56	39.20		
	도지사	2	23.05	8.13	28.80		
	국회의원	-	-	-	-		
	기타 공무원	5	34.20	2.27	36.20		
	정치행정경력없음	80	34.04	10.33	50.00		
	계	128	34.20	9.84	50.00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들만이 평균 23.05점으로 비교적 공약의 구체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모든 후보자들은 평균 30점 이상으로 대체로 공약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가장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한 그룹은 평균 35.58점인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이다.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34.90점,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34.63점,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34.20점,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34.04점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 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타 후보자들, 즉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보다 공약이 좀 더 구체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경력별 공약의 총계 분석

공약에 사용한 단어 수 총계를 가지고 정치·행정경력별로 분석했다. 그룹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0) ‘공약 수 총계’분석에서도 그룹간에 차이가 있다.(유의도 0.000)

<표 7-5-2-31> 정치·행정경력별 단어 수와 공약 수 총계

내용	빈도	단어 수 총계			공약 수 총계		
		평균	통계량	유의도	평균	통계량	유의도
시·군의원	24	24.42	13.719	0.000	11.88	9.873	0.000
도의원	11	28.64			13.45		
시장·군수	6	76.83			36.83		
도지사	2	40.50			27.50		
국회의원	-	-			-		
기타 공무원	5	40.40			19.60		
정치행정경력없음	80	18.93			10.99		
계	128	24.68			13.17		

분석 결과 가장 많은 단어를 사용한 그룹은 평균 76.83개의 단어를 사용한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이다.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와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도 각각 평균 40.50개, 40.40개로 상당히 많은 단어를 사용했다.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6.84개,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4.42개,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18.93개로 나타났다.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의원 경력의 후보자들 보다 많은 단어를 사용했다. 특히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은 상당히 많은 수치를 나타냈다.

‘공약 수 총계’ 분석 결과에서도 시장·군수 경력의 후보자들이 평균 36.83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도지사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27.50개, 기타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9.60개로 비교적 많은 ‘공약 수 총계’를 보였다. 도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3.45개, 시·군의원 경력의 후보자들은 평균 11.88개, 정치·행정경력이 없는 후보자들은 평균 10.99개로 나타났다. ‘단어 수 총계’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공약 수 총계’ 분석 결과에서도 공무원 경력의 후보자들이 타 후보자들에 비해 많은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6. 당선과 낙선간에 공약분야별 비중의 차이분석

6-1. 6.27선거 공약 차이분석

당선자와 낙선자간에 공약 내용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차이분석이다. 차이분석은 당선과 낙선을 이원화시켜서 분석하는 것이며, 평균 점수가 다르더라도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즉, 평균 점수가 다르면 당선자와 낙선자간에는 공약 내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물론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을 하기 위해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다르다고 할 수 있는지”를 통계량과 유의도를 제시하여 분석했다.

분석결과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6.27선거의 내용 분석 중 4·3문제 공약 수와 비율의 차이분석을 예로 하여 살펴보겠다. 당선과 낙선으로 분리하여 제시했고, 빈도는 분석한 후보자들의 수를 말한다. 당선은 62명이며 낙선은 116명이다. 무투표당선은 예외로 했다. 평균은 해당 점수의 평균을 의미하며, Levene's Test의 F값은 분산이 서로 다른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량의 값이며, 그 유의도가 Sig란에 정리되어 있다. 따라서 Sig의 값인 유의도가 0.05보다 작으면 분산은 같지 않다, 즉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때 t-test의 유의도까지 0.05보다 작으면 두 집단은 평균과 분산이 같지 않아서 두 집단간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test의 결과 차이가 있으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며, 이 때 기준이 되는 것은 평균이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값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항목이 많지 않아 Levene's Test의 값도 참고하기로 했다.

통계분석결과표를 정리할 때는 Levene's Test값이 0.05보다 작으면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t-test값도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서 정리했다. 그 역으로 Levene's Test값이 0.05보다 크면 “등분산이 가정되는 경우”이므로 t-test값도 “등분산이 가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서 정리했다.

따라서 4·3문제 관련 ‘공약수’분석에서 Levene's Test의 경우 0.023으로 0.05보다 작으므로 분산이 같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때 t-test값은 0.234로서 0.05보다 크므로 두 집단간 평균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두 집단의 4·3문제 관련 공약 수는 t-test를 중심으로 보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Levene's Test를 중심으로 보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Levene's Test의 결과 차이가 있거나 t-test의 결과 차이가 있는 경우 즉, 두 분석 중 어느 하나의 분석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두 집단간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해석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6.27선거시 당선과 낙선의 그룹간에 분야별 공약의 수나 단어의 수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4·3문제 ‘공약 수’와 ‘공약 비율’, 4·3문제 ‘단어 수’와 ‘단어 비율’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감귤산업 관련 ‘공약 비율’, 교육 관련 ‘공약 수’와 ‘공약 비율’, 문화·예술·체육 관련 ‘공약 비율’, 문화·예술·체육관련 ‘단어 비율’, 관광 관련 ‘단어 수’, 교통 관련 ‘공약 수’, 교통 관련 ‘단어 수’, 환경 관련 ‘공약 수’, 환경 관련 ‘단어 수’, 정보화 관련 ‘공약 수’, 교통정책의 차량 중심과 사람 중심 선호 경향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3문제 공약 차이분석

4·3문제 ‘공약 수’와 관련해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체적으로 당선그룹의 평균 점수가 높다. 4·3문제에 대한 대안을 보다 많이 제시한 그룹이 당선된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통계적으로 평균 점수의 차이는 없고, 분포의 경향을 나타내는 분산에 대한 차이가 있다.

<표 7-6-1-1> 4·3문제 공약 수와 비율의 차이분석

구분	빈도	공약 수					공약 비율				
		평균	Levene's Test		t-test		평균	Levene's Test		t-test	
			F	Sig	t	Sig		F	Sig	t	Sig
당선	62	0.13	5.279	0.023	1.194	0.234	0.79	8.709	0.004	1.506	0.134
낙선	116	0.01					0.29				

4·3문제 관련 공약의 ‘단어 수’와 ‘단어 비율’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단어 수’의 경우는 평균에 대한 차이분석에서도 유의도가 0.05에 가까움으로써 평균 점수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선된 그룹의

경우 평균 0.39개의 4·3관련 공약을 제시한 반면 낙선 그룹에서는 0.10개의 4·3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단어 비율에서는 당선된 그룹의 비율이 높아 0.76%를 나타낸 반면 낙선된 그룹의 경우는 0.35%를 나타냈다.

이는 당선된 그룹이 낙선된 그룹 보다 공약을 제시할 때 4·3문제 관련 단어를 보다 많이 사용했다고 할 수 있다.

<표 7-6-1-2> 4·3문제 공약에 사용된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의 차이분석

구분	빈도	단어 수					단어 비율				
		평균	Levene's Test		t-test		평균	Levene's Test		t-test	
			F	Sig	t	Sig		F	Sig	t	Sig
당선	62	0.39	15.593	0.000	1.956	0.052	0.76	4.740	0.031	1.146	0.253
낙선	116	0.10					0.35				

□ 정치·행정·재정분야 공약 차이분석

정치·행정·재정 관련 ‘공약 수’와 비율의 경우 당선과 낙선 그룹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선이 62명이며, 낙선이 116명이지만 그 평균에 있어서는 ‘공약 수’의 경우 당선 그룹이 1.40점이고 낙선 그룹이 1.33점으로 큰 차이가 없다. 반면 ‘공약 비율’에서는 낙선 그룹이 보다 높은 10.72% 보다 10.99%를 기록하고 있다.

<표 7-6-1-3> 정치·행정·재정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의 차이분석

구분	빈도	공약 수					공약 비율				
		평균	Levene's Test		t-test		평균	Levene's Test		t-test	
			F	Sig	t	Sig		F	Sig	t	Sig
당선	62	1.40	0.002	0.968	0.247	0.805	10.72	0.712	0.400	-0.128	0.898
낙선	116	1.33					10.99				

정치·행정·재정 관련 공약에 사용된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분석에서는 당선 그룹과 낙선 그룹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낙선 그룹이 ‘단어 수’가 2.98점으로 당선 그룹 보다 더 높고, 비율

에서도 낙선 그룹이 10.61%로 당선 그룹 10.31%보다 더 높다.

따라서 정치·행정·재정 관련 공약을 적게하는 것이 당선에 보탬이 된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분석은 정치·행정·재정 관련 공약을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평가하기 보다는 후보자들이 추상적인 내용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작은 점수를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7-6-1-4> 정치·행정·재정 관련 공약에 사용된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의 차이분석

구분	빈도	단어 수				단어 비율					
		평균	Levene's Test		t-test		평균	Levene's Test		t-test	
			F	Sig	t	Sig		F	Sig	t	Sig
당선	62	2.89	0.746	0.389	-0.151	0.880	10.31	0.216	0.643	-0.143	0.886
낙선	116	2.98					10.61				

□ 1차산업 공약 차이분석

1차산업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의 비율’ 분석에서는 당선과 낙선 그룹간의 차이가 없지만 당선 그룹이 ‘공약 수’나 ‘공약 비율’이 낙선 그룹의 ‘공약 수’나 ‘공약 비율’보다 높았다.

<표 7-6-1-5> 1차산업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의 차이분석

구분	빈도	공약 수				공약 비율					
		평균	Levene's Test		t-test		평균	Levene's Test		t-test	
			F	Sig	t	Sig		F	Sig	t	Sig
당선	62	1.76	2.430	0.121	0.797	0.426	10.60	1.150	0.285	0.251	0.802
낙선	116	1.45					10.10				

그러나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 분석에서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다. 물론 당선그룹과 낙선 그룹간의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지만 ‘단어 수의 비율’의 경우는 ‘공약 수의 비율’과 다르게 낙선 그룹이 평균 비율이 높았다. 당선 그룹의 경우 1차산업 관련 ‘단어 수의 비율’이 10.87%인 것에 비해 낙선 그룹의 ‘단어 수의 비율’은 12.08%였다.

<표 7-6-1-6> 1차산업 관련 공약에 사용된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의 차이분석

구분	빈도	단어 수					단어 비율				
		평균	Levene's Test		t-test		평균	Levene's Test		t-test	
			F	Sig	t	Sig		F	Sig	t	Sig
당선	62	3.74	0.405	0.525	0.001	0.999	10.87	0.581	0.447	-0.574	0.567
낙선	116	3.74					12.08				

□ 감귤산업 공약 차이분석

감귤산업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 분석에서는 수와 비율간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당선 그룹과 낙선 그룹간에 분산과 평균 점수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공약 수’의 경우 당선 그룹의 평균 점수가 0.34점으로 0.31점 보다 조금 높은 반면, ‘공약 수의 비율’에서는 낙선 그룹이 2.16%로 1.43%보다 조금 높았다.

<표 7-6-1-7> 감귤산업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의 차이분석

구분	빈도	공약 수					공약 비율				
		평균	Levene's Test		t-test		평균	Levene's Test		t-test	
			F	Sig	t	Sig		F	Sig	t	Sig
당선	62	0.34	0.126	0.723	0.195	0.846	1.43	5.240	0.023	-1.034	0.302
낙선	116	0.31					2.16				

감귤산업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의 비율’ 분석에서도 ‘공약 수’와 ‘공약 수의 비율’분석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단어 수’의 경우 당선 그룹이 0.82점으로 낙선 그룹 0.65점 보다 높다. 그러나 비율 분석에서 보면 당선 그룹이 1.85%이며, 낙선 그룹이 2.30%로 낙선 그룹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7-6-1-8> 감귤산업 공약에 사용된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의 차이분석

구분	빈도	단어 수					단어 비율				
		평균	Levene's Test		t-test		평균	Levene's Test		t-test	
			F	Sig	t	Sig		F	Sig	t	Sig
당선	62	0.82	3.024	0.084	0.787	0.432	1.85	1.626	0.204	-0.718	0.474
낙선	116	0.65					2.30				

□ 지역경제 · 개발분야 공약 차이분석

지역(도시)경제 · 개발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의 비율’은 당선 그룹과 낙선 그룹간의 차이가 없었다. ‘공약 수’의 경우는 당선 그룹이 3.03점으로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공약 비율’에서는 낙선그룹의 비율이 22.71%로 높게 나타났다.

‘공약 수’와 ‘공약 비율’이 어느 분야 보다도 가장 높았다는 것이 특이사항이다. 공약 수의 경우 당선자의 경우 평균 3개 제시했으며, 그 비율도 전체 공약 내용 중 20% 이상이다.

<표 7-6-1-9> 지역(도시)경제 · 개발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의 차이분석

구분	빈도	공약 수					공약 비율				
		평균	Levene's Test		t-test		평균	Levene's Test		t-test	
			F	Sig	t	Sig		F	Sig	t	Sig
당선	62	3.03	2.760	0.098	1.413	0.160	21.52	1.695	0.195	-0.451	0.653
낙선	116	2.47					22.71				

지역(도시)경제 · 개발 관련 공약에 대한 ‘단어 수’와 ‘단어 수의 비율’분석 결과 당선과 낙선 그룹간에 ‘단어 수’와 ‘단어 수의 비율’의 차이는 없다. ‘공약 수’와 ‘공약 수의 비율’분석에서 나타나듯이 ‘단어 수’를 중심으로 보면 당선 그룹이 평균 4.81점으로 4.81개의 ‘단어 수’를 사용했는데 그 비율 측면에서 보면 큰 차이는 없지만 낙선 그룹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표 7-6-1-10>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공약에 사용된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의 차이분석

구분	빈도	단어 수					단어 비율				
		평균	Levene's Test		t-test		평균	Levene's Test		t-test	
			F	Sig	t	Sig		F	Sig	t	Sig
당선	62	4.81	0.818	0.367	1.353	0.178	15.50	0.810	0.369	-0.033	0.974
낙선	116	3.87					15.57				

□ 교육분야 공약 차이분석

교육분야 ‘공약 수’와 ‘공약 수의 비율’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선 그룹이 낙선 그룹보다 ‘공약 수’의 평균 점수와 ‘공약 비율’의 평균 점수가 높았다. ‘공약 수’의 평균 점수에서는 당선 그룹이 0.92점으로 당선자들은 거의 1개 정도을 공약은 발표한 반면, 낙선자들은 2명중 1명만 교육분야 공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차이분석에서도 ‘공약 수’와 관련하여 당선 그룹과 낙선 그룹간에 평균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49) ‘공약수의 비율’의 경우는 평균 점수에서 큰 차이가 없지만 분산분석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6-1-11> 교육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의 차이분석

구분	빈도	공약 수					공약 비율				
		평균	Levene's Test		t-test		평균	Levene's Test		t-test	
			F	Sig	t	Sig		F	Sig	t	Sig
당선	62	0.92	3.576	0.060	1.983	0.049	5.93	4.081	0.045	1.794	0.075
낙선	116	0.56					4.03				

교육 관련 공약의 ‘단어 수’와 ‘단어 수의 비율’에서는 당선 그룹과 낙선 그룹간에 차이가 없다. 그러나 평균 점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단어 수’와 ‘단어 수의 비율’에서 당선 그룹이 낙선 그룹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당선자가 교육 관련 공약을 보다 많이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단어 수’의 경우 당선자 그룹이 1.24점을 기록했고, 낙선자 그룹은 0.84점을

얻었다. ‘단어 수의 비율’에서는 당선 그룹이 평균 3.64%이며, 낙선 그룹이 2.49%이다.

<표 7-6-1-12> 교육 관련 공약에 사용된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의 차이분석

구분	빈도	단어 수					단어 비율				
		평균	Levene's Test		t-test		평균	Levene's Test		t-test	
			F	Sig	t	Sig		F	Sig	t	Sig
당선	62	1.24	2.128	0.146	1.501	0.135	3.64	2.495	0.116	1.459	0.146
낙선	116	0.84					2.49				

□ 사회·복지분야 공약 차이분석

사회·복지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의 비율’에서 당선 그룹과 낙선 그룹과의 차이는 없다. 공약 수의 평균 점수는 당선 그룹이 높았으나 비율면에서는 평균 점수가 낙선 그룹이 높게 나타났다.

<표 7-6-1-13> 사회·복지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의 차이분석

구분	빈도	공약 수					공약 비율				
		평균	Levene's Test		t-test		평균	Levene's Test		t-test	
			F	Sig	t	Sig		F	Sig	t	Sig
당선	62	2.02	0.171	0.679	0.738	0.462	13.74	2.378	0.125	-0.361	0.718
낙선	116	1.79					14.47				

사회·복지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의 비율’에서도 당선 그룹과 낙선 그룹간에 차이는 없다. 평균 점수에서는 당선 그룹이 4.95점으로 높은 반면 그 비율에서는 낙선 그룹이 17.25%로 높았다.

<표 7-6-1-14> 사회·복지 관련 공약에 사용된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의 차이분석

구분	빈도	단어 수					단어 비율				
		평균	Levene's Test		t-test		평균	Levene's Test		t-test	
			F	Sig	t	Sig		F	Sig	t	Sig
당선	62	4.95	0.001	0.978	0.669	0.504	15.56	2.118	0.147	-0.772	0.441
낙선	116	4.48					17.25				

□ 문화·예술·체육분야 공약 차이분석

문화·예술·체육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의 비율’ 분석에서는 당선 그룹과 낙선 그룹간의 차이가 없다. 특이한 사항은 <표 7-6-1-15>와 <표 7-6-1-16>에서 보여지고 있듯이 ‘단어 수’와 ‘단어 수의 비율’분석과 함께 ‘공약 수’나 ‘단어 수’, ‘공약 수의 비율’과 ‘단어 수의 비율’ 모두 낙선자 그룹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아직까지 당선 그룹의 문화·예술·체육 관련 공약 비중이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7-6-1-15> 문화·예술·체육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의 차이분석

구분	빈도	공약 수					공약 비율				
		평균	Levene's Test		t-test		평균	Levene's Test		t-test	
			F	Sig	t	Sig		F	Sig	t	Sig
당선	62	0.68	0.013	0.910	-0.248	0.805	4.17	3.963	0.048	-0.168	0.244
낙선	116	0.72					5.57				

<표 7-6-1-16> 문화·예술·체육 관련 공약에 사용된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의 차이분석

구분	빈도	단어 수					단어 비율				
		평균	Levene's Test		t-test		평균	Levene's Test		t-test	
			F	Sig	t	Sig		F	Sig	t	Sig
당선	62	1.56	0.022	0.883	-0.154	0.878	4.04	3.949	0.048	-1.558	0.121
낙선	116	1.62					5.62				

□ 여성분야 공약 차이분석

여성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의 비율’은 당선그룹과 낙선 그룹간에 차이가 없다. ‘공약 수’의 평균 점수에서는 0.42점과 0.41점으로 거의 같게 나타나고 있다. ‘공약 비율’도 마찬가지로 낙선 그룹이 조금 높지만 2.37%와 2.79%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7-6-1-17> 여성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의 차이분석

구분	빈도	공약 수				공약 비율					
		평균	Levene's Test		t-test		평균	Levene's Test		t-test	
			F	Sig	t	Sig		F	Sig	t	Sig
당선	62	0.42	0.000	0.987	0.109	0.914	2.37	1.434	0.233	-0.485	0.628
낙선	116	0.41					2.79				

여성 관련 공약의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의 경우도 당선 그룹과 낙선 그룹간에 차이가 없다. ‘단어 수’의 평균 점수는 당선 그룹이 높았으나 비율에서는 낙선 그룹이 높게 나타났다. 통계적으로도 차이가 없고 ‘단어 수’와 ‘단어 수의 비율’에서도 일정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지 않아 당선자의 여성 관련 공약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7-6-1-18> 여성 관련 공약의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의 차이분석

구분	빈도	단어 수				단어 비율					
		평균	Levene's Test		t-test		평균	Levene's Test		t-test	
			F	Sig	t	Sig		F	Sig	t	Sig
당선	62	1.24	1.058	0.305	0.977	0.330	3.31	0.820	0.367	-0.108	0.914
낙선	116	0.91					3.43				

□ 관광분야 공약 차이분석

관광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의 비율’과 관련하여 당선 그룹과 낙선 그룹간에 차이가 없다. 그리고 ‘공약 수’의 평균 점수는 당선 그룹이 0.69점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공약 비율’의 측면에서는 당선 그룹이 4.52%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분석해도 관광과 관련하여 당선그룹과 낙선그룹간의 차별적인 특징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7-6-1-19> 관광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의 차이분석

구분	빈도	공약 수				공약 비율					
		평균	Levene's Test		t-test		평균	Levene's Test		t-test	
			F	Sig	t	Sig		F	Sig	t	Sig
당선	62	0.69	0.459	0.499	0.568	0.571	4.52	0.128	0.721	-0.021	0.983
낙선	116	0.59					4.55				

관광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의 비율' 분석에서도 당선 그룹과 낙선 그룹 간의 차이는 없다.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볼 때 '단어 수'에 있어서는 당선 그룹이 2.48점으로 낙선 그룹 1.95점 보다 높았다. 반면 '단어 수 비율'점수에서는 낙선 그룹이 당선 그룹 보다 점수가 높아 6.38%를 기록했다.

<표 7-6-1-20> 관광 관련 공약에 사용된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의 차이분석

구분	빈도	단어 수				단어 비율					
		평균	Levene's Test		t-test		평균	Levene's Test		t-test	
			F	Sig	t	Sig		F	Sig	t	Sig
당선	62	2.48	5.066	0.026	1.074	0.284	6.18	0.029	0.864	-0.163	0.871
낙선	116	1.95					6.38				

□ 교통분야 공약 차이분석

교통 관련 공약에 있어서는 당선 그룹이 낙선 그룹 보다 '공약 수'와 '공약 비율'에서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차이분석에서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약 수'의 경우 분산에서의 차이를 나타냈다.

'공약 수'의 경우 당선 그룹인 경우 1.77점으로 낙선 그룹 1.35보다 높게 나타났다. '공약 비율'에서는 당선 그룹이 13.49%로 낙선 그룹 12.05%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7-6-1-21> 교통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의 차이분석

구분	빈도	공약 수					공약 비율				
		평균	Levene's Test		t-test		평균	Levene's Test		t-test	
			F	Sig	t	Sig		F	Sig	t	Sig
당선	62	1.77	4.794	0.030	1.893	0.060	13.49	0.075	0.785	0.780	0.437
낙선	116	1.35					12.05				

교통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의 비율’ 분석에서도 평균 점수에 관한 앞의 ‘공약 수’와 ‘공약 수의 비율’ 분석에서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단어 수’에서는 1개 이상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당선 그룹이 4.50점인 반면 낙선 그룹은 3.22점이었다. 그리고 분산에서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유의도 0.042), 평균을 기준으로 한 차이분석에서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유의도 0.025)

‘단어 수의 비율’에서는 차이가 통계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당선 그룹의 경우가 15.38%이며, 낙선 그룹이 12.89%로서 당선그룹이 높게 나타났다.

<표 7-6-1-22> 교통 관련 공약에 사용된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의 차이분석

구분	빈도	단어 수					단어 비율				
		평균	Levene's Test		t-test		평균	Levene's Test		t-test	
			F	Sig	t	Sig		F	Sig	t	Sig
당선	62	4.50	4.177	0.042	2.261	0.025	15.38	0.492	0.484	1.255	0.211
낙선	116	3.22					12.89				

□ 환경분야 공약 차이분석

환경 관련 ‘공약 수’와 관련하여서는 당선 그룹과 낙선 그룹간에 분산과 평균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유의도 0.023과 0.043) 반면 ‘공약 수’의 비율에서는 두 그룹간에 통계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평균 점수로 보았을 때는 당선 그룹이 ‘공약 수’의 경우 1.52로 높게 나타났다으며, ‘공약 수의 비율’에서도 당선 그룹이 9.48%, 낙선 그룹이 8.39%로 당선 그룹이 높게 나타났다.

<표 7-6-1-23> 환경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의 차이분석

구분	빈도	공약 수					공약 비율				
		평균	Levene's Test		t-test		평균	Levene's Test		t-test	
			F	Sig	t	Sig		F	Sig	t	Sig
당선	62	1.52	4.899	0.028	2.403	0.043	9.48	3.638	0.058	0.849	0.397
낙선	116	1.08					8.39				

환경 관련 '단어 수'와 관련한 분석에서는 당선 그룹과 낙선 그룹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05) 평균 점수에서는 당선 그룹이 3.94점으로 낙선 그룹 2.49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단어 수의 비율'에서는 평균 점수는 12.06%와 9.49%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이는 당선 그룹의 비율이 높음을 의미할 뿐 통계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유의도 0.098)

<표 7-6-1-24> 환경 관련 공약에 사용된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의 차이분석

구분	빈도	단어 수					단어 비율				
		평균	Levene's Test		t-test		평균	Levene's Test		t-test	
			F	Sig	t	Sig		F	Sig	t	Sig
당선	62	3.94	3.245	0.073	2.854	0.005	12.06	1.615	0.205	1.663	0.098
낙선	116	2.49					9.49				

□ 정보화 분야 공약 차이분석

정보화 관련 '공약 수'를 중심으로 당선 그룹과 낙선 그룹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평균 점수에서는 평균 0.01로 같고 통계적으로도 차이가 없지만 분산분석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021). '공약 수의 비율'에서는 낙선 그룹이 0.22%로 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22%로 아주 작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7-6-1-25> 정보화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의 차이분석

구분	빈도	공약 수					공약 비율				
		평균	Levene's Test		t-test		평균	Levene's Test		t-test	
			F	Sig	t	Sig		F	Sig	t	Sig
당선	62	0.01	5.466	0.021	0.152	0.251	0.13	0.301	0.584	-0.268	0.789
낙선	116	0.01					0.22				

정보화 관련 단어 수의 분석에서도 평균 0.01점으로 당선 그룹과 낙선 그룹 간에 같게 나타나고 있다. ‘단어 수’의 비율에서는 낙선 그룹이 0.59%로 조금 높게 나타났으나 ‘단어 수’와 ‘단어 수의 비율’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6-1-26> 정보화 관련 공약에 사용된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의 차이분석

구분	빈도	단어 수					단어 비율				
		평균	Levene's Test		t-test		평균	Levene's Test		t-test	
			F	Sig	t	Sig		F	Sig	t	Sig
당선	62	0.01	0.009	0.923	-0.069	0.945	0.13	3.159	0.077	-0.094	0.367
낙선	116	0.01					0.59				

□ 감귤정책의 경향성 차이분석

후보자들의 공약이 감귤정책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표한 내용과 생산조정제와 같이 관주도의 통제위주 정책이 필요하다고 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당선과 낙선 그룹간에 차이가 없다. 특이한 것은 가운데 점수가 30점인데 양 그룹 모두 30점에 가까워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표 7-6-1-27> 감귤정책의 자율과 관주도 선호경향 차이분석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Levene's Test		t-test	
				F	Sig	t	Sig
당선	62	30.56	7.25	0.146	0.703	0.609	0.543
낙선	116	29.87	7.24				

□ 환경정책의 경향성 차이분석

환경분야와 관련하여 공약을 환경보존 위주의 정책과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분석한 결과 당선 그룹과 낙선 그룹간에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다.(유의도 0.839)

그렇지만 평균 점수를 분석할 때 약하지만 낙선 그룹이 당선 그룹 보다 환경보존 위주의 정책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6-1-28> 환경보존위주와 개발위주 선호경향 차이분석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Levene's Test		t-test	
				F	Sig	t	Sig
당선	62	28.21	8.00	0.142	0.706	0.191	0.849
낙선	116	27.96	8.62				

□ 교통정책의 경향성 차이분석

공약을 교통정책이 차량중심 위주의 교통정책인가 사람중심 선호 경향인가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당선 그룹과 낙선 그룹간에 평균에는 차이가 없지만 분산분석에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유의도 0.043)

그리고 당선 그룹과 낙선 그룹 모두 평균 점수가 26.75점과 27.24점으로 나타나 당선과 낙선 그룹 관계없이 교통정책공약이 차량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6-1-29> 교통정책의 차량중심과 사람중심 선호경향 차이분석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Levene's Test		t-test	
				F	Sig	t	Sig
당선	62	26.75	13.94	4.173	0.043	-.252	0.802
낙선	116	27.24	11.81				

□ 공약의 구체성 차이분석

공약이 선언적 내용인지, 구체적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당선 그룹과 낙선 그룹간에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다. 낙선 그룹의 평균 점수(32.62)가 당선 그룹의 평균 점수(34.05)보다 낮아 낙선 그룹의 공약이 당선 그룹의 공약 보다는 구체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6-1-30> 공약의 선언적 내용과 구체적 내용 경향 차이분석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Levene's Test		t-test	
				F	Sig	t	Sig
당선	62	34.05	8.61	0.042	0.837	1.080	0.282
낙선	116	32.62	8.59				

□ 공약의 총계 차이분석

공약 관련 '단어의 총 수'와 '공약의 총 수'에 대해 당선 그룹과 낙선 그룹간의 차이분석을 실시했다. 통계적으로는 두 그룹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볼 때 당선 그룹이 '단어의 총 수'나 '공약의 총 수'에서 높게 나타났다. 즉 당선 그룹이 공약의 단어 수가 많았고, 공약의 수도 많았다.

'단어의 총 수'에서 당선 그룹은 평균 32.00개의 단어를 사용했고, 낙선 그룹은 평균 26.74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공약의 총 수'에서 당선 그룹은 14.63개의 공약을 발표한 반면, 낙선 그룹은 평균 12.12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표 7-6-1-31> '단어의 총 수'와 '공약의 총 수' 차이분석

구분	빈도	단어의 총수					공약의 총수				
		평균	Levene's Test		t-test		평균	Levene's Test		t-test	
			F	Sig	t	Sig		F	Sig	t	Sig
당선	62	32.00	2.295	0.132	1.481	0.140	14.63	2.067	0.152	1.605	0.110
낙선	116	26.74					12.12				

6-2. 6.4선거 공약 차이분석

전체적으로 볼 때 6.4선거시 당선자와 낙선자 그룹간에 분야별 ‘공약의 수’나 ‘단어의 수’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4·3문제 ‘공약 수’와 ‘단어 수’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 관련 ‘단어 비율’, 사회·복지 관련 ‘단어 비율’, 정보화 관련 ‘단어 수’의 경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3문제 공약 차이분석

4·3문제와 관련한 공약에서는 당선 그룹과 낙선 그룹간에 ‘공약 수’분석의 경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분산에서 차이가 남. 유의도 0.003) ‘공약 수’의 비율에서는 차이가 없다.

당선 그룹의 경우 평균이 0.27개의 공약을 발표했는데 낙선 그룹의 경우 평균 0.10개의 공약만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6-2-1> 4·3문제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의 차이분석

구분	빈도	공약 수					공약 비율				
		평균	Levene's Test		t-test		평균	Levene's Test		t-test	
			F	Sig	t	Sig		F	Sig	t	Sig
당선	49	0.27	8.862	0.003	1.481	0.141	1.99	1.556	0.215	0.679	0.498
낙선	79	0.10					1.29				

4·3문제 관련 ‘단어 수’와 ‘단어 수의 비율’분석에서는 ‘단어 수’의 경우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단어 수의 비율’에서는 당선 그룹과 낙선 그룹간에 차이가 없다.

평균 점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당선 그룹은 0.51개의 관련 단어를 사용했고 낙선 그룹은 평균 0.20개의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6-2-2> 4·3문제 공약에 사용된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의 차이분석

구분	빈도	단어 수					단어 비율				
		평균	Levene's Test		t-test		평균	Levene's Test		t-test	
			F	Sig	t	Sig		F	Sig	t	Sig
당선	49	0.51	9.526	0.002	1.506	0.135	1.60	0.935	0.336	0.542	0.589
낙선	79	0.20					1.14				

□ 정치·행정·재정분야 공약 차이분석

정치·행정·재정 관련 ‘공약 수’의 경우는 당선과 낙선그룹 똑 같이 평균 1.59개 이다. ‘공약의 비율’도 비슷하여 당선 그룹이 12.98%이며, 낙선 그룹은 13.80%이다. 통계적으로도 두 그룹은 차이가 없다.

<표 7-6-2-3> 정치·행정·재정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의 차이분석

구분	빈도	공약 수					공약 비율				
		평균	Levene's Test		t-test		평균	Levene's Test		t-test	
			F	Sig	t	Sig		F	Sig	t	Sig
당선	49	1.59	0.184	0.668	-0.008	0.994	12.98	0.100	0.752	-0.278	0.782
낙선	79	1.59					13.80				

정치·행정·재정 관련 ‘단어 수’의 경우는 당선 그룹이 평균 2.92개이며, 낙선그룹이 평균 2.70개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통계적으로도 차이가 없다. ‘단어 수 비율’의 평균도 큰 차이가 없으며, 통계적으로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6-2-4> 정치·행정·재정 관련 공약에 사용된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의 차이분석

구분	빈도	단어 수					단어 비율				
		평균	Levene's Test		t-test		평균	Levene's Test		t-test	
			F	Sig	t	Sig		F	Sig	t	Sig
당선	49	2.92	0.763	0.384	0.324	0.746	12.88	1.638	0.203	0.334	0.739
낙선	79	2.70					11.94				

□ 1차산업 공약 차이분석

1차산업과 관련해서 당선 그룹과 낙선 그룹간에 ‘공약 수’의 차이는 거의 없다.(유의도 0.872) 평균 ‘공약 수’도 비슷하여 당선 그룹이 1.71개, 낙선 그룹이 1.62개이다. ‘공약 수 비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당선 그룹과 낙선 그룹간에 차이가 없다.(유의도 0.819)

<표 7-6-2-5> 1차산업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의 차이분석

구분	빈도	공약 수					공약 비율				
		평균	Levene's Test		t-test		평균	Levene's Test		t-test	
			F	Sig	t	Sig		F	Sig	t	Sig
당선	49	1.71	0.008	0.931	0.161	0.872	11.33	0.918	0.340	-0.230	0.819
낙선	79	1.62					12.08				

1차산업 관련 당선 그룹과 낙선 그룹간에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에 차이가 없다. ‘단어 수’를 평균 점수 기준으로 분석할 때 낙선 그룹이 보다 많았다. 낙선 그룹의 ‘단어 수’는 평균 3.40개인 반면 당선 그룹의 ‘단어 수’는 2.94개이다.

<표 7-6-2-6> 1차산업 관련 공약에 사용된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의 차이분석

구분	빈도	단어수					단어비율				
		평균	Levene's Test		t-test		평균	Levene's Test		t-test	
			F	Sig	t	Sig		F	Sig	t	Sig
당선	49	2.94	1.118	0.292	-0.430	0.668	12.45	0.059	0.808	0.236	0.814
낙선	79	3.40					11.70				

□ 감귤산업 공약 차이분석

감귤산업 관련 당선과 낙선 그룹간의 ‘공약 수’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546) 평균에서도 당선 그룹과 낙선 그룹의 ‘공약 수’는 비슷하여 당선 그룹이 0.69개이며, 낙선 그룹의 ‘공약 수’도 0.58개로 비슷했다.

‘공약 수 비율’의 경우 당선 그룹 보다 낙선 그룹에서가 더 많았다. 낙선 그

룹의 경우 ‘공약 수 비율’은 9.41%인 반면 당선 그룹의 ‘공약 수 비율’은 6.58%였다.

<표 7-6-2-7> 감귤산업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의 차이분석

구분	빈도	공약 수					공약 비율				
		평균	Levene's Test		t-test		평균	Levene's Test		t-test	
			F	Sig	t	Sig		F	Sig	t	Sig
당선	49	0.69	0.213	0.645	0.605	0.546	6.58	1.968	0.163	-0.408	0.684
낙선	79	0.58					9.41				

감귤산업 관련 당선 그룹과 낙선 그룹간의 공약에 포함하는 ‘단어 수’는 큰 차이가 없다.(유의도 0.543) 평균에서도 당선 그룹이 1.33개이며, 낙선 그룹도 1.13개이다. ‘단어 수 비율’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마찬가지이다. 두 그룹간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유의도 0.890) 평균도 비슷하여 당선 그룹은 4.81%, 낙선그룹은 4.99%이다.

<표 7-6-2-8> 감귤산업 관련 공약에 사용된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의 차이분석

구분	빈도	단어 수					단어 비율				
		평균	Levene's Test		t-test		평균	Levene's Test		t-test	
			F	Sig	t	Sig		F	Sig	t	Sig
당선	49	1.33	0.656	0.420	0.610	0.543	4.81	0.408	0.524	-0.139	0.890
낙선	79	1.13					4.99				

□ 지역경제 · 개발분야 공약 차이분석

지역(도시)경제 · 개발 관련 ‘공약 수’에서 당선 그룹과 낙선 그룹간의 차이는 없다.(유의도 0.659) 평균에서도 차이가 별로 없다. 당선 그룹이 2.31개, 낙선그룹이 2.14개이다. ‘공약 수 비율’의 경우도 두 그룹간에 차이가 없었지만 평균에서는 당선 그룹이 다소 높았다. 당선 그룹이 ‘공약 수 비율’은 20.49%인 반면 낙선 그룹의 ‘공약 수 비율’은 19.22%로 나타났다.

<표 7-6-2-9>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의 차이분석

구분	빈도	공약 수					공약 비율				
		평균	Levene's Test		t-test		평균	Levene's Test		t-test	
			F	Sig	t	Sig		F	Sig	t	Sig
당선	49	2.31	0.795	0.374	0.443	0.659	20.49	0.611	0.436	0.379	0.705
낙선	79	2.14					19.22				

당선 그룹과 낙선 그룹간에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단어 수’는 큰 차이가 없다.(유의도 0.626) 낙선 그룹이 3.72개를 제시했으며, 당선 그룹이 3.12개를 제시했다. ‘단어 수 비율’에서는 ‘단어 수’의 경우와는 역으로 당선 그룹이 높다. 당선 그룹의 공약에서 지역(도시)경제·개발관련 단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13.94%이며, 낙선 그룹은 12.55%였다.

<표 7-6-2-10> 지역(도시)경제·개발 관련 공약에 사용된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의 차이분석

구분	빈도	단어 수					단어 비율				
		평균	Levene's Test		t-test		평균	Levene's Test		t-test	
			F	Sig	t	Sig		F	Sig	t	Sig
당선	49	3.12	0.418	0.519	-0.489	0.626	13.94	1.300	0.256	0.646	0.519
낙선	79	3.72					12.55				

□ 교육분야 공약 차이분석

당선 그룹과 낙선 그룹의 교육 관련 ‘공약 수’는 차이가 없다.(유의도 0.769) 평균에서도 비슷하여 당선 그룹의 평균 ‘공약 수’는 0.76개이며, 낙선 그룹의 평균 ‘공약 수’는 0.69개이다. ‘공약 수의 비율’에서도 차이는 없다.(유의도 0.815) 비율의 평균을 보면, 당선 그룹의 공약에서 교육 관련 공약이 차지하는 비율이 4.63%이며, 낙선 그룹의 공약은 4.31%로 비슷하다.

<표 7-6-2-11> 교육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의 차이분석

구분	빈도	공약 수					공약 비율				
		평균	Levene's Test		t-test		평균	Levene's Test		t-test	
			F	Sig	t	Sig		F	Sig	t	Sig
당선	49	0.76	0.400	0.528	0.294	0.769	4.63	0.158	0.692	0.235	0.815
낙선	79	0.69					4.31				

당선 그룹과 낙선 그룹의 교육 관련 공약에 사용된 ‘단어 수’의 차이는 없다.(유의도 0.730) ‘단어 수’의 평균 점수도 비슷하여 당선 그룹의 경우 1.18개이며, 낙선 그룹의 경우 1.01개이다.

‘단어 수 비율’은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Levene's Test의 유의도 0.001) 당선 그룹에서 교육 관련 공약이 차지하는 비율은 4.13%인 반면 낙선 그룹에서 교육 관련 공약이 차지하는 비율은 2.37%이다. 당선 그룹의 경우가 낙선 그룹의 경우 보다 교육 관련 ‘공약의 비율’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표 7-6-2-12> 교육 관련 공약에 사용된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의 차이분석

구분	빈도	단어 수					단어 비율				
		평균	Levene's Test		t-test		평균	Levene's Test		t-test	
			F	Sig	t	Sig		F	Sig	t	Sig
당선	49	1.18	0.140	0.709	0.346	0.730	4.13	12.695	0.001	1.794	0.075
낙선	79	1.01					2.37				

□ 사회·복지분야 공약 차이분석

당선자와 낙선자 그룹간에 사회·복지 관련 ‘공약 수’를 비교한 결과 큰 차이는 없다.(유의도 0.701) 당선 그룹의 평균 ‘공약 수’는 1.88개이며, 낙선 그룹의 평균 ‘공약 수’는 2.12개이다. 그러나 ‘공약 수의 비율’에서는 당선 그룹이 다소 많아서 12.99%를 나타냈고, 낙선 그룹은 12.32%를 나타냈다.

<표 7-6-2-13> 사회·복지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의 차이분석

구분	빈도	공약 수					공약 비율				
		평균	Levene's Test		t-test		평균	Levene's Test		t-test	
			F	Sig	t	Sig		F	Sig	t	Sig
당선	49	1.88	0.381	0.538	-0.385	0.701	12.99	1.035	0.311	0.315	0.753
낙선	79	2.12					12.32				

당선 그룹과 낙선 그룹간에 사회·복지 관련 공약에 사용된 ‘단어 수’는 거의 차이가 없다.(유의도 0.988) 평균도 비슷하여 당선 그룹의 평균 ‘단어 수’는 3.69개인 반면 낙선 그룹의 평균 ‘단어 수’는 3.68개이다. ‘공약 수의 비율’의 경우는 다소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Levene's Test의 유의도 0.020). 당선 그룹의 평균 ‘단어 수의 비율’은 15.16%이며, 낙선 그룹의 평균 ‘단어 수의 비율’은 14.22%로 당선 그룹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7-6-2-14> 사회·복지 관련 공약에 사용된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의 차이분석

구분	빈도	단어수					단어비율				
		평균	Levene's Test		t-test		평균	Levene's Test		t-test	
			F	Sig	t	Sig		F	Sig	t	Sig
당선	49	3.69	0.206	0.651	0.015	0.988	15.16	5.543	0.020	0.390	0.697
낙선	79	3.68					14.22				

□ 문화·예술·체육분야 공약 차이분석

당선 그룹과 낙선 그룹간에 문화·예술·체육 관련 ‘공약 수’의 차이는 없다.(유의도 0.430) 당선 그룹의 평균 ‘공약 수’는 0.82개이며, 낙선 그룹의 평균 ‘공약 수’는 0.64개이다. ‘공약 수의 비율’의 경우도 두 그룹간에 차이는 없다.(유의도 0.503) 평균에서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지만 당선 그룹의 ‘공약 수의 비율’이 다소 높아서 5.01%였으며, 낙선 그룹의 평균 ‘공약 수의 비율’은 4.11%이다.

<표 7-6-2-15> 문화·예술·체육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의 차이분석

구분	빈도	공약 수					공약 비율				
		평균	Levene's Test		t-test		평균	Levene's Test		t-test	
			F	Sig	t	Sig		F	Sig	t	Sig
당선	49	0.82	1.866	0.174	0.791	0.430	5.01	1.524	0.219	0.672	0.503
낙선	79	0.64					4.11				

당선과 낙선 그룹의 문화·예술·체육 관련 ‘공약 수’는 차이가 없다.(유의도 0.916) 평균에서도 비슷하여 당선 그룹이 평균 1.39개의 단어를 사용했고, 낙선 그룹의 경우는 1.43개의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어 수의 비율’에서도 두 그룹간에 차이는 없으며, 평균도 비슷하다. 당선 그룹의 평균 ‘공약 수의 비율’은 5.01%이며 낙선 그룹의 평균 ‘공약 수의 비율’은 5.19%이다.

<표 7-6-2-16> 문화·예술·체육 관련 공약에 사용된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의 차이분석

구분	빈도	단어 수					단어 비율				
		평균	Levene's Test		t-test		평균	Levene's Test		t-test	
			F	Sig	t	Sig		F	Sig	t	Sig
당선	49	1.39	0.097	0.755	-0.106	0.916	5.01	0.113	0.737	-0.140	0.889
낙선	79	1.43					5.19				

□ 여성분야 공약 차이분석

당선 그룹과 낙선 그룹간 여성 관련 ‘공약 수’는 차이가 없다.(유의도 0.647) 평균도 비슷하여 당선 그룹의 경우 평균 여성 관련 공약 수가 0.55개이며, 낙선자의 여성 관련 공약 수는 평균 0.45개이다. ‘공약 수의 비율’의 경우도 두 그룹간에 차이가 없다.(유의도 0.346) 당선 그룹의 여성 관련 평균 ‘공약 수의 비율’이 다소 높아서 5.70%를 보였다. 낙선 그룹의 여성관련 평균 ‘공약 수’는 4.83%이다.

<표 7-6-2-17> 여성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의 차이분석

구분	빈도	공약 수					공약 비율				
		평균	Levene's Test		t-test		평균	Levene's Test		t-test	
			F	Sig	t	Sig		F	Sig	t	Sig
당선	49	0.55	0.154	0.696	0.458	0.647	5.70	1.528	0.219	0.945	0.346
낙선	79	0.45					4.83				

당선과 낙선간에 여성 관련 공약의 ‘단어 수’는 차이가 없다.(유의도 0.513) 평균 ‘단어 수’는 당선 그룹이 0.98개이며, 낙선 그룹이 0.78개이다. 여성 관련 ‘단어 수의 비율’에서도 두 그룹간에 차이가 없다.(유의도 0.429) 당선 그룹의 여성 관련 평균 ‘단어 수의 비율’은 3.46%이며, 낙선 그룹의 평균 ‘단어 수의 비율’은 2.67%로 비율에서는 당선 그룹이 다소 높다.

<표 7-6-2-18> 여성 관련 공약에 사용된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의 차이분석

구분	빈도	단어 수					단어 비율				
		평균	Levene's Test		t-test		평균	Levene's Test		t-test	
			F	Sig	t	Sig		F	Sig	t	Sig
당선	49	0.98	0.821	0.367	0.656	0.513	3.46	2.469	0.119	0.794	0.429
낙선	79	0.78					2.67				

□ 관광분야 공약 차이분석

당선 그룹과 낙선 그룹간에 관광 관련 ‘공약 수’에서는 차이가 없다.(유의도 0.781) 당선 그룹이 제시한 관광 관련 평균 ‘공약 수’는 1개이며, 낙선 그룹은 0.93개로 비슷하다. ‘공약 수의 비율’에서도 두 그룹간에는 차이가 없다.(유의도 0.487) 당선 그룹이 사용한 평균 ‘공약 수의 비율’은 8.89%이며, 낙선 그룹은 8.18%이다.

<표 7-6-2-19> 관광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의 차이분석

구분	빈도	공약 수					공약 비율				
		평균	Levene's Test		t-test		평균	Levene's Test		t-test	
			F	Sig	t	Sig		F	Sig	t	Sig
당선	49	1.00	3.747	0.055	0.278	0.781	8.89	0.000	0.985	-0.697	0.487
낙선	79	0.93					8.18				

당선 그룹과 낙선 그룹간에 관광과 관련하여 공약에 사용된 ‘단어 수’를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다.(유의도 0.944) 당선 그룹이 사용한 평균 ‘단어 수’는 2.39개이며, 낙선 그룹이 사용한 평균 ‘단어 수’는 2.43개이다. 관광 관련 ‘단어 수의 비율’에서도 차이가 없다.(0.818) 당선 그룹이 사용한 평균 ‘단어 수의 비율’은 8.87%이며, 낙선 그룹이 사용한 평균 ‘단어 수의 비율’은 9.32%이다.

<표 7-6-2-20> 관광 관련 공약에 사용된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의 차이분석

구분	빈도	단어 수					단어 비율				
		평균	Levene's Test		t-test		평균	Levene's Test		t-test	
			F	Sig	t	Sig		F	Sig	t	Sig
당선	49	2.39	0.684	0.410	-0.071	0.944	8.87	0.967	0.327	-0.231	0.818
낙선	79	2.43					9.32				

□ 교통분야 공약 차이분석

당선 그룹과 낙선 그룹간의 교통 관련 ‘공약 수’는 차이가 없다.(유의도 0.886) 당선 그룹이 사용한 교통 관련 평균 ‘공약 수’는 1.24개이며, 낙선 그룹이 사용한 교통 관련 평균 ‘공약 수’는 1.34개이다. 교통 관련 ‘공약 수 비율’에서도 두 그룹간에 차이가 없다.(유의도 0.554) 당선 그룹이 사용한 평균 ‘공약 수 비율’은 8.31%이며, 낙선 그룹이 사용한 평균 ‘공약 수 비율’은 7.20%이다. 비율 측면에서는 당선 그룹이 교통 관련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7-6-2-21> 교통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의 차이분석

구분	빈도	공약 수					공약 비율				
		평균	Levene's Test		t-test		평균	Levene's Test		t-test	
			F	Sig	t	Sig		F	Sig	t	Sig
당선	49	1.24	0.586	0.445	-0.169	0.886	8.31	0.000	0.984	0.594	0.554
낙선	79	1.34					7.20				

당선 그룹과 낙선 그룹간의 교통 관련 ‘단어 수’는 차이가 없다.(유의도 0.970) 당선 그룹이 사용한 교통 관련 평균 ‘단어 수’는 2.67개이며, 낙선 그룹이 사용한 교통 관련 평균 ‘단어 수’는 2.65개로 비슷하다. 교통 관련 ‘단어 수 비율’에서도 두 그룹간에 차이가 없다.(유의도 0.580) 당선 그룹이 사용한 평균 ‘단어 수 비율’은 11.68%이며, 낙선 그룹이 사용한 평균 ‘단어 수 비율’은 10.52%이다. ‘공약 수의 비율’에서 처럼 당선 그룹의 교통 관련 ‘단어 수 비율’이 조금 높다.

<표 7-6-2-22> 교통 관련 공약에 사용된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의 차이분석

구분	빈도	단어 수					단어 비율				
		평균	Levene's Test		t-test		평균	Levene's Test		t-test	
			F	Sig	t	Sig		F	Sig	t	Sig
당선	49	2.67	0.097	0.756	0.038	0.970	11.68	0.064	0.801	0.555	0.580
낙선	79	2.65					10.52				

□ 환경분야 공약 차이분석

당선 그룹과 낙선 그룹간의 환경관련 ‘공약 수’는 차이가 없다.(유의도 0.955) 당선 그룹이 사용한 환경 관련 평균 ‘공약 수’는 1.08개이며, 낙선 그룹의 ‘공약 수’는 1.06개이다. 환경 관련 ‘공약 수 비율’에서도 두 그룹간에 차이가 없다.(유의도 0.974) 당선 그룹이 사용한 환경 관련 평균 ‘공약 수 비율’은 6.62%이며, 낙선 그룹이 사용한 평균 ‘공약 수 비율’은 6.57%로 비슷하다.

<표 7-6-2-23> 환경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의 차이분석

구분	빈도	공약 수				공약 비율					
		평균	Levene's Test		t-test		평균	Levene's Test		t-test	
			F	Sig	t	Sig		F	Sig	t	Sig
당선	49	1.08	0.057	0.812	0.056	0.955	6.62	0.425	0.516	0.032	0.974
낙선	79	1.06					6.57				

당선 그룹과 낙선 그룹간의 환경 관련 '단어 수'는 차이가 없다.(유의도 0.663) 당선 그룹이 사용한 환경 관련 평균 '단어 수'는 2.35개이며, 낙선 그룹이 사용한 '단어 수'는 2.13개로 비슷하다. 환경 관련 '단어 수 비율'에서도 두 그룹간에 차이가 없다.(유의도 0.735) 당선 그룹이 사용한 평균 '단어 수 비율'은 9.16%이고, 낙선 그룹이 '단어 수 비율'은 8.53%이다.

<표 7-6-2-24> 환경 관련 공약에 사용된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의 차이분석

구분	빈도	단어 수				단어 비율					
		평균	Levene's Test		t-test		평균	Levene's Test		t-test	
			F	Sig	t	Sig		F	Sig	t	Sig
당선	49	2.35	1.667	0.198	0.437	0.663	9.16	0.573	0.450	0.339	0.735
낙선	79	2.13					8.53				

□ 정보화 분야 공약 차이분석

당선 그룹과 낙선 그룹간의 정보화 관련 '공약 수'는 차이가 없다.(유의도 0.824) 당선 그룹과 낙선 그룹이 사용한 정보화 관련 평균 '공약 수'는 0.01개로 꼭 같다. 정보화 관련 '공약 수 비율'에서도 두 그룹간에 차이가 없다.(유의도 0.772) 당선 그룹이 사용한 평균 '공약 수 비율'은 0.20%이며, 낙선 그룹이 사용한 평균 '공약수 비율'은 0.26%로 비슷하다.

<표 7-6-2-25> 정보화 관련 ‘공약 수’와 ‘공약 수 비율’의 차이분석

구분	빈도	공약 수					공약 비율				
		평균	Levene's Test		t-test		평균	Levene's Test		t-test	
			F	Sig	t	Sig		F	Sig	t	Sig
당선	49	0.01	0.240	0.625	0.223	0.824	0.20	0.332	0.566	-0.290	0.772
낙선	79	0.01					0.26				

당선 그룹과 낙선 그룹간의 정보화와 관련 ‘단어 수’는 평균 차이는 없지만 분산분석에서 차이가 있다.(Levene's Test의 유의도 0.006) 당선 그룹이 사용한 정보화 관련 평균 ‘단어 수’는 0.47개이며, 낙선 그룹이 사용한 교통 관련 평균 ‘단어 수’는 0.14개로 당선 그룹이 다소 많았다. 정보화 관련 ‘단어 수 비율’에서는 두 그룹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도 0.498) 당선 그룹이 사용한 평균 ‘단어 수 비율’은 0.60%이고, 낙선 그룹이 사용한 평균 ‘단어 수 비율’은 0.36%이다.

<표 7-6-2-26> 정보화 관련 공약에 사용된 ‘단어 수’와 ‘단어 수 비율’의 차이분석

구분	빈도	단어 수					단어 비율				
		평균	Levene's Test		t-test		평균	Levene's Test		t-test	
			F	Sig	t	Sig		F	Sig	t	Sig
당선	49	0.47	7.803	0.006	1.421	0.158	0.60	1.628	0.204	0.679	0.498
낙선	79	0.14					0.36				

□ 감귤정책의 경향성 차이분석

후보자들의 공약이 감귤정책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표한 내용과 생산조정제와 같이 관주도의 통제 위주 정책이 필요하다고 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당선과 낙선 그룹간에 차이가 없다.(유의도 0.470) 그러나 평균 점수로 볼 때 당선 그룹은 29.08점으로서 가운데 점수를 기록한 반면, 낙선 그룹의 경우 자율정책 쪽으로 가야한다는 공약 내용을 발표했다.

<표 7-6-2-27> 감골정책의 자율과 관 주도 선호경향 차이분석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Levene's Test		t-test	
				F	Sig	t	Sig
당선	49	29.08	9.58	0.497	0.482	0.725	0.470
낙선	79	27.89	8.68				

□ 환경정책 경향성 차이분석

환경분야와 관련하여 공약을 환경보존 위주의 정책과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분석한 결과 당선 그룹과 낙선 그룹간에 통계적으로나 평균 점수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988)

당선 그룹이든 낙선 그룹이든 평균 점수가 27점대를 기록하고 있어서 환경보존 위주의 정책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표 7-6-2-28> 환경보존 위주와 개발 위주 선호경향 차이분석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Levene's Test		t-test	
				F	Sig	t	Sig
당선	49	27.02	8.90	0.285	0.594	0.015	0.988
낙선	79	27.00	10.04				

□ 교통정책 경향성 차이분석

교통정책이 차량중심 위주의 교통정책인가 사람중심 선호 경향인가를 중심으로 공약을 분석했다. 당선 그룹과 낙선 그룹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유의도 0.139)

평균 점수로 분석한 결과 당선 그룹이 평균 점수가 25.43점이어서 낙선 그룹(평균점수 28.80)보다 높다. 즉 당선 그룹이 차량중심이며, 시설공급 위주의 교통정책을 지향하는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6-2-29> 교통정책의 차량중심과 사람중심 선호경향 차이분석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Levene's Test		t-test	
				F	Sig	t	Sig
당선	49	25.43	11.65	0.003	0.959	-1.148	0.139
낙선	79	28.80	12.94				

□ 공약의 구체성 차이분석

공약이 선언적 내용 위주로 되어 있는지, 구체적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당선 그룹과 낙선 그룹간에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유의도 0.110) 그러나, 낙선 그룹의 평균 점수(33.10)가 당선 그룹의 평균 점수(35.96) 보다 낮아 낙선 그룹의 공약이 당선 그룹의 공약 보다는 구체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6-2-30> 공약의 선언적 내용과 구체적 내용경향 차이분석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Levene's Test		t-test	
				F	Sig	t	Sig
당선	49	35.96	8.43	2.557	0.112	1.610	0.110
낙선	79	33.10	10.52				

□ 공약의 총계 차이분석

공약 관련 '단어의 총 수'와 '공약의 총 수'에 대해 당선 그룹과 낙선 그룹간의 차이분석을 실시했다. 통계적으로는 두 그룹간에 차이가 없다.(단어의 총 수 차이분석에서 유의도 0.662, 공약의 총 수 차이분석에서 유의도 0.524) 그러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볼 때 당선 그룹이 '단어의 총 수'나 '공약의 총 수'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즉 당선 그룹이 공약의 단어 수가 많고, 공약의 수도 많다.

'단어의 총 수'에서 당선 그룹은 평균 25.73개의 단어를 사용했고, 낙선 그룹

은 평균 24.03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공약의 총 수’에서 당선 그룹은 13.96개의 공약을 발표한 반면, 낙선 그룹은 평균 12.68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표 7-6-2-31> ‘단어의 총 수’와 ‘공약의 총 수’ 차이분석

구분	빈도	단어의 총수					공약의 총수				
		평균	Levene's Test		t-test		평균	Levene's Test		t-test	
			F	Sig	t	Sig		F	Sig	t	Sig
당선	49	25.73	0.489	0.486	0.438	0.662	13.96	0.004	0.950	0.638	0.524
낙선	79	24.03					12.68				

7. 득표율과 분야별 공약간의 상관관계분석

득표율과 분야별 공약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이 분석은 분야별 공약의 수나 단어의 수, 그 각각의 비율과 득표율간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기 위한 것이다. 6.27선거와 6.4선거에 대한 득표율과 공약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7-7-1> 득표율과 분야별 공약간의 상관관계분석

구 분		6.27선거		6.4선거	
		Pearson Correlation	Sig. (2-Tailed)	Pearson Correlation	Sig. (2-Tailed)
4·3문제관련	단어수	0.146	0.052	0.085	0.342
	단어비율	0.142	0.063	-0.038	0.673
	공약수	0.103	0.171	0.113	0.203
	공약비율	0.143	0.056	-0.018	0.838
정치·행정·재정관련	단어수	-0.120	0.111	-0.055	0.538
	단어비율	-0.120	0.111	-0.084	0.344
	공약수	-0.140	0.062	0.052	0.559
	공약비율	-0.140	0.062	-0.017	0.846
1차산업관련	단어수	0.046	0.544	0.081	0.361
	단어비율	0.121	0.109	0.186	0.036
	공약수	0.069	0.357	0.069	0.441
	공약비율	0.131	0.081	0.094	0.291
감귤산업관련	단어수	0.098	0.195	0.004	0.961
	단어비율	0.068	0.369	-0.102	0.254
	공약수	0.027	0.728	0.003	0.973
	공약비율	0.017	0.821	-0.106	0.232
지역(도시)경제·개발관련	단어수	0.089	0.239	-0.084	0.348
	단어비율	0.012	0.872	0.001	0.990
	공약수	0.088	0.241	0.064	0.470
	공약비율	0.004	0.960	0.037	0.679
교육관련	단어수	0.067	0.375	-0.036	0.684
	단어비율	0.047	0.530	-0.035	0.699
	공약수	0.111	0.141	-0.080	0.368
	공약비율	0.171	0.022	-0.023	0.794
사회·복지관련	단어수	0.028	0.711	0.096	0.283
	단어비율	-0.107	0.156	0.079	0.377
	공약수	-0.029	0.702	-0.005	0.953
	공약비율	-0.091	0.229	0.041	0.648

구 분		6.27선거		6.4선거	
		Pearson Correlation	Sig. (2-Tailed)	Pearson Correlation	Sig. (2-Tailed)
문화·예술· 체육관련	단어수	-0.077	0.310	0.077	0.387
	단어비율	-0.066	0.384	0.105	0.240
	공약수	-0.012	0.873	0.112	0.209
	공약비율	0.011	0.880	0.158	0.074
여성관련	단어수	0.020	0.787	0.050	0.572
	단어비율	-0.057	0.449	0.013	0.883
	공약수	0.044	0.555	-0.035	0.694
	공약비율	-0.001	0.994	0.037	0.680
관광관련	단어수	0.068	0.369	-0.015	0.870
	단어비율	0.059	0.430	-0.069	0.441
	공약수	0.019	0.801	-0.067	0.449
	공약비율	0.019	0.801	-0.122	0.170
교통관련	단어수	0.074	0.329	0.022	0.806
	단어비율	0.001	0.987	0.015	0.865
	공약수	0.111	0.141	0.050	0.578
	공약비율	0.038	0.614	0.079	0.376
환경관련	단어수	0.075	0.320	0.104	0.242
	단어비율	0.019	0.797	0.086	0.337
	공약수	0.034	0.650	0.082	0.360
	공약비율	-0.017	0.819	0.073	0.413
정보화관련	단어수	-0.041	0.560	0.173	0.051
	단어비율	-0.062	0.409	0.126	0.158
	공약수	0.038	0.618	0.077	0.388
	공약비율	-0.008	0.911	0.081	0.362
단어 수 총계		0.055	0.466	0.085	0.340
공약 수 총계		0.046	0.543	0.111	0.211
감귤정책의 자율과 관주도 선호 경향		-0.026	0.733	0.137	0.124
환경보존위주와 개발위주 선호 경향		0.078	0.304	-0.044	0.620
교통정책의 차량중심과 사람중심 선호 경향		-0.200	0.008	-0.115	0.197
공약의 선언적 내용과 구체적 내용 경향		0.069	0.361	0.188	0.034

상관관계분석시 그 값이 0.1-0.3의 범위에 있으면 '작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고, 0.4-0.6의 범위에 있으면 '중간정도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

으며, 0.7이상이면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6.27선거와 6.4선거에서 분야별 공약의 수나 단어의 수, 공약의 비율, 단어의 비율등이 득표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작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분석에서 특징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① 6.27선거의 경우 상관관계값이 0.1이상을 나타낸 분야는 4·3문제, 정치·행정·재정분야(음(-)의 상관관계), 교육분야 공약 수와 공약 비율, 그리고 교통정책의 차량중심과 사람중심 선호 경향 내용이다. 그 중에서 교통정책의 차량중심과 사람중심 선호 경향은 0.2점을 나타냈으나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서 녹색교통이나 사람중심의 교통정책을 주장한 후보자 보다는 도로를 확장하거나 신설 공급하는 내용을 주장한 후보자들의 득표율이 높았다.

② 6.4선거의 경우 상관관계값이 0.1이상인 항목은 문화·예술·체육분야 공약 수와 공약 비율, 관광 분야 공약 비율(음(-)의 상관관계), 정보화 분야 단어 수와 단어 비율, 감귤정책의 자율과 관 주도 선호경향, 교통정책의 차량중심과 사람중심 선호 경향(음(-)의 상관관계), 공약의 선언적 내용과 구체적 내용 경향 등이다.

③ 상관관계값이 0.1이상인 항목 중 1995년 6.27선거와 1998년 6.4선거에 대한 異時的(diachronic) 분석의 결과는 4·3문제내용, 정치·행정·재정분야, 교육분야 공약 수와 공약 비율, 교통정책의 차량중심과 사람중심 선호 경향 내용은 상관성이 줄어든 반면, 문화·예술·체육분야 공약 수와 공약 비율, 정보화 분야, 감귤정책의 자율과 관 주도 선호경향, 공약의 선언적 내용과 구체적 내용 경향 등은 상관관계 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④ 4개의 항목에 대해서 이슈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6.27선거시에는 교통정책의 차량중심과 사람중심 선호 경향에서만 상관관계가 0.2로서 0.1이상 값을 나타낸 반면, 6.4선거시에는 3개의 분야에서 0.1이상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감귤정책의 자율과 관 주도 선호경향, 교통정책의 차량중심과 사람중심 선호 경향, 공약의 선언적 내용과 구체적 내용 경향에서 0.1이상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6.4선거에서는 6.27선거 보다 공약의 이슈별 대립이 많았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제8장 정책선거를 위한 제언

1. 정책선거를 어렵게 하는 이유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를 분석할 때 전제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하나는 유권자들은 합리적 판단을 하며, 합리적으로 투표하려고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유권자들은 비합리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아 비합리적으로 투표할 것이라는 전제이다.

정책선거가 확립되지 못하는 이유를 송근원 교수는 유권자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제시하고 있다.²³⁾ 다음 항목중 (1)번에서 (6)번 항목까지는 유권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는 전제하에 제시한 정책선거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유들이며, 동조투표와 기권 등 (7)번 항목에서 (10)번 항목까지 이유는 유권자가 비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정책선거가 어려운 원인들이다.

1) 불충분한 정보 혹은 왜곡된 정보가 정책선거를 어렵게 한다.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정책 공약에 대해서 정확하고도 충분한 정보가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이슈경쟁을 통해서 왜곡된 정보가 제공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후보들이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거짓 공약이나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유권자들은 거짓 공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표를 던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공약의 허구성을 잘 판단하여 거짓말장이를 뽑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문제는 공약의 판단에 정확한 정보와 함께 전문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 국민으로서 누가 거짓 말쟁이인지 알 수 없다는 점에 있다. 이것은 국민들의 책임이 아니라 정책학자들과 언론의 책임이다. 이와 같이 공약의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정당을 보고 투표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당이 정책적 기초를 일관성있게 계속 유지하면서 선거 때마다 후보자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정당 이름이 바뀌며 이합집산을 계속하여왔다는 불행한 역사적 사실 때문에 후보자 대신 정당을 보고 선택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다른 말로 해서, 정당을 보고 후보를 판단해야 하는데, 선거 때마다 기존 정당은 분열되고 새로운 정당들이

23) 송근원, 「선거공약과 이슈전략」, 한울, 1992, pp.196-204.

급조되니 정당을 보고 투표한다는 것 역시 어불성설이다.

2)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공약이 많은 것도 문제다.

정책 문제의 판단에는 전문적 지식이나 분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유권자들이 선거공약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 예로서는 유권자들이 예산상으로 판단해 볼 때 자기 지역에 관한 선심성 공약이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만약 그 후보자가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똑 같은 선심성 공약을 제시하는 경우, 전부다 모아놓고 보면 예산상으로 보더라도 어느 곳에선가는 실현이 안되는 곳이 있을 수 있는데, 유권자들이 이를 판단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정책 공약들 가운데 대부분은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전문지식과 분석 방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3) 후보자들의 공약간에 큰 차이가 없어서 어렵다.

후보자들의 선거공약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선거공약을 보고 후보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된다. 곧, 후보자들 또는 정당들 간에 제시된 정책들의 이슈 입장에 차이가 없는 경우 선거공약에 대한 판단이 불필요해진다. 곧,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정책 공약을 내세우므로써 후보자들 사이의 이슈 입장에 차이가 없는 경우, 정책 이슈를 보고 투표하기 어렵게 된다.

4) 공약의 우선 순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 혼동스럽다.

유권자들이 설령 공약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책 공약에 관한 우선 순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선택적 갈등에 싸이게 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예컨대, 경제 안정에 관한 이슈와 외교에 관한 우선 순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선택적 갈등에 싸이게 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예컨대, 경제 안정에 관한 이슈와 외교에 관한 이슈는 A후보자의 정책 입장에 찬성하지만, 공해에 대한 이슈와 통일에 관한 정책 대안은 B후보자에게 찬성하는 경우, 유권자는 두 후보자 중 누구를 선택할지 갈등에 빠지는 경우를 들 수 있다.

5) 보상-처벌적 사고가 정책선거를 어렵게 한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미래의 약속에 대한 판단은 유보해 놓고, 선거를 통해 후보자의 과거 업적에 대한 회상적 판단에 따라 표를 던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설명하는 이론이 선거를 통한 보상-처벌 이론(electoral reward and punishment theory)이다. 과거의 잘 잘못에 대한 보상이나 처벌로서의 선거는 앞으로의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기대심리를 전제로 한다. 곧, ‘과거에 일(정책)을 잘 했으니 앞으로도 잘 할 것이다’ 또는 ‘과거에 잘못했으니, 다른 후보에게나 기대를 걸어보자’는 심리가 그 밑바닥에 깔려 있다. 따라서 정책대안의 제시와 그에 대한 이해 득실을 따져서 투표의 향방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지만 전혀 비합리성을 띤 투표형태는 아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정책 공약의 판단에서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 곧, 정확한 정보와 거짓 정보의 구별을 필요로 하며 판단 기준이 명백해야 하는데, 판단기준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업적과 잘못에 대한 결과를 놓고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고, 후보들사이의 객관적 비교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A후보는 이 점이 좋고, B후보는 저 점이 마음에 든다고 할 때 선택적 갈등에 쌓이게 된다. 더욱이 A후보는 이 점이 나쁘고 B후보는 저 점이 나쁘다고 판단할 때, 누구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

6) 사표방지를 위한 생각이 정책선거를 어렵게 한다.

유권자가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에 주목하여, 아무리 그 후보의 이슈 입장에 찬성한다 하여도 그 후보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면 그 후보에게 투표하지 아니하고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 가운데서 자신의 이슈 선호에 근접한 견해를 표명하는 후보를 골라 투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해주는 이론이 사표(死票)방지 이론인데, 이 이론에서는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 이슈 보다는 당선가능성을 우선시킨다. 즉, 유권자들은 당선가능성이 없는 후보에게 투표함으로써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없는 후보에게는 아무리 중요한 이슈에 대한 입장이 같다고 해도 표를 던지지 않고, 자신의 이슈 입장과 근접한 이슈 입장을 표명하는 당선 가능성이 있는 다른 후보자를 찾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7) 동조투표가 정책선거를 어렵게 한다.

일부 유권자들은 이슈에 대한 평가 보다는 후보자 개인의 매력이나 성격 등에 이끌리어 표를 던진다. 또는 가족이나 친구 또는 아는 사람이 ○○○를 찍는다고 하니까 그냥 그에게 투표하는 경우도 있고, 같은 고향, 같은 학교, 같은 종교, 또는 경제적인 배경이 같으니까 그에게 표를 던지는 수도 있다. 아니면, 물품을 받거나 돈에 매수되어 표를 던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론적으로 동조투표(conformity voting)이론 또는 준봉투표 이론으로 설명된다. 동조투표란 좁은 의미에서 볼 때, 유권자가 이슈에 관한 자신의 판단을 유보하고 가까운 사람의 의견에 좇아서 투표하는 것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지연, 학연, 출신성분 따위에 동조하여 표를 던지는 투표행태 뿐만 아니라, 금전이나 물품 등의 물질적 유인이나 관권, 폭력, 감정주의적 이념 및 분위기 등의 외부 압력에 반응하는 동원 투표의 형태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

8) 기권이 정책선거를 어렵게 한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동조투표의 형태로서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지연에 따른 동조투표와 여성들의 동조투표 성향이다. 한편 비합리적인 투표행태로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은 기권의 형태인데, 기권은 유권자가 후보자의 선택 행위를 포기해버리는 행위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가운데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논쟁이 되기도 했던 것은 유권자가 '나 하나의 표가 당선을 좌지우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보다 더 이익을 가져다주는 일을 하는 것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 보다는 낫다는 설명이다.

9) 하나의 기획사에서 여러 후보의 공약선정 작업 및 기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책선거가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의 하나는 선거공보물 제작 과정에 있다. 후보자들의 공보물을 기획사에 의뢰해서 작성하게 된다. 물론 공약 내용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편집만을 맡긴다면 후보자들이 공약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질 것이고 후보들 마다의 공약 내용이 차별화될 것이다. 그러나 실

태는 그렇지 못하다. 하나의 기획사에서 여러 후보의 공보물을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²⁴⁾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여러 후보의 공약 내용이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10) 선거꾼들이 활동이 정책선거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우재는 선거꾼들이 정책선거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²⁵⁾ 지방선거까지 포함해서 거의 한해에 한번 선거를 하게 됨에 따라 한번 선거를 뛰면 1-2년 먹고살 것을 챙기는 선거꾼들의 활동이 정책선거를 방해하고 있다는 논리이다. 정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금이 많은 쪽, 돈을 챙길 수 있는 후보에게 접근하여 활동하며, 후보자들을 현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24) 이러한 현상은 각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그 서류를 열람하기 어려워 어느 정도 중복되는지 파악할 수는 없지만 선거관리에 종사하는 공무원들과의 면접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다. 앞으로 이러한 자료를 확보하여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라 할 수 있다.

25) 이은진·김석준 외 저, 「한국의 정치와 선거문화」, 사회문화연구소, 1992, p.335.

2. 정책선거를 위한 대안 모색

1) 후보자들이 공약을 중심으로 한 이슈전략에 충실해야 한다.

송근원은 “후보자들의 ‘정직한 선거공약’이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를 결정하는, 아니 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임”을 밝히면서 후보자들이 이슈전략 중 선거공약의 형태를 띤 이슈전략에 충실할 때 정책선거는 가능하다고 제안하고 있다.²⁶⁾ 쉽게 표현하면 공약 위주의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그 의미 속에는 후보자들이 선거운동 기간에 긍정적 이슈와 부정적 이슈를 계속해서 제시하게 되는데 그 중 선거공약과 관련된 이슈로 승부를 걸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상대방이 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약으로 이슈전략을 사용할 때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그 아이디어가 새로운 대안이 되는 공약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TV토론 등을 통해 공약이나 정책이 이슈전략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광역의회의원과 기초의회의원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지방선거가 공약중심의 정책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도 공약이 중요한 이슈가 되어 논쟁의 펼쳐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덧붙여서 후보자들이 공약을 이슈화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지방선거가 정책선거가 되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2) 마을 자생단체들의 중립성을 지켜야 하고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정에 가서 후보가 인사를 드리려했는데 노인분이 돌아 앉아 버리더라. 나중에 선거 끝난 후 다시 가서 물어보았는데 말씀하시기를 “아, 그때는 누구를 다 찍기로 해버려서 돌아앉았어”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다. 고상호(6.4지방선거 시의원후보)후보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마을 혹은 마을단위 자생단체들, 즉,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 등이 가능하면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한다. 이들 단체들은 적극적으로 후보들을 초청해서 여러 가지 묻고, 토론할 기회를 주고 공약사항을 들은 후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²⁷⁾

26) 송근원, 「선거공약과 이슈전략」, 한울, 1992, p.191.

27) 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도범도민회, “6·4지방선거 어떻게 볼 것

3) 시의원들의 공약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시의원들은 핸드마이크로 가두 유세를 한다. 현장에 도의원이나 시장, 도지사 후보들이 지나가면서 로고송을 틀어버리면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고 지나간 다음이나 유세가 끝난후 하던지, 장소를 옮겨서 해야한다.

시의원들에게도 공약을 발표하고, 그 공약이 전달될 수 있는 제도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핸드마이크로 앰프시설을 한 광역의회의원 후보의 유세 공간을 같이 쓰도록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4) 시민단체는 객관적 기준하에 정책과 공약을 비판해야 한다.

시민단체는 중립적이면서 객관적 기준하에 정책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최근에 시민단체가 낙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새로이 해석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시민단체가 객관적 기준하에 정책을 비판해야 한다는 논제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시민단체가 객관적 기준하에 정책을 비판하게 되면 후보자들은 공약 제시에 신중을 기하게 될 것이며, 현실 적합한 공약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유권자들의 후보자 결정 과정에 도움을 주게 됨으로써 현실 적합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일조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책선거는 형성될 것이다.

덧붙여서 시민단체의 객관적 비판지향을 위한 과제를 제시한 사례를 살펴본다. 이지훈은 시민단체는 정책역량의 전문화를 이룩하여 정책에 대해 비판과 평가를 할 경우 후보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굴절되는 점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장성철은 선거중에 시민단체는 “너 누구편이냐’라는 말을 들어도 옳고 그름을 정확히 과감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²⁸⁾고 주장하고 있다.

김진호는 그의 논문에서 정당이나 후보자가 제시하는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²⁹⁾ 이를 참고하여 시민단체나 유권자들은 후보

인가,” 「제주 참여광장」, 1998.8, 통권 20호, p.28.

28) 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도범도민회, “6·4지방선거 어떻게 볼 것인가,” 「제주 참여광장」, 1998.8, 통권 20호, pp.24-25.

29) 김진호, “제16대 총선의 정책선거 실현을 위한 방안 - 정당·시민단체·유권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정당발전토론회 발표 논문, 1999.10.20, pp.35-36.

의 공약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공약은 현실성이 있는 것이며, 지켜질 수 있는 것인가?
- ② 비슷한 공약을 다른 이름으로 다시 공약화하는 경우는 없는가?
- ③ 이미 실현되었거나 정책화하고 있는 공약을 마치 새 정책인양 들고 나오지는 않았는가?
- ④ 국가차원에서도 하기 어려운 공약을 후보자가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는가?
- ⑤ 후보자의 소속 중앙당이 반대하는 정책을 개인 공약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는가?

6) 시민단체는 공약평가위원회(가칭)와 공약감시위원회(가칭)활동을 조직화 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선거 조성을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해 김진호는 공약평가위원회와 공약감시 위원회기능을 제시하고 있다.³⁰⁾

공약평가위원회에서는 각 후보자들의 공약이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 현실성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단순히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용 또는 홍보용 공약이 아닌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또 총선에는 다수의 후보자들이 출마하기 때문에 공약 ‘베끼기’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관계로 동일 지역구내 후보자간의 공약 비교 뿐만 아니라 전국적 또는 도(道)단위의 공약 비교를 통해 공약의 중첩성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다 과거에 발표하고 나왔던 공약이 무엇이었고 이번에 발표하고 나온 공약과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왜 다른지도 검토해야 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공약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마련과 그 현실적 타당성을 실제로 검증할 수 있는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도 구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공약감시위원회 활동의 활성화이다. 각 후보자들의 모든 공약과 발언록을 만들어 재선에 도전하는 사람이든 낙선했다가 재출마하는 사람이든 다음 선거의 정책대결을 유도하는 것이다. 우선 재선에 도전하는 사람은 입기 동안 정책들을 얼마나 실천했는가 또 지난 선거 때 제시했던 공약을 그대로 재탕하는 것은 아닌가, 과거에 실현하지 못했던 공약이 정당의 기본정책과 또

30) 김진호, “제16대 총선의 정책선거 실현을 위한 방안 - 정당·시민단체·유권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정당발전토론회 발표 논문, 1999.10.20, pp.31-32.

는 국가정책과 상충되는 것은 아니었는가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재출마하는 사람도 지난 선거의 공약을 그대로 발표하고 나왔는지 아니면 새로운 공약은 어떤 것이고 왜 달라졌는지 등에 대해서 조사 검토해야 할 것이다.

3. 맺음말

본 연구는 선거와 관련하여 그다지 흥미로운 연구는 아닐 수 있다. 결과론적 연구이며, 소극적 연구이지만 정책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진단해야 할 부분을 보다 분석적으로 진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분석 결과 공약의 수나, 공약속에 나타난 단어의 수 등이 득표율이나 당선에 미친 영향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과의 면접시 거의 모두가 공약의 내용과 당선과는 관계가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분석이 사실상 무의미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치와 선거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약의 내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적용했던 방법론을 사용하여 앞으로 실시하게 될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분석한다면 그 분석은 본 연구의 분석과 연결되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정리한 데이터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도 있다. 후보자들의 특성별 공약의 내용을 분석하는 일원 분산분석이 본 연구의 대상이었다면, 당선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특성별로 분류하고 그 후보들의 공약 내용을 분석하는 다차원 분산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미진한 부분은 차후 과제로 남겨 둔다.

□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경기개발연구원, 「일본의 지방정치와 의회」, 1998.
- 김광웅 편, 「한국의 선거정치학」, 나남, 1990.
- 김정근 엮음, 「학술연구에서 문화기술법이란 무엇인가」, 한울, 1998.
- 박승식, 「선거분석의 이론과 실제」, 대영문화사, 1991.
- 송근원, 「선거공약과 이슈전략」, 한울, 1992.
- 송근원, 「선거정치론」, 경성대학교 출판부, 1994.
- 안영섭, 「사회과학방법론총설」, 법문사, 1996.
- 윤천주, 「투표참여의 정치발전」,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 이갑윤, 「한국의 선거와 지역주의」, 오름, 1998.
-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나남, 1993.
- 이문교, 「제주언론과 지방자치」, 제주문화, 1997.
- 이은진·김석준 외 저, 「한국의 정치와 선거문화」, 사회문화연구소, 1992.
- 정대연, 「사회과학방법론 사전」, 백의출판사, 1997.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총람(1995. 6. 27)」, 1995.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결과(1998. 6. 4. 시행)」, 1998.
- 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사」, 1998.

2. 국내 논문 및 보고서

- 김남수, “6.4 제주지방선거의 특징 및 평가,” 「제주발전연구」 제2호, 1998.
- 김석준, “제주사회의 미래와 15대 총선,” 제주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 「제주리뷰」 창간호, 1996.
- 김성호, “외국의 지방선거제도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 김진호, “제16대 총선의 정책선거 실현을 위한 방안 - 정당·시민단체·유권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정당발전토론회 발표 논문, 1999.10.20,
- 송근원, “선거아젠다분석을 위한 기본틀,” 경성대학교, 「논문집」 제11집 3권, 1990.

- 송근원, “대통령 선거아젠다 분석 - 제13대 대통령선거 이슈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제24집 제1호, 1990.
- 송근원, “대통령 선거아젠다 분석 : 제14대 대통령선거 이슈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제28집 제1호, 1994.
- 송근원, “제14대 정책 공약의 비교평가 - 보건, 사회, 여성 분야,” 경성대학교, 「논문집」 제15집 1권, 1994.
- 이달곤, “과거 지방선거의 회고와 ‘98지방선거의 과제,”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주최, 제13차 지방자치 정책세미나 「건설한 지방선거문화의 정착방안」, 1998.3.5.
- 이문교,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신문의 보도성향에 관한 연구-제주지방 일간지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이 장, “14대 대통령선거 각 정당의 국방안보정책 공약에 대한 비교평가,”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5집, 1992.
- 정대연, “15대 총선과 제주 : 새로운 틀의 모색,” 제주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 「제주리뷰」 창간호, 1996.
- 조문부·양영철·김성준, “지방자치를 위한 선거행태에 관한 조사연구-제주도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30집(인문·사회과학 편), 1990.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도민 선거문화 의식조사연구,” 1997.12.
- 제주시,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98.6.4) 광역·기초단체장 및 도·시의원 후보자 공약자료집,” 1998.
- 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도범도민회, “6·4지방선거 어떻게 볼 것인가,” 「제주 참여광장」, 1998.8, 통권 20호.
- 충남발전연구원, “지방선거 평가와 지방자치의 과제,” 충남발전연구원 정기심포지엄, 1998.

3. 외국문헌

Richard Merrit, *Symbols of American Community 1735-1775*(New Haven, CT : Yale University Press, 1966).

Susan Welch, "The American Press and Indochina, 1950-1956," Richard Merritt, ed., *Communica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Urbana :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72).

Isaac, Stephen and Michael, William B., *Handbook in Research and Evaluation*,(California : Educational and Industrial Testing Services, 1995).

연 구 진		
· 연구책임	황 경 수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
· 연구보조	박미향 · 고태호 · 김경범 · 고광희 · 부석현	

정책선거문화 조성을 위한 공약분석

인 쇄 일 2000. 12

발 행 일 2000. 12

발 행 인 이 문 교(제주발전연구원장)

발 행 처 제주발전연구원

690-732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390

Tel : 064) 751~2166/7

Fax : 064) 751~2168

인 쇄 처 경신인쇄사(☎ 746-2044)

ISBN 89-88021-15-0-9334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出處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引用할 수 있으나
無斷轉載나 複製는 금합니다.